좌우익 종교인을 향한

불친절한 공개서한

Unfriendly Open Letter to Left and Right Wing Religious Person

이 시대의 정치 · 종교 · 지성에 대하여

ON THE POLITICS, RELIGION, AND INTELLECT OF OUR TIME

암흑망(暗黑網) 지음

좌우익 종교인을 향한
불친절한 공개서한

암흑망(暗黑網) 지음

목차

제1편

기독교: 피해자에서 문명의 설계자로

제2편

유대교: 금융, 디아스포라, 그리고 피해자의 역설

제3편

이슬람: 황금기의 기억과 극단화의 구조

제4편

아브라함, 악신(惡神), 그리고 인신공양으로서의 역사

제5편

종교라는 유전병과 낙관적 허무주의

제6편

종교 전반에 대한 전면적 회의: 아브라함을 넘어서

제7편

종교, 정치, 그리고 기생의 구조

제8편

전환: 해부 대상이 바뀐다

제9편

신 없는 세계에서 종교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

제10편

찰스 다윈을 두려워하는 자들 — 좌파와 우파의 공모

제11편

Gnon 포획 프로젝트

제12편

전통과 제도의 붕괴와 현대 남성이 처한 문제

제13편

종교라는 유전병의 기원: 진화, 유물론, 그리고 전통의 재해석

제14편

우로보로스: 문명의 수렴진화, 전쟁의 순환, 그리고 냉혹한 현실주의

저자 서문

좌우익 종교인을 향한 불친절한 공개서한

이 글은 처음부터 책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다. 막연히 떠돌던 생각의 파편들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문자로 굳어진 결과물이다. 독자를 위해 쓴 것도 아니고, 어떤 진영을 위해 쓴 것도 아니다. 그냥 썼다.

그러니 이 글에서 위안을 찾으려는 독자는 지금 당장 덮어도 좋다. 이 글은 당신을 달래지 않는다. 좌파 독자라면 당신이 신봉하는 평등과 해방의 서사가 해부될 것이다. 우파 독자라면 당신이 기대는 전통과 신앙이 냉정하게 분해될 것이다. 무신론자라면 당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신을 버렸다고 해서 종교적 구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니까.

불편하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 글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인간은 무리동물이고, 종교는 그 무리동물이 대규모 협력을 위해 만들어낸 진화적 해킹이었으며, 그 해킹이 권력과 결합하는 순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변질된다. 이것이 반복된다. 기독교도, 이슬람도, 유대교도, 그리고 그것들의 세속화된 후손인 진보주의도, 민족주의도, 모두 같은 패턴을 따른다. 피해자가 권력을 잡으면 가해자가 된다. 구원을 약속한 이념이 새로운 억압을 낳는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구조다.

이 글은 그 구조를 해부한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성역을 두지 않고, 도덕적 우월감도 없이.

한 가지만 미리 말해두겠다. 이 글을 읽고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것은 독자의 몫이다. 이 글이 오남용될 가능성도 있다. 선민의식의 근거로 읽힐 수도 있고, 허무주의의 면죄부로 읽힐 수도 있다.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면 내가 신적 존재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모든 안전수칙은 피로 쓰인다. 이 글도 그 피의 흔적을 추적하는 시도일 뿐이고, 그 시도 자체도 Gnon의 영토 안에 있다.

불친절하게 읽히기를 바란다. 친절했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다.

— **암흑망(暗黑網)**

좌우익 종교인을 향한 불친절한 공개서한

암흑망(暗黑網)

제1편

기독교: 피해자에서 문명의 설계자로

기독교: 피해자에서 문명의 설계자로

1. 시작하며: 탄압받던 자들의 이상한 유산(遺産)

역사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탄압받던 자가 권력을 잡으면 탄압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단순한 위선이라고 보기엔 너무 일관되게, 너무 많은 곳에서 반복된다. 구조적 필연에 가깝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 패턴의 가장 선명한 사례 중 하나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 기독교는 박해받는 소수 종파였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비밀 집회를 연다는 이유로, 공동체 내부에서 이상한 의식을 행한다는 소문으로 탄압받았다. 그 고통이 이 종교의 도덕적 정당성을 만들었다. 약자의 편에 서는 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는 신. 박해의 서사가 기독교의 핵심 정체성이 되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1세(CONSTANTINVS I)가 밀라노 칙령(Edictum Mediolanense, Edict of Milan)을 내린 313년 이후, 상황이 뒤집혔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인 종교가 되었고, 테오도시우스 1세(THEODOSIVS I) 치하에서는 아예 국교가 되었다. 탄압받던 자들이 국가 권력을 등에 업었다. 그 이후 벌어진 일은 예측 가능했다.

2. 이단 사냥: 탄압받던 자의 첫 번째 선택

권력을 손에 쥔 순간, 기독교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집요하게 한 일은 바로 내부의 적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제 로마 제국의 칼날로부터 해방된 그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당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동료 신자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희생양은 아리우스파(Arianism)였다. 알렉산드리아의 사제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성부에 의해 창조된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라고 주장했다. 신학적으로는 미묘한 차이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제1차 니케아 공의회(325년)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후원 아래 소집된 주교들은 이 교리를 단호하게 이단으로 규정하고, 아리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파문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로마의 원형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뜯겨 죽던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같은 기독교인들의 목에 '이단'이라는 낙인을 찍고 박해의 불을 지폈다. 아리우스파 신자들은 해임당하고, 추방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했으며, 심지어 폭력적인 군중의 공격을 받았다. 권력이 바뀌자마자,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전환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철저했다.

아리우스파만이 아니었다.

영지주의자들(Gnostics)은 물질세계를 악한 존재가 창조한 감옥으로 보고, 영적 지식(gnosis)을 통한 구원을 강조했다. 이들의 신비주의적이고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정통 교회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마니교도(Manichaeans)들은 빛과 어둠의 영원한 투쟁을 설파하며, 기독교와 조로아스터교, 불교의 요소를 뒤섞은 독자적인 종교를 만들었다. 도나투스파(Donatists)는 로마의 박해 기간 동안 신앙을 저버린 배교자(traditores)가 집전한 성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북아프리카에서 강력한 지지 기반을 형성했다. 펠라기우스파(Pelagians)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완성을 강조하며,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과 정면 충돌했다.

이 모든 그룹은 하나씩 공의회와 황제의 칙령, 주교들의 설교, 그리고 필요하다면 폭력적인 군중을 동원해 '이단'으로 낙인찍혔다. 그들의 책은 불태워졌고, 지도자들은 추방되거나 투옥되었으며, 공동체는 해체되었다. 일부는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졌고, 일부는 지하로 숨어들어 겨우 명맥을 유지했다.

아이러니는 극에 달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썼던 논리와 수사, 도구, 그리고 정당화 방식이 거의 그대로 답습되었다. 다만 이제는 '진정한 정통 신앙을 수호한다'는, 더 고귀하고 신성한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탄압받던 자가 권력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관용이 아니라, 더 정교하고 더 철저한 탄압의 기술이었다.

피해자의 언어로 가해자의 폭력을 미화하는 능력. 고통받은 역사를 무기로 삼아 새로운 고통을 정당화하는 기술.

이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한 뒤 발휘한, 가장 탁월하고도 가장 위험한 재능 중 하나였다.

3. 십자군, 마녀사냥, 종교재판: 일탈이 아닌 구조의 산물

십자군 전쟁을 단순한 ‘중세의 과오’나 ‘시대적 일탈’로 치부하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 혹은 지금의 도덕 기준으로 과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묘한 면죄부도 따라붙는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호도하는 말이다. 십자군은 기독교가 정치적 권력과 본격적으로 결합했을 때 드러난, 거의 필연적인 결과물이었다.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신의 뜻”이라며 외친 한 마디가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Deus vult(하느님이 원하신다)”라는 구호 아래, 유럽 전역에서 무장한 순례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이 향한 목표는 ‘성지 탈환’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가장 먼저 피로 물들인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들이었다. 라인강 유역의 슈파이어, 보름스, 마인츠 등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다. 십자군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라는 신학적 명분 아래, 가까운 유대인을 먼저 도륙하며 ‘성스러운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는 무슬림과 유대인, 동방 기독교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했다. 거리는 피로 범벅이 되었고, 성전 산에서는 피가 말의 고삐까지 차올랐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마녀사냥은 기독교 권력이 내부를 향한 폭력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였다. 15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까지, 유럽 전역에서 최소 4만에서 6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마녀’라는 이름으로 화형대에 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 미신이나 광기의 산물이 아니었다. 《악마의 망치(Malleus Maleficarum)》 같은 교회 공인 서적이 마녀의 존재와 처형 방법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했고, 교황의 칙령이 이를 공식 승인했다. 고문은 합법적 수단이었으며,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신의 심판’으로 포장되었다. 물에 빠뜨리는 물고문, 발을 불에 지지는 고문, 몸을 뒤틀리는 스트랩파도(Strappado) 등이 체계적으로 사용되었다. 한 번 의심받으면 무죄를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마녀사냥은 종교적 광기와 국가 권력, 그리고 지역 사회의 탐욕(재산 몰수)이 완벽하게 맞물린, 제도화된 대량 살육이었다.

그 정점에 종교재판이 있었다.

특히 스페인의 이단심문소(Inquisición)는 그 잔인함과 철저함으로 악명을 떨쳤다. 1478년 페르난도와 이사벨 여왕의 후원 아래 시작된 스페인 종교재판은, 단순히 공개적인

이단을 색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무슬림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강제 개종한 콘베르소(Conversos)와 모리스코(Moriscos)들조차 철저히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 진심으로 개종했는가, 아니면 겉으로만 위장한 것인가? ” 라는 질문 아래, 그들의 일상, 식습관, 기도 방식, 심지어 옷차림까지 감시당했다.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고, 자백하면 화형, 끝까지 부정하면 더 잔인한 고문 끝에 결국 처형되는 구조였다. 어느 길을 선택하든 살아남기 어려운, 철저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십자군이 외부를 향한 성전이었다면, 마녀사냥과 종교재판은 내부를 향한 성전이었다.

이 모든 잔혹 행위는 기독교의 ‘ 일탈 ’ 이 아니었다. 오히려 종교적 권위와 세속적 정치 권력이 한 몸이 되었을 때, 거의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구조적 결과물이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고귀한 명분 아래, 실제로는 권력의 순수성을, 즉 자신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폭력이 조직적으로 행사된 것이다.

피해자였던 자들이 권력을 잡자, 그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당했던 폭력을 그대로, 혹은 더 정교하게 재현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그 폭력은 ‘ 하느님의 뜻 ’ 이라는 가장 강력한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4. 아미쉬(Amish): 폐쇄성의 또 다른 얼굴

기독교의 폭력성은 언제나 피와 화염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극도로 조용하고, 부드럽고, ‘ 평화 ’ 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형태로도 존재한다. 아미쉬 공동체가 그 대표적인 예다.

그들은 평화주의를 가장 철저하게 실천하는 기독교 종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전쟁을 거부하고, 군 복무를 거부하며, 타인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평화의 이면에는 극도로 엄격하고 잔인한 폐쇄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아미쉬는 현대 문명과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다. 전기, 자동차, 인터넷, 텔레비전은 물론, 대부분의 현대 기술을 ‘ 세속의 유혹 ’ 으로 규정하고 거부한다. 그들은 18세기 수준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외부 세계를 가능한 한 멀리한다.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엄격히 통제되고, 외부인과의 결혼은 거의 금기시된다.

이 공동체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은 바로 ‘ 샤닝(Shunning) ’ 이다. 공동체의 규범, 특히 종교적 규율(Ordnung)을 어긴 구성원은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는다. 샤닝이 선포되면 가족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그 사람과 말 한마디 섞지 않는다. 식탁에 함께 앉지도, 사업을 하지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 살아 있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 존재하지 않는 사람 ’ 이 되는 것이다.

특히 잔인한 점은, 대부분의 아미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 외부의 세상을 거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공교육 대신 공동체가 운영하는 아주 기초적인 학교에서만 교육을 받으며, 8학년(대략 13~14세) 정도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상에 대한 선택지가 처음부터 극도로 제한된 채로 자란 아이에게, 샤닝은 단순한 사회적 배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존재의 말살에 가깝다. 가족과 공동체를 잃는다는 것은, 그들이 아는 유일한 세계 전체를 잃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탈출을 시도하는 젊은이들(특히 ‘럼스프링아(Rumspringa)’ 기간 동안 외부 세계를 잠시 맛본 후)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또는 규율을 어긴 자를 징계하기 위해 샤닝은 냉혹하게 집행된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과도 완전히 연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피로 맺어진 가족조차 종교적 규범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아미쉬는 종교가 공동체의 강한 결속을 만든다는 주장을 가장 순수하게 보여주는 사례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결속의 진짜 이름은 ‘배제’다.

내부와 외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외부 세계를 위험하고 타락한 것으로 규정하며, 내부 규범에서 벗어나는 자를 철저히 고립시킴으로써 결속을 유지한다. 이탈 비용을 극단적으로 높여, 사실상 이탈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다. 물리적 폭력은 없지만, 심리적・사회적・존재론적 폭력은 매우 강력하다.

이것은 아미쉬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종교 공동체, 특히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메커니즘이다. 결속은 언제나 배제를 통해 강화되고, 순결함은 언제나 추방을 통해 지켜진다. 평화로운 외관 아래에서 작동하는, 조용하지만 철저한 통제와 폭력. 그것이 아미쉬가 보여주는 기독교 폐쇄성의 또 다른 얼굴이다.

5. 복음주의와 미국 우파: 현대판 십자군의 구조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와 정치 우파, 특히 공화당과의 결합은 20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되어 이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생 관계가 되었다. 이것을 단순히 “종교가 정치를 이용한다”거나 “정치가 종교를 이용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다.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의 기생에 가까운 동맹이다. 복음주의는 대중 동원력과 도덕적 정당성을 제공하고, 우파 정치 세력은 그 힘을 법과 정책, 그리고 때로는 군사력으로 구현해 준다.

복음주의자들은 강력한 정치적 충성군을 형성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성경적 예언의 완성’으로 포장한다. 이러한 의제들은 더 이상 순수한 신학적 입장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교회를 정치 집회장으로 바꾸며, 수백만 명의

신자들을 선거의 날 ‘하느님의 군대’로 동원하는 강력한 정치 무기가 되었다.

네오콘(신보수주의) 세력은 여기에 딱 맞는 국제적 서사를 제공했다. 중동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식한다는 명분 아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정당화할 때, 그 뒤에는 기독교적 문명 우월주의가 은밀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흐르고 있었다. 이슬람 세계를 ‘어둠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서구 기독교 문명을 ‘빛’으로 내세우는 서사는 구조적으로 중세 십자군의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Deus vult(하느님이 원하신다)”가 “우리는 자유를 가져다준다”로 포장된 것뿐이었다.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종교적 열정이, 이제는 ‘테러와의 전쟁’과 ‘악의 축’이라는 세속적 언어로 재탄생했다.

흥미로운 점은, 네오콘의 해외 개입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팔레오콘(고전적 보수주의, Paleoconservatism)조차 이 구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다. 팔레오콘은 불필요한 해외 전쟁에 반대하고, 미국 우선주의와 국가주의를 강조한다. 그들은 네오콘의 중동 모험을 ‘제국의 과잉’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적·정체성 정치의 기반 역시 기독교적 서구 문명론 위에 단단히 서 있다.

반이민 정책, 반이슬람 정서, ‘서구 문명 수호’ 논리는 결국 “기독교 문명을 지켜야 한다”는 종교적 메타서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슬람을 ‘문화적 침략’으로 규정하고, 다문화주의를 ‘기독교 문명의 자살’로 보는 시각은, 복음주의자들과 팔레오콘 사이의 중요한 접점이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이란을 선제타격하며 ‘Operation Epic Fury’를 개시했다. 이란 내 반정부 세력 지원과 핵무기 개발 저지라는 명분 아래 시작된 이 작전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핵심 인사들을 제거하는 등 강력한 타격을 가했다. 네오콘의 중동 개입주의를 비판하던 팔레오콘적 국가주의가, 정작 권력을 잡자마자 비슷한 방식으로 ‘기독교 문명과 서구 질서’를 수호한다는 이름의 전쟁에 뛰어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십자군의 구조다.

종교적 열정과 정치적 실용주의, 문명론적 우월감과 군사력이 한데 뒤엉켜 ‘하느님의 나라’를 지킨다는 고귀한 명분 아래 폭력을 정당화한다. 복음주의가 제공하는 대중적 에너지는 우파 정치에 동원력을 주고, 우파 정치는 그 에너지를 실제 권력과 폭력으로 변환시킨다.

결국 중요한 것은 좌파 vs 우파, 네오콘 vs 팔레오콘의 이념적 차이가 아니다. 그것은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권력이 다시 한번 긴밀히 결합했을 때, 거의 필연적으로 재생산되는 폭력의 패턴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중세의 십자군이나 종교재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이번에는 ‘자유’, ‘민주주의’, ‘서구 문명’이라는 더 세련된 언어로 포장되었을 뿐이다.

6. 에큐메니컬 운동과 미국 좌파: 기독교는 우파만의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다. 기독교는 결코 미국 우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미국 리버럴리즘과 기독교의 유착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고, 깊고, 뿌리 깊은 관계다. 다만 그 형태가 우파와 다를 뿐이다.

그 대표적인 통로가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Ecumenical Movement), 즉 교회일치 운동이다. 이 운동은 단순히 서로 다른 교파들이 예배 형식이나 교리를 조금씩 양보하며 손을 잡자는 온건한 시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독교가 세속 권력과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보다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20세기 들어 주류 개신교(특히 감리교, 장로교, 성공회 등)는 ‘사회복음주의(Social Gospel)’라는 깃발 아래 인종 평등, 빈곤 퇴치, 노동자 권리, 국제 평화 같은 진보적 의제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았다. 마틴 루서 킹 주니어의 민권운동이 흑인 교회 공동체를 핵심 기반으로 삼았던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설교는 성경 구절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정의”와 “해방”이라는 종교적 언어가 민권 투쟁의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 기독교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피해자와 약자의 언어를 빌려 강력한 정치적 운동을 정당화하는 능력을 발휘했다.

가장 상징적인 순간은 1942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아메리카 말번(American Malvern)’ 회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그 해, 미국 주류 개신교 지도자들은 전후 세계 질서를 논의하는 에큐메니컬 회의를 열었다. 그곳에서 그들이 제시한 비전은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급진적이었다.

- 강력한 국제기구 설립(훗날 유엔으로 이어짐)
-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강력한 복지 국가 건설
- 인종 차별 철폐와 인종 평등 실현
- 경제적 재분배와 자본주의에 대한 강한 규제
- 식민지 해방과 세계 평화

이 의제들은 겉으로 보기엔 세속적 진보주의처럼 보였지만, 그 뿌리는 명백히 기독교적이었다. 그들은 이를 ‘ 하나님 나라의 실현 ’ 이자 ‘ 그리스도의 사회적 통치 ’ 로 규정했다. 즉, 교회가 더 이상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정치 세력으로 나서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이후 미국 리버럴리즘의 주요 정책 방향 — 뉴딜의 연장선, 민권운동, 복지 확대, 다문화주의, 국제주의 — 은 아메리카 말번에서 제시된 그 청사진과 놀라울 정도로 겹쳐진다. 미국 좌파의 도덕적 에너지와 이상주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기독교 사회복음주의에서 직접적으로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의미다.

아이러니는 명확하다.

우파가 복음주의를 통해 ‘ 도덕적 절대주의 ’ 와 ‘ 문명 수호 ’ 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추구했다면, 좌파는 에큐메니컬 운동과 사회복음주의를 통해 ‘ 정의 ’ 와 ‘ 평등 ’ , ‘ 해방 ’ 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추구했다. 둘 다 기독교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으며, 둘 다 종교적 권위를 정치적 실천으로 전환시키는 데 능숙했다.

결국 미국에서 기독교는 좌우 양쪽 모두에게 편리한 도구이자 정당성의 원천이었다. 우파에게는 전통과 질서와 정체성을, 좌파에게는 정의와 평등과 혁신의 언어를 제공했다.

기독교는 언제나 그랬듯, 권력의 편에 섰다. 다만 이번에는 진보적 언어로 치장한 채, 좌파 진영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7. 워키즘(Wokeism)의 기독교적 DNA

오늘날 미국 기독교 우파가 가장 맹렬하게 증오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규정하는 대상은 단연 워키즘(Wokeism,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에 경계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Woke)' 한다는 진보주의적 사회 운동이자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비난하는 워키즘을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면, 웃지 않을 수 없는 역설이 드러난다. 워키즘은 기독교의 가장 전형적인 사유 패턴과 도덕 구조를, 세속적 언어로 정교하게 옮겨 심은 복제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원죄와 속죄의 구조다. 기독교에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태생적으로 원죄를 지고 태어난다. 워키즘 역시 마찬가지다. 백인, 특히 서구 백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 역사적 원죄 ’ 를 짊어진다. 노예제, 식민지배, 백인 우월주의, 젠더 폭력 —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피부색과 문화에 새겨진 원죄로 규정된다. 이 죄는 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집단적으로 물려받는 것이다.

속죄의 방법도 기독교와 똑같다. 공개적인 참회, 끝없는 자기비판, 다양성 • 형평성 • 포용(DEI) 교육에 대한 맹목적 순응, 백인으로서의 ‘ 특권 ’ 을 부정하는

의식,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검열. 죄를 인정하고 평생 속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프로테스탄트의 ‘칭의’나 가톨릭의 고해성사보다 더 철저하고, 더 피곤한 세속 버전이다. 용서받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속죄는 영구적 의무가 된다.

두 번째로 명백한 것은 이단 사냥의 구조다. 중세 종교재판이 이단을 찾아내 처벌했다면, 오늘날 캔슬 컬처(Cancel Culture)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발언이나 태도를 가진 자를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한다. 한 번 낙인찍히면 공개 참회를 강요받고, 참회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지워지며, 지인들로부터까지 철저히 배제된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절차는 종교재판을 연상시킨다. “문제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가?” → “인정하고 참회하라” → “참회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영원히 추방한다.”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파괴되는 구조는 중세의 화형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불 대신 여론과 경제적 고립이라는 현대적 도구를 사용할 뿐이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미 19세기 말에 예리하게 지적했듯이, 신은 죽었을지 몰라도 기독교적 도덕은 죽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정의’, ‘평등’, ‘포용’, ‘안전’이라는 세속적 우상으로 갈아입고 부활했을 뿐이다. 죄의식, 희생양 찾기, 도덕적 우월감, 이단 색출, 영원한 속죄 요구 —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다듬어온 가장 강력하고 독성 있는 심리 메커니즘들이 워키즘이라는 새로운 종교 안에 고스란히 이식된 것이다.

가장 기가 막힌 아이러니는 바로 이것이다.

기독교 우파가 워키즘을 향해 “이것은 반기독교적 악마의 이데올로기다!”라고 외칠 때, 그들은 사실 자신의 그림자를 향해 침을 뱉고 있는 셈이다. 워키즘이 가진 가장 역겨운 요소들 — 원죄의 집단적 전가, 끝없는 도덕적 순찰, 이단에 대한 무자비한 배제, 도덕적 순수성을 무기로 한 권력 장악 — 은 모두 기독교가 수 세기 동안 완성시켜온 기술들이다.

워키즘은 기독교의 적이 아니라, 기독교가 낳은 또 다른 괴물이다. 신을 버렸다고 착각한 채, 기독교적 DNA를 가장 충실하게 계승한 세속 종교.

그리고 기독교 우파가 이 사실을 가장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다.

8. 영미권 리버럴리즘의 기독교적 기원

더 넓은 시야로 보면, 영미권 리버럴리즘 전체가 기독교라는 모태에서 태어난 또 하나의 세속 종교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현대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보편적 인권’,

‘ 평등 ’, ‘ 약자 보호 ’ 같은 가치들은 결코 계몽주의가 갑자기 창조한 혁신이 아니다. 그것들은 기독교 신학의 가장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린, 오래된 독을 세련된 병에 다시 담은 것에 불과하다.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보편적 인권부터 그렇다.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다는 주장은, 결국 “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다 ” 는 기독교 교리에서 직접 파생된 것이다. 신이 특별히 선택한 피조물이라는 종교적 환상 위에 ‘ 인권 ’ 이라는 세속적 우상이 세워졌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신을 조용히 뒷문으로 내보내고 인권 선언서를 작성했지만, 그 선언서의 뼈대는 여전히 기독교 신학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신이 죽은 뒤에도 그의 그림자는 계속 인간을 감시하고 있었다.

약자 보호의 윤리 역시 마찬가지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덕 윤리는 강자의 탁월함(arete), 용기, 지혜, 자제력을 미덕으로 삼았다. 약하고 실패한 자를 돌보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의 질서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나병 환자, 창녀, 노예까지도 ‘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 로 격상시켰다. 이는 고대 세계에 대한 진정한 혁명이 아니라, 약자의 원한(res sentiment)을 도덕화하고 강자에 대한 복수를 정당화하는 교묘한 전략이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강자와 성공한 자를 지속적으로 길들이고 도덕적으로 압박하는 메커니즘이 탄생한 것이다.

평등주의 역시 기독교가 심은 가장 위험한 씨앗 중 하나다. 갈라디아서 3:28의 유명한 구절 — “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다 ” — 은 당시로서는 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선언은 현실의 차이를 부정하고, 모든 위계와 자연적 구분을 해체하려는 초기 시도였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실제로 완전한 평등을 실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이념 자체는 후대에 강력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었다. 결국 이 평등주의는 세속화되어 현대 좌파의 평등 강박증으로 이어졌고, 모든 차이와 우위를 ‘ 차별 ’ 로 규정하는 광기 어린 논리로 발전했다.

오늘날 영미권에서 좌파와 우파가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은, 사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가 유산을 두고 다투는 추한 광경에 가깝다.

우파는 기독교의 권위, 질서, 위계, 전통적 도덕, 죄와 벌의 논리를 강조한다. 좌파는 기독교의 평등주의, 약자 숭배, 보편적 형제애(fraternity), 희생양 찾기, 원죄와 속죄의 구조를 강조한다.

둘 다 같은 책을 들고 있다. 다만 한쪽은 구약과 바울의 엄격한 구절을, 다른 한쪽은 예수의 자비와 약자 편드는 구절을 골라 들고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을 뿐이다.

영미권 리버럴리즘은 기독교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교활하고 지속력 강한 요소들만을 골라 세속적 언어로 재포장한 후예일 뿐이다.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지 오래되었지만, 기독교가 심어놓은 도덕 바이러스는 여전히 영미 사회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다. 좌파도 우파도, 결국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서로를 ‘악’이라고 규정하며 싸우고 있는, 불쌍하고도 역겨운 광경이다.

이것이 영미권 리버럴리즘의 진짜 기원이다. 고귀한 계몽의 산물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오래된 종교가 변장한 또 다른 형태의 지배 이데올로기.

9. 기독교와 이슬람 불체자: 자유주의의 자기모순

기독교적 자유주의가 낳은 가장 역겹고도 우스꽝스러운 아이러니 중 하나가 바로 이슬람 이민자 문제다. 서구가 스스로를 “인도적 가치의 수호자”라고 자랑스럽게 외치며 저지른 자해 행위의 전형이다.

서구 기독교 전통에서 비롯된 보편적 인도주의(Humanitarianism)는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강력한 도덕적 명령으로 작용해왔다. 이 명령은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 발생하는 전쟁, 테러, 독재의 피해자들을 유럽과 미국으로 대규모로 끌어들이는 주요한 윤리적 근거가 되었다.

아이러니는 극에 달한다.

네오콘과 기독교 우파는 “악의 축”, “이슬람 파시즘”, “문명 간 충돌”이라는 이름 아래 중동에 폭탄을 퍼붓고, 정권을 전복시키고, 사회를 해체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들은 기독교 문명의 우월성과 서구 가치의 전파를 명분으로 삼아 전쟁을 정당화했다. 그런데 같은 기독교적 뿌리에서 나온 리버럴 진영은, 그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수백만 명의 난민과 이민자들을 “인도적 의무”라는 이름으로 서구 사회 안으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을 쏜 손과 그 총에 맞아 피 흘리는 자를 치료하는 손이, 결국 같은 기독교라는 몸통에 붙어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적 보편주의는 여기서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모순을 드러낸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다”는 교리는, 논리적으로 확장되면 문화적·종교적 차이를 초월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까지도 포용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서구 사회는 자신들의 가치와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집단을 대규모로 받아들이는 자살적 정책을 ‘도덕적 우월성’의 증거로 포장하게 되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많은 이슬람 이민자들이 서구의 관용을 이용하면서도 서구의 핵심 가치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샤리아법 도입을 요구하고,

평행 사회를 구축하며, 서구의 관용을 ‘약함’으로 해석한다.

기독교적 자유주의는 이를 두고 “다문화주의”와 “포용”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미화한다. 그러나 현실은 처참하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의 특정 지역에서는 이미 이슬람화가 진행 중이며, 이슬람 문화가 서구 사회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가 낳은 자유주의의 최종적 자기모순이다.

자신이 퍼뜨린 전쟁의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 강박 때문에, 결국 자신의 문명을 해체하는 세력을 자국 내로 초대한다. 문명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문명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그 문명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길을 연다.

총을 든 네오콘과 상처를 어루만지는 리버럴은, 결국 같은 기독교 DNA를 공유하는 형제자매다. 한쪽은 폭력으로, 다른 한쪽은 관용으로, 같은 결과를 향해 서구 문명을 갉아먹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보편주의가 선사하는, 가장 잔인하고도 가장 우스운 자기파괴의 드라마이다. 고귀한 인도주의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문명적 자결(自決).

10. 술 금지, 게임 규제, 성인물 탄압: 일상 속 기독교 권력

종교의 정치적 개입은 거창한 전쟁이나 외교 무대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끈질기게, 그리고 은밀하게 나타나는 곳은 우리 일상의 가장 사소한 영역—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보고 느끼는가—이다. 기독교, 특히 개신교 근본주의 세력은 역사적으로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개인의 신앙 영역에 머물게 하지 않고, 국가의 법과 제도를 통해 타인의 삶 전체를 규율하려는 시도를 반복해왔다.

미국의 금주법(Prohibition, 1920~1933)은 그 대표적인 승리이자 실패 사례다. 19세기 후반부터 여성기독교금주연맹(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과 안티 살롱 리그(Anti - Saloon League) 같은 기독교 단체들은 술을 단순한 기호품이 아닌 ‘도덕적 악’, ‘가정 파괴의 주범’, ‘사회적 죄악의 근원’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운동을 벌였다. 제2차 대각성운동의 여파로 강화된 복음주의 열정은 정치 로비로 이어졌고, 결국 1919년 수정헌법 제18조를 통해 알코올의 제조·판매·운송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헌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들은 “술만 없애면 범죄와 빈곤, 가정 폭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알코올 소비는 오히려 지하로 숨어들었고, 밀주(bootlegging)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알 카포네를 비롯한 조직범죄 syndicates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기며 권력을 키웠고, 부패한 경찰과 정치인들이 그들과 결탁했다. 합법적 주류 산업이 사라지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증발했고, 세수도 급감했다. 결국 1933년 수정헌법 제21조로

폐지될 때까지, 금주법은 ‘ 도덕적 이상 ’ 이 불러온 현실적 재앙으로 기록되었다.

이와 유사한 패턴은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게임 규제와 성인물 탄압 관련 입법은 기독교적 도덕관이 법제화되어 개인의 여가와 소비를 통제하려는 또 다른 시도다.

게임의 경우, 폭력적·성적 콘텐츠를 ‘ 청소년 타락 ’ 이나 ‘ 도덕적 해악 ’ 으로 프레임 짓고, 등급 강화, 판매 제한, 또는 특정 장르 자체에 대한 검열 압력을 행사해왔다. 기독교 보수 단체들은 게임을 ‘ 중독의 온상 ’ 이자 ‘ 가족 가치 파괴자 ’ 로 규정하며, 정치권에 로비를 통해 콘텐츠 규제를 요구한다. 이는 과거 금주 운동이 술을 ‘ 사회악 ’ 으로 몰아세운 논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문화 소비를, 특정 종교의 윤리 기준으로 재단하고 국가 권력을 동원해 제한하려는 태도다.

성인물(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탄압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레이건 시대 미국 법무장관 포르노그래피 위원회(Meese Commission)부터 최근까지, 기독교 우파 단체들(예: American Family Association, Focus on the Family 등)이 포르노를 ‘ 공중보건 위기 ’ 로 선포하고, 연령 확인 의무화, 결제 제한, 플랫폼 규제, 심지어 완전 금지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한국에서도 기독교계가 주도하거나 강하게 지지하는 형태로 게임 셧다운제, 성인 콘텐츠 규제, 온라인 검열 강화 움직임이 나타난 바 있다.

이들은 “ 우리 신앙에 따라 우리는 보지 않겠다 ” 에서 멈추지 않는다. “ 너희도 보지 못하게 하겠다 ” 로 나아간다. 개인의 도덕적 선택과 신앙적 자기 규율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입법화하여 비신자나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자유 사회에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종교적 도덕으로 재단하는 행위는, 결국 금주법처럼 의도치 않은 역효과(지하 시장 확대, 표현 억압, 블랙마켓 성장, 문화적 다양성 상실)를 낳기 쉽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이 ‘ 경계 넘기 ’ 를 반복해왔다. 자신의 신앙을 개인 영역에 가두지 않고, 국가의 칼을 빌려 타인의 일상을 통제하려는 본능. 술 한 잔, 게임 한 판, 성인 콘텐츠 한 편까지도 ‘ 죄 ’ 로 규정하고 법으로 막으려는 태도는, 결국 사회를 더 자유롭고 도덕적으로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범죄를 키우고, 저항을 부르고, 문화적 다양성을 위축시켰다.

진정한 세속적 자유란, 누군가의 신앙이 타인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종교가 정치 권력을 통해 일상을 장악하려 할 때, 역사는 언제나 경고한다: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11. 기독교와 페미니즘의 불편한 결탁: 남성에게만 가해지는 가부장제의 올가미

기독교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현대 서구 정치에서 페미니즘과 손을 잡는 가장 교묘한 지점은 바로 성 역할과 책임의 선택적 재편이다. 여기서 기독교는 오랜 가부장제 전통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도, 페미니즘의 언어를 빌려와 남성에게만 무거운 도덕적•법적 짐을 지우고, 여성에게는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양보하는 기이한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냈다. 피해자 서사와 약자 보호라는 기독교 고유의 DNA가 페미니즘의 ‘가부장제 타파’ 프레임과 만나면서, 남성은 영원한 잠재적 가해자이자 책임의 주체로, 여성은 보호와 해방의 대상으로 재정의되는 것이다.

우파 기독교 진영에서는 전통적인 보완주의(Complementarianism)를 내세운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안에서 본질적으로 동등하지만, 역할은 다르다는 주장이다. 남편은 가정의 영적 머리(headship)로서 희생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아내는 그 리더십에 순종하며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희생적 리더십’은 현실에서 종종 남성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으로 왜곡되어 적용된다. 남편이 가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 가정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남성에게 돌아가고, 아내의 불만이나 이혼 요구는 ‘가부장제 피해’로 미화된다. 반대로 여성의 선택권(커리어, 출산 여부, 이혼 등)은 페미니즘적 프레임으로 적극 옹호되면서도, 기독교적 ‘가족 가치’라는 이름으로 보호받는다.

좌파•리버럴 기독교 진영에서는 더 노골적이다. 사회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 페미니즘과 결합한 그들은, 예수의 ‘약자 편 들기’와 ‘정의’를 앞세워 여성의 권리 확대를 ‘하나님 나라의 실현’으로 포장한다. 여기서 가부장제는 단순한 문화적 잔재가 아니라, 원죄에 가까운 구조적 악으로 규정된다. 남성은 태생적으로 특권을 누려온 집단적 가해자이며, 여성은 그 구조 속에서 피해를 입은 존재다. 따라서 남성에게는 끝없는 자기반성과 책임(감정 노동, 가사 분담, 경제적 부양, 성적 자기통제 등)을 요구하면서, 여성에게는 ‘자율성’과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무제한적인 권리를 양보한다. 이혼, 낙태, 성적 자유에 대한 관용적 태도도 이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가장 선명한 결탁의 장면은 안티포르노 운동이다.

1980년대 레이건 시대의 Meese Commission부터 오늘날까지, 기독교 우파 단체들(American Family Association, Focus on the Family, NCOSE 등)은 포르노를 ‘공중보건 위기’이자 ‘가족 파괴의 주범’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규제를 요구해왔다. 놀라운 점은 이들이 안티포르노 페미니즘 세력(Andrea Dworkin, Catharine MacKinnon 계열, 그리고 현대의 Gail Dines 등)과 실질적인 ‘frenemies’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이다. 둘 다 포르노를 여성 착취와 객체화의 산물로 본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측은 “죄악”과 “도덕적 타락”이라는 언어로, 페미니즘 측은 “젠더 폭력”과 “여성 억압”이라는 언어로 동일한 대상을 공격했다. 결과적으로 남성의 성적 욕망 자체가

문제시되고, 남성은 포르노 소비자이자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히며 규제와 자기검열의 대상이 된다. 여성의 성적 표현이나 소비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다뤄지거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는다.

이 결탁은 기독교의 오랜 재능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과거에는 이단을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마녀를 ‘악마 숭배’라는 이름으로 사냥했다면, 지금은 남성을 ‘가부장제의 수혜자’이자 ‘독성 남성성(toxic masculinity)의 소유자’라는 이름으로 도덕적으로 옭아맨다. 여성에게는 피해자 서사와 권리를, 남성에게는 원죄에 가까운 책임과 속죄를 선택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기독교 우파는 “전통적 가족 가치 수호”를 외치며 페미니즘의 과도한 면을 비판하지만, 정작 남성에게만 ‘그리스도 같은 희생적 리더십’을 강요하는 순간 이미 페미니즘의 프레임을 일부 수용한 셈이다. 좌파 기독교는 더 솔직하게 페미니즘을 ‘해방 신학’의 일부로 끌어안으며, 남성 전체를 구조적 가해자로 규정한다.

결국 양쪽 모두에서 남성은 영원한 채무자가 된다. 과거 가부장제 아래에서 누렸다는 ‘특권’에 대한 영구적인 속죄를 요구받으며, 동시에 현대 페미니즘의 모든 권리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이중의 올가미에 걸린다. 여성은 피해자와 권리 주체로서 거의 무오류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것이 기독교가 좌우를 넘나들며 현대 서구 사회에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교활한 적응 전략이다. 자신의 가부장적 유산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도, 페미니즘의 도덕적 에너지를 빌려와 남성의 자율성과 책임을 선택적으로 억압하는 기술. 피해자였던 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 보여준 패턴—자신이 당했던 폭력을 더 정교하게 재현하는 패턴—은 여기서도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 불편한 결탁은 워키즘의 원죄 구조와도 깊이 연결된다. 기독교가 심어놓은 ‘원죄와 속죄’의 메커니즘이, 이제 ‘가부장제 원죄’라는 세속 버전으로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기독교는 이렇게 해서도 여전히, 타인의 삶을 도덕적으로 통제하고 재설계하려는 본능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에는 ‘여성 해방’과 ‘가족 보호’라는 더 세련된 언어로 포장되었을 뿐이다.

12. 피해자에서 설계자로: 패턴의 완성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의 일관된 패턴이 보인다.

탄압받는 소수 → 권력 획득 → 내부 이단 정리 → 외부 이교도 정벌 → 일상의 도덕 통제 → 그 과정에서 생산된 가치들이 세속화되어 새로운 형태로 살아남음 → 그 세속화된

가치들이 다시 기독교와 충돌.

기독교가 인류에게 미친 영향은 복잡하게 얽혀있다. 근대 과학, 대학, 법 체계 등이 기독교 문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문명을 만들어낸 과정에서 지불된 대가(십자군, 마녀사냥, 식민지 정복, 이단 탄압)도 그 문명의 일부다. 긍정적 유산과 부정적 유산은 분리되지 않는다. 같은 구조에서 함께 나왔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질문은 이것이다. 그 대가가 필연적이었을까?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 없이도 문명은 발전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기독교라는 이 강력한 집단적 관념 없이는 현재 수준의 문명적 통합 자체가 불가능했을까?

2편에서는 유대교로 넘어간다. 기독교가 만들어낸 조건 속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근대 세계의 또 다른 핵심 축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추적한다.

- 참고문헌 -

에드워드 기번, 『로마제국 쇠망사(The 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편입되고 국교화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단 탄압과 제국 쇠퇴의 연관성을 방대한 역사적 서술로 추적한 고전.

버트런드 러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Why I Am Not a Christian)』 — 기독교의 도덕적 논리와 역사적 행위 사이의 모순을 철학적으로 해부한 에세이. 기독교적 도덕 규범이 실제로 인류에게 어떻게 작동해왔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한다.

R.I. Moore, 『The Formation of a Persecuting Society: Authority and Deviance in Western Europe 950 - 1250』 — 중세 유럽에서 ‘박해 사회(persecuting society)’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단・유대인・마녀 등에 대한 체계적 억압이 권력 구조와 어떻게 결합되었는지를 날카롭게 분석한 현대 고전. 기독교 권력이 내부・외부를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구조적으로 보여준다.

Henry Charles Lea, 『A History of the Inquisition of Spain』 (또는 그의 Inquisition 관련 다권 저작) — 스페인 종교재판의 잔인한 운영과 정치・종교 권력의 결합을 방대한 사료로 고증한 19세기 고전. 여전히 종교재판 연구의 필수 참고서로 꼽힌다.

Robert W. Thurston, 『The Witch Hunts: A History of the Witch Persecution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 마녀사냥을 단순한 광기가 아닌, 교회・국가・지역 사회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제도적 폭력으로 분석한다. 《악마의 망치》의 역할과 고문의 합법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Christopher Tyerman, 『God ' s War: A New History of the Crusades』 — 십자군 전쟁을 가장 포괄적이고 최근의 관점에서 다룬 단권사. 종교적 열정과 정치・경제적 동기가 어떻게 뒤엉켜 대규모 폭력을 낳았는지를 냉철하게 서술한다.

J. Richard Middleton, 『The Liberating Image: The Imago Dei in Genesis 1』 — "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 교리가 서구 인권 사상과 평등주의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구. 기독교 신학이 근대 리버럴리즘의 뿌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저작.

J. Gresham Machen, 『Christianity and Liberalism』 (1923) — 미국 주류 개신교의 사회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운동을 날카롭게 비판한 고전. 사회복음주의가 기독교를 정치 이데올로기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지적하며, 좌파적 기독교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Samuel L. Perry, 『Addicted to Lust: Pornography in the Lives of Conservative Protestants』 —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의 포르노그래피 소비 실태와, 동시에 그들이 주도하는 성인물 규제 운동의 아이러니를 사회학적으로 분석. 일상 속 기독교 권력에 대한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Nancy R. Pearcey, 『The Toxic War on Masculinity: How Christianity Reconciles the Sexes』(Baker Books, 2023) — 현대 기독교 내에서 ' toxic masculinity ' 담론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그리고 복음주의가 전통적 남성성과 페미니즘적 비판 사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역사적・사회학적으로 추적한 저작. 기독교가 남성에게 ' 희생적 리더십 ' 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 책임을 지우는 현상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Robin West, " The Feminist - Conservative Anti - Pornography Alliance and the 1986 Attorney General ' s Commission on Pornography Report " (American Bar Foundation Research Journal, 1987) — 1980년대 레이건 시대 Meese Commission을 중심으로, 반포르노 페미니즘(Andrea Dworkin, Catharine MacKinnon 계열)과 보수 기독교 세력이 어떻게 실질적 동맹을 맺었는지를 상세히 분석한 논문. 안티포르노 운동의 역사적 결탁을 가장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다.

Nancy Whittier, " Rethinking Coalitions: Anti - Pornography Feminists, Conservatives, and the 1980s " (Social Problems 저널 관련 연구) — 반포르노 페미니즘과 종교 보수주의자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동기로 동일한 적(포르노)을 공격하며 연합했는지, 그리고 그 정치적 결과물을 사회학적으로 고찰한 연구.

Carol A. Jackson, " Strange Confluences: Radical Feminism and Evangelical Christianity in the Anti - Trafficking and Anti - Pornography Movements " (2017) — 급진 페미니즘과 복음주의 기독교가 반포르노 • 반성매매 운동에서 어떻게 만나고, 서로의 언어를 빌려 쓰는지 분석. NCOSE(National Center on Sexual Exploitation) 같은 현대 기독교 주도 단체와 페미니즘 활동가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Helen Pluckrose & James Lindsay, 『Cynical Theories』(2020) — 워키즘과 페미니즘의 발전 과정에서 기독교적 원죄 • 속죄 구조가 어떻게 세속화되어 ' 가부장제 원죄 ' 로 재포장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

제2편

유대교: 금융, 디아스포라, 그리고 피해자의 역설

유대교: 금융, 디아스포라, 그리고 피해자의 역설

1. 기묘한 민족

유대인은 정의하기 어려운 집단이다. 혈통으로 규정하자니 수천 년의 디아스포라를 거치며 현지인의 피가 섞였고, 언어로 규정하자니 히브리어, 이디시어, 라디노어, 아랍어, 그리고 정착한 나라의 언어까지 제각각이다. 지역으로 규정하자니 말할 것도 없다.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인도 기타 등등. 유대인 공동체는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그렇다면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묶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종교다. 유대교라는 신앙 공동체, 그리고 그 신앙에서 파생된 문화적 정체성. 유대인은 종교가 민족을 만들어낸 역사상 가장 선명한 사례다. 국가도 없고, 공통 언어도 없고, 단일 혈통도 없는데 수천 년 동안 하나의 집단으로 존속했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현상이다.

고대 이스라엘 왕국이 기원전 722년(북이스라엘)과 기원전 586년(남유다)에 각각 멸망하고, 기원후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유대인들은 본격적인 디아스포라의 삶을 시작했다. 고향 없이 떠도는 민족. 그런데 그 방랑의 시간이 역설적으로 유대교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국가 없이 신앙으로만 정체성을 유지해야 했으니, 종교적 결속이 생존의 조건이 되었다.

2. 중세 유럽의 유대인: 기독교가 만든 조건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의 삶은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있었다. 그 제약의 대부분은 기독교 교리와 교회의 영향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유대인은 토지 소유가 철저히 제한되었다. 중세 봉건제 사회의 핵심은 토지를 둘러싼 기독교적 충성 서약(vassalage)이었다. 영주는 신하에게 토지를 하사하며 충성과 군 복무를 요구했는데, 유대인은 ‘ 이교도 ’ 또는 ‘ 그리스도를 죽인 자 ’ 로 여겨져 이 서약 체계 자체에서 배제되었다. 결과적으로 농업, 즉 당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기반에서 유대인은 거의 완전히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지역(예: 스페인 일부)에서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가 허용된 적이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대다수 유럽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

장인 길드(guild)에도 가입할 수 없었다. 중세 길드는 단순한 직업 조합이 아니라, 특정 수호 성인을 모시고 미사를 드리며 기독교적 형제애를 강조하는 종교적 공동체였다. 유대인의 참여는 이러한 종교적 성격 때문에 근본적으로 배제되었다. 따라서 직물, 금속, 가죽, 목공 등 제조업과 수공업 분야에서도 유대인은 체계적으로 소외되었다. 공직이나 관직 역시 마찬가지였다. 유대인은 기독교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거의 완전히 배제된 채, 도시의 변두리나 별도의 구역(게토의 전신)에서 살아야 했다.

군 복무 역시 제한적이었다. 봉건제 하에서 군대는 토지 소유와 충성 서약으로 연결된 기사 계급의 전유물이었고, 유대인은 무기 소지나 기사 작위 취득이 금지되거나 강하게 억제되었다. 농업, 제조업, 군사 활동이라는 중세 사회의 핵심 경제 • 사회적 축에서 유대인이 구조적으로 밀려난 것이다.

이러한 배제 속에서 남은 실질적인 선택지는 상업과 금융, 특히 대출업(moneylending)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기독교 교리는 같은 신자 간 이자 수취를 엄격히 금지했다. 구약성경(레위기, 신명기)과 신약(누가복음 6:35)을 근거로,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자를 ‘ 고리대금(usury) ’ 으로 규정하고 죄악으로 여겼다. 제3차 라테란 공의회(1179) 등에서 이 금지는 더욱 강화되었고, 위반 시 파문까지 내려졌다. 그러나 성장하는 중세 경제는 신용과 자본 대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했다. 성당 • 수도원 건설, 전쟁 비용, 무역 확대, 농민의 종자 구입 등에서 돈이 필요했지만 기독교인들은 공개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없었다.

이 모순을 해결하는 ‘ 편리한 ’ 방법이 유대인이었다. 교회와 세속 군주들은 유대인에게 기독교인에게 금지된 역할을 맡겼다. 유대교 율법(신명기 23:20 - 21)에서는 “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받을 수 있다 ” 는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유대인 공동체 내부에서는 서로에게 이자를 받지 않았으나, 기독교인(이방인)에게는

합법적으로 이자를 부과할 수 있었다. 왕과 귀족들은 유대인을 보호하며 이 대출업을 장려하기도 했는데, 그 대가로 높은 세금을 징수하거나 필요 시 재산을 몰수하는 식으로 이익을 취했다(예: 영국의 유대인 재산 압류와 1290년 추방).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수백 년에 걸쳐 금융 분야에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게 되었다. 단순한 고리대금이 아니라, 신용 평가, 어음・환어음 거래, 환전, 국제 송금 네트워크, 복리 계산, 위험 분산 등 당시로서는 고도의 지식과 신뢰를 요구하는 기술들이었다. 유대인 상인들은 이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통해 지중해와 유럽 전역에 연결되어 있었고, 문해율이 높았으며(탈무드 교육 전통), 가족・공동체 내에서 기술이 전수되었다. 기독교 사회가 유대인을 경제적 ‘ 틈새 ’ 로 몰아넣었고, 유대인들은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탁월한 능력을 개발한 것이다.

이 구조는 유대인에게 양면성을 가져왔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생존 수단을 제공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 고리대금업자 ’ 라는 사회적 낙인과 대중의 원망, 때로는 폭력과 추방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 중세 유럽의 유대인 역사는 기독교가 만든 제약 조건 속에서 강제된 전문화의 역사이기도 하다.

3. 미움받는 이유의 아이러니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이 금융업, 특히 대출업을 하게 된 것은 기독교 사회가 그들을 그 자리로 밀어 넣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사실이 유대인 혐오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작용했다. “ 돈을 밝힌다, 교활하다, 기독교인을 착취한다 ” 는 비난의 대부분은 기독교 교리가 만들어낸 구조적 조건의 직접적인 산물이었다.

기독교 교리는 같은 신자 간 이자 수취를 ‘ 고리대금(usury) ’ 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금지했다. 제3차・제4차 라테란 공의회 등을 통해 이 금지는 교회법으로 강화되었고, 이를 어기는 기독교인은 파문이나 사회적 제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중세 경제는 성장하면서 신용과 자본 대출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 전쟁 비용, 성당 건설, 무역 확대, 농민의 종자나 도구 구입, 귀족의 사치와 정치 활동 등에서 돈이 돌지 않으면 사회 자체가 마비되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와 세속 권력은 유대인을 ‘ 대리 고리대금업자 ’ 로 활용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 공동체 내부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았으나, 이방인(기독교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유대율법 해석을 근거로 이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지만, 동시에 ‘ 착취자 ’ 라는 낙인이 찍혔다. 이 아이러니는 명확했다. 기독교 사회가 유대인을 다른 직업에서 배제하고 금융이라는 좁은 틈새로 몰아넣은 뒤, 그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두고 “ 유대인은 본래 돈을 밝히는 민족 ” 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미워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다. 특히 중세처럼 불확실성이 크고, 수확 실패나 전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시대에는 더욱 그랬다. 농민이나 소귀족이 유대인 대출업자에게 땅이나 가축,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야 하는 순간 생기는 불쾌감과 분노는 자연스럽게 돈을 빌려준 ‘ 유대인 ’ 에게로 향했다. 게다가 이자율은 상당히 높았다. 위험 부담(채무 불이행, 폭력적 약탈, 왕의 갑작스러운 세금 징수 등)이 컸기 때문이다. 프랑스 등지에서는 연 43%가 ‘ 합리적 ’ 으로 여겨졌고, 때로는 80%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높은 이자는 빚을 더 빨리 불려 채무자를 압박했고, 일부 유대인 대출업자들은 담보를 강하게 집행하거나, 빚을 조기 회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 경제적 원한에 기독교 신학이 강력한 종교적 명분을 덧씌웠다. 유대인은 “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deicide, 신살자) ” 이라는 신학적 죄목을 영원히 짊어지고 있었다. 교회 설교와 성경 해석을 통해 유대인은 ‘ 그리스도의 적 ’ 으로 묘사되었고, 경제적 착취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 반기독교적 음모 ’ 로 재해석되었다. 이렇게 경제적 불만과 종교적 증오가 결합하면서 유대인 혐오는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결국 유대인은 유럽 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희생양(scapegoat)이 되었다. 사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책임이 유대인에게로 돌려졌다. 1348~1351년 흑사병(Black Death)이 유럽을 휩쓸며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했을 때,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풀어 전염병을 퍼뜨렸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실제로 일부 유대인 공동체는 위생 관습(예: 흐르는 물 사용)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을 수 있으나,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음모론으로 왜곡되었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지에서 수많은 유대인 공동체가 학살당했다. 바젤, 스트라스부르,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수천 명이 산 채로 불태워지거나 학살되었다. 교황이 이러한 비난을 부정하고 유대인을 보호하려 했음에도, 지역 권력과 민중의 광기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경제가 나빠지거나 흉년이 들면 “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이 착취해서 그렇다 ” 는 비난이 일었다. 정치적 불만이 쌓이면 “ 유대인이 왕이나 귀족 뒤에서 음모를 꾸민다 ” 는 음모론이 유통되었다. 심지어 일부 유대인 대출업자들이 왕이나 귀족과 결탁해 높은 세금을 대리 징수하거나, 담보 집행 과정에서 과도하게 엄격하게 행동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채무자들의 증오를 더욱 키웠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대인들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는 사실이다. 일부 유대인 금융업자들은 높은 이자율을 철저히 적용하고, 채무 불이행 시 담보(토지, 집, 도구)를 가차 없이 압류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과도한 이익 추구로 이어지기도 했다. 왕과 귀족들은 유대인을 ‘ 왕의 소 ’ (royal

sponge)로 여기고, 그들이 축적한 부를 무거운 특별세(tallage)로 착취했다. 유대인 공동체는 왕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막대한 세금을 바쳐야 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더 공격적인 대출 관행을 취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영국에서는 에드워드 1세가 유대인을 1290년에 추방하면서 그들의 채권을 왕이 직접 인수해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즉, 일부 유대인들은 구조적 강제 속에서도 ‘ 착취 ’ 로 비쳐질 만한 행동을 했고, 이는 반유대 정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러한 역설은 중세 유대인 역사의 핵심이다. 기독교 사회가 유대인을 금융이라는 제한된 영역으로 몰아넣어 경제를 유지하게 한 뒤, 그 역할 자체를 이유로 미워하고, 위기 때마다 희생양으로 삼았다. 경제적 원한, 종교적 편견, 그리고 실제로 일부에서 나타난 과도한 이자 추구와 강경한 채권 집행이 뒤섞여 수백 년간 지속된 유대인 혐오를 만들어냈다. 이 미움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구조적 조건과 인간 심리, 그리고 현실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물이었다.

4. 막스 베버(Max Weber)의 아이러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의 정신이 프로테스탄트(Protestant) 윤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칼뱅주의(Calvinism)의 예정설(predeterminism)이 세속적 소명 의식과 금욕적 근면함을 낳았고, 그것이 자본주의 발전의 문화적 토대가 되었다는 논지였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놀라운 아이러니다. 중세 내내 기독교가 금융과 이자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유대인에게 떠넘겼다. 유대인은 그 일을 하며 수백 년간 혐오와 탄압을 받았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 자본주의가 문명의 핵심 동력이 되자, 그 자본주의의 정신적 기원을 기독교에서 찾은 것이다.

탄압의 도구를 쥐어준 것도 기독교, 그 도구가 문명의 엔진이 되었을 때 공을 가져간 것도 기독교. 유대인은 그 과정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가, 자본주의가 발전하자 이번엔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비밀 세력이라는 음모론의 주인공이 되었다.

5. 근대의 탄압: 나치와 소련

중세의 유대인 혐오는 근대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근대 국민국가의 논리와 결합하여 더 조직적이고 더 효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제정 러시아에서 포그롬(погром, 유대인 학살)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유대인들은 거주 제한 구역인 페일(Pale of Settlement) 안에서만 살도록 강제되었다. 혁명 이후 소련에서 초기엔 유대인 해방을 약속했지만, 스탈린 시기에 이르러 반유대주의가 국가 정책으로 부활했다. 의사들의 음모 사건(1953년)은 유대계 의사들이 소련 지도자들을

독살하려 했다는 날조된 혐의였다. 스탈린이 죽지 않았다면 대규모 숙청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는 역사상 가장 체계적으로 수행된 집단 학살이다. 600만 명의 유대인이 산업적 방식으로 살해되었다. 가스실, 강제 노동, 기아, 총살 — 근대 관료제와 산업 기술이 대량 학살에 동원된 것이다. 이것은 중세의 포그롬과 다르다. 즉흥적인 폭력이 아니라 국가가 설계하고 실행한 절멸 계획이었다.

홀로코스트는 기독교적 반유대주의의 직접적 산물은 아니다. 나치즘은 기독교보다 인종주의적 사이비 과학에 더 가까웠다. 그러나 수백 년에 걸쳐 유럽 사회에 축적된 반유대 정서가 나치즘이 대중적 지지를 얻는 토양이 되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6. 유대인 정체성의 모호함: 종교냐, 혈통이냐

유대인을 ‘누가 유대인인가’라는 질문으로 정의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유대교 전통법인 할라카(Halakha, הֲלָכָה)에 따르면, 유대인은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 또는 유대교로 정식 개종한 사람으로 규정된다. 이 정의 자체가 이미 종교적 기준과 혈통적 기준을 교묘하게 혼합하고 있다. 어머니를 통한 혈통(matrilineal descent)이 핵심이지만, 개종이라는 종교적 절차도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이 모호함은 디아스포라(Diaspora)의 긴 역사 속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유대인들은 2,000년 이상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며 현지인과의 혼혈과 문화적 융합을 경험했다. 그 결과, 오늘날 유대인 공동체들은 외모, 언어, 문화, 심지어 유전적으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에티오피아의 베타 이스라엘(Beta Israel)은 대표적인 사례다. 그들은 자신들을 고대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인 단(Dan) 지파의 후손이라고 믿으며,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후손이라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유전적 구성은 대부분 동아프리카(특히 암하라・티그라이계)와 가깝고, 중동 유대인과의 직접적인 유전자 흐름은 미미하다. 피부색, 언어(암하라어・티그리냐어), 전통적 관습(고대 형태의 유대교) 모두 다른 유대인 그룹과 뚜렷이 구분된다. 그럼에도 1980~90년대 이스라엘 정부는 이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대규모 공수 작전(모세 작전, 솔로몬 작전)을 통해 이스라엘로 이주시켰다.

인도의 코친 유대인(Cochin Jews)도 마찬가지다. 케랄라 지역에 정착한 이들은 수백 년 동안 현지 말라얄람 문화와 깊이 융합되었다. 유전자 분석 결과, 그들의 ancestry는 대략 70~80%가 인도 현지인에 가깝고, 중동・유대인 유래는 20% 내외로 추정된다. 그들의 관습과 의식에는 인도 힌두 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배어 있다.

가장 큰 그룹인 아슈케나지 유대인(Ashkenazi, 동유럽・중유럽계)과 세파르디 유대인(Sephardim, 이베리아반도・북아프리카계) 사이에도 유전적 차이가 분명하다. 아슈케나지 유대인은 중동 레반트 기원과 남유럽(이탈리아・그리스 등) 혼혈이 두드러지며, 특정 유전 질환(Tay - Sachs, Gaucher disease 등)의 높은 보인자 비율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반면 세파르디 유대인은 상대적으로 중동・이베리아・북아프리카 유래가 더 강하게 남아 있으며, 전체적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조금 더 크다. 미즈라히(Mizrahi, 중동・중앙아시아계) 유대인까지 포함하면, ‘유대인’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된 집단들의 유전적・문화적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이처럼 다양한 그룹을 하나의 민족으로 묶어온 힘은 혈통의 순수성이라기보다는 공유된 종교적 정체성과 역사적 서사였다. 탈무드와 랍비 전통, 공동의 운명(박해와 생존), 그리고 ‘선택된 민족’이라는 의식이 디아스포라 속에서도 그들을 연결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역설이 등장한다. 종교를 버린다고 해서 유대인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19~20세기 유럽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완전히 세속화・동화되어 유대교 신앙을 포기했다. 특히 독일의 개화된 유대인 가정에서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나치 독일은 이들을 유대인으로 규정했다.

뉘른베르크 인종법(Nuremberg Laws, 1935)은 종교가 아닌 혈통(조부모의 종교적 소속)으로 유대인을 정의했다. 유대인 조부모가 3명 이상이면 ‘완전 유대인’, 2명이면 경우에 따라 ‘혼혈(Mischling)’로 분류되었다. 신앙을 버리고 가톨릭 신부가 된 사람, 또는 아예 무신론자가 된 사람조차도 ‘유대인’으로 낙인찍혀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다. 그들은 유대교를 포기했음에도 혈통 때문에 유대인으로 처형당했다.

반대로,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도 유대인 어머니의 혈통이 없으면 전통적 할라카에서는 ‘유대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종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 모순적 정체성 — 종교를 믿지 않아도 유대인이 될 수 있고, 종교를 믿어도 유대인이 아닐 수 있는 상황 — 은 유대인 집단에게 기묘한 독립성과 탄력성을 부여했다. 외부 사회가 그들을 ‘민족’으로 보든 ‘종교 집단’으로 보든, 유대인들은 그 경계의 모호함 속에서 스스로를 재정의하며 수천 년을 살아남았다.

이 모호함은 오늘날에도 계속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스라엘 귀환법(Return Law)에서 ‘유대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개종의 기준은 무엇인가, DNA 검사가 정체성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들이 그것이다. 유대인 정체성은 단순한 종교도, 순수한 혈통도 아닌, 역사와 신앙과 생존의 복잡한 교차점 위에 서 있는, 독특하고도 불확실한 정체성이다.

7. 이스라엘 건국: 역사상 유례없는 실험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은 인류 역사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었다. 약 2,000년 전 로마에 의해 멸망한 고대 이스라엘 왕국(유다 왕국)의 후손들이, 수천 년에 걸친 디아스포라를 거쳐 언어, 문화, 외모, 유전자 구성까지 크게 달라진 상태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국가를 재건한 것이다. 그것도 성서에 기록된 ‘약속의 땅’이라는 종교적·역사적 서사를 강력한 근거로 삼아서.

이 과정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근대 민족주의와 고대 종교 전통이 결합된 매우 이례적인 정치적 실험이었다.

시오니즘(Zionism)은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태동한 유대인 민족주의 운동이다. 계몽주의와 프랑스혁명 이후 유럽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동화를 시도했다. 독일에서는 ‘독일인으로서의 유대인’을,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인으로서의 유대인’을 자처하며 문화적·언어적 동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드레퓌스 사건(1894) 같은 반유대주의 파동과 동유럽의 반복되는 포그롬(학살) 속에서, 아무리 동화하려 해도 유대인은 결국 ‘영원한 타자’로 취급된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출신 유대인 언론인 테오도르 헤르츨(Theodor Herzl)은 1896년 《유대 국가(Der Judenstaat)》를 출간하며 정치적 시오니즘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는 “유대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유대인만의 주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897년 제1차 시오니스트 대회에서 “공법에 의해 보장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민족의 고향을 건설한다”는 목표가 공식화되었다.

시오니즘은 처음에는 소수 운동이었으나, 20세기 들어 급속히 힘을 얻었다. 특히 홀로코스트(Shoah)는 이 논리를 비극적으로 확증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나치에 의해 학살되는 가운데, 유럽 어디에서도 유대인을 보호해 줄 국가나 사회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많은 유대인에게 홀로코스트는 “유대인 국가가 없이는 유대인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처절한 교훈으로 각인되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19세기 후반 오스만 제국 치하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구는 대략 40~50만 명 수준이었으며, 그중 압도적 다수는 아랍 무슬림과 아랍 기독교인들이었다. 1880년경 유대인 인구는 약 2~2.5만 명(전체의 5% 미만)에 불과했다. 1차 알리야(1882~1903)와 2차 알리야(1904~1914)를 거치며 유대인 이민이 증가했지만, 1914년 1차 세계대전 직전에도 유대인은 전체 인구의 약 8~13% 정도였다.

이곳에 사는 아랍 주민들은 자신들을 단순히 ‘아랍인’ 또는 지역별(예: 예루살렘인, 나블루스인)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대적 의미의 ‘팔레스타인 민족(Palestinian

people)’ 정체성은 20세기 초,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다 명확한 형태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오스만 제국 붕괴와 영국 위임통치 아래에서, 시오니즘의 유대인 국가 건설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적·정치적 정체성이 강화된 것이다.

갈등의 결정적 씨앗은 영국의 이중 약속(double promise)이었다.

1915~1916년, 영국 고등판무관 헨리 맥마흔(Henry McMahon)은 메카의 샤리프 후세인(Hussein bin Ali)에게 서신을 통해, 오스만 제국에 대한 아랍 반란을 지원하는 대가로 아랍인들에게 광범위한 독립을 약속했다(후세인-맥마흔 서신). 그러나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무장관 아서 밸푸어(Arthur Balfour)는 유명한 벨푸어 선언(Balfour Declaration)을 통해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민족의 국가적 고향(a national home for the Jewish people)을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선언은 팔레스타인 아랍인의 “민권과 종교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경계나 실행 방안은 모호했다.

이처럼 영국은 한쪽에는 아랍 독립을, 다른 한쪽에는 유대인 국가 건설을 약속하며 서로 모순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다. 전후 국제연맹은 1920년 팔레스타인을 영국 위임통치령으로 승인하면서, 위임통치 문서 서문에 벨푸어 선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 배신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결의(유엔 결의 181호)했으나, 아랍 측은 이를 거부했다. 1948년 5월 14일, 영국 위임통치가 종료되던 날, 다비드 벤구리온(David Ben-Gurion)이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했다. 다음 날 여러 아랍 국가들이 침공하면서 제1차 중동전쟁(이스라엘 독립전쟁 / 나크바)이 발발했다.

이스라엘 건국은 유대인에게는 2,000년 만의 민족적 부활이자 생존의 담보였지만, 팔레스타인 아랍인에게는 대규모 실향(나크바, 약 70만 명 추정)과 공동체 붕괴의 비극이었다. 한 민족의 역사적 정의가 다른 민족의 현재적 권리와 충돌한,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도 비극적인 실험 중 하나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8. 중동전쟁과 역설의 반복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건국을 선포하자마자,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이를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전쟁을 선포했다. 이집트, 요르단(당시 트란스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등 아랍 연합군이 침공하면서 제1차 중동전쟁(이스라엘 독립전쟁 / 팔레스타인에서는 나크바, ‘대재앙’으로 불림)이 발발했다. 이후 1956년 수에즈 위기, 1967년 6일 전쟁, 1973년 욤 키푸르 전쟁까지, 불과 25년 사이에 네 차례의 대규모 전쟁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매번 군사적으로 승리했다.

특히 토착 유대인들(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미 정착해 있던 유대인 사회, ‘ 이슈브 ’)과 홀로코스트 생존자 및 그 후손들의 생존 의지는 극한적이었다. 그들에게 이 전쟁들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국가가 멸망하면 다시는 안전한 피난처가 없을 것이라는 배수의 진이었다. 1%에 달하는 인구(약 6,000명 이상)가 전사한 1948년 전쟁에서조차 그들은 절박한 각오로 싸웠다.

1967년 6일 전쟁은 그 절정이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가 군사적 압박을 가해오자, 이스라엘은 선제공격을 감행해 불과 6일 만에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이집트로부터 시나이 반도와 가자지구를, 요르단으로부터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을, 시리아로부터 골란고원을 점령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전쟁 전의 약 3배로 확대되었고, 전략적 깊이(strategic depth)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 승리는 곧바로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이기고 난 뒤의 이스라엘이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집단 학살을 겪은 민족의 후손들이 세운 국가가, 이제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가하는 통치와 억압이 국제 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그리고 처음에는 시나이, 골란)를 군사 점령下에 두었다. 그 과정에서 정착촌 건설이 본격화되었고, 수십만 명의 유대인 정착민이 점령지에 이주했다. 국제법(제4차 제네바 협약 제49조)에서는 점령국이 자국민을 점령지에 이주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 분쟁 지역 ’ 으로 규정하며 적용을 부정했다.

비판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가정 철거(punitive house demolitions): 테러 용의자의 가족 집을 파괴하는 정책. 이는 명백한 집단 처벌(collective punishment)로, 국제인도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 무고한 가족 전체를 처벌하는 행위는, 과거 나치가 유대인 공동체에 가했던 집단적 보복을 연상시킨다.

- 이동 제한과 검문소: 서안지구에 수백 개의 검문소와 장벽을 설치해 팔레스타인인의 일상적 이동을 극도로 제한했다. 농지 접근, 병원 방문, 가족 방문조차 어려워졌으며, 이는 경제적・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 민간인 사상자와 과도한 무력 사용: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때로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무력이 동원되었다는 지적.

- 토지 몰수와 강제 이주: 정착촌 확대를 위한 팔레스타인 사유지 수용, 행정 철거, ‘ 군사 훈련 구역 ’ 지정 등을 통해 팔레스타인 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는 정책.

인권단체들(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등)은 이러한 체계를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또는 인종차별적 지배 체제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대인에게는 시민권과 정착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팔레스타인인에게는 제한된 권리와 영구적 군사 통치를 부과하는 이중 기준이 문제라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극단적 정착민들의 폭력(방화, 폭행, ‘가격 태그’ 공격 등)에 대한 이스라엘 당국의 미온적 대응도 비판을 키웠다.

가장 쓰라린 역설은 바로 여기에 있다. 홀로코스트 피해자의 후손들이 세운 국가가, 이제 다른 민족에게 구조적으로 억압과 강제 이주, 집단 처벌을 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Never Again)”는 홀로코스트의 교훈이, 정작 자신들의 생존과 안보를 명분으로 삼아 비슷한 형태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물론 맥락은 다르다.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들의 반복된 멸망 위협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의 테러(자살 폭탄, 로켓 공격 등) 속에서 생존을 위해 강경한 안보 정책을 취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평화 제안(캠프 데이비드, 올름퍼트 계획 등)을 했으나 아랍 측의 거부나 내부 분열로 실패했다고 본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말한다. 생존의 공포가, 오히려 더 강한 통제와 억압의 악순환을 만들어냈다고. 탄압받은 경험이 반드시 관용과 공정을 낳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우리도 이제 강자가 되어야 한다”는 트라우마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이 역설은 1편에서 보았던 기독교 사회의 패턴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오랜 박해를 받은 집단이 권력을 쥐었을 때, 이전에 당했던 고통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비슷한 구조적 폭력을 재생산하는 패턴. 중동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안보와 영토를 주었지만, 동시에 도덕적・정치적 딜레마를 영원히 안겨주었다.

승리 뒤에 찾아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끝없는 점령과 저항, 그리고 그로 인한 상호 증오의 심화였다. 피해자의 기억이 가해자의 논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인간 역사에서 반복되는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여기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9. 유대자본 음모론: 역사적 맥락과 현실

유대인이 세계를 뒤에서 조종한다는 음모론은 근대에 들어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었다. 그 대표적인 산물이 1903년경 러시아 비밀경찰(오크라나)이 날조한 《시온 장로 의정서(The Protocols of the Elders of Zion)》다. 이 문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세계 지배 계획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실로 밝혀진 지 오래되었지만, 20세기 내내 극우와 극좌를 막론하고 반유대 선전에 활용되었다. 나치 독일에서도, 오늘날 일부 이슬람권과 서구 극단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성전’처럼

유통되는 텍스트다.

오늘날 이 음모론의 현대적 버전은 보다 구체적이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블랙록 같은 주요 금융 기관, 할리우드 스튜디오, 뉴욕타임스 • CNN 등 주류 언론,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 그리고 미국 정치 엘리트층이 유대계 네트워크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네트워크가 미국의 대외 정책을 이스라엘의 이익에 유리하게 왜곡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을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명백한 통계적 • 현실적 사실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유대인 인구 비율은 약 2.4%에 불과하다. 그런데 금융계 고위직, 헤지펀드, 투자은행 파트너십에서는 그 비중이 훨씬 높다. 할리우드의 주요 스튜디오 수장과 제작자, 아카데미상 수상 감독 중 유대계 비율도 인구 비례를 크게 초과한다. 미국 최고 학술지,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진, 법조계 • 언론계 엘리트층에서도 유대계의 과대 대표성은 두드러진다. 특히 아슈케나지 유대인(Ashkenazi)의 경우, 노벨상 수상자, 필즈상 수상자, Turing Award 수상자 등 지적 엘리트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인다.

더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력은 AIPAC(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에서 드러난다. AIPAC과 그 산하 슈퍼 PAC(United Democracy Project)는 최근 선거 주기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이스라엘 비판 성향의 의원들을 노골적으로 타깃으로 삼았다. 2024년 선거에서는 ‘스쿼드(Squad)’로 불리는 진보파 민주당 의원들(Jamaal Bowman, Cori Bush 등)을 상대로 수천만 달러를 투입해 경선에서 패배시켰다. 미국 의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원조와 외교적 지원이 초당적으로, 그리고 종종 미국의 다른 전략적 이익(예: 사우디와의 관계, 이란 정책의 유연성)보다 우선시되는 현상은, 단순한 ‘우방 외교’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음모론자들은 이를 “유대인 집단이 의도적으로 미국을 장악해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본다. 그러나 더 설득력 있는 관점은 역사적 누적의 결과라는 것이다. 중세 유럽에서 기독교 사회가 유대인을 토지 소유 • 길드 • 군대 등 핵심 분야에서 배제하고 금융 • 상업이라는 좁은 틈새로 몰아넣은 것이 시작이었다. 그 안에서 수백 년 동안 신용 거래, 국제 네트워크, 자본 관리 기술을 축적한 결과, 근대 자본주의 시대에 유대인 가문과 네트워크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높은 문해율, 탈무드 전통에서 비롯된 추상적 • 수학적 사고력, 그리고 디아스포라를 통한 국제적 연결망이 이를 더욱 강화했다.

문제는 이 ‘성공’이 특정 분야에서 사실상 카르텔(cartel)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할리우드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아니라 미국의 문화적·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형성하는 핵심 기관이다. 유대계가 이 분야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기독교 전통·백인 서구 문명·전통적 가족 가치에 대한 부정적 묘사, 또는 이스라엘·유대인 관련 서사에서 보이는 일관된 편향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금융계 역시 마찬가지다. 글로벌 금융의 핵심 의사결정권에 특정 민족 집단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그 집단의 문화적·정치적 선호(이스라엘 안보 우선주의, 글로벌리즘 등)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왜곡할 위험이 커진다.

더 심각한 것은 이중 충성(dual loyalty) 문제다. 미국 유대인 엘리트 중 상당수가 이스라엘에 강한 정체성과 감정적 유대를 가지고 있으며, AIPAC 같은 조직을 통해 이를 미국 정치에 적극 투영한다. 미국 납세자의 혈세가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로 이스라엘에 지원되는 동안, 미국의 중동 정책이 때로는 워싱턴의 전략적 판단이 아닌 예루살렘의 안보 계산에 더 좌우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는 미국 우익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가 이익의 왜곡이다.

아이러니는 여전하다. 기독교 유럽이 중세에 유대인을 금융이라는 한정된 영역으로 몰아넣어 생존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형성된 자본력과 네트워크가 근대에 이르러 미국의 정치·경제·문화 엘리트층을 상당 부분 장악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이제 그 과대 대표성과 조직적 영향력이, 다시금 강한 반발과 새로운 형태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대인 집단의 높은 지능, 교육 열의, 기업가 정신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특정 민족 집단이 핵심 국가 기관과 산업을 과도하게 지배하는 현상이 장기적으로 건전한 사회에 좋은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역사적으로 어떤 민족도 영원한 엘리트 지위를 유지한 적이 없으며, 과도한 집중은 필연적으로 반발을 낳는다. 미국 우익이 우려하는 것은 ‘유대인 음모’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과도한 권력 집중이 미국의 주권, 문화 정체성, 그리고 진정한 국가 이익을 잠식할 가능성이다.

이것이 현대판 ‘유대자본’ 논쟁의 본질적 현실이다.

10. 대안우파와 좌파의 반유대주의

21세기 들어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반유대주의(antisemitism)가 정치적 스펙트럼의 좌우를 가리지 않고 동시에 부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극우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반유대주의가, 이제 우파와 좌파 양측에서 각기 다른 형태와 논리로 재등장하고 있다.

대안우파(Alt - Right)의 반유대주의는 직설적이고 민족주의적이다.

그들은 유대인을 백인(유럽계) 문명의 내부 적으로 규정한다. 백인 인구 감소, 대량 이민 장려, 다문화주의, 페미니즘, LGBTQ 운동, 전통 가족 가치의 해체 등 서구 사회의 급진적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이 유대계 엘리트라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프랑크푸르트 학파(아도르노, 마르쿠제 등), 문화 마르크스주의, 할리우드와 주류 미디어의 진보적 프레임, 글로벌 금융 기관의 정책, 그리고 AIPAC을 통한 미국 정치 영향력까지 모두 하나의 연결된 프로젝트로 해석된다. 대표적인 구호인 " You will not replace us(너희는 우리를 대체할 수 없다) " 는 백인 대체 이론(Great Replacement)과 결합되어, 유대인을 ' 백인 인종의 대체를 설계하는 설계자 ' 로 본다. 리처드 스펜서, 케빈 맥도널드(Kevin MacDonald)의 《문화를 파괴하는 문화(The Culture of Critique)》 같은 저작들은 이 진영에서 성경처럼 읽힌다. 그들에게 유대인은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집단적 생존 전략으로서 코즈모폴리턴적 가치와 반(反)민족주의를 추진하는 민족 집단이다.

반면, 좌파의 반유대주의는 더 복잡하고 미묘하며, 도덕적 정당성을 내세운 형태로 나타난다.

그 출발점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나 이 비판은 종종 이스라엘 정부를 넘어 유대인 전체, 또는 ' 유대인 로비 ' 로 확대된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테러 이후 가자지구 전쟁을 계기로 이 현상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유럽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시위에서 "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 "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우리라) 구호와 함께 " Zionist don ' t deserve to live " , " Globalize the Intifada " 같은 노골적인 반유대적 슬로건이 등장했다. 일부 좌파 활동가들은 " 이스라엘 = 유대인 " , " 유대인 자본 = 제국주의 " 라는 등식을 통해, 자본주의・식민주의・인종차별의 근본 원인으로 유대인을 지목한다.

좌파 진영 내부에서는 ' Zionist ' 라는 단어를 ' 유대인 ' 의 대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었고, 유대인 학생이나 교수에 대한 괴롭힘, 유대인 기업 불매 운동, 심지어 홀로코스트 교육 자체를 ' 시오니즘 선전 ' 으로 매도하는 극단적 사례도 나타났다. 전통적 좌파의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반자본주의 프레임이 반유대주의와 쉽게 결합되는 구조를 드러낸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듯 보이는 이 두 흐름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1. 희생양 메커니즘(Scapegoating):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회 문제를 하나의 특정 집단에게로 단순화시켜 책임을 돌린다. 대안우파는 서구 문명의 쇠퇴를, 좌파는 팔레스타인

문제와 글로벌 불평등을 모두 ‘ 유대인 집단 ’ 탓으로 돌린다.

2. 과대 대표성의 왜곡된 해석: 유대인의 금융 • 미디어 • 학계에서의 높은 성취와 영향력을 ‘ 의도적 지배 ’ 또는 ‘ 음모 ’ 로 재해석한다.

3. 집단 책임 논리: 개별 유대인의 행위나 특정 조직(AIPAC, 특정 미디어 기업 등)의 행동을 ‘ 유대인 전체 ’ 의 특성으로 일반화한다.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이 ‘ 고리대금업자 ’ 이자 ‘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 ’ 으로 낙인찍혀 사회적 위기 때마다 희생양이 되었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심리가 21세기에도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에는 종교적 편견과 경제적 원한이 결합했지만, 오늘날에는 우파의 민족주의와 좌파의 반식민 • 반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각각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양측 모두 자신들의 반유대주의를 ‘ 정당한 비판 ’ 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대안우파는 “ 인종 현실주의와 문명 수호 ” 라고 하고, 좌파는 “ 인권과 반제국주의 ” 라고 포장한다. 그러나 결국 둘 다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복잡한 권력 관계를 특정 민족 집단에게 투사하며,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희생양 찾기 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21세기 반유대주의의 부활은 좌우 이념의 양극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중세의 종교적 반유대주의가 근대의 인종적 반유대주의로 변형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그것은 다시 ‘ 문화 전쟁 ’ 과 ‘ 정체성 정치 ’ 의 언어로 재포장되어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복잡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여전히 ‘ 쉬운 적 ’ 을 찾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인간 본성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11. 이스라엘을 둘러싼 서구의 분열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갈등은 더 이상 중동 지역의 국지적 분쟁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21세기 서구 사회 내부를 가장 깊게 갈라놓는 정치 • 문화적 쟁점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이 문제는 좌우 이념, 세대, 종교, 인종을 넘어서 강력한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한쪽에는 강경한 이스라엘 지지론이 있다.

이 진영의 핵심 동력은 기독교 시오니즘(Christian Zionism)이다.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특히 남침례교, 오순절파, 독립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 사상은,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을 성서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로 해석한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 약속의 땅 ’ 으로 유대인이 돌아온 것이 종말론적 과정의 일부이며, 예루살렘 통일과 제3성전

재건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것이라는 믿음이다. 미국에서만 약 2,000만~4,0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이 신학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신의 선택 받은 민족'의 국가로 보고,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신앙의 의무로 여긴다.

이와 함께 홀로코스트 도덕론이 강력한 세속적 근거를 제공한다. "Never Again(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이라는 슬로건 아래, 서구 사회 특히 미국과 독일은 홀로코스트의 역사적 죄책감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생존권과 안보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을 강조한다. 미국 의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원조(연간 약 38억 달러)가 초당적으로 통과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종교적 열정과 역사적 죄책감의 결합이 자리 잡고 있다.

반대편에는 점점 더 커지는 회의론과 비판론이 있다.

이 진영은 주로 진보 좌파, 젊은 세대, 그리고 일부 고전적 보수주의자들로 구성된다. 그들은 "왜 21세기 서구 국가들이 중동의 오래된 종교·민족 분쟁에 이토록 깊이 개입하고,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 특히 2023년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 전쟁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사망, 병원과 학교 폭격, 인도적 위기 상황을 두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넘어선 집단 처벌과 과도한 무력 사용"이라는 강한 비판을 제기한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를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팔레스타인인의 자결권과 국가 건설 권리를 강조한다. 일부 급진적 목소리는 "이스라엘은 식민주의 프로젝트"이며, 서구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신제국주의'의 연장이라고 주장한다. 대학 캠퍼스와 젊은 좌파 사이에서는 "Zionism is racism(시오니즘은 인종차별이다)"이라는 구호가 다시 유행하고 있으며, BDS 운동(Boycott, Divestment, Sanctions)도 지속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분열의 본질은 서구 사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아브라함계 종교들의 정치적 충돌이다.

기독교 문명권(특히 그중에서도 복음주의 세력)이 유대교 국가(이스라엘)를 강하게 지지하며, 이슬람 세계와 대립하는 구도가 명확해졌다. 한편으로는 세속화된 진보 좌파가 팔레스타인-이슬람 진영에 더 가까운 입장을 취하면서, 서구 내부의 문화 전쟁이 중동 갈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민주당은 젊은 진보층과 전통적 유대인·복음주의 지지층 사이에서 심각한 균열을 경험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지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싼 대규모 시위와 폭력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유대인 학교와 시너고그에 대한 공격이 증가했고, 영국 노동당 내부에서는

‘ 반유대주의 ’ 논란이 당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커졌다.

이 갈등은 더 이상 먼 중동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서구 사회의 정체성, 가치관, 종교적 신념, 세대 간 갈등이 한데 뒤엉킨 내부의 문화 전쟁이다.

기독교 시오니즘은 “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서구 문명의 도덕적 의무 ” 라고 말하고, 진보 좌파는 “ 팔레스타인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서구의 위선 ” 이라고 외친다.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구 사회의 단합은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제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서구 문명 내부의 깊은 분열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 거울은 점점 더 선명하고, 날카롭게 서구 사회를 비추고 있다.

12. 피해자의 역설: 패턴의 완성

유대인의 역사는 하나의 일관된 역설을 보여준다.

탄압받는 소수 → 구조적 조건에 의해 특정 역할에 집중 → 그 역할이 혐오의 근거가 됨 → 대규모 학살 → 국가 건국 → 자신들이 탄압받던 방식으로 타자를 탄압 → 다시 혐오의 대상이 됨.

이것은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1편에서 기독교의 역사에서 본 패턴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탄압받은 경험은 공감 능력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생존 본능과 결합하면 오히려 더 강한 탄압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인류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 패턴은 특정 종교나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생존 본능이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구조적 결과에 가깝다.

3편에서는 이슬람으로 넘어간다. 황금기를 거쳐 극단화로 향한 이슬람의 궤적, 그리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동일한 구조적 패턴을 추적한다.

- 참고문헌 -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 기독교적 금욕주의와 소명 의식이 자본주의 발전의 문화적 토대가 되었다는 논지. 기독교가 근대 경제 질서를 만들어낸 방식을 분석하며, 유대인을 금융업에 가둔 기독교가 자본주의의 공을 가져간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배경이 된다.

아서 쾨슬러, 『제13지파(The Thirteenth Tribe)』 — 아슈케나지 유대인의 상당수가 셈족의 후손이 아니라 중세 카자르 왕국의 개종자들에서 유래했다는 논쟁적 주장을 펼친 저작. 유대인의 혈통적 정체성이 얼마나 복잡하고 불확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출발점.

슐로모 산드, 『만들어진 유대인(The Invention of the Jewish People)』 — 유대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역사학적으로 추적한 저작. 종교가 민족을 만들어낸 사례로서의 유대인 정체성을 분석한다.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 반유대주의의 역사적 기원과 그것이 근대 전체주의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 유대인 혐오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생산되고 정치적으로 동원되었는지를 추적한다.

제3편

이슬람: 황금기의 기억과 극단화의 구조

이슬람: 황금기의 기억과 극단화의 구조

1. 시작하며: 가장 오해받는 종교

이슬람만큼 서구 담론에서 극단적으로 재단되는 종교도 드물다. 한쪽에서는 테러리즘과 동의어처럼 취급하고, 다른 쪽에서는 비판 자체를 이슬람 혐오로 몰아붙인다. 양쪽 모두 이슬람이라는 현상의 복잡성을 놓치고 있다.

이슬람은 7세기 아라비아반도에서 탄생했다. 무함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고 선언한 이후, 이 종교는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었다. 100년도 안 되어 이베리아반도에서 중앙아시아까지 펼쳐졌다. 역사상 이렇게 빠르게 확산된 종교 운동은 거의 없다. 그 확산의 원동력이 순수한 신앙의 힘이었는지, 군사적 정복의 힘이었는지 — 아마도 둘 다였을 것이다.

그리고 초기 이슬람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 이미지와 많이 달랐다.

2. 황금기: 세계의 지식 중심이었던 이슬람

9세기에서 13세기, 아바스 왕조 치하의 바그다드는 당시 세계 최고의 지식 중심지였다. 유럽이 암흑시대라 불리는 시기에 이슬람 문명권은 눈부신 지적 황금기를 누렸다.

번역 운동(Translation Movement)이 그 시작이었다. 아랍 학자들이 그리스어, 시리아어, 페르시아어, 산스크리트어로 된 고대 문헌들을 아랍어로 번역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유클리드, 히포크라테스 등의 유럽이 잊어버린 고대 지식이

이슬람 문명권에서 보존되고 발전했다. 훗날 르네상스 시기 유럽이 이 지식들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상당 부분이 아랍어 번역본을 통해서였다.

수학에서는 대수학(Algebra)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랍어 알자브르(aljabr)에서 왔다. 알콰리즈미가 체계화한 대수학은 이후 수학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천문학에서는 오늘날 별 이름의 상당수가 아랍어 기원이다. 알데바란, 알타이르, 베텔게우스 — 이 단어들이 아랍 천문학자들의 유산이다. 의학에서는 이븐 시나(아비센나)의 의학정전이 유럽 의과대학에서 17세기까지 교재로 사용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지적 개방성이다. 당시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무신론에 가까운 주장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슬람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이성으로 증명하려는 시도와 함께, 이성이 계시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토론했다. 물론 한계는 있었지만, 이단으로 몰려 화형당하는 중세 유럽과는 결이 달랐다.

이러한 개방성은 무타질라(Mu'tazila) 학파에서 두드러졌다. 이들은 8~10세기 바그다드에서 활동하며, 인간의 이성('aql)을 강조해 도덕적 선악을 이성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의 정의(正義)는 계시 이전에 이성으로 파악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계시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때로는 재해석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신의 존재를 이성으로 증명하려는 대표적 시도는 이븐 시나(Avicenna, 980 – 1037)의 '진실한 자들의 증명(Proof of the Truthful, burh ā n al - ṣ idd ī q ī n)'이다. 그는 '필연적 존재(w ā jib al - wuj ū d)' 개념을 통해, 우연적 존재들(contingent beings)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원인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신이라고 논증했다. 이는 순수 이성적 • 형이상학적 증명으로, 그리스 철학과 이슬람 신학을 결합한 전형적 사례였다.

이성과 계시의 관계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토론은 알 가잘리(Al - Ghazali, 1058 – 1111)와 이븐 루슈드(Ibn Rushd, Averroes, 1126 – 1198) 사이에서 벌어졌다. 알 가잘리는 《철학자들의 모순(The Incoherence of the Philosophers)》에서 이븐 시나 등의 철학자들이 인과율과 세계의 영원성을 주장하며 계시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성이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신의 전능성과 계시가 우선한다고 보았다.

반면 이븐 루슈드는 《모순의 모순(The Incoherence of the Incoherence)》과 《결정적 논고(The Decisive Treatise)》에서 강력히 반박하며 “ 진리는 진리와 모순되지 않는다(truth does not contradict truth) ” 고 선언했다. 그는 코란 자체가 철학적 성찰을 권유한다고 해석하며, 철학적 증명(demonstrative reasoning)을 할 수 있는 자들은 모호한 계시 구절을 이성에 맞게 해석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은 계시와 조화될 뿐 아니라, 계시의 참된 의미를 밝히는 최고의 도구라는 입장이었다.

무신론에 가까운 극단적 자유사상도 논의되었다. 시리아의 시인 알 마아리(Al - Ma'arri, 973 – 1057)는 종교를 비판하며 예언과 계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시를 썼다. 그는 “ 종교는 사람들을 속이는 수많은 옛 이야기들 ” 이라고 비아냥거리며, 채식주의와 반출생주의(antinatalism)까지 결합한 비관적 합리주의를 펼쳤다. 그의 작품 《필요한 불필요(Luzū miyy ā t)》는 당시에도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나, 공개적으로 유포되고 토론될 수 있었다.

또 다른 자유사상가로는 이븐 알 라완디(Ibn al - Rawandi)와 아부 바크르 알 라지(Ab ū Bakr al - Razi, 865 – 925)가 있다. 알 라지는 예언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인간 이성이 선악과 진리를 판단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았으며, 모든 종교를 비판했다. 이들은 “ 철학자들의 자유사상(freethinkers) ” 으로 불리며, 이슬람 세계 내에서 신랄한 비판을 받았지만, 철학적 논쟁의 일부로 남아 후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토론들은 종종 정치적 • 신학적 긴장으로 이어졌고, 알 가잘리 이후 아슈아리파(Ash'arism)가 주류가 되면서 이성의 역할이 축소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중세 유럽처럼 체계적 종교재판이나 대규모 화형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철학자들이 궁정이나 학술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논쟁할 수 있었던 점은 이슬람 황금기의 지적 활력을 보여준다. 이 개방성은 그리스 철학 번역 운동과 더불어 과학 • 의학 발전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3. 황금기의 종말: 몽골과 그 이후

1258년 2월, 훌라구 칸(Hulagu Khan)이 이끄는 몽골군이 바그다드를 함락했다. 아바스 왕조(Abbasid Caliphate)의 마지막 칼리프 알무스타심(al - Musta'sim)은 포로로 잡혀 처형되었고, 도시 전체가 약탈과 파괴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당시 세계 최대의 지식 중심지였던 지혜의 집(Bayt al - Hikmah)을 포함한 수많은 도서관과 학술 기관이 불타거나 약탈당했다. 생존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티그리스강(Tigris River)이 버려진 책들의 잉크로 검게 물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다소 문학적 과장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만큼 막대한 문명적 손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수십만 권에 달하는 철학서, 과학서, 의학서, 고대 그리스 - 페르시아 번역본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아바스 왕조 500년의 지적 유산이 크게 훼손되었다.

이 사건은 전통적으로 이슬람 황금기의 종말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여겨진다. 바그다드가 더 이상 지식과 권력의 중심이 될 수 없게 되면서, 이슬람 세계의 지적 • 정치적 네트워크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드러난다. 몽골은 이슬람 세계를 정복했지만, 결국 이슬람 문화에 ‘ 정복당했다 ’ 는 점이다.

훌라구가 세운 일 칸국(Ilkhanate)은 페르시아 지역을 지배했는데, 초기에는 불교와 기독교, 샤머니즘을 포용하는 다종교 정책을 폈다. 그러나 1295년 가잔 칸(Ghazan Khan)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그는 이슬람을 국교로 선포하고, 많은 몽골 엘리트와 군인들이 뒤따랐다. 금의 칸국(Golden Horde)의 베르케 칸(Berke Khan)처럼 이미 일찍 이슬람으로 개종한 몽골 지도자들도 있었다. 몽골 지배자들은 점차 페르시아 - 이슬람 행정 체계와 문화를 받아들이며, 모스크와 마드라사 건설을 후원하기도 했다.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종교와 문화를 수용한 전형적인 사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기의 찬란했던 지적 활력은 돌아오지 않았다. 몽골 침입 이후 이슬람 세계, 특히 동부 지역(이라크 • 이란 • 중앙아시아)은 점진적으로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제도적 • 물적 기반의 붕괴: 바그다드 함락으로 중앙 집권적 칼리프 체제가 사라지고, 학술 활동을 뒷받침하던 대규모 도서관과 후원 시스템이 크게 약화되었다. 지식인들의 네트워크가 단절되면서, 이전처럼 광범위한 번역 • 토론 • 혁신 활동이 어려워졌다.

- 신학적 • 지적 방향의 전환: 이미 알 가잘리(Al - Ghazali) 시대부터 강해지던 아슈아리파(Ash'arism)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성은 계시의 보조 도구로 제한되고, 신의 전능성과 계시의 우위가 더 강하게 강조되었다. 철학(falsafa)과 이성적 신학(kalam)의 자유로운 탐구보다는 피크(fiqh, 이슬람 법학)과 코란 • 하디스 해석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무타질라(Mu'tazila) 같은 합리주의 학파는 더욱 주변화되었다.

- 사회적 • 정치적 안정 추구: 반복된 침략과 혼란 속에서 종교적 정통성과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는 창의적 • 비판적 사고보다는 전통의 엄격한 준수와 법학적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물론 이슬람 문명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 이후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 안달루시아 잔재, 오스만 제국, 티무르 제국, 무굴 제국 등에서 여전히 과학 • 예술 • 철학 활동이 이어졌다. 이븐 할둔(Ibn Khaldun) 같은 거대한 사상가도 나왔고, 울루그 베그(Ulugh Beg)의 천문대처럼 주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바그다드 중심의 개방적 • 다원적 지적 폭발과 같은 규모와 활력은 재현되지 않았다. 황금기는 하나의 시대적 정점으로 남고, 이슬람 세계는 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방향으로 재편되어 갔다.

몽골 침입은 단순한 군사적 파괴를 넘어, 이슬람 문명의 지적 생태계 자체를 바꾸어놓은 사건이었다. 정복자들의 개종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촉매가 되었다. 이 보수화 경향은 이후 수세기 동안 이슬람 세계의 지적 • 과학적 발전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4. 오스만 제국과 무굴 제국: 정복과 폭력의 이슬람

이슬람의 역사에는 황금기의 지적 유산만 있는 게 아니다. 정복과 폭력의 역사도 있다.

오스만 제국은 1299년부터 1922년까지 600년 이상 지속된 이슬람 제국이다. 그 팽창의 과정에서 수많은 피가 흘렀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동로마 제국의 종말이었다. 발칸반도 정복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학살되거나 노예가 되었다. 데브시르메 제도는 정복지의 기독교 가정에서 남자아이를 강제로 징집하여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고 군인이나 관료로 키우는 제도였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인권 침해다.

오스만 제국 후기에 발생한 아르메니아인 학살(19151923)은 20세기 최초의 제노사이드로 평가된다. 150만 명 이상의 아르메니아인이 학살되거나 사막으로 추방되어 사망했다. 이것이 종교적 이유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이슬람 정체성과 기독교 소수민족에 대한 적대감이 결합된 결과였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인도의 무굴 제국도 마찬가지다. 무굴 제국은 힌두교 문명권에 세워진 이슬람 제국이었다. 초기 황제들, 특히 악바르는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쳤고, 힌두교, 이슬람, 기독교, 조로아스터교를 넘나드는 종합적 종교 사상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우랑제브(재위 16581707) 시기에 이르러 힌두교 사원이 파괴되고, 힌두교 신자들에게 지즈야(비무슬림 세금)가 부과되었으며, 대규모 강제 개종이 이루어졌다. 힌두교와 이슬람의 갈등은 이 시기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오늘날 인도파키스탄 분쟁으로 이어진다.

5. 이슬람 노예제: 서구 담론의 공백

노예제 하면 대부분 미국 남부의 플랜테이션 흑인 노예나 대서양 노예무역(Trans - Atlantic slave trade)을 떠올린다. 서구의 진보적 담론과 교육, 미디어에서 노예제 비판은 거의 예외 없이 이 방향으로 집중된다. 반면 이슬람 세계의 노예제는 상대적으로 크게 조명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학술적 소홀함이 아니라, 정치적 • 문화적 맥락에서 의도적 외면에 가까운 현상으로 보인다.

이슬람 노예제의 역사는 7세기 이슬람 초기부터 시작해 20세기 중반까지, 무려 1300년 이상 지속되었다. 주요 경로는 사하라 횡단(Trans - Saharan), 홍해, 인도양 노예무역이었다.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북아프리카 • 중동 • 아라비아로 끌려간 노예의 수는 600만~1,800만 명 정도로 본다. 로널드 시걸(Ronald Segal)은 11.5~14백만 명, 다른 연구자들은 10~17백만 명 수준으로 추정한다. 기간으로 보면 대서양 노예무역(약 350년, 주로 16~19세기, 약 1,250만 명 수송)이 압도적으로 집중적이었던 반면, 이슬람 노예무역은 훨씬 더 길고, 지속적이며, 여러

경로로 분산되어 있었다.

두 노예제 사이에는 중요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 대서양 노예무역은 주로 신대륙 플랜테이션의 농업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남녀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노예 공동체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었다. 생존한 노예들의 후손이 오늘날 아메리카 흑인 인구의 기반이 된 이유다.

반면 이슬람 세계의 노예제에서는 남성 노예의 거세(castration)가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하렘을 지키는 환관(eunuchs), 군사 노예(맘루크, Mamluks)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어린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음경과 고환을 완전히 절제하는 수술이 행해졌는데, 위생 상태가 열악했던 당시 조건에서 사망률이 극도로 높았다. 생존율은 10~30%에 불과하다는 기록이 많으며, 일부 보고서는 90% 사망률을 언급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끌려간 수많은 남성 노예들의 유전적 후손이 현대 중동 사회에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여성 노예들은 주로 성적 노동(concubines)과 가사 노동에 동원되었고, 이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중 상당수도 생존하지 못하거나 특정 조건 하에만 인정되었다.

이슬람법(샤리아)에서는 노예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했으나, 일부 인도적 규제를 두었다. 예를 들어 무슬림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금지되었고, 노예 해방(manumission)을 선행으로 여기는 권고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쟁 포로, 아프리카・유럽・중앙아시아・코카서스 등지에서 포획・매매된 비무슬림들이 대규모로 노예가 되었으며, 이 제도는 오스만 제국, 맘루크 술탄국, 아바스 왕조 등 이슬람 제국 전반에 걸쳐 제도적으로 운영되었다. 노예 시장은 바그다드, 카이로, 자잔지바르(Zanzibar)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왜 서구 진보 담론은 이슬람 노예제를 상대적으로 외면하는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다. 첫째, 이슬람 혐오(Islamophobia)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정치적 조심성이다.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무슬림을 집단으로 비판하는 것은 높은 도덕적・사회적 비용을 치른다. 둘째, 유색인종・비서구 문화를 비판하는 데 대한 문화적 불편함(“ noble savage ” 나 문화 상대주의 영향)이다. 셋째, 서구 자신의 식민지배와 대서양 노예무역에 대한 역사적 죄책감이 특정 방향(백인 - 서구 중심)의 비판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조명이 심하게 불균형해졌다. 이슬람 세계에서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시점도 상당히 늦었다 — 사우디아라비아 1962년, 오만 1970년, 모리타니아 1981년(법적으로) — 그럼에도 서구 담론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백은 단순한 ‘ 잊힌 역사 ’ 가 아니다. 노예제는 모든 문명에 존재했던 보편적 제도였으나, 그 규모, 지속 기간, 잔인성, 그리고 현대적 함의를 논의할 때 선택적 침묵은

지적 정직성을 해친다. 버나드 루이스(Bernard Lewis) 같은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이슬람 세계의 노예제는 인종적 • 성적 차원에서 독특한 특징을 보였으며, 그 유산은 오늘날 중동과 북아프리카 사회의 인구 구성과 사회 구조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대서양 노예무역의 참상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문명의 노예제 — 특히 13세기 넘게 지속된 이슬람 노예제 — 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선택적 분노는 진정한 역사 인식이 아니라, 이념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6. 수니파와 시아파: 분열의 기원과 아이러니

이슬람 내부의 가장 깊고 지속적인 분열은 수니파(Sunni)와 시아파(Shia) 사이의 갈등이다. 오늘날 전 세계 무슬림의 약 85~90%가 수니파이며, 시아파는 10~15% 정도를 차지한다. 이 분열의 기원은 632년 무함마드 사후 후계자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서 시작되었다.

수니파(‘ Sunnah ’ 즉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는 공동체의 합의(ijma)와 관습에 따라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무함마드의 가까운 동료였던 아부 바크르(Abu Bakr)가 첫 번째 칼리프로 선출되었다. 반면 시아파(‘ Shi ’ at Ali ’ , 알리의 당파)는 무함마드의 혈통을 강조하며, 그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Ali ibn Abi Talib)만이 정당한 후계자라고 주장했다. 알리와 그의 후손들(이맘, Imam)이 신적 지침을 이어받는다는 입장이었다.

이 정치적 분쟁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적 • 종교적 차이로 발전했다. 결정적 전환점은 680년 카르발라 전투(Battle of Karbala)였다. 알리의 둘째 아들 후사인(Husayn)은 우마이야 왕조의 야지드 1세(Yazid I)에게 충성을 거부하고 쿠파(Kufa)로 향했다. 그러나 카르발라(현재 이라크)에서 약 72명의 소수 일행과 함께 수천 명의 우마이야 군대에 포위되어 학살되었다. 후사인의 머리는 다마스쿠스로 보내졌고, 그의 가족은 포로가 되었다. 이 사건은 시아파에게 순교(martyrdom)와 억압받는 정의의 상징이 되었으며, 매년 아슈라(Ashura, 무하람월 10일)에 애도 의식을 통해 재현된다. 카르발라 이후 시아파는 단순한 정치 파벌을 넘어 뚜렷한 종교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시아파의 기원에는 더 복잡한 문화적 층위가 존재한다. 7세기 중반 아랍 이슬람 군대가 사산 제국(페르시아)을 정복한 후, 수천 년 된 조로아스터교(Zoroastrianism) 문명을 가진 페르시아인들이 이슬람 세계에 대규모로 편입되었다. 아랍 중심의 수니파 우마이야 왕조에 대한 문화적 • 민족적 저항이 강했다. 알리와 후사인의 비극적 서사 —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정의를 위해 희생된 지도자 — 는 페르시아인들의 정서와 깊이 공명했다. 일부 학자들은 시아파 신학에 조로아스터교의 선악 이원론, 순교와 속죄,

중개자(이맘) 개념 등이 스며들었다고 해석한다. 사파비 왕조(Safavid, 1501~1736)가 이란을 공식적으로 12이맘 시아파(Twelver Shia)로 개종시키면서 이 혼합적 정체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여기서 큰 아이러니가 드러난다. 아랍 - 이슬람의 정통에서 다소 이질적인 요소(페르시아 문화와 조로아스터교 잔재)를 흡수한 시아파가, 오늘날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강경하고 순수지향적인 근본주의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 정점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었다.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Ayatollah Ruhollah Khomeini)는 세속적 팔레비 왕조를 타도하고, velayat - e faqih(법학자 통치)라는 신정 이론을 바탕으로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했다. 혁명은 " 동도 서도 아닌, 이슬람 공화국(Neither East nor West, Islamic Republic) " 을 외치며 서구와 소련 모두를 거부했다. 카르발라의 순교 정신은 혁명 동원에 적극 활용되었고, 호메이니는 샤를 ' 야지드 ' 로, 자신과 혁명 세력을 ' 후사인 ' 으로 비유했다. 기원이 문화적으로 ' 혼합적 ' 인 집단이 오히려 종교적 순수성과 정통성에 더 집착하게 된 전형적인 인간 집단의 역설이다.

반면 주류 수니파, 특히 걸프 지역의 왕정 국가들(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은 이슬람의 정통 수호자를 자처하면서도 상당히 실용적인 길을 걸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와하브파(Wahhabism)라는 엄격한 수니 해석을 국교로 삼고 샤리아를 공식 법으로 내세우면서도, 서구 석유 자본과 깊이 통합되어 부를 축적했다. UAE와 카타르는 현대적 금융 • 관광 • 기술 허브로 변모하며 글로벌 자본주의와 타협했다. 이 실용주의는 때로 종교적 엄격성과의 모순(위선)으로 비판받지만, 정치적 생존과 경제적 번영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기도 하다.

이 분열은 오늘날까지 중동 지정학의 핵심 축으로 작용한다. 이란(시아파 중심)은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등 시아파 민병대를 지원하며 ' 저항의 축 ' 을 구축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수니파 왕정들은 이를 견제하며 지역 패권 경쟁을 벌인다. 그러나 종교적 차이 뒤에는 민족(아랍 vs 페르시아), 권력, 자원, 이념적 경쟁이라는 더 현실적인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수니파 - 시아파 분열은 단순한 ' 고대의 종교 분쟁 ' 이 아니다. 초기 정치적 선택이 문화 • 민족적 정체성과 만나 증폭되었고, 현대 혁명과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더해지면서 지속적인 긴장으로 이어졌다. 이 아이러니 — 혼합에서 비롯된 순수 추구, 정통을 강조하면서도 실용적으로 타협하는 모습 — 는 종교가 어떻게 역사와 권력, 인간 본성과 얽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7. 수피즘: 탄압받은 관용의 전통

이슬람 내부에도 관용과 신비주의의 전통이 있었다. 수피즘이 그것이다.

수피즘은 이슬람 신비주의다. 신과의 직접적인 영적 합일을 추구하고, 사랑과 관용을 강조한다. 루미의 시가 그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다. 종교적 경계를 넘어선 보편적 사랑, 내면의 영적 여정은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는 정통 이슬람과는 결이 달랐다.

수피즘은 이슬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이 지역들에서 이슬람이 확산된 것은 군사적 정복보다 수피 성자들의 영적 활동 덕분인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현지 문화와 종교적 전통을 수용하면서 이슬람을 접목시켰다.

그런데 수피즘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이단으로 여겨진다. 성인 숭배, 음악과 춤을 통한 신비 체험(세마), 신과의 합일이라는 개념들이 알라의 유일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즘은 수피즘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수피 성지와 사당을 파괴했다. 오늘날 ISIS와 탈레반도 수피 사당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 이슬람 내부에서 가장 관용적인 전통이 가장 강하게 탄압받는 아이러니다.

8. ISIS, 알카에다, 보코하람: 이슬람인가 정치 폭력인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들을 단순히 ‘이슬람의 변종’으로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이슬람이라는 종교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품고 있는 위험한 잠재력의 필연적 표현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이분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불편한 층위를 가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들을 이슬람의 논리적 귀결로 본다. 쿠란에는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구절들이 명확히 존재하며(예: ‘검의 장’으로 불리는 수라 9장), 초기 이슬람 역사에서 지하드(성전)는 단순한 방어적 투쟁이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선 군사적 정복과 영토 확장으로 실제로 실현되었다. ISIS는 야지디족 여성을 ‘전리품’으로 삼아 성노예화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쿠란 23:5-6절(“자신의 오른손이 소유한 것”에 대한 예외 규정)과 관련 하디스를 직접 인용했다. 그들은 야지디를 다신교도로 규정해 ‘보호민(아흘 알-키타브)’ 지위조차 부정하고, 노예제를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는 징조’로 포장하며 조직적으로 실행했다. 모술 박물관의 고대 유물 파괴 역시 ‘우상숭배 타파’라는 종교적 순수성 논리로 정당화되었다.

반대편에서는 이것들을 이슬람을 도구로 삼은 정치적 폭력 집단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쿠란 구절을 역사적·문맥적 맥락에서 철저히 떼어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슬람 전통의 다수 학자 의견(이즈마)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 126명의 저명한 이슬람 학자들이 알-바그다디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ISIS의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야지디 여성 성노예화, 무고한 민간인 학살, 다른 수니 무슬림 집단에 대한 공격은 샤리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알카에다와 ISIS는 서로를 ‘이단(타크피르)’으로 규정하며

치열하게 공격했다. 알카에다는 ISIS를 과도한 타크피르와 무슬림 피의 무차별 살상으로 비난했고, ISIS는 알카에다를 ‘민주주의 타협’과 ‘지하드 회피’로 매도했다. 순수한 종교적 신앙이라면 왜 같은 ‘우마(이슬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죽이는가?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권력 투쟁, 자원 장악,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의 전형적 양상이다.

ISIS의 잔인함은 이슬람 학계 다수로부터도 ‘이슬람적이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수많은 무프티와 울라마들이 테러를 ‘샤리아가 명백히 금지하는 대죄’로 규정하는 파트와를 발행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슬람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런 극단적 해석을 구조적으로 허용한다는 사실이다. 절대적 진리를 독점적으로 주장하고, 그 진리를 위해 목숨과 도덕을 희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드 개념이 방어적·영적 의미(대(大) 지하드)에서 공격적 군사적 의미(소(小) 지하드)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모호함, 타크피르(이단 선언)의 주관적 적용 가능성, ‘쿠프르(불신)’에 대한 철저한 배척 논리 — 이러한 요소들은 극단주의자들이 언제든 ‘진정한 이슬람’을 독점 선언할 여지를 준다.

보코하람은 또 다른 전형적인 사례다.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활동하는 이 집단의 이름 ‘보코 하람’ 자체가 “서양 교육은 금지된 것”이라는 의미다. 그들은 근대 교육, 민주주의, 세속 헌법, 서구 문명을 이슬람에 대한 근본적 적대(쿠프르)로 규정하고, 폭력적 저항을 ‘지하드’로 포장한다. 여학생 납치(치복 사건), 시장과 모스크에서의 무차별 폭탄 테러, 마을 전체를 불태우는 만행은 국제 사회의 공분을 샀다. 이들의 논리는 구조적으로 아미쉬 공동체의 극단적 폐쇄성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외부 세계(특히 서구의 세속주의와 과학 교육)를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내부 규율을 철저히 강제하며, 이탈자를 처벌하거나 제거하는 메커니즘. 다만 아미쉬가 폭력을 자제하는 반면, 보코하람은 그것을 ‘신의 명령’으로 승화시켜 대량학살의 도구로 삼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는 십자군 원정과 종교재판, 마녀사냥을 통해 비슷한 폭력 논리를 정당화한 적이 있고, 유대교 내 극단적 정착촌 운동이나 일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반(反)낙태 폭력도 종교적 절대주의가 어떻게 정치적·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종교라는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초월적 권위를 내세워 인간의 도덕적 판단을 유보하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신의 뜻”이라는 이름 아래라면 어떤 희생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는, 세속 이념(공산주의, 파시즘) 못지않게 위험하다.

결국 ISIS, 알카에다, 보코하람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해야 한다. 첫째, 이들은 이슬람 텍스트와 역사적 전통의 특정 요소를 선택적으로 강조하여 자신의 폭력을 종교적으로 포장한다. 둘째, 그럼에도 그들의 행위는 이슬람 학계 다수의 해석과 실천에서 크게 벗어나 있으며, 종종 다른 무슬림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무슬림 간 내전’의 성격을 띤다.

이슬람이 이런 극단주의를 ‘ 필연적으로 ’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열어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그 텍스트를 해석하고 권력으로 전환하는 인간의 메커니즘에 있다. 종교가 절대적 진리를 독점하려는 순간, 폭력은 언제든 ‘ 신성한 의무 ’ 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지 않고 ‘ 정치적 폭력 ’ 이나 ‘ 이슬람 왜곡 ’ 이라는 양극단적 프레임에만 매달린다면, 우리는 결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9. 이슬람 이민자의 모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내전, 폭정, 경제적 빈곤을 피해 유럽으로 향한 이슬람 이민자와 난민들은 2015년을 정점으로 유럽 사회에 복잡하고 지속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특히 시리아 내전, 리비아 붕괴, 이라크 혼란 등에서 탈출한 수백만 명이 지중해를 건너 독일,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으로 유입되었다. 이 이민 물결은 서구의 군사 개입(이라크 전쟁, 리비아 공습)과 직접적으로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서구가 중동의 불안정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면, 그 결과로 발생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도적 의무인가, 아니면 자해적 선택인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실제 유럽 현장에서 드러난 현상들은 또 다른 층위의 문제를 제기한다. 목숨의 위협을 피해 탈출한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현지 문화에 적응하기보다, 오히려 현지인에게 이슬람 규범을 강요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수십 개의 샤리아 위원회(Sharia councils)가 가족 • 이혼 • 상속 문제를 다루며 사실상 병렬 사법 체계를 형성했고, 오스트리아나 독일에서도 샤리아 기반 중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나왔다.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의 일부 교외 지역에서는 “ 노고 존(no - go zones) ” 논란이 지속되며, 경찰 진입이 어려운 병렬 사회가 형성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강요하거나, 학교에서 성교육을 거부하고, 이슬람 비판을 ‘ 신성모독 ’ 으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공연히 제기되었다.

이 모순은 표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자국에서 샤리아나 이슬람주의적 체제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껴 도망친 사람들이라면, 그 체제의 규범과 거리를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오히려 그 규범을 새로운 정착지에 이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한 가지 주요 해석은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다. 낯선 유럽 문화 속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불안과 소외감이, 오히려 종교적 • 공동체적 정체성을 더 강하게 붙잡게 만든다. 특히 2세대 • 3세대 이민자들 사이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 부모 세대는 고향 문화와 유럽 문화 사이에서 실용적으로 타협하려 했지만, 서구에서 태어나 교육받은 자녀 세대는 ‘ 완전한 유럽인 ’ 도, ‘ 완전한 중동인 ’ 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놓인다. 이 상실감과 소외가 극단적 종교 해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리적으로는 이해 가능한 메커니즘이지만, 그 결과(탈출했던 억압적 규범을 유럽 사회에 재현하려는 시도)는 별개의 정치 •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또 다른 흥미로운 모순은 정치적 선택에서 드러난다. 중동 •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 상당수는 유럽에서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독일의 사민당(SPD) • 녹색당, 프랑스의 좌파 연합, 스웨덴 사회민주당, 영국 노동당 등은 이민자 친화적 복지 정책, 다문화주의, 반차별 담론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이민자 집단 내부의 가치관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이다.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는 비율이 높고(많은 국가에서 70~90% 이상),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복장에 대한 규제를 지지하며, 샤리아 일부 도입을 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선택은 단순한 ' 위선 ' 이라기보다는 현실적 이해관계의 결과다. 이민자로서 낮은 소득층에 속하고 복지 혜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 • 복지 정책에서는 좌파를 지지하지만, 사회 • 문화 • 가족 가치에서는 전통적 이슬람 규범을 유지하려 한다. 유럽 좌파는 이러한 모순에 눈을 감는 대가로 이민자 표를 확보한다. 결과적으로 좌파는 페미니즘 • LGBTQ 권리 • 표현의 자유 같은 전통적 가치와 충돌하는 이슬람 보수주의를 비판하기 어려워졌고, ' 이슬람 혐오 ' 프레임으로 논의를 봉쇄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 모든 현상은 유럽 사회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다.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는 선언(독일 메르켈, 영국 카메론, 프랑스 사르코지 등)이 나왔음에도, 통합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고, 병렬 사회와 문화적 마찰은 지속되고 있다. 탈출한 사람들이 왜 다시 그들이 피해온 체제의 그림자를 유럽에 드리우려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생존을 위한 실용적 선택, 정체성의 불안정, 종교 공동체의 강한 결속력, 그리고 유럽 사회의 상대적 관용(또는 약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 모순은 결국 유럽 문명의 핵심 가치 — 세속주의, 개인 자유, 법치, 성평등 — 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대규모 문화적 이질성을 가진 이민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드러낸다. 역사적 책임과 인도적 의무를 논하면서도, 수용 사회의 문화적 • 정치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모순은 앞으로도 유럽의 가장 골치 아픈 딜레마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10. 서구에서의 중동 정치에 대한 오독(誤讀)

중동의 정치 지형을 서구의 전통적인 좌우 이분법(좌파 = 진보 • 평등 • 반제국주의 vs 우파 = 보수 • 전통 • 시장주의)으로 읽으려는 시도는 근본적인 범주 오류(category mistake)다. 중동 정치는 서구처럼 계급 • 경제 이념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대신 아랍 민족주의, 종교(시아파 • 수니파), 부족주의, 개인 독재, 지정학적 생존 전략이 복잡하게

얽힌 독자적 논리로 작동한다. 서구 지식인과 미디어가 자국의 정치 프레임을 강제로 적용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왜곡과 오판이 발생한다.

- 바트주의(Ba'athism): 좌파처럼 보이는 독재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하페즈 → 바샤르)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은 모두 바트당(Ba'ath Party) 계열이었다. 바트주의는 미셸 아플라크(Michel Aflaq)가 창시한 이념으로, 아랍 민족주의(Pan - Arabism)와 아랍 사회주의(Arab Socialism)를 결합했다. 슬로건은 " 통합(Unity), 자유(Freedom), 사회주의(Socialism) " 였다. 경제적으로 국가 통제와 국유화를 강조하고, 서구 제국주의 • 시온주의에 반대하며 세속주의를 표방했다. 서구 좌파 기준으로는 상당히 " 좌파적 " 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정치 구조는 극도로 권위주의적이었다. 일당 독재, 강력한 정보기관(무하바라트), 반대파에 대한 잔혹한 탄압, 가족 • 종파 중심의 권력 독점이 핵심이었다. 시리아에서는 알라위파(소수 시아파 분파)가 군부와 정권을 장악했고, 이라크에서는 사담의 티크리트 부족(Sunni Arab)이 지배했다. 사회주의적 수사는 대중 동원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실제로는 개인 숭배와 억압 체제로 귀결되었다. 바트주의는 이념이라기보다는 아랍판 민족주의 독재에 가까웠다.

- 나세르주의(Nasserism): 반제국주의 영웅의 이중성

이집트의 가말 압둘 나세르(Gamal Abdel Nasser, 1954 – 1970)는 서구 좌파에게 오랫동안 영웅적 인물로 그려졌다. 수에즈 운하 국유화(1956), 비동맹 운동 주도, 아랍 민족주의의 상징, 토지 개혁과 사회 복지 정책 등 이 모든 것이 " 반제국주의 • 사회주의 " 프레임에 잘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국내 정치에서는 철저한 권위주의자였다.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고, 이슬람 형제단(Muslim Brotherhood)을 강력히 억압했으며, 언론을 국유화하고 반대파를 고문 • 투옥했다. 그의 " 아랍 사회주의 " 는 마르크스 - 레닌주의가 아니라, 국가 주도 개발과 대중 동원을 위한 실용적 도구였다. 종교적으로는 세속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이슬람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 아랍 사회주의의 토대 " 로 활용하려 했다. 나세르 역시 서구 좌파가 좋아할 요소(반서구)와 싫어할 요소(독재 • 세속적 탄압)가 뒤섞인 전형적 중동 지도자였다.

- 카다피주의: 가장 기괴한 ' 제3의 길 '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Gaddafi)는 더 극단적인 사례다. 그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제3의 보편이론(Third Universal Theory)을 주장하며 《녹색서(The Green Book)》를 발표했다. " 자마히리야(Jamahiriya, 대중국가) " 라는 독특한 체제를

내세워 직접 민주주의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42년간 개인 독재를 유지했다.

석유 자원을 국유화해 복지 정책(무상 의료 • 교육, 보조금)을 펼쳤고, 부족 사회를 고려한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했다. 그러나 정치적 반대파는 공개 처형하거나 해외 암살로 제거했다. 카다피는 아프리카 민족주의, 이슬람 사회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뒤섞은 혼합물을 만들었지만, 결국 부족 • 가족 중심의 전제 정치로 귀결되었다. 서구에서는 때로 " 반제국주의 혁명가 " 로, 때로는 " 광기 어린 독재자 " 로 양극단에서 소비되었다.

- 이란 신정: 단순하지 않은 하이브리드 체제

이란의 신정(Islamic Republic of Iran)은 서구의 전통적인 좌우 이분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모순으로 가득한 체제다. 1979년 혁명 이후 수립된 이 체제는 벨라야트 에 파키(Velayat - e Faqih, 법학자 통치) 원칙에 따라 최고지도자(현재 알리 하메네이)가 실질적인 최종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모든 주요 결정 — 군사, 사법, 외교, 미디어 — 에서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절대적 우선순위를 가진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경한 종교적 보수주의로 보인다. 이슬람법(샤리아)을 국가의 근간으로 삼아 여성의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고, 성적 도덕을 엄격히 규제하며,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 특히 동성애는 샤리아 형법에 따라 사형(교수형 또는 투석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처형 사례도 국제 인권 단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경제 구조에서는 상당한 사회주의적 • 국가 통제적 요소가 드러난다. 혁명 이후 대규모 국유화가 진행되었고, 석유 • 석유화학 산업을 비롯한 핵심 부문은 국가와 혁명수비대(IRGC), 종교 재단(Bonyads)이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다. 복지 정책, 가격 통제, 보조금 체계 등은 자본주의 자유시장과 거리가 멀며, 반서구 • 반제국주의 노선을 경제 정책에 반영해왔다. 이 때문에 일부 서구 좌파 분석가들은 이란을 ' 반제국주의 국가 ' 또는 ' 이슬람 사회주의 ' 로 규정하기도 한다.

또한 반미 • 반이스라엘 노선은 서구 일부 좌파 진영과 이해관계가 겹치는 지점이다. 이란은 " 미국 제국주의 " 와 " 시온주의 " 를 주요 적으로 규정하고,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등과 연계된 ' 저항의 축 ' 을 구축해왔다. 이 반서구적 수사는 서구의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담론과 부분적으로 공명한다.

그러나 가장 극명한 모순은 성(性) 관련 정책에서 나타난다. 동성애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면서, 성전환 수술은 1980년대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내린 파트와(fatwa)로 합법화되어 국가가 부분적으로 비용을 보조하기까지 한다. 법적으로 성별 변경이 인정되며, 이란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성전환 수술을 가장 많이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

이 정책의 이면은 더 어둡다. 많은 게이와 레즈비언이 실제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지지 않음에도, 동성애 혐의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압력이나 강요를 받아 성전환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를 사실상 강제적 성전환으로 비판하며, 동성애를 근절하려는 체제의 도구로 기능한다고 지적한다.

이란 신정은 이렇듯 극단적 종교 보수주의, 반서구적 반제국주의, 국가주의적 경제 통제, 실용적 의료 정책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요소들이 뒤섞인 하이브리드 체제다. 서구 좌파 프레임으로는 반미・반이스라엘 노선 때문에 ‘진보적 저항 세력’으로 미화되기 쉽고, 우파 프레임으로는 종교적 억압만 강조되기 쉽다. 그러나 현실의 이란은 그 어느 쪽으로도 단순하게 환원되지 않는다.

이 모순들은 결국 체제의 본질 — 권력 유지와 이념적 생존 — 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 기준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종교적 순수성과 반제국주의 수사는 대중 동원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면서도, 현실 정치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실용적으로 왜곡・조정된다. 이런 복잡한 구조 때문에 중동 정치를 서구식 좌우 스펙트럼으로 읽으려는 시도는 반복적인 오독을 낳을 수밖에 없다.

왜 서구적 오독이 반복되는가?

서구 지식인들은 중동 정치를 분석할 때 자주 다음 오류를 범한다.

- 경제・이념 중심 해석: 국가 통제 = 좌파, 세속주의 = 진보로 단순화.

- '반서구 = 진보'라는 도덕적 프레임 적용.

- 현지 맥락 무시: 민족(아랍 vs 페르시아), 종파(수니 vs 시아), 부족, 가족, 군부의 역할을 과소평가.

- 역사적 연속성 무시: 오스만 제국 붕괴 이후 식민지 경험, 냉전, 석유, 이스라엘 건국 등이 만들어낸 생존 논리를 간과.

결과적으로 중동의 독재자들은 필요에 따라 “사회주의자”, “세속주의자”, “반제국주의자”라는 라벨을 붙여 서구 여론을 조작하거나 동조자를 확보했다. 진짜 중요한 변수는 권력 유지와 집단 정체성(민족・종교・부족)이었다.

중동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서구의 좌우 축을 잠시 내려놓고, 민족주의 + 종교 + 권위주의 + 지정학이라는 중동 고유의 다차원 축으로 보아야 한다. 이 프레임을 무시한 채 자국의 정치적 서사를 투영하면, 정책 실패와 지적 왜곡만 반복될 뿐이다. 실제 역사 — 바트당의 몰락, 나세르의 후계자 사다트의 급선회, 카다피의 비참한 최후, 이란 신정의 지속 — 가 이 점을 가장 냉정하게 증명하고 있다.

11. 이슬람과 서구의 충돌: 누가 먼저 도발했는가

이슬람과 서구 문명의 갈등을 논할 때, 많은 사람들이 9/11 테러 이후의 '현대적 충돌'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 프레임 자체가 이미 교묘한 왜곡이다.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충돌의 뿌리는 이슬람의 탄생 직후부터 이어져 온 장기적 문명 간 대립이며, '누가 먼저 도발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시작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진다. 그런데 이슬람 측 서사에서는 언제나 서구가 가해자이고 자신들은 영원한 피해자라는 희생자 서사(victimhood narrative)가 지배적이다. 이는 불편한 역사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외면한 선택적 기억이다.

먼저 가장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슬람은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출현한 직후부터 공격적 확장을 시작했다. 무함마드 사후 리시둔 칼리프 시대(632~661)와 우마이야 왕조를 거치며, 이슬람 군대는 불과 수십 년 만에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북아프리카, 스페인(이베리아 반도)까지 정복했다. 이전에 기독교가 지배하던 지역들이 속수무책으로 넘어갔다. 예루살렘은 638년에 함락되었고, 콘스탄티노플(비잔티움 제국 수도)은 수차례 포위당했다. 이 정복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지하드라는 종교적 명령에 따라 '다르 알-이슬람(이슬람의 집)'을 확대하고 '다르 알-하르브(전쟁의 집)'를 복속시키는 과정이었다.

십자군 전쟁(1095~1291)은 이런 이슬람의 지속적 팽창에 대한 늦은 방어적 반격이었다. 11세기 셀주크 투르크의 아나톨리아 침공과 기독교 순례자에 대한 박해가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서구 기독교 세계는 이미 수백 년 동안 동방에서 밀려나고 있었던 것이다. 십자군을 '서구의 침략'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그 이전 400년 넘는 이슬람의 정복 역사를 지우는 편의적 역사관이다.

오스만 제국 시대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스만 투르크는 14세기 중반부터 유럽 대륙으로 진출해 발칸 반도를 정복하고,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켜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다. 이후 빈 포위(1529년, 1683년)까지 이어진 오스만의 유럽 팽창은 기독교 유럽에게 실존적 위협이었다.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문을 두드린 이슬람 제국 그 자체였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지즈야(인두세)를 내거나 개종 압력을 받으며 살아남아야 했다. 서구가 '제국주의'를 했다면, 오스만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제국주의적 정복과 지배를 행사했다.

근대에 들어서도 이슬람 측의 '서구 도발' 서사는 여전히 선택적이다. 1차 세계대전 후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 영토를 분할한 사이크스-피코 협정(1916)은 흔히 중동 불안정의 원죄로 지목된다. 직선으로 그어진 인위적 국경이 부족과 종파를 무시하고 나라를 만들었다는 비판은 일정 부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오스만 제국이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였다. 오스만이 1차 대전에서 독일 편에 서서 패한 뒤 승전국들이 전후 처리한 것이다. 오스만 제국 스스로가 수백 년 동안 중동과 발칸을 지배하며 다양한 민족 • 종교 집단을 억압해 온 역사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패전국의 영토 분할은 역사적으로 드문 일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 후 중동 사회가 스스로 안정된 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종파주의 • 부족주의 • 이슬람주의로 빠져든 데 있다.

이란의 반미 감정 역시 자주 언급되는 ‘ 서구 원죄 ’ 사례다. 1953년 CIA와 영국이 모사데크 총리를 축출한 쿠데타(Operation Ajax)는 사실이었다. 모사데크가 영국 소유의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자 서구가 개입해 팔라비 샤 왕정을 강화했다. 이 사건이 1979년 이란 혁명의 반미 정서를 부채질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도 맥락이 생략된다. 모사데크 정부는 경제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을 키웠고, 공산주의 세력(Tudeh 당)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구는 냉전 논리로 개입했다. 더 근본적으로, 1979년 혁명 이후 세워진 이슬람 공화국은 서구의 개입을 빌미로 반세기 넘게 반미 • 반서구 이데올로기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아왔다. 호메이니 정권은 미국을 ‘ 대악마 ’ 로 규정하며 인질 사건, 테러 지원, 핵 개발, 지역 패권 투쟁을 정당화했다. 1953년 쿠데타가 있었다고 해서, 이후 이슬람 정권이 보여준 전체주의적 억압, 여성 인권 유린, 이슬람 혁명의 수출 시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슬람과 서구의 충돌에서 ‘ 누가 먼저 도발했는가 ’ 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게임이다. 중요한 것은 패턴이다. 이슬람 문명은 출현 이래 지속적으로 주변 문명을 정복하고 복속시키려는 팽창주의적 동력을 보여왔다. 쿠란과 하디스에 내재된 지하드 개념, 다르 알 - 이슬람 vs 다르 알 - 하르브의 이분법, 불신자에 대한 우월 의식은 그런 동력을 종교적으로 뒷받침한다. 반면 서구는 계몽주의, 세속화, 민주주의, 과학 기술을 통해 근대성을 이루었고, 18~19세기부터 이슬람 세계를 압도했다. 식민지 지배는 그 우위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었다.

오늘날 ISIS, 알카에다, 보코하람, 이란의 대리전, 유럽 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 서구 이슬람화 ’ 에 대한 우려까지 이어지는 현상은 단순히 ‘ 서구가 만든 결과 ’ 가 아니다. 이슬람 내부의 개혁 실패와, 쿠란 • 선지자 전통에 대한 문자주의적 • 극단적 해석이 허용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핵심 원인 중 하나다. 서구의 정책 실책(이라크 전쟁, 리비아 개입 등)이 기름을 부은 것은 사실이지만, 불을 지핀 것은 이슬람 세계가 근대성과 세속적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데 실패한 데 있다.

‘ 서구가 극단주의를 키웠다 ’ 는 주장은 결국 책임을 전가하는 편리한 수사다. 역사적으로 이슬람은 수세기 동안 서구(기독교 세계)를 위협하고 정복하려 했으며, 현대에 들어서면서 서구의 우위 앞에서 패배와 굴욕을 느꼈다. 그 굴욕을 ‘ 서구 탓 ’ 으로 돌리고 영원한 피해자 서사를 유지하는 한, 진정한 화해와 개혁은 요원하다. 충돌의 본질은 단순한

‘누가 먼저’가 아니라, 두 문명이 가진 근본적 가치관의 충돌 — 절대적 종교 진리 vs 세속적 이성, 지하드 vs 계몽, 샤리아 vs 인권 — 에 있다. 이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한, ‘대화’나 ‘이해’라는 미사여구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12. 패턴의 반복: 이슬람도 예외가 아니다

이슬람의 역사를 돌아보면 1편의 기독교, 2편의 유대교에서 본 패턴이 반복된다.

초기의 개방성과 관용 → 팽창 과정에서의 폭력 → 외부 충격(몽골 침입) 이후 보수화 → 내부 이단 탄압(수피즘) → 극단주의의 등장 → 외부와의 충돌 → 난민 발생 → 새로운 정착지에서의 갈등.

그리고 이슬람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왔다. 서구 제국주의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가해자였다. 몽골의 침략을 당하면서, 동시에 힌두교 문명권을 정복했다. 극단주의 테러의 피해자(무슬림이 ISIS의 가장 많은 희생자다)이면서, 동시에 그 테러의 온상이 이슬람 문화권이었다.

이 패턴을 보면 문제가 이슬람이라는 특정 종교에 있다기보다, 종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결론에 가까워진다. 4편에서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의 공통 기원인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이 설계된 것인지를 묻는다.

- 참고문헌 -

버나드 루이스, 『이슬람의 위기(The Crisis of Islam)』 — 이슬람 세계가 근대화에 실패하고 극단주의로 향하게 된 역사적 경로를 분석. 이슬람 황금기의 쇠락과 서구와의 충돌 구조를 추적한다.

이븐 와라크, 『나는 왜 무슬림이 아닌가(Why I Am Not a Muslim)』 — 이슬람 내부에서 나온 비판적 시각. 쿠란의 역사적 형성 과정, 이슬람법의 폭력적 적용, 이슬람 문명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는 저작.

에르네스트 르낭, 『이슬람과 과학(L'Islamisme et la Science)』 — 이슬람이 초기 황금기의 과학적 개방성에서 어떻게 폐쇄적 근본주의로 이행했는지를 추적한 19세기의 논쟁적 강연문. 이슬람 황금기와 그 붕괴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이븐 시나(Avicenna, 980–1037), 『치유의 서(The Book of Healing)』 중 ‘진실한 자들의 증명(Proof of the Truthful, burhān al-ṣiddīqīn)’ — 신의 존재를 순수 이성으로 증명하려는 대표적인 형이상학적 논증. 그리스 철학과 이슬람 신학을 결합한 고전적 시도.

알 가잘리(Al - Ghazali, 1058 – 1111), 『철학자들의 모순(The Incoherence of the Philosophers)』 — 이븐 시나 등 철학자들의 인과율, 세계의 영원성 등의 주장을 공격하며 이성의 한계와 계시의 우위를 강조한 결정적 저작.

이븐 루슈드(Ibn Rushd, Averroes, 1126 – 1198), 『모순의 모순(The Incoherence of the Incoherence)』과 『결정적 논고(The Decisive Treatise)』 — 알 가잘리의 비판에 대한 반박. "진리는 진리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철학적 이성과 계시의 조화를 주장하며, 철학적 탐구의 정당성을 강력히 옹호한 작품.

알 마아리(Al - Ma'arri, 973 – 1057), 『필요한 불필요(Luzūmiyyāt)』 — 종교와 예언을 신랄하게 비판한 자유사상가의 대표 시집. 무신론에 가까운 회의주의와 반종교적 관점을 드러내며, 이슬람 황금기 내 지적 개방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텍스트.

제4편

아브라함, 악신(惡神), 그리고 인신공양으로서의 역사

아브라함, 악신(惡神), 그리고 인신공양으로서의 역사

1. 시작하며: 근원으로 돌아가는 질문

1편부터 3편까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을 각각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탄압받던 자가 권력을 잡으면 탄압하는 자가 된다. 피해자의 언어로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내부의 이단을 정리하고, 외부의 이교도를 정벌하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가 흐른다.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 세 종교는 왜 이토록 유사한 패턴을 반복하는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이 종교들이 공유하는 어떤 구조적 특성 때문인가. 그리고 그 구조의 시작점, 즉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그가 믿었던 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이 보이는가.

이것은 사고실험이다. 역사적 사실과 철학적 추론이 뒤섞이는 영역이다. 그러나 사고실험의 가치는 그것이 도달하는 결론의 충격성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조를 보는 데 있다.

2. 세 종교의 피드백 루프

개별 종교를 따로 보면 각각의 문제로 보인다. 그런데 함께 놓고 보면 이 셋이 서로를 먹이 삼아 굴러가는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

중세 기독교가 유대인을 금융업에 가두었다. 그 금융 노하우가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되었고, 근대 자본주의의 한 축이 되었다. 그 자본의 일부가 시오니즘 운동을 지원했고, 이스라엘 건국에 기여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주변 이슬람 국가들과 충돌했다. 그 충돌이 반복적인 중동전쟁으로 이어졌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이슬람 세계의 반서구 감정을 키웠다. 그 감정이 이슬람 극단주의의 토양이 되었고, 극단주의가 테러를 낳았으며, 테러에 대한 서구의 군사적 대응이 중동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불안정해진 중동에서 난민이 발생했고, 그 난민이 유럽으로 흘러들어왔다. 유럽 내에서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의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이 다시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문제와 얽혀 서구 정치권을 분열시킨다.

이 루프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어느 지점을 시작점으로 잡아도 결국 아브라함계 종교들의 공통 기원으로 수렴한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 이 셋은 적이면서 동시에 공생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서로를 증오하면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 이유가 된다.

3.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사고실험의 출발점

아브라함.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은 이른바 아브라함 계통의 세 종교가 공통으로 ‘ 시조 ’ 로 모시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다. 유대인에게는 민족의 뿌리요, 기독교인에게는 ‘ 믿음의 조상 ’ , 무슬림에게는 ‘ 이브라힘 ’ 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예언자이자, 모든 예언자들의 선구자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신앙적 경건함을 잠시 내려놓고, 냉정하고 문학적인 시선으로 다시 읽어보면, 상당히 불편하고 기이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떠오른다.

그는 자신이 ‘ 신의 목소리 ’ 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네 후손에게 주겠다 ” 고 말했다. 문제는, 그 땅에 이미 수많은 부족과 도시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목소리는 또한 그에게 “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 고 약속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목소리는 어느 날 그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늦게 얻은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다.

이삭 번제(아케다, Akedah) 사건은 아브라함 서사 전체에서 가장 강렬하고도 충격적인 장면이다.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난다. 삼 일 길을 간 끝에 산이 보이자, 그는 종들을 남겨두고 이삭과 함께 올라간다.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묻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한다.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시리라.”

산 정상에 도착한 그는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아들을 묶어 그 위에 올린다. 그리고 칼을 들어 이삭의 목을 치려는 순간, 하늘에서 천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전통적인 신학적 해석은 이 장면을 ‘최고의 믿음’과 ‘완전한 순종’의 절정으로 읽는다. 아브라함은 신이 무엇을 요구하든, 그것이 자신의 도덕적 직관이나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완전히 초월하더라도, 아무런 반문 없이 따르는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그려진다. 결국 이삭은 살아남았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조금만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여기서 신은 인신공양(자신의 아들을 죽여 불태우라는)을 명백히 명령하는 존재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노년에야 얻은 유일한 아들, 미래의 모든 약속이 걸린 그 아이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 앞에서 도덕적 갈등, 윤리적 저항, 아버지로서의 본능적 공포를 단 한 번도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침묵 속에서 순종한다. 칼을 치켜드는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천사가 개입하고, 숫양이 대신 제공된다. 하지만 그 ‘해피엔딩’이 가려버리는 본질적인 사실은 여전히 남는다. 이 서사 속 신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요구를, ‘신이시니 옳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려 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사고실험의 출발점으로 삼는 이유다.

그는 정말로 ‘믿음의 영웅’인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위험한 복종의 전형인가. 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위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감각마저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불편한 사례인가.

이 한 장면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순간, 아브라함 서사는 더 이상 편안한 경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과 인간, 순종과 도덕, 신앙과 양심 사이의 긴장 관계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철학적·윤리적 폭탄이 된다.

그 폭탄의 심지는 아직도 타고 있다.

4. 만약 아브라함이 정말 신의 계시를 받았다면

여기서 진짜 사고실험이 시작된다.

만약 아브라함이 실제로 신의 계시를 받았다면(그리고 그 신이 전지전능하며 시간 밖에 존재하는 절대자라면) 그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칼을 들던 그 순간, 이미 수천 년 후의 인류 역사를 모두 내려다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무슬림과 유대인을 학살하며 "신의 뜻"을 외치던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그는 중세 유럽에서 수만 명의 여성이 마녀로 몰려 불태워지는 장면을 보았을 것이다.

그는 스페인 종교재판소에서 유대인과 이단자들이 고문대 위에서 신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는 러시아와 폴란드에서 반복된 유대인 포그롬, 피로 물든 거리와 부서진 집들을 보았을 것이다.

그는 20세기 중반,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산업적으로 학살하며 "최종 해결"이라 이름 붙인 홀로코스트의 연기를 하늘 높이 피어오르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또한 1948년 이후 이어진 중동전쟁의 참상, 레바논 내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종교적·민족적 학살,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던 순간, 그리고 21세기 들어 가자지구에서 반복되는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까지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전지전능한 신이 이 모든 것을 미리 알면서도,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계시를 내렸다면, 그 의미는 명확하다.

그 신은 이 모든 결과를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열어주었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그 신은 이 결과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의도한 바의 일부로 포함시켰다는 뜻이 된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전통적인 신학적 변명은, 여기서 상당히 힘을 잃는다. 자유의지는 개인의 도덕적 선택 — 한 사람이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에 —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수천 년에 걸쳐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종교적 폭력과 학살 앞에서는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십자군 전쟁, 종교재판, 포그롬, 홀로코스트, 지하드, 성전(聖戰), 이슬람국가(IS)의 참수극, 유대교 극단주의자의 테러, 기독교 우파(아니, 심지어 기독교 좌파까지도)의

폭력까지. 이것들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적 일탈이나 도덕적 실패가 아니다. 그것들은 아브라함 계통 종교가 가진 배타적 선택의식, ‘ 약속된 땅 ’, ‘ 유일한 진리 ’, ‘ 이단 ’, ‘ 불신자 ’ 라는 개념, 그리고 ‘ 신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 ’ 는 강렬한 사명감이 만들어낸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만약 아브라함이 정말로 신의 음성을 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불편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 신은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내리는 순간, 이후 벌어질 수많은 종교전쟁과 학살과 고통을 자신의 ‘ 계획 ’ 안에 이미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인류가 피 흘리고, 서로를 저주하고, 이름 모를 아이들이 폭격과 기아로 죽어가는 모든 장면이, 그 신의 더 큰 목적을 위한 필요조건 혹은 허용된 결과였다는 뜻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가능성이다. 신이 악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알면서도 그것을 허용하거나 설계의 일부로 삼았다는 가능성. 인간의 고통과 피가, 신의 영광과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재료로 미리 계산되어 있었다는 가능성.

아브라함이 칼을 들던 그 순간, 만약 정말 신의 계시가 있었다면, 그 신은 이미 모리아 산 아래로 흐를 미래의 모든 피를 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 번제물을 바치라 ” 고 말했다.

5. 인신공양으로서의 역사

이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면, 아브라함 계통 종교의 역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끝없이 이어지는 인신공양으로 읽힌다.

모리아 산 위에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칼은 결국 이삭의 목을 베지 않았다. 신이 마지막 순간에 개입해 멈추게 했다. 그러나 그 이후 4천 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같은 이름의 신을 받들며 벌어진 실제 인신공양의 규모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수억 명에 이르는 인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그 후손들이 세운 종교와 정치적 질서의 이름으로 제물로 바쳐졌다.

이 모든 희생자들이 공통으로 가진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바로 그 신의 이름 아래에서 죽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 신의 뜻 ’, ‘ 약속의 땅 ’, ‘ 성전 ’, ‘ 이단 심판 ’, ‘ 최종 해결 ’, ‘ 지하드 ’ 같은 이름으로 제단 위에 올려졌다.

냉소적으로 말하자면, 모리아 산에서 신이 아브라함의 칼을 막은 것은 단순한 자비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단 한 명의 희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을 확인한 순간, 더 이상 그 개인적인 제물은 필요

없어졌다. 대신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이름 없는 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계 종교는 본질적으로 희생의 종교다. 희생은 단순한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신학의 핵심이다.

기독교에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인류의 원죄를 대속하기 위한 ‘최후의 희생’으로 해석된다. 시아파 이슬람에서 이맘 후사인의 카르발라 학살은 순교와 저항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다. 유대교에서는 이삭 번제(아케다)의 기억이 유월절(Passover)과 대속죄일(Yom Kippur)의 신학적 뿌리가 된다. 희생, 순교, 번제, 대속이라는 이 단어들은 세 종교 모두의 언어와 의식, 신학의 중심을 관통한다.

문제는 이 ‘거룩한 희생’이라는 개념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제 인간의 피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십자가를 든 군대는 “신을 위해 죽어라”며 적을 도륙했다. “순교”라는 이름 아래 자살폭탄 테러가 미화되었다. “선택받은 민족”과 “약속의 땅”이라는 신학은 영토 분쟁과 민족청소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다. 희생의 언어는 언제나 강력했다. 그것은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들고, 죽음을 영광으로 포장하며,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죄책감을, 복수심을, 혹은 새로운 희생을 요구하는 힘을 부여했다.

결국 모리아 산의 작은 제단 위에서 막혔던 칼은, 역사의 광활한 제단 위에서 수없이 다시 내려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천사가 나타나 막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바치려 했던 단 한 명의 아들이 아니라, 수억 명의 아들딸들이,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바쳐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 서사의 가장 거대하고도 가장 암울한 연장선이다. 인신공양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규모를 키워, 역사 전체를 제단으로 삼았을 뿐이다.

6. 야훼의 기원: 수많은 신들 중 하나

야훼는 처음부터 유일한 신이 아니었다. 그는 가나안의 신들 무리 속에서, 한때 경쟁자들 사이에 서 있던 존재였다.

구약성서를 경건한 필터 없이 주의 깊게 읽으면, 이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두지 말라”(출애굽기 20:3). 이 명령 자체가 다른 신들의 실재성을 전제하고 있다. 만약 다른 신들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면, 이런 금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는 철저한 유일신론(monotheism)이 아니라, 일신숭배(monolatry)이다. 다른 신들의 존재는 인정하되, 오직 야훼만을 섬기라는 배타적 충성 명령에 더 가깝다.

성서학자와 고고학, 비교종교학 연구에 따르면, 야훼는 원래 가나안 지역을 둘러싼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남쪽, 에돔(Seir)과 미디안 지역에서 기원한 전쟁신이자 폭풍신으로 보인다. 이집트 기록(아멘호테프 3세 시대 Soleb 비문)에 이미 "Yhw3"라는 지명이 샤수(Shasu) 땅 유목민과 연관되어 등장하는데, 이는 야훼 숭배가 이스라엘 북쪽이 아닌 남쪽 사막 지대에서 먼저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초기 성서 텍스트들(예를 들어 「드보라의 노래」(사사기 5장)나 하박국 3장)에서 야훼는 세이르(Seir)와 에돔(Edom), 파란 산(Mount Paran)에서 행진해 올라와 지진과 폭풍을 동반하며 적들을 무찌르는 전사의 신으로 묘사된다. 그는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부족의 보호자이자, 전투의 신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가나안의 최고신 엘(El)과 구별되는 존재였다. 엘은 우가리트 신화에서 판테온의 아버지이자 창조주로, 온화하고 권위 있는 최고신이었다. 반면 야훼는 더 거칠고, 질투심 강하며, 전쟁과 파괴에 가까운 성격을 지녔다.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야훼는 점차 이스라엘의 민족신으로 채택되었고, 엘의 일부 속성을 흡수하면서 엘과 점차 동일시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바알(Baal, 비와 폭풍, 비옥함의 신)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열왕기서에서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은, 바로 이 두 신 사이의 권력 투쟁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야훼는 또한 아세라(Asherah)라는 여신과도 관계가 있었다. 고고학 유물(예: Kuntillet Ajrud 비문)에는 "야훼와 그의 아세라"라는 표현이 실제로 발견되는데, 이는 초기 이스라엘 종교가 완전한 유일신이 아니라, 여전히 다신교적 요소를 품고 있었음을 증언한다.

이 기원을 알면 야훼의 성격 가운데 현대인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갑자기 선명해진다. 그는 왜 그렇게 질투가 심한가? 왜 다른 신을 섬기면 격렬한 분노를 터뜨리는가? 왜 가나안 주민들을 몰살하라고 명령하고, 전쟁에서 적의 여인과 아이들까지 철저히 죽이라고 지시하는가?

이것들은 보편적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는 후기 신학의 신이라기보다는, 한 부족을 위해 다른 부족과 싸우는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전쟁신, 부족신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배신하는 자와 경쟁 신들을 용서하지 않는, 강렬하고 배타적인 신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종교적 성공 스토리 중 하나다.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평범한 전쟁신에 불과했던 야훼가, 자신의 민족을 통해 점차 모든 민족의 유일한 신으로 격상되었다. 바벨탑 이전의 다신교 세계에서 시작해, 결국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선언하는 존재로 진화한 것이다.

이 과정은 단순한 신학적 발전이 아니라, 정치적・문화적・군사적 승리의 산물이었다. 야훼는 경쟁자들을 흡수하거나 악마화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하며, 마침내 서구 문명의 근간이 되는 신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기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신의 뿌리를 볼 수 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칼을 들게 했던 그 목소리,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라고 명령했던 그 목소리, 질투와 전쟁의 언어로 가득했던 그 목소리는, 처음부터 보편적이고 자비로운 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때 수많은 신들 중 하나였던, 야훼라는 부족신의 목소리였다.

그가 어떻게 인류 대부분의 신적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은 여전히 경이롭고, 동시에 불편한 성공의 역사다.

7. 영지주의: 야훼가 악신이라는 오래된 주장

야훼가 진정한 선한 신이 아니라는 주장은, 결코 현대의 회의주의자들이 처음 제기한 것이 아니다. 그 의심은 기독교가 탄생한 직후부터 이미 강렬하게 제기되었다.

영지주의(Gnosticism)는 1~3세기 기독교 초기의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했던 사상 흐름 중 하나였다. 정통 교회가 결국 이단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탄압했지만, 그 핵심 주장은 여전히 날카롭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야훼를 ‘진짜 신’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그들은 그를 데미우르고스(Demiurge)라고 불렀다.

데미우르고스는 플라톤 철학에서 빌려온 개념으로, ‘장인’ 또는 ‘조물주’를 의미한다. 영지주의에 따르면 데미우르고스는 최고신(알려지지 않은 아버지, 또는 플레로마의 진정한 신)이 아니다. 그는 불완전하고, 교만하며, 때로는 악의적이기까지 한 존재다. 이 데미우르고스가 물질 세계와 육체를 창조했으며, 바로 이 창조물이야말로 영혼이 갇힌 감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보기에, 구약성서에서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외치며, 가나안 일곱 족속의 전멸을 명령하고, 자신의 백성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으로 징벌하는 신이 바로 데미우르고스였다. 야훼는 완전한 선이 아니라, 권력과 통제를 갈망하는 불완전한 조물주였다. 진정한 신은 그보다 훨씬 위에 있으며, 완전히 초월적이고, 빛과 지식(그노시스)으로 가득한 존재였다. 예수는 바로 그 진정한 신의 사자로, 인류를 물질 세계의 감옥에서 깨우기 위해 온 구원자라는 것이 그들의 해석이었다.

이와 유사한 주장을 더욱 노골적으로 펼친 인물이 2세기의 마르시온(Marcion)이다. 그는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을 아예 다른 두 존재로 규정했다. 구약의 신은 정의와 법과 복수와 저주를 강조하는 엄격하고 잔혹한 신이며, 신약에서 예수가 드러낸 신은 오직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신이라는 것이다. 마르시온은 구약성서 자체를 기독교 경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결국 그는 정통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선포되었고, 그의 추종자들은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마르시온이 지적한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 신약에서 “ 원수를 사랑하라 ” , “ 다른 뺨을 내밀라 ” , “ 용서하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 ” 고 가르치는 예수와, 구약에서 “ 히브리인에게 저항하는 가나안 모든 주민을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진멸하라 ” 고 명령하는 신이, 과연 같은 존재인가? 이 두 이미지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정통 신학은 오랜 세월 동안 ‘ 계시의 점진성 ’ , ‘ 언약의 발전 ’ , ‘ 하나님의 교육적 방법 ’ 같은 설명을 제시해왔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 설명은 여전히 불충분하게 느껴진다.

영지주의는 결국 로마 제국 기독교 정통 교회와 황제의 힘에 의해 철저히 탄압당하고, 거의 모든 문서가 불태워지거나 사라졌다. 그들의 목소리는 수 세기 동안 역사에서 지워진 듯했다.

그런데 1945년, 이집트 나그함마디(Nag Hammadi) 사막의 한 항아리 속에서 극적으로 영지주의 문서들이 대량 발견되었다. 코프트어로 쓰인 《토마스 복음서》, 《진리의 복음》, 《필립 복음서》, 《비밀의 책》 등 수십 편의 사본들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발견은 학계에 충격을 주었다. 1600년 넘게 묻혀 있던, 정통 교회가 ‘ 이단 ’ 이라며 지워버리려 했던 사상이, 현대에 와서 다시 살아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사건이 아니었다. 야훼가 선한 신이 아니라,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불완전한 조물주라는 오래된 주장이, 수천 년의 침묵을 뚫고 다시 우리 앞에 놓인 것이다.

영지주의는 여전히 ‘ 이단 ’ 으로 남아 있지만, 그들이 제기한 질문만큼은 결코 쉽게 묻히지 않는다.

구약의 야훼는 정말로 최고선(最高善)의 신인가, 아니면 데미우르고스(권력에 취한 불완전한 창조자)인가.

그 질문은 오늘날에도, 모리아 산 위의 칼처럼, 여전히 우리를 겨누고 있다.

8. 더 만델라 카탈로그(The Mandela Catalogue): 현대적 상상력으로 읽는 대체 신학

유튜버 알렉스 키스터(Alex Kister)의 더 만델라 카탈로그(The Mandela Catalogue)은 표면적으로는 유튜브에서 유행한 아날로그 호러 시리즈일 뿐이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신학적 상상력은 놀라울 정도로 날카롭고, 불편하다.

이 작품의 핵심 설정은 섬뜩하다. 우리가 오랫동안 선하다고 믿어온 기독교적 신과 그 대리자들(천사, 성직자, 성경의 인물들)이 어느 순간 ‘ 알터네이트(Alternate) ’ 라는 존재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겉모습은 똑같지만, 본질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친숙한 얼굴로 다가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을 위로하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왜곡되고, 그 눈동자에는 인간을 초월한 악의가 스며든다. “ 이것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신인가, 아니면 우리를 모방하고 침투해 우리를 파괴하려는 무언가인가? ”

이 공포는 단순한 호러 장르의 트릭이 아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적 전통의 가장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재해석이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했던 데미우르고스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알터네이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난 것이다. 진짜 신은 이미 오래전에 이 세계를 떠났거나, 가로막혔으며, 지금 우리가 숭배하고 기도하며 따르는 존재는 그 자리를 차지한 가짜(불완전하고, 기만적이며, 인간의 영혼을 착취하는 존재)일 수 있다는 두려움. 더 만델라 카탈로그는 바로 그 두려움을 아날로그 테이프의 왜곡된 화질과 낮은 해상도의 화면, 일그러진 목소리로 시각화한다.

가장 무서운 장면은, 익숙한 종교적 이미지가 서서히 뒤틀리는 순간이다. 예수를 닮은 형상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지만, 그 미소는 너무 길고, 너무 넓다. 성경 구절을 읊조리는 목소리가 점점 기괴한 주파수로 변조된다. “ 두려워하지 말라 ” 는 말이, 듣는 사람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저주처럼 들린다.

이 작품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공명하는 이유는, 그 공포가 순수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종교가 실제로 걸어온 역사에서 비롯된, 깊고 오래된 불신의 메아리다.

종교는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설교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름으로 십자군을 일으키고, 종교재판을 열고, 이단을 화형하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자살폭탄을 정당화하고,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은 성지에서 폭력을 행사해왔다. 구원을 약속하면서 실제로는 신자들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고, 복종을 요구해왔다.

“ 신은 너를 사랑한다 ” 는 말 뒤에, 때로는 “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 는 협박이, 혹은 “ 이 땅은 신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다 ” 라는 영토적 폭력이 따라붙었다.

그 오랜 간극(종교가 약속한 것과 종교가 실제로 행한 것 사이의 깊은 균열)이 더 만델라 카탈로그 속에서 “ 우리가 믿어온 신이, 사실은 우리를 해치려는 존재였다 ” 는 형태로 극단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알터네이트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다. 그것은 신앙의 대상이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순간,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인 불안을 시각화한 존재다. 우리가 평생 기도하고, 찬양하고, 두려워하며 섬겨온 그 무엇이,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소모하기 위한 가짜였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 작품은 영지주의가 수천 년 전에 제기했던 질문을, VHS 테이프 영상과 왜곡된 음성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던진다.

“ 네가 믿는 그 신은, 정말로 네 편인가? 아니면 네가 믿는 바로 그 신이, 이미 오래전에 무엇인가로 대체되어버린 것인가? ”

9. 아즈텍과 아브라함계 종교: 학살의 규모 비교

이야기를 잠시 아메리카 대륙으로 돌려보자.

아즈텍 제국은 인신공양으로 악명 높다. 태양신 우이칠로포치틀리(Huitzilopochtli)에게 전쟁 포로의 살아 있는 심장을 꺼내 바치는 의식은, 아즈텍 신앙의 핵심이었다. 테노치티틀란의 대피라미드(Templo Mayor) 재봉헌식에서는 단 사흘에서 나흘 동안 수만 명이 제단 위에 올려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제사장들은 칼로 가슴을 갈라 뜨거운 심장을 태양에게 바치고, 시신은 계단 아래로 굴려 보냈다. 피로 물든 계단과 두개골을 쌓아 만든 Tzompantli(촘판틀리, 두개골 선반)는 그들의 신앙이 요구하는 대규모 희생의 증거로 남아 있다.

이 관행은 분명히 잔혹했다. 아즈텍 신앙은 태양이 매일 뜨기 위해 인간의 피와 심장이 필요하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전쟁을 부추겨 포로를 대량으로 확보하게 만들었다. 수천, 때로는 수만 명의 목숨이 종교적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체계적으로 끊어졌다. 이는 고대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극단적인 종교적 폭력의 한 전형이었다.

그런데 스페인 콩키스타도르들은 바로 이 ‘ 야만적 이교도 ’ 를 문명화하고 기독교화한다는 명분으로 아즈텍 제국을 정복했다. 에르난 코르테스는 십자가를 들고, 마리아의 이름을 외치며 테노치티틀란을 함락시켰다.

그러나 규모를 냉정하게 비교하면, 충격적인 역설이 드러난다.

아즈텍의 인신공양이 아무리 잔인하고 체계적이었어도, 그 총 희생자 수는 아브라함계 종교의 역사 속에서 벌어진 학살 규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학자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아즈텍 제국 전체에서 연간 수만 명 수준(일부 과장된 기록은 20만 명까지 주장하나 최근 연구에서는 상당히 낮춰진다)의 희생이 추정될 뿐이다. 반면 아브라함계 종교의 이름으로, 혹은 그 종교가 만들어낸 세계관 속에서 벌어진 폭력은 수백만, 수천만 단위로 이어졌다.

십자군 전쟁만 해도 수백만 명(추정치 100만~900만)이 목숨을 잃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이어진 30년 전쟁(기독교 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종파 전쟁)은 독일 지역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를 전쟁, 기근, 질병으로 앗아갔다. 총 사망자 추정치는 450만에서 800만 명에 이른다. 20세기 홀로코스트에서는 단 6년 만에 600만 명의 유대인이 산업적으로 학살되었다. 이슬람의 초기 정복 전쟁부터 오스만 제국의 수많은 전쟁, 20세기 중동전쟁, 아르메니아 대학살, 수단 내전, 나이지리아 보코하람의 테러까지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계 종교의 신학적 • 정치적 프레임 안에서 정당화되거나 직접적으로 자행되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아즈텍을 정복한 스페인 기독교 문명이 가져온 결과였다. 직접적인 칼과 총에 의한 학살도 끔찍했지만, 유럽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옮긴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은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의 80~90% 이상을 몰살시켰다. 1492년 이전 아메리카 대륙 전체 인구가 5천만~6천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1세기 만에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즈텍 제국과 그 주변 지역도 이 ‘ 대멸절 ’ 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야만을 정복하러 왔다고 외치던 문명이, 그 야만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대륙을 피로 물들인 셈이다. 아즈텍은 신에게 심장을 바쳤지만, 아브라함계 종교는 신의 이름으로 대륙 전체를 제단으로 삼았다.

이 비교는 누구도 깨끗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다. 아즈텍의 인신공양은 종교가 인간을 제물로 삼는 가장 노골적이고 잔인한 형태였다. 그러나 아브라함계 종교는 더 정교한 신학, 더 강력한 제도, 더 광범위한 이념적 정당화를 통해, 훨씬 더 큰 규모의 희생을 역사 속에 새겼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피의 양이 아니라, 그 피를 정당화하는 신앙 체계 자체의 본질이다. 아즈텍의 피라미드 위에서 흘렀던 피와, 십자군의 검과 종교재판의 불길, 그리고 20세기 가스실에서 흘렀던 피는, 결국 같은 뿌리(인간을 초월한 ‘ 거룩한 목적 ’ 을 위해 인간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점을 우리는 외면하기 어렵다.

10. 멕시코 카르텔: 문명의 도덕은 무엇을 바꿨는가

콩키스타도르가 아즈텍 제국을 함락하고, 스페인 왕관과 가톨릭 교회가 멕시코 땅에 십자가를 세운 지 5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

멕시코에서는 여전히 아즈텍 제국을 연상시키는, 섬뜩할 정도로 잔혹한 처형이 반복되고 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은 경쟁 조직원이나 배신자, 경찰, 기자,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참수, 산 채로 불태우기, 피부 벗기기, 산 채로 해체하기, 머리를 잘라 공공장소에 전시하기 같은 극단적인 폭력을 자행한다. 시나로아 카르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로스 세타스(Los Zetas) 등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고의로 고통을 극대화하고, 공포를 대중에게 전시하며, 적의 시신을 ‘메시지’로 사용한다. 잘린 머리가 다리 위에 줄지어 놓이고, 몸통이 다리난간에 매달리는 장면은, 테노치티틀란의 대피라미드에서 피로 물든 계단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형태는 달라졌다. 아즈텍의 인신공양은 태양신에게 바치는 종교적 의식이었지만, 카르텔의 처형은 마약 거래, 영토 분쟁, 마약 밀수로의 통제권을 위한 철저히 세속적이고 경제적인 폭력이다. 그러나 그 잔혹함의 강도와 연출 방식, 그리고 시신을 통해 공포를 퍼뜨리는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이 불편한 연속성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기독교 문명이 이 땅에 가져온 도덕은 도대체 무엇을 바꾸었는가?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기독교 인구 비율을 가진 나라 중 하나다. 인구의 약 80% 이상이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신자로 집계된다. 수백 년 동안 미사와 세례와 십계명이 이 땅을 지배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멕시코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국가 중 하나로 남아 있다. 2006년 칼데론 대통령의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 이후 누적 사망자만 40만 명을 훌쩍 넘었고, 실종자 수는 수만 명에 달한다. 살인률은 많은 해 동안 라틴아메리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기독교 도덕의 전파가 폭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형식적으로는 거의 전 주민이 세례를 받았지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 폭력을 자제하는 문화, 약한 자를 보호하는 도덕적 감수성은 뿌리내리지 못한 듯 보인다. 오히려 폭력의 패턴은 종교적 의식에서 세속적 테러로 형태를 바꿔 지속되었다. 아즈텍 시대의 피라미드 위 인신공양이, 오늘날 카르텔의 창고와 사막과 다리 난간에서의 공개 처형으로 이어진 것처럼.

물론 일부에서는 이 현상을 유전적 결정론이나 지정학적・문화적 결정론으로 설명하려 한다. 아즈텍 이전부터 이어진 메소아메리카 문화의 폭력적 전통, 식민지 시대의 잔인한 착취 구조, 빈곤과 불평등, 마약 수요를 창출하는 북쪽 이웃 나라 미국의 존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설득력을 가진다 해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기독교라는 강력한 도덕 체계가 수백 년 동안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폭력성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형태로 진화했다는 점이다.

십자가가 세워진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피로 물든 제단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그 제단의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다. 태양신 우이칠로포치틀리의 제단에서, 마약 카르텔의 실질적인 권력과 돈의 제단으로.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니다. 종교가 인간의 본성을 얼마나 깊이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냉정한 실험 결과처럼 보인다. 아즈텍의 피를 기독교의 물로 씻어내려 했던 문명은, 결국 그 피의 기억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그 피의 기억은 새로운 주인에게로 옮겨가, 또 다른 형태로 계속 흐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문명의 도덕은, 과연 무엇을 바꾸었는가.

11. 가나안의 다른 신들이었다면

반사실적(counterfactual) 역사를 잠시 상상해보자. 만약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신이 야훼가 아니라, 가나안의 다른 신이었다면. 그리고 그 신이 수천 년에 걸쳐 인류의 보편 종교로 자리 잡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렀을까.

바알(Baal)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풍요와 폭풍의 신이었다. 비를 내리고, 땅을 기름지게 하며, 농업과 생명의 순환을 관장하는 신. 만약 바알이 야훼를 대신해 서구 문명의 중심 신이 되었다면, 인류의 상상력은 전쟁과 정복보다는 비옥함과 자연의 리듬에 더 무게를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바알 숭배는 계절의 순환과 땅의 생산성을 신성시했다. 그의 신전에서는 성스러운 매춘과 풍요 의식이 행해졌으며, 때로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야훼처럼 "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 는 배타적 질투와, 특정 민족을 선택해 다른 민족을 몰살하라는 정복 명령은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로마 제국의 솔 인빅투스(Sol Invictus), 정복되지 않는 태양신이다. 3세기 후반, 특히 아우렐리아누스(AVRELIANVS) 황제 시대에 솔 인빅투스는 황제 숭배와 결합하며 거의 제국 공식 종교에 가까운 지위를 얻었다. 미트라교와도 영향을 주고받으며, 태양의 불멸성과 우주적 질서를 숭배하는 종교로 성장했다. 만약 기독교가 아니라 솔 인빅투스가 승리했다면, 인류는 빛과 우주적 조화, 천문학적 질서를 중심으로 한 종교 아래 살았을지도 모른다. 신은 더 이상 한 부족의 전쟁신이 아니라, 만물을 비추는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태양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태양신 숭배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권력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황제 자신을 태양의 화신으로 만드는 권위주의적 성격을 띠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어떤 신이 승리하든, 폭력과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바알 숭배에도 인신공양의 기록이 존재하고, 로마의 태양신 숭배 역시 검투사 경기와 정치적 탄압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종교는 본질적으로 인간 사회의 권력과 결합할 때 폭력을 낳기 쉽다.

하지만 야훼가 가진 독특하고 강력한 특성들은 다른 신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희박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배타적 정체성, 다른 신을 섬기면 철저히 처벌한다는 강렬한 질투심, 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정복과 학살을 거룩한 의무로 만드는 신학적 구조. 이러한 요소들은 야훼를 단순한 부족신에서 보편적 유일신으로 진화시키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동시에 종교전쟁, 이단 심판, 성전(聖戰)의 논리적 토대가 되기도 했다.

결국 야훼가 역사에서 승리한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가장 우월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를 섬기는 공동체가 주어진 역사적 조건 속에서 더 효과적으로 생존하고, 조직하고, 팽창하고,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찰스 다윈 및 리처드 도킨스의 논리가 종교 영역에까지 적용된 결과다. 가장 도덕적으로 뛰어난 밈(meme)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하게 복제되고, 적응하며, 경쟁자를 제거하는 데 유리한 밈이 살아남는다. 야훼는 바로 그런 ‘강한 밈’이었다. 배타성과 충성심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며, 외부에 대한 적대감을 신성한 의무로 승화시키는 데 탁월했다.

만약 바알이나 솔 인빅투스, 혹은 가나안의 다른 신이 승리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덜 배타적이고, 덜 질투심 강하며, ‘약속의 땅’을 둘러싼 영원한 전쟁이 적은 세상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자연의 순환이나 우주의 빛을 더 경외하는, 그러나 또 다른 형태의 권력과 폭력을 품은 세상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은, 우연과 역사적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승리자일 뿐, 필연적으로 가장 선한 존재였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야훼가 이긴 것은 신의 섭리가 아니라, 단지 가장 효과적인 종교적 바이러스가 인류라는 숙주를 가장 잘 감염시켰기 때문이다.

12. 아브라함계 종교의 레토릭으로 읽는 아브라함

아브라함계 종교가 스스로 사용하는 언어와 논리를 역으로 아브라함에게 적용해보자. 그러면 매우 역설적이고 불편한 결론이 나온다.

기독교 전통에서 사탄은 원래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천사 루시퍼였다. 그러나 그는 신에게 반역했고, 결국 타락하여 지옥의 군주가 되었다. 사탄의 가장 무서운 속성은 ‘거짓의 아버지’이자 ‘속이는 자’라는 점이다. 그는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거짓된 빛으로 유혹하며, 결국에는 신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신을 배반하게 만든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자.

만약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들었다는 그 목소리가, 사실은 그런 존재의 목소리였다면? 아니면 아브라함 자신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 속이는 자 ’ 의 역할을 역사 속에서 수행한 인물이었다면?

이 가정 아래에서 이후 4천 년의 인류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설명된다.

아브라함은 인류에게 진정한 영적 성숙이나 보편적 사랑을 가져다준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분쟁과 피와 증오의 씨앗을 심었다. 그는 ‘ 신과의 계약 ’ 이라는 이름으로 배타적 충성을 요구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 선택받은 민족 ’ 이라는 개념으로 인류를 선택된 자와 버림받은 자로 영원히 갈라놓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 신의 명령 ’ 이라는 절대적 권위를 통해 인간이 서로를 학살하는 행위를 가장 거룩한 행위로 둔갑시켰다.

이것은 프리드리히 니체가 조로아스터교(그리고 그 창시자인 자라투스트라)를 비판한 방식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니체는 조로아스터가 선과 악의 이분법을 창조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억압하고, 본능과 창조성을 부정하는 노예 도덕의 기원을 만들었다고 보았다. 그는 차라투스트라를 통해 “ 신은 죽었다 ” 고 선언하며 그 오랜 도덕 체계를 뒤집으려 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위험한 수준에서 작동했다.

그는 단순히 선악의 이분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그는 ‘ 유일신 ’ 과 ‘ 계약 ’ 이라는 틀을 통해 인류에게 다음과 같은 구조를 심었다.

- 오직 한 신만이 진리이며, 다른 모든 신은 거짓이다.
- 그 한 신은 특정 민족을 특별히 선택했고, 그 선택은 영원하다.
- 그 신의 명령은 인간의 도덕적 판단을 초월하며, 순종 그 자체가 최고의 미덕이다.
- 따라서 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정복, 학살, 배제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 구조는 이후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계 종교의 DNA가 되었다. 십자군이 “ 신이 원하신다(Deus vult) ” 를 외치며 칼을 휘두를 때, 종교재판관이 이단을 불태우며 신의 정의를 실현한다고 믿을 때, 현대의 지하드(Jihad) 전사들이 폭탄을 메고 “ 알라후 아크바르(Allahu Akbar, ا ل ل ه ا كبر) ” 를 외칠 때, 그 뿌리에는 모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들었다는 그 목소리가 깔려 있다.

아브라함계 종교의 언어로 아브라함을 평가한다면, 결론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은 사탄의 충실한 추종자, 혹은 그 대리인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인류를 진정한 신(만약 그런 존재가 있다면)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거짓된 절대자와의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영혼을 속박했으며, 도덕의 이름으로 도덕을 파괴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증오를 퍼뜨리는 체계를 세운 인물이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계 종교가 사용하는 바로 그 언어 체계 안에서, 의도적으로 반어적이고 비판적인 방식으로 뒤집어 읽은 논법이다. 그러나 그 반전이 주는 충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속이는 자’였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가 들었다는 목소리가, 사실은 인류를 영원한 분쟁과 피의 순환 속으로 이끄는 가장 교묘한 유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이 역설을 직시하는 순간, 아브라함 서사는 더 이상 경건한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에게 씌운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주술로 다시 읽히기 시작한다.

13. 피드백 루프의 완성: 세 종교가 만든 세계

결국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경전을 가져다 자신의 토대로 삼았다. 유대교는 기독교의 박해 속에서 오히려 정체성이 강화되었다. 이슬람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판하면서 탄생했고, 그 두 종교의 요소들을 흡수했다. 세 종교는 서로를 이단이라 규정하면서 서로의 존재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적이 없으면 존재 이유도 없다.

이 시스템이 인류 역사에서 차지한 비중은 압도적이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계 종교를 믿는다. 그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지역도(식민지배, 무역, 문화적 영향을 통해) 이 시스템의 파급 효과 안에 있다.

야훼라는 이름의 아이디어가 가나안의 한 부족신에서 시작하여 인류 절반의 정신적 지형을 지배하게 된 것.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지를 합산하면 — 그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파괴적인 밈의 확산이었다.

5편에서는 이 구조를 인식했을 때 남는 질문들을 다룬다. 종교라는 유전병, 그것에 적응한 인류,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 참고문헌 -

엘레인 페이젤스, 『아담, 이브, 그리고 뱀(Adam, Eve, and the Serpent)』 — 창세기 서사가 어떻게 서구 문명의 성, 죄, 권력 개념을 형성해왔는지를 추적. 영지주의적 대안

해석들이 정통 기독교에 의해 어떻게 억압되었는지도 다룬다.

리처드 엘리엇 프리드먼, 『성경은 누가 썼는가(Who Wrote the Bible?)』 — 구약성서의 복수 저자설(문서가설)을 대중적으로 설명한 저작. 야훼라는 신의 개념이 어떻게 여러 전통의 편집과 통합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카렌 암스트롱, 『신의 역사(A History of God)』 —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에서 신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왔는지를 추적한 저작. 야훼가 가나안의 지역 신에서 보편신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조명한다.

마크 S. 스미스, 『하나님의 초기 역사: 고대 이스라엘의 야훼와 다른 신들(The Early History of God: Yahweh and the Other Deities in Ancient Israel)』 — 야훼가 가나안 다신교 환경에서 어떻게 다른 신들(엘, 바알, 아세라 등)과 경쟁·융합하며 일신숭배와 유일신론으로 발전했는지를 고고학적·문헌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상세히 분석한다.

존 데이, 『가나안의 신들과 여신들, 그리고 야훼(Yahweh and the Gods and Goddesses of Canaan)』 — 야훼와 가나안 신화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구. 야훼가 가나안 판테온의 여러 요소를 흡수하거나 대체하는 과정을 통해 그의 기원과 성격을 밝힌다.

한스 요나스, 『영지주의 종교(The Gnostic Religion: The Message of the Alien God and the Beginnings of Christianity)』 — 영지주의 사상의 고전적 연구서. 데미우르고스로서의 야훼(또는 구약의 신)를 악의적 조물주로 보는 영지주의적 관점을 철학적·역사적으로 깊이 있게 다룬다.

브루스 페어, 『아브라함의 저주: 유대교·기독교·이슬람에서 폭력의 뿌리(Abraham's Curse: The Roots of Violence in Judaism, Christianity, and Islam)』 —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서사가 어떻게 세 아브라함계 종교에서 폭력과 희생의 신학적 정당화로 이어졌는지를 비판적으로 추적한다.

카렌 암스트롱, 『피의 들판: 종교와 폭력의 역사(Fields of Blood: Religion and the History of Violence)』 — 종교, 특히 아브라함계 종교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폭력을 정당화하고 구조화해왔는지를 광범위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Judith M. Lieu, 『Marcion and the Making of a Heretic』 — 마르시온과 초기 기독교 이단 논쟁을 현대적으로 재조명.

David Brakke, 『The Gnostics』 — 나그함마디 문서 이후 영지주의 연구의 최신 성과를 반영한 입문서.

제5편

종교라는 유전병과 낙관적 허무주의

종교라는 유전병과 낙관적 허무주의

1. 시작하며: 인식의 저주

4편까지 긴 여정이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을 각각 해부하고, 그 공통 기원인 아브라함과 야훼라는 아이디어의 구조를 추적했다. 이제 남은 질문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인식한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종교는 모든 것을 독살한다(Religion poisons everything)"고 했다. 선명한 문장이다. 그런데 이 에세이가 추적해온 논지는 히친스보다 한 발 더 나아간다. 문제는 종교가 독을 탄다는 것이 아니라 — 인류의 상당수가 그 독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방향으로 형성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독이 영양분이 되어버린 상태. 그리고 그 상태를 인식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그 소수마저도 이 구조 안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이것이 인식의 저주다. 알게 되면 되돌아갈 수 없지만,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2. 참호 속의 무신론자: 역설의 해부

"참호 속에 무신론자는 없다"는 말이 있다. 전장에서 군종사제들이 가장 애용하는, 거의 주술처럼 반복되는 문장이다. 포탄이 머리 위를 스치고, 동료의 내장이 참호 바닥에 흩어져 있을 때, 인간은 결국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주장. 극한의 공포 앞에서 종교가 인간 본성의 마지막 보루이자, 보편적 진리라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한 겹만 벗겨내면, 역설의 날카로운 칼날이 드러난다.

먼저, 그 참호 자체를 누가 만들었는가. 인류가 지금까지 파헤친 가장 깊고 긴 참호들의 상당수는,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의 이름으로, 혹은 종교가 제공한 강력한 정당화 아래에서 파였다.

십자군 전쟁은 "신의 뜻"이라는 구호 아래 예루살렘의 거리를 피로 물들였고, 30년 전쟁은 가톨릭과 개신교라는 신앙의 깃발 아래 유럽을 초토화시켰다. 오스만 제국의

지하드, 스페인의 레콘키스타, 인도의 무굴 - 힌두 충돌, 심지어 현대에 이르러서도 발칸 반도의 정교회 - 이슬람 갈등, 북아일랜드의 가톨릭 - 개신교 폭력, 미얀마 라카인 주에서 불교 승려들이 부추긴 로힝야족 학살, 인도에서 힌두 민족주의가 부채질한 이슬람 공동체에 대한 폭력, 일본 제국주의 시대 신토(神道)가 '천황은 현인신'이라는 신성한 서사로 정당화한 태평양 전쟁의 참혹함까지.

종교는 전쟁의 불씨를 지피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전쟁을 '성스러운 의무'로 승화시킴으로써,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살인에 대한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효과적으로 마비시켰다. 불을 지른 장본인이 연기를 피해 달려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구하겠다"며 소방관 복장을 입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더 섬뜩한 역설은 참호 안에서 벌어진다.

신의 이름, 성전(聖戰), 지하드, 크루세이드, 천황폐하 만세, 아미타불의 이름으로 무장한 병사들은, 세속적인 동기만으로 싸우는 병사들보다 오히려 더 잔인하고, 더 기꺼이, 더 효율적으로 죽였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확신, 혹은 신성한 이념을 위한 희생이라는 숭고한 서사는, 인간의 살인 본능에 도덕적 면죄부를 제공했다.

종교는 죽음의 공포를 줄여주는 대신, 그 공포를 '초월'하게 함으로써 죽음을 더욱 손쉽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계로 작동했다.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종교가, 역설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대량살상 이데올로기 중 하나가 되어온 것이다.

생명의 존엄을 설파하는 설교가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곳이, 생명이 가장 값싸게 버려지는 참호 위라는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신을 팔아 공포를 진정시키고, 그 진정된 공포 위에서 더 많은 죽음을 정당화한다.

이것이야말로 종교가 가진 가장 날카롭고, 가장 오래된 역설이다.

참호 속에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은, 결국 이렇게 들린다. "우리가 판 참호 속에서, 우리가 지핀 불 속에서, 너는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아는 순간, 그 문장은 더 이상 신앙의 승리가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 만든 가장 교묘한 덫에 대한 자백처럼 들린다.

3. 동물의 공동체와 인간의 차이

벌집을 보라. 수만 마리의 벌이 하나의 거대한 초유기체(*超有機體*, Superorganism)처럼 움직인다. 여왕벌을 중심으로 노동벌은 꿀을 모으고 유충을 돌보고 집을 보수하며, 병정벌은 침입자를 향해 망설임 없이 독침을 내리꽂는다. 그 사회에는 신학도, 교리도, 이단 심문도, 성스러운 전쟁도 없다. 오직 진화가 새겨놓은 본능과 화학

신호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뿐이다.

늑대 무리도 마찬가지다. 강한 알파메일(Alpha Male)을 정점으로 명확한 서열이 자리 잡고, 협력 사냥을 통해 생존하며, 새끼를 공동으로 키운다. 이웃 무리와의 영역 분쟁에서 피가 튀고 죽음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싸움에는 어떤 형이상학적 정당화도 붙지 않는다. 적을 '타락한 존재'나 '신의 적'으로 규정하고 전멸을 명령하는 초월적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그저 생존을 위한 날것의 충돌일 뿐이다.

코끼리 무리는 죽은 동료의 시체 앞에서 오래 머문다. 코로 뼈를 조심스레 어루만지고, 먼지를 뿌리며, 가족 전체가 조용히 서서 슬픔을 나눈다. 때로는 수 년이 지난 뒤에도 익숙한 해골을 찾아 다시 돌아오곤 한다. 그 애도에 사후 세계의 약속도, 영혼의 구원도, 천국과 지옥의 판결도 필요하지 않다. 죽음 앞에서 공동체가 느끼는 감정은 종교라는 장치 없이도 충분히 깊고 진실되다.

원숭이 사회에서는 도덕적 직관의 싹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같은 노동을 했는데 한쪽은 달콤한 과일을 받고 다른 한쪽은 메마른 채소만 받는 실험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은 원숭이조차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동료를 보고 음식을 거부하거나 화를 내며 항의한다. 공정성에 대한 감각, 연대 의식, 그리고 '정의'에 대한 원초적 직관이 이미 종교 없이도 그들 안에 존재한다는 증거다.

그런데 인간만이 이 동물적 토대 위에 거대한 형이상학적 구조물을 쌓아 올렸다.

그 구조물은 때로 눈부신 문명을 탄생시켰다. 철학과 예술, 복잡한 윤리 체계와 법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러나 동시에, 특히 종교라는 형태를 띤 그 구조물은 다른 어떤 동물도 결코 범하지 않는, 체계적이고 이념적이며 대량적인 폭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인간은 신의 직접적인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우주의 도덕적 질서라는 이름으로, 신성한 혈통이나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타 집단을 '절대적인 악'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지워버리는 행위를 '의무'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 폭력은 단순한 영토 다툼이나 자원 경쟁을 넘어선다. 그것은 우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음으로써, 가해자에게 도덕적 우월감과 면죄부를 동시에 선사한다. 늑대는 적 무리를 물어뜯지만, 그 행위에 '신의 뜻'을 덧붙이지 않는다. 침팬지는 경쟁 집단을 공격하지만, 그 공격을 '영적 정화'나 '역사의 필연'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코끼리는 슬퍼할 뿐, 죽은 자를 '지옥으로 떨어진 이단'으로 저주하지 않는다.

오직 관념의 힘, 즉 종교적・형이상학적 서사를 가진 인간만이 동물적 폭력을 '성스러운 희생'으로, '우주적 정의의 실현'으로 탈바꿈시킨다. 아브라함계 종교가 그 규모와

강렬함에서 두드러질 뿐, 본질적인 메커니즘(공동체를 강화하는 동시에 '타자'를 절대적 적으로 규정하는 메커니즘)은 종교를 가진 거의 모든 인간 사회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동물들은 종교 없이도 공동체를 이루고, 협력하고, 애도하고, 공정성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인간은 종교를 더함으로써 더 크고 복잡한 공동체를 건설했지만, 그 대가로 다른 어떤 생물도 상상하지 못한 수준의 조직적이고 이념적인 잔인함을 발명해 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 놓인, 가장 아이러니하고도 가장 섬뜩한 차이일 것이다.

4. 도덕이란 무엇인가: 집단 이기주의의 세련된 포장

도덕의 기원을 파헤쳐 보면, 우리는 결국 어디로 도달하는가.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도덕은, 집단의 생존과 번영을 높이는 행동 규범들의 집합이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금기들은 공동체 내부의 신뢰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실용적 장치일 뿐이다. 그것은 신의 계시이기 이전에, 오랜 진화와 문화적 선택을 거쳐 정착된 집단 생존 전략이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도덕의 계보》에서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도덕은 본래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뿌리에서 자라났다. 강자, 귀족, 생명의 긍정을 외치는 자들은 '좋음(good)'을 자신들의 힘, 고귀함, 창조적 의지와 동일시했다. 그들에게 '나쁨(bad)'은 단순히 약하고 천한 것, 가치 없는 것이었다. 반면, 약자, 억압받는 자, 복수할 수 없는 자들은 깊은 원한(ressentiment) 속에서 가치를 전도시켰다. 그들은 강자의 힘과 자부심을 '악(evil)'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약함(겸손, 연민, 복종, 평등)을 '선(good)'으로 재창조했다. 이것이 노예 도덕, 곧 기독교가 완성한 무리 도덕(herd morality) 의 본질이다.

이것을 우리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표면적으로 도덕은 개인의 이기심을 억제하는 고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실체는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본능과 욕망을 조율하고 통제하는 메커니즘이다. 내 집단 안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외부 집단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계 종교, 특히 기독교는 이 문제에 명확하고 잔인한 답을 제시했다. 이교도는 다르다. 신의 적은 다르다. 그들에 대한 폭력은 더 이상 야만이 아니라, 신성한 정의의 실현이며, 때로는 구원의 의무가 된다. 노예 도덕은 내부에서는 평등과 사랑을 설파하면서도, 외부나 '타락한 자'에게는 무자비한 적대감을 정당화하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다. 원한에서 비롯된 도덕이기에, 그것은 언제나 '악'을 먼저 상정하고 그 악을 짓밟는 데서 쾌감을 느낀다.

종교적 도덕, 특히 기독교적 노예 도덕은 이 집단 이기주의를 신의 절대적 명령이라는 초월적 권위로 포장함으로써, 내집단 - 외집단의 구분을 더욱 단단하게 벽돌로 쌓아 올렸다. 동시에 외집단에 대한 폭력을 '선'의 이름으로, '신의 뜻'으로 승화시켰다. 《선악의 저편》에서 니체가 경고했듯이, 유럽의 도덕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무리 동물의 도덕이 되어 버렸다. 강자와 고귀한 자를 '악'으로 몰아세우고, 평범함과 안전과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생명의 상승을 가로막는 도덕.

더욱 문제적인 것은, 일부 종교적 도덕이 인간을 진보시키기는커녕 퇴보와 왜소화의 방향으로 이끈다는 점이다. 지식에 대한 호기심을 '오만'으로 규정하고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를 심판했던 바로 그 도덕, 남성의 육체적 욕망을 죄악으로 낙인찍는 도덕, 다른 문화와의 만남을 '영혼의 오염'으로 보는 배타적 도덕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가능성을 좁히고, 창조적 본능을 억압하며, 삶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왔다.

니체가 보았듯이, 노예 도덕의 승리는 인류에게 '마지막 인간'의 시대를 열어주었다. 위험을 두려워하고, 강한 의지를 의심하며, 평범함 속에서 안주하는 무리의 시대. 생명의 의지, 힘에의 의지(will to power)를 찬양하기보다, 그것을 죄책감과 연민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거세하는 시대.

도덕의 계보를 끝까지 추적하면 우리는 결국 이렇게 마주친다. 도덕은 신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 집단이 생존과 지배를 위해 만들어 낸 가장 교묘하고 가장 오래된 포장지다. 그리고 종교는 그 포장지를 가장 화려하고, 가장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 인간이 자신의 동물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면서 동시에, 그 동물성을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폭발시키는 도구가 되어왔다.

진정한 질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우리는 여전히 이 노예 도덕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선악의 저편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5. 공산주의: 껍데기를 바꾼 종교

마르크스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은, 마르크스주의 자체가 철저한 종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를 비판한다는 명분으로 출발한 사상이, 결국 종교의 가장 본질적인 뼈대를 그대로 복제해 버린 것이다.

구조를 비교해 보면 그 유사성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다.

기독교에 원죄가 있다면, 마르크스주의에는 자본주의적 착취라는 원죄가 있다. 인류는 태생적으로 계급에 의한 착취라는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 원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원이 필요하다. 기독교에 구원이 있다면, 마르크스주의에는 혁명이 있다. 프롤레타리아의 폭력적 혁명을 통해 착취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에

종말론이 있다면, 마르크스주의에는 역사의 필연적 발전 법칙이 있다. 자본주의는 모순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붕괴하고, 그 뒤에는 공산주의라는 지상낙원이 도래한다는 확신이다. 기독교에 천국이 있다면, 마르크스주의에는 계급 없는 사회라는 유토피아가 있다.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국가와 계급이 소멸한 완전한 인간 해방의 상태.

기독교에 이단 심문이 있다면, 마르크스주의에는 숙청과 인민재판이 있다. 교리에 대한 작은 이견조차 용납되지 않았으며, '수정주의자', '반혁명분자', '계급적 배신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제거되었다.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폴 포트 등의 공산권 지도자들은 무신론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음에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신격화되었다. 그들의 말은 교리 그 자체였고, 그들의 초상은 성상처럼 숭배되었다. 당원은 신앙심에 가까운 헌신으로 체제에 복종해야 했으며, 의심이나 비판은 곧 영혼의 타락으로 간주되었다.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니다. 공산주의는 종교의 초월적 권위를 세속화한 형태다. 하늘에 있던 신을 지상에 내려놓고, '역사의 필연'과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러나 권위의 본질(절대적 진리, 구원의 서사, 이단에 대한 배척, 신앙적 헌신)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세속 종교'가 현실에서 드러낸 결과다. 이념의 순수성을 추구할수록, 실제 인간의 복잡성과 다양성은 억압의 대상이 되었다. 계획 경제는 인간의 창의성과 동기를 무시한 채 중앙의 계산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고, 그 결과는 대규모 기근과 비효율의 참사로 이어졌다. '새로운 인간'을 만들겠다는 야심은, 오히려 기존 인간을 대량으로 파괴하는 기계로 작동했다. 소련의 대숙청, 중국의 문화대혁명,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북한의 주체사상 체제 — 이 모든 것은 공산주의가 '과학'을 표방하면서도, 종교적 광신에 가까운 확신과 배타성을 드러낸 사례들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종교를 비판하면서 정작 종교의 가장 위험한 구조를 그대로 답습했다.

인간은 종교적 사고 패턴(절대적 진리의 소유, 구원의 서사, 선악의 이원론, 이단에 대한 적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을 비판한다고 선언하는 순간조차, 그 패턴은 새로운 껍데기를 입고 재생산된다. 신의 자리를 '역사'나 '과학'이나 '프롤레타리아'가 대신 차지할 뿐, 본질적인 권위 구조와 폭력의 메커니즘은 살아남는다.

종교를 버린다고 해서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껍데기만 바꿀 뿐, 구조는 깊이 뿌리내린 채로 계속해서 인간을 지배한다.

공산주의는 그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20세기의 가장 거대한 실험이었다.

6. 종교라는 유전병: 진화론적 설명

왜 인류 역사상 거의 모든 사회에서, 거의 모든 시대에 종교가 존재해 왔는가. 이것을 단순히 무지나 세뇌, 혹은 권력자의 조작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보편성과 집요함이 너무 강렬하다. 인류학과 진화심리학, 인지과학의 연구들은 더 깊고 불편한 진실을 가리킨다. 종교적 성향은 인간 뇌의 하드웨어 구조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인지적 편향과 유전적 소인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패턴을 찾도록 진화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패턴까지도 과도하게 찾아낸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에서 포식자의 발소리를, 우연한 재난에서 누군가의 의도를, 밤하늘의 별자리에서 신의 메시지를 읽어낸다. 이것을 과잉능동적 행위자 탐지(Hyperactive Agency Detection Device, HADD) 라고 부른다. 진화적으로 보자면 이는 매우 합리적인 적응이었다. 실제로 사자가 풀숲에 숨어 있다면 놓치는 대가는 즉사였지만, 바람 소리를 사자로 착각하는 대가는 그저 헛된 경계심일 뿐이다. "틀려도 비용이 적고, 맞으면 생존에 결정적"인 이 비대칭적 오류 편향은 우리 조상들의 생존율을 높여주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은 현대까지 이어진다. 자연 현상과 우연한 사건 속에서 초자연적 행위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경향. 바로 이것이 신, 영혼, 조상신, 천사, 악마 개념의 인지적 토대가 되었다.

또 다른 중요한 메커니즘은 마음 이론(Theory of Mind) 이다. 인간은 타인이 자신과 다른 믿음, 욕망, 의도를 가진 독립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진화했다. 이 능력은 사회적 협력과 생존에 결정적이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서 이상하게 작동한다. 죽은 자의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이론 모듈은 여전히 "그의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라고 묻는다. 꿈속에서 죽은 부모가 나타나고,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그는 아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영혼, 사후 세계, 환생,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들이다. 죽음의 공포를 완화하고 공동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유용했지만, 동시에 비물질적 실재에 대한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이러한 인지적 편향들은 유전적 기반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쌍둥이 연구들은 종교성(religiosity)의 유전율을 30~50% 정도로 추정한다. 일란성 쌍둥이(MZ)와 이란성 쌍둥이(DZ)의 비교에서, 신에 대한 믿음, 기도 빈도, 종교적 경험의 강도 등 개인적 종교성은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물론 특정 종교의 교리를 믿는 것은 문화적 학습의 결과지만, 종교적 경험에 친화적인 뇌 구조(초자연적 행위자를 쉽게 탐지하고, 초월적 의미를 갈망하는 경향)은 상당 부분 유전적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전자가 "기독교를 믿어라"고 직접 명령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인지적 • 감정적 소인을 물려줄 수는 있다.

여기에 문화적 전파 메커니즘인 밈(meme) 이론이 더해진다.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제안한 개념처럼, 종교는 자기복제에 탁월하게 적합한 밈들의 복합체(meme complex)다.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주입되고, "의심은 죄악"이라는 교리로 의심 자체를 차단하며, 공동체의 찬양과 처벌을 통해 강화되고, "자녀에게 반드시 전수하라"는 명령을 내장하고 있다. 천국이라는 보상과 지옥이라는 처벌은 순응을 극대화하고, 성전이나 순교라는 서사는 희생을 미화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종교적 밈들은 문화적 자연선택 과정에서 다른 이념들보다 더 잘 살아남았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복제와 확산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유전자는 종교에 취약한 뇌 하드웨어를 물려주고, 환경(가족, 공동체, 의례)은 그 소인을 소프트웨어로 발현시킨다. 일단 발현되면 강력한 집단 강화 메커니즘을 통해 주변으로 전염된다. 당사자에게는 "가장 자연스럽고 진실된 것"으로 느껴지지만, 외부에서 관찰하면 명백한 기능 장애를 동반한다. 현실 인식의 왜곡, 집단 간 폭력의 정당화, 과학적 탐구의 억제, 개인적 자율성의 희생 — 이전 에세이들에서 살펴본 수많은 역설들이 여기서 비롯된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유전병이라고 부를 수 있다. 유전적 소인(Genetic Predisposition)이 있고, 특정 환경에서 발현되며, 한 번 감염되면 개인을 넘어 집단 전체로 빠르게 퍼지고, 감염자에게는 정상적인 상태로 느껴지며, 장기적으로는 숙주(宿主, 인간 사회)의 건강에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인류 문명의 발전을 가로막고, 불필요한 고통과 폭력을 증폭시켜 온 만성 질환.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다. 그 진화가 우리에게 준 인지적 선물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초자연적 환상을 가장 설득력 있게 만들어 냈다. 종교는 따라서 우연한 부산물이자, 생존에 유리했던 적응의 어두운 그림자다.

이 유전병을 정확히 진단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완전한 치유는, 아마도 인류가 자신의 진화적 유산을 직시하고 새로운 가치와 사고 방식을 의식적으로 창조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7. 축의 시대 이전: 다른 인류의 가능성

칼 야스퍼스가 "축의 시대(Axial Age)"라고 명명한 기원전 800년에서 200년 사이, 인류 정신사는 근본적인 변혁을 겪었다. 공자가 중국에서 예(禮)와 인(仁)을 설파하고, 붓다가 고통의 근원을 파헤치며 해탈의 길을 제시하고, 조로아스터교가 선과 악의 우주적 대결을 선언하고,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거리에서 무지(無知)를 자각하라 외치고, 유대 예언자들이 유일신의 계시를 전파하던 그 시기. 거의 동시에, 서로 다른 대륙에서 등장한 사상가들은 인류에게 '보편적 진리'와 '초월적 질서'라는 새로운 정신적 지평을 열어주었다.

그렇다면 축의 시대 이전의 인류는 어떠한 정신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을까.

수렵채집 사회의 종교(혹은 더 정확히 말하면 영성(靈性))은 축의 시대 이후에 등장한 보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들은 대개 애니미즘의 세계관 속에 살았다. 모든 산, 강, 나무, 동물, 바람 속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영(靈)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이 영들은 추상적이고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와 사물에 얽힌 존재들이었다. 그들에게 신앙은 보편적 진리를 소유하고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실용적이고 유연한 관계 맺음이었다.

그 세계에는 '유일한 진리'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다. 한 부족의 영이 다른 부족에게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다. 따라서 신앙의 이름으로 이웃 부족을 정복하거나, 이단을 색출하거나, 성전을 선포할 논리적 근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폭력은 있었지만, 그것은 주로 자원과 영역을 둘러싼 실질적 충돌이었지, 이념적·신학적 정당화를 받은 조직적 학살은 아니었다.

축의 시대 이후 상황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보편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발견한 진리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모든 인간은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편성의 주장은 곧 선교와 개종의 논리를 낳았고, 개종이 거부될 경우 강제와 폭력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었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구호 아래 제국을 건설했다. 유대교에서 파생된 이 두 종교는 특히 배타적 일신교의 논리를 통해 '선택된 백성'과 '이방인'의 구분을 날카롭게 세웠다. 불교 역시 상대적으로 온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역사 속에서 그 온화함은 종종 깨졌다. 스리랑카에서 불교 승려들이 타밀족에 대한 민족주의적 탄압을 정당화했고, 미얀마에서는 불교 민족주의가 로힝야 무슬림에 대한 인종청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힌두 민족주의 역시 '힌두트바'라는 이름 아래 종교적·민족적 순수성을 내세우며 폭력을 정당화한다.

축의 시대 이전 인류의 폭력은 지역적이고 제한적이었다. 수렵채집 집단 간 충돌은 있었으나, 수십만, 수백만 명을 동원해 '신의 이름'으로 벌이는 대규모 성전(聖戰)이나, 이단 심문, 종교 전쟁은 문명화된 종교 사회가 발명한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었다. 조직적 폭력은 종교가 제공한 초월적 정당화와 결합하면서 비로소 산업적 규모로 확대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축의 시대 이전의 뇌'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

단순히 교회에 가지 않는 무종교인, 개인적 상처로 신앙을 잃은 무신론자, 혹은 마르크스주의 저서를 읽고 변증법적 유물론을 신봉하는 사람은 여전히 종교적 개념 틀 안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죄책감, 구원, 악, 성스러움, 희생이라는 언어를 벗어나지 못한다. 불교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은 업(業), 윤회, 해탈, 자비라는 개념 없이 세상을 해석하기 어렵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도덕적 직관,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프레임 대부분이 이미 축의 시대 이후 종교에 의해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에 사는 물고기가 물의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운 것처럼, 종교적 사고의 틀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간은 그 틀을 벗어나서 사고하는 것 자체가 극도로 어렵다.

우리는 "신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선과 악, 구원과 타락, 성스러움과 속됨이라는 이원론적 세계관 속에서 생각하고 느낀다. 철저하고 전적인 무신론적 뇌(초자연적 절대자에게 삶의 방향을 맡기지 않고, 우연과 물질, 진화의 산물로서 존재를 받아들이는 뇌)를 가진 현대인은 생각보다 극히 드물다.

축의 시대 이전 인류는 아마도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절대적 진리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고, 삶을 초월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았으며, 자연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 채 살아갔다.

그 가능성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종교적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류 정신사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특정 역사적 전환점에서 선택된 하나의 경로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 다른 인류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을까.

8. 유전병의 아이러니: 적응한 자들의 세계

이 유전병, 즉 종교적 성향은 진화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다. 오히려 그 병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들이, 생존과 번식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

종교적 공동체는 내부에서 강한 협력과 상호 부조를 이끌어냈다. 신앙이라는 공통의 서사는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를 빠르게 형성하고, 자원 공유를 용이하게 만들었으며, 도덕적 규범을 통해 이기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산율이었다. 종교를 강하게 믿는 집단은 대체로 가족 중심적 가치관을 강조하고, 피임을 죄악으로 여기거나 다산을 신의 축복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무신론적・세속적 성향이 강한 집단은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세대 교체에서 점차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여기서 다윈주의적(Darwinian) 아이러니가 가장 날카롭게 드러난다.

종교라는 유전병의 메커니즘을 꿰뚫어 보고, 그 형이상학적 환상을 벗겨낼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가진 인간들이 오히려 생존 경쟁에서 체계적으로 도태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중세 유럽에서 자유사상가나 이단으로 의심받은 자들은 화형대 위에서 재가 되었다. 조르다노 브루노(Giordano Bruno)는 코페르니쿠스적 우주관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몰려 산 채로 불태워졌다. 계몽주의 시대에도 공개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한 철학자들은 사회적 배척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도 무신론은 여전히 위험한 낙인이었다.

현대에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키스탄 등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공개적으로 무신론을 선언하는 것 자체가 사형 선고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가 된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소말리아 같은 지역에서는 '신을 부정했다'는 소문만으로도 린치나 살해를 당할 수 있다.

서구 민주주의 사회조차 예외는 아니다. 미국에서 실시된 다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신론자는 여전히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 중 하나로 꼽힌다. Gallup의 장기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정당에서 지명된 잘 자격 있는 대통령 후보가 무신론자라면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2012년에는 54%, 2020년에는 60%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같은 시기 무슬림(58~66%)보다도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동성애자나 흑인 후보에 대한 수용도(80~90% 이상)보다 현저히 낮았다. 정치인들은 공개적으로 무신론을 선언하기를 극도로 꺼리며, 연설 끝에 “God bless America” 같은 종교적 수사를 거의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이는 무신론자가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오랜 종교적 편견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증거다.

이것이야말로 진화의 잔인한 역설이다. 진실을 더 명확하게 꿰뚫어 보는 자들이, 역사적으로 린치당하고, 화형당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번식 기회를 박탈당해 왔다. 반대로, 종교적 환상에 더 깊이 빠져든 자들, 즉 유전병에 잘 적응한 자들이 더 많은 후손을 남기고, 그 후손들은 다시금 같은 집단적 망상을 강화하고 전파했다.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오류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인류의 문화적 • 유전적 진화가 치우쳐 버린 것이다. 종교라는 유전병은 숙주를 당장 죽이지는 않지만, 숙주의 인지 능력을 일정 부분 마비시키면서도 그 병에 감염된 숙주를 더 많이 퍼뜨리는 데 성공했다.

이 구조를 지적하는 무신론자나 자유사상가에게 자주 돌아오는 반박이 있다. "무신론도 결국 일종의 종교다."

이 말은 교묘한 범주 혼동이자, 방어 기제의 전형이다. 종교는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적극적 믿음과,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한 의례, 공동체, 교리, 도덕 체계, 사후 세계관을 포괄한다. 무신론은 그저 그러한 믿음의 부재일 뿐이다. 금식(禁食)을 하나의 식단으로 부르는 것처럼, 신을 믿지 않는 태도를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부적절하다.

이 반박이 특히 교묘한 이유는, 그것이 종교인들 사이에 평소에는 서로를 이단이라 규정하며 싸우던 집단들이, 공통의 적(신앙을 거부하는 자)이 나타나자마자 순간적으로 연대하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기 때문이다. 가톨릭과 개신교, 수니파와 시아파, 힌두교와 불교는 서로를 오랫동안 적대해 왔지만, 무신론이라는 '공통의 위협'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단결한다. 종교라는 유전병이 가진 또 하나의 영리한 생존 전략이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묻게 된다. 인류는 정말로 진실을 향해 진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실을 외면한 채 더 잘 적응하고 더 잘 번식하는 방향으로만 진화하고 있는가.

종교라는 유전병에 가장 잘 적응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후손을 남기는 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불편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9. 무신론자 공동체 실험: DNA냐 밈이냐

만약 철저한 무신론자들만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완전히 격리된 환경에서 몇 세대에 걸쳐 유지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순수한 사고실험이다. 그러나 종교성의 기원이 유전적인 것인지, 문화적 밈적인 것인지, 혹은 둘의 복합적인 결과인지를 가르는 가장 날카로운 실험이 될 수 있다. 종교라는 유전병이 인간에게서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인간이라는 숙주 자체가 그 병을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화했는지를 판별하는 결정적 테스트인 셈이다.

역사에는 이 실험에 근접한, 그러나 불완전한 시도들이 있었다.

20세기 소련은 국가적 규모로 가장 야심찬 무신론 실험을 감행했다. 교회를 파괴하고, 성직자를 처형하거나 수용소로 보냈으며, 학교에서는 철저한 무신론 교육을 실시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마르크스-레닌주의 교리가 국가 이념의 핵심이 되었다. 그러나 소련이 억압한 것은 종교 기관과 공개적 의례였을 뿐, 인간의 머릿속에 이미 깊이 새겨진 종교적 밈까지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니었다.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몰래 전하는 기도, 지하로 숨어든 신앙 공동체, 그리고 문화적 기억 속에 남아 있던 기독교적·이슬람적 서사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한 직후, 러시아와 구소련 국가들에서 종교가 급격하게 부활한 현상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 수십 년간의 체계적 억압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모스크는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고, 오래된 성상과 의례가 부활했다. 이는 단순한 '억압된 문화적 정체성의 회복'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정말 문화적 밈의 일시적 복원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더 깊고 억누를 수 없는 인간의 내재적 성향이 폭발한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여기서 떠오른다.

특정 종교의 교리와 신화(예를 들어 기독교의 원죄와 구원 서사, 이슬람의 지하드 개념, 불교의 업과 해탈)는 분명 문화적으로 전파되는 강력한 밈이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것, 즉 초월적 의미에 대한 갈망, 우연 속에서 의도를 찾는 경향, 죽음 이후의 존속에 대한 직관,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추구하는 충동 자체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들은 특정 종교가 사라진 뒤에도 새로운 형태로 다시 나타날 수 있는, 더 근원적인 인지적 • 감정적 소인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완전히 격리된 무신론자 공동체를 수 세대에 걸쳐 운영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

그 공동체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어떤 초자연적 가르침도, 어떤 종교적 의례도 접하지 않은 채 성장할 것이다. 그들은 과학적 세계관과 합리적 사고만을 교육받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후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유사종교적 구조가 나타난다면(예를 들어, 세속적이지만 강력한 이념적 숭배, 카리스마틱한 지도자에 대한 신격화, '역사의 필연'이나 '인류 진보' 같은 새로운 종말론, 특정 인물을 성인처럼 추앙하는 의례,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에 대한 배척) 이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된다.

그것은 종교가 단순히 외부에서 주입된 문화적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깊은 층위(인지 구조, 감정적 욕구, 진화적 적응의 부산물)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정 바이러스(기독교, 이슬람, 불교 등)를 제거해도, 그 바이러스가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숙주의 조건 자체가 인간의 DNA와 마음 속에 새겨져 있다면, 종교라는 현상은 결코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없다.

이 실험의 결과가 긍정적(종교적 성향의 재등장)이라면, 인류에 대한 절망은 한층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단순히 잘못된 아이디어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마음의 구조를 물려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DNA냐, 밈이냐. 아니면 둘 다가 뒤엉켜 인간이라는 존재를 영원히 종교적 동물로 규정짓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없다. 그러나 그 답이 무엇이든, 종교라는 유전병을 단순히 '교육'이나 '계몽'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적 믿음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류 대다수는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성스러운 환상 속에서 살아갈 운명인지도 모른다.

10. 유사종교의 재발생 가능성

인간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순수한 세속성' 속에서 오래 지속된 적이 적다. 어떤 집단이든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집단적 의미 체계와 성스러운 서사를 만들어 낸다. 신화, 의례, 금기,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대한 숭배, 희생과 구원의 이야기들은 특정 종교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는 보편적이고 거의 본능에 가까운 방식처럼 보인다.

마르크스주의가 종교의 구조를 거의 완벽하게 복제했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만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민족주의는 가장 성공적인 유사종교 중 하나다. 국기는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신성한 상징이 되고, 그 앞에서 경례하는 행위는 종교적 예배로 변모한다. 국가 영웅들은 성인으로 승격되고, 그들의 죽음은 '조국을 위한 순교'라는 서사로 재구성된다. 국경은 물리적 선이 아니라 거의 종교적 경계선이 되어, 그 선을 넘는 행위는 배신이나 더러움으로 여겨진다. 국가 기념일은 세속화된 축일이며, 애국 교육은 교리 교육이다. "조국을 사랑하라"는 구호는 "신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스포츠 팬덤 역시 놀라울 정도로 종교적 구조를 닮았다. 팀 컬러는 부족의 전쟁 페인트가 되고, 경기장은 현대의 성전(聖殿)이 된다. 스타 선수는 일시적인 성인(聖人)이며, 그의 위대한 플레이는 기적에 가깝게 숭배된다. 라이벌 팀과의 경기는 선과 악의 대결로 재편되고, 챔피언십 우승은 지상에서 실현되는 작은 구원의 순간이 된다. 패배 후의 절망과 승리 후의 황홀경,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집단적 환호와 같은 이 모든 것은 고대 종교 의식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외에도 현대 사회에는 수많은 유사종교적 현상이 넘쳐난다. 좌익 자유주의 진영의 '정치적 올바름'과 '사회 정의' 운동은 강한 도덕적 절대주의와 이단 심판 메커니즘을 보여주며, 환경 운동의 일부 극단적 형태는 '지구라는 신성한 어머니'에 대한 숭배와 종말론적 경고를 담고 있다. 심지어 과학주의나 합리주의 커뮤니티조차 때로는 카리스마적 지식인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내부 순결성 검증이라는 종교적 패턴을 드러내곤 한다. (그렇다고 과학적 방법론 자체를 종교 의식으로 매도하는 실수는 범하지 말라.)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완전히 세속화된, 철저한 무신론자들로만 구성된 공동체를 수 세대에 걸쳐 유지한다면, 그들은 정말로 종교적 구조를 초월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공동체 역시 자신들만의 성스러운 서사를 창조할 것이다. 과학적 진리를 절대적 가치로 삼고, 특정 철학자나 과학자를 준-성인(準聖人)으로 추앙하며, 공동체의 기념일을 만들고, 내부 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도덕적 금기를 설정할 것이다. 이탈자나 '반과학적' 생각을 가진 사람은 '계몽의 적'이나 '이성의 배신자'라는 이름으로 배척당할 수 있다.

그 구조가 기존 종교와 얼마나 다를 것인가. 이름과 외피는 다를지 모르나, 본질(집단적 동일시, 성스러운 서사, 내부 결속을 위한 도덕적 절대주의, 외부나 이탈자에 대한 적대감, 의미와 목적에 대한 갈망)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야말로 종교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냉철한 관점이다. 종교라는 특정 형태의 집단적 망상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의 근원은 특정 종교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의미를 구성하며 정체성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방식에 있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의미를 갈망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 갈망은 공동체 속에서 필연적으로 '성스러운 것'을 만들어 낸다. 하늘이 비워지면, 지상의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신이 물러나면 이념이, 민족이, 이데올로기가, 혹은 새로운 신성(神聖)이 그 빈자리를 메운다.

종교를 단순히 '없애는 것'이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 이 에세이 시리즈가 결국 도달하는 가장 불편한 결론 중 하나다.

우리가 진정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오늘날의 종교를 버린 뒤, 우리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집단적 환상 속에서 살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새로운 환상이, 이전 종교보다 더 나은 것일까, 아니면 더 위험한 것일까.

어쩌면 문제는 환상 자체가 아니라, 환상을 생성하는 뇌의 구조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책은 더 나은 믿음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인간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일 수 있다. 가령 기존의 종교적 영성이 작동하는 뇌를 전혀 다른 기계적 인지 구조로 대체하는 것 말이다. 즉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에서 나올법한 그 반인본주의적 도약이 주류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틀려서라기보다는 너무 정직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11. 사후세계라는 도구: 이승을 희생시키는 구조

종교가 인류에게 행사해 온 가장 강력하고도 교묘한 통제 도구 중 하나는, 단연 사후세계 개념이다. 이 도구는 특정 종교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브라함계 종교뿐만 아니라, 동양의 전통 속에서도 같은 논리가 정교하게 작동해 왔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명확한 천국과 지옥의 이원론을 제시한다. 올바른 신앙과 순종, 혹은 성전을 통해 순교하면 영원한 낙원이 기다린다는 약속. 반대로 불신과 죄악은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진다. 힌두교의 윤회와 카르마, 불교의 윤회와 업(業) 개념도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이승에서의 고통과 불평등은 전생의 업보로 설명되며, 현세의 순응과 고행은 다음 생, 혹은 궁극적 해탈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재해석된다. 인도 카스트 제도의 가장 강력한 정당화 논리 역시 바로 여기에 있었다. "네가 지금 낮은 카스트에 태어난 것은 전생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 이 고통을 참고 의무를 다하라. 그러면 다음 생에서는 더 나은 위치를 얻을 수 있다."

이 논리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다. 현재의 빈곤, 착취, 억압, 부당한 고통을 참아내게 만드는 데, 사후 보상만큼 강력한 마취제는 없었다. 지배 계층은 피지배층에게 현실의 불의를 개혁하려는 대신, 죽은 뒤에 보상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팔았다. 마르크스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찔렀다. 종교는 현실의 고통을 치유하지 않고, 그 고통을 견디게 만드는 마약을 제공했다.

그러나 사후세계 개념의 가장 위험한 기능은 순응을 넘어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있다.

"이교도를 죽이면 천국에 간다."

"신을 위해 순교하면 즉시 낙원으로 간다."

"고통받을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큰 상이 기다린다."

이런 논리는 종교적 폭력의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되어왔다. 십자군 전사들은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이며 "Deus vult"를 외쳤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자살폭탄을 몸에 두르고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기꺼이 던졌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옥쇄' 정신 역시 천황이라는 살아있는 신을 위한 희생을 미화했다.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생명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뒤바꾼다.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자신의 생명도, 타인의 생명도 쉽게 경시하게 된다. 현재의 고통과 희생이 클수록, 사후의 보상이 크다는 계산이 작동한다. 이승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저승으로 가는 통로이자 시험장으로 전락한다.

여기서 가장 냉정하고도 파괴적인 질문이 떠오른다.

만약 사후세계가 없다면? 만약 종교가 약속한 그 모든 천국, 낙원, 해탈, 극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천 년 동안 종교의 이름으로 감수한 모든 고통, 모든 희생, 모든 폭력, 모든 순종이 결국 아무것도 없는 허무 속으로 사라지는 길이었다면?

더욱 섬뜩한 모순은 종교 내부에 이미 존재한다. 서로 다른 종교들이 서로 모순되는 사후세계를 약속하고 있다.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무슬림이 지옥에 간다고 믿고, 무슬림은 알라를 부정하는 기독교인이 지옥에 간다고 믿는다. 힌두교와 불교의 윤회설 역시 서로 다른 해탈의 경로를 제시한다. 그중 하나만이 맞을 수 있고, 어쩌면 모두가 틀렸을 수도 있다.

자신이 죽인 타종교 신자의 신이, 하필 진짜 신이었다면? 그 순간 살인자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종교적 논리 안에서도 이 모순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를 향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근거로 작용할 뿐이다.

야생의 동물은 이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 사자도, 늑대도, 새도 사후의 보상을 기대하며 현재의 삶을 희생하지 않는다. 그들은 DNA에 새겨진 본능에 따라 먹고, 싸우고, 번식하고, 죽는다. 그 삶은 종교적 인간이 보기에는 '야만적'이고 '의미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사후세계라는 환상 때문에 이승의 유일한 삶을 도구화하고, 폭력과 순응의 올가미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 진정 더 '의미 있는' 삶인가. 아니면, 주어진 유일한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정직하고, 더 솔직한 태도인가.

사후세계는 종교가 인간에게 준 가장 강력한 마취제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무기였다. 그것은 이승을 희생시키는 구조를 완성함으로써, 수많은 인간을 현실의 고통 속에 가두고, 폭력의 순환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 약속이 허구일 가능성을 진지하게 직시하는 순간, 종교가 빚어낸 가장 거대한 기만 중 하나가 서서히 드러난다.

12. 낙관적 허무주의: 빈 캔버스의 가능성

그렇다면, 지금까지 탐구해 온 이 모든 역설과 구조를 냉정하게 직시한 후,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의미의 부재를 발견한 순간, 허무주의는 두 갈래 길로 갈린다. 하나는 비관적 허무주의다. 삶에 본래적인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며, 모든 것을 무의미하다고 여기고 무기력과 냉소 속으로 빠져든다. 또 하나는 낙관적 허무주의다. 의미가 애초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오히려 깊은 자유와 가능성을 발견한다.

낙관적 허무주의는 가장 과감한 정신적 전환이다. 신이 죽었다는 선언은, 동시에 인간에게서 강제된 목적과 필연적 서사의 굴레가 사라졌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더 이상 우주가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고, 죽음 이후에 어떤 심판도, 보상도, 벌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애당초 부여된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 신이 지정해 준 삶의 목적이 없다면, 그 목적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사후세계를 위해 이승을 희생할 필요가 사라진다면, 지금 이 유일하고 찰나적인 삶 자체를 최대한 치열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 도덕이 신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 집단이 만든 실용적 규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고, 보다 성숙하고 자율적인 윤리를 스스로 세울 수 있다.

알베르 카뮈가 《시지프스 신화》에서 보여준 이미지가 바로 이 낙관적 허무주의의 정수다. 신들의 벌을 받아 영원히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려야 하는 시지프스. 그러나 바위는 정상에 다다르는 순간마다 다시 굴러 떨어진다. 끝없는 반복과 부조리. 카뮈는 말한다. 우리는 시지프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그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노동이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신들이 부여한 형벌이 아니라, 자신이 직면한 현실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반항하며 살아가는 태도. 바로 그것이 부조리 속에서의 자유다.

종교는 이 부조리를 견디지 못해 만들어낸 정교한 의미의 체계였다. 원죄와 구원, 업과 해탈, 천국과 지옥, 신의 계획과 역사적 필연이라는 거대한 서사들은 인간에게 삶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견디게 해주는 마취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 마취제의 대가는 너무나 컸다. 수많은 전쟁과 학살, 이단 심문과 숙청, 개인의 자율성과 지성의 희생, 현실의 삶을 도구화하는 구조 등과 같이 인류는 의미를 얻는 대신 너무 많은 피와 자유를 지불했다.

낙관적 허무주의는 이 거래를 단호하게 거부한다. 부조리를 직면하되 절망하지 않는다. 우주가 침묵한다는 사실을 공포가 아니라 해방으로 읽는다. 의미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강요된 의미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신, 타인의 이념, 타인의 교리에 삶을 저당 잡히지 않아도 된다.

빈 캔버스는 결핍이 아니다.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다. 종교라는 거대한 프레임이 사라진 자리에, 우리는 스스로 색을 칠하고, 형태를 만들고, 이야기를 쓸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영원하지 않아도 된다. 오직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면 충분하다. 사랑, 창조, 탐구, 우정, 아름다움, 반항, 연대 등 이 모든 것은 신의 허락 없이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

낙관적 허무주의는 따라서 게으른 방종이 아니라, 가장 높은 형태의 책임감이다. 의미를 외부에서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창조하는 책임. 죽음 이후의 환상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전적으로 몰입하는 용기. 부조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당당히 서서 "그래도 나는 살아간다"고 선언하는 반항의 태도.

우리는 결국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 영원한 의미를 약속하는 대신 현실의 고통과 폭력을 요구했던 오래된 거래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의미의 부재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 빈 공간 위에 우리만의 자유롭고 성숙한 삶을 그려나갈 것인가.

빈 캔버스는 두렵지만 동시에 아름답다. 그 위에 무엇을 그릴지는, 이제 오직 우리에게 달려 있다.

13. 그럼에도 남는 질문들

이 에세이는 구체적인 답을 주장하기보다 질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썼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답보다 질문이 남는다.

종교적 성향이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억압은 소련이 보여주었듯 효과가 없다. 교육은 가능성이 있지만 느리고, 종교 공동체는 자신들만의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다. 무신론자 공동체는 결국 유사종교적 구조를 재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종교가 제공하는 기능들(죽음의 공포에 관한 관리, 공동체 결속, 의미 부여, 도덕적 규범)을 종교 없이 제공할 수 있는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대안이 무엇이든 그것이 집단적 이념의 형태를 취하는 순간 종교의 구조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이 에세이가 어떤 집단적 대안을 섣불리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 이 모든 것을 인식한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종교라는 유전병을 가진 대다수 속에서, 그 구조를 인식하는 소수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것인가.

아마도 그것이 종교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이다.

14. 종교라는 이름의 바이러스

5편에 걸쳐 긴 여정이었다.

아브라함계 종교를 중심 소재로 삼았지만, 이 에세이가 도달한 결론은 아브라함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이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극단적인 사례였을 뿐이다. 불교 민족주의의 학살, 힌두 민족주의의 폭력, 신도의 제국주의적 동원 — 종교라는 시스템은 그 형태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을 만들어낸다.

야훼는 가나안의 한 부족신에서 시작하여 인류 절반의 정신적 지형을 지배하는 보편신이 되었다. 붓다의 가르침은 자비를 설했지만 그 이름 아래 학살이 이루어졌다. 힌두교의 우주적 질서는 카스트라는 억압 구조를 정당화했다. 신도는 천황이라는 인간 신을 내세워 제국의 침략을 성전으로 포장했다. 종교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 배타적 진리 주장,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 신성한 권위에 의한 폭력 정당화라는 구조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한다.

그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가져다준 것들 — 문명, 예술, 도덕, 법 — 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대가로 지불된 것들 — 수억 명의 생명, 무수한 문화의 파괴,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의 억압 — 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이 에세이는 특정 신자를 향한 적대감으로 쓴 것이 아니다. 신자들도 대부분 그 구조의 산물이며, 그 구조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비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구조다. 종교라는 집단적 망상이 인류에게 무엇을 해왔는지를 직시하는 것 — 그것이 이 사고실험의 목적이다.

종교가 없어도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처음으로 온전히 각자의 문제가 된다.

6편에서는 해부 대상을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너머로 확장한다. 불교, 힌두교, 신토 등 어떤 종교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같은 냉정함으로 추적한다.

- 참고문헌 -

리처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 — 종교적 신앙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망상이며, 종교 자체가 밈으로서 자기복제하는 구조를 가진다는 논지. 종교의 진화적 기원과 사회적 폐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크리스토퍼 히친스, 『신은 위대하지 않다(God Is Not Great)』 — "종교는 모든 것을 독살한다"는 명제 하에 세계 주요 종교들의 역사적 해악을 직접적이고 신랄하게 추적한 저작.

대니얼 데닛, 『주문을 깨다(Breaking the Spell)』 — 종교를 자연현상으로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 종교가 어떻게 진화적으로 발생하고 문화적으로 전파되는지를 인지과학과 진화생물학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파스칼 보이어,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Religion Explained)』 — 종교적 개념들이 왜 인간의 인지 구조에 잘 달라붙는지를 인지과학적으로 설명. 과잉능동적 행위자 탐지(HADD) 개념을 통해 종교적 사고의 신경학적 기원을 추적한다.

프리드리히 니체, 『도덕의 계보(On the Genealogy of Morals)』 — 기독교적 노예 도덕(slave morality)의 기원을 원한(ressentiment)에서 찾고, 주인 도덕과 대비하며 종교적 도덕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왜소화하는지를 철학적으로 해부한다.

프리드리히 니체, 『선악의 저편(Beyond Good and Evil)』 — 전통적 도덕과 종교적 가치의 기원을 비판하며,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 창조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무리 도덕(herd morality)과 노예 도덕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샘 해리스, 『신앙의 종말(The End of Faith)』 — 종교적 신앙이 이성과 과학, 도덕적 진보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특히 종교 극단주의와 폭력의 연결고리를 분석한다.

스콧 아트란, 『신을 믿는 우리는(In Gods We Trust: The Evolutionary Landscape of Religion)』 — 종교가 인간의 진화적 심리와 인지 편향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되는지를 인지인류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탐구한 저작.

로버트 N. 벨라, 『인간 진화 속의 종교(Religion in Human Evolution: From the Paleolithic to the Axial Age)』 — 수렵채집 시대부터 축의 시대까지 종교의 진화 과정을 거시적으로 다루며, 보편 종교 등장 이전의 애니미즘적 세계관과 그 이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칼 야스퍼스, 『역사의 기원과 목표(The Origin and Goal of History)』 — 축의 시대(Axial Age) 개념을 처음 제시한 고전. 기원전 800~200년 사이에 동서양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난 정신적·철학적 혁명을 분석하며, 현대 인류 정신의 기원을 탐색한다.

알베르 카뮈, 『시지프스 신화(The Myth of Sisyphus)』 — 부조리(absurd)와 허무를 직시한 뒤에도 삶을 긍정하는 낙관적 허무주의의 전형을 제시. 의미 없는 세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유와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빅터 스텐저, 『신은 실패한 가설이다(God: The Failed Hypothesis)』 —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신의 존재를 검증하고, 종교적 주장들이 경험적 증거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반박한다.

제6편

종교 전반에 대한 전면적 회의: 아브라함을 넘어서

종교 전반에 대한 전면적 회의: 아브라함을 넘어서

1. 시작하며: 소재와 결론을 구분하는 것

1편부터 5편까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을 중심 소재로 삼았다. 이 선택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아브라함 계통의 세 종교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극단적인 종교적 폭력의 사례들을 제공했으니까. 그러나 이 에세이 시리즈의 결론은 처음부터 더 넓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만이 문제인 것이 아니다. 종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를 비판하면 "그렇다면 불교는 어떻냐", "힌두교는 더 평화롭지 않냐"는 반론이 나온다. 이 반론은 종교에 대한 비판을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다. 그래서 이 편에서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를 넘어 종교 일반을 해부한다.

결론이 먼저다. 어떤 종교도 예외가 없다. 구조가 같기 때문이다.

2. 불교: 자비(慈悲)라는 이름의 브랜드와 현실의 간극

불교는 서구 지식인과 대중 사이에서 가장 매력적인 '동양 종교'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비폭력(아힘사, ahimsa), 자비(카루나, Karuṇā), 명상, 깨달음, 그리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메시지는 폭력과 독선으로 점철된 아브라함계 종교들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대안처럼 보였다. 달라이 라마의 미소와 노벨 평화상, 선(禪)의 미니멀리즘, 그리고 '모든 존재의 고통을 끝내라'는 가르침은 불교를 비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만들었다. 서구에서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이나 심리치료 기술로 재포장되며, 폭력과 무관한 '평화의 브랜드'로 소비되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역사와 현실의 거울 앞에서 빠르게 금이 간다.

미얀마의 로힝야 사태를 보자. 2017년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로힝야족에 대한 대규모 학살과 강제 추방은 국제사회에서 제노사이드(genocide)로 규정되었다. 수십만 명이 살해되거나 방글라데시로 쫓겨났고, 마을은 불태워졌으며, 여성들에 대한 조직적 강간이 자행되었다. 이 폭력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불교 민족주의였다. '마바타(Ma Ba Tha, 종족과 종교 보호를 위한 조직)'라는 불교 극단주의 단체는 로힝야 무슬림을 '이슬람 침략자', '불교 미얀마를 파괴하려는 외세'로 규정하며 증오를 체계적으로 선동했다. 아신 위라투(Ashin Wirathu) 승려는 자신을 '불교의 빈 라덴'이라고 칭하며, 반무슬림 연설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로힝야는 버마 불교를 없애고 이슬람 칼리파국을 세우려 한다"는 공포를 퍼뜨렸다. 수많은 불교 승려들이 군부의 작전에 침묵하거나 적극

동조했으며, 일부는 직접 증오 선전을 주도했다. 자비와 무살생(不殺生)을 설파하는 승려들의 로브 아래에서, 이교도로 규정된 '타자'에 대한 학살이 정당화되었다.

이것을 단순한 '일탈'이나 '정치적 오용'으로 치부하기 쉽다. 그러나 일탈이 이토록 손쉽고 대규모로, 그리고 종교적 권위를 가진 이들에 의해 반복된다면, 그 가능성은 이미 불교라는 시스템의 구조 안에 내재해 있다는 뜻이다. 불교는 '나'와 '타자', '불교 공동체(상가, Sangha)'와 '외부의 위협'을 구분하는 정체성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이 구분이 민족・인종과 결합할 때 폭력은 자연스럽게 정당화된다.

스리랑카의 사례도 크게 다르지 않다.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된 스리랑카 내전은 싱할라족(불교 다수)과 타밀족(힌두교 다수) 사이의 충돌로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 이 전쟁의 배경에는 불교 민족주의가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 싱할라 불교 우월주의는 '스리랑카는 본래 싱할라 불교의 섬'이라는 역사 서사를 동원해 타밀족을 '침입자'나 '이방인'으로 프레임화했다. 그 근거로 가장 자주 소환된 것이 5세기 팔리어 연대기 마하밤사(Mahāvaṃsa)다. 싱할라 왕조의 불교적 정통성을 서술한 이 문헌은, 현대 민족주의자들의 손에서 영토적 배타성의 신화적 증거로 재전유되었다. 싱할라 온리 정책(Sinhala Only Act), 불교 사원의 타밀 지역 건설, 그리고 민족주의적 설교는 타밀족에 대한 체계적 차별과 폭력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했다. 자비를 강조하는 종교가 민족주의와 결합하자, 수십 년간의 유혈 내전이 '불교 문명의 수호'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역사적으로도 불교는 결코 순수한 평화의 종교가 아니었다. 일본의 경우가 특히 극명하다. 메이지 유신 이후 선불교(특히 임제종(臨濟宗)과 조동종(曹洞宗))는 일본 제국주의와 긴밀히 결합했다.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수많은 선사(禪師)와 승려들은 '황군(皇軍)의 전쟁은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성전'이라는 논리를 제공했다. '선검일여(禅剣一如, 선과 검의 일치)'라는 구호 아래, 명상 수련이 전사의 정신력 강화로 재해석되었고, 불교 의식은 군인들의 사기 진작과 전사자 위령에 동원되었다.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를 비롯한 영향력 있는 불교 지식인들조차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하거나 미화하는 발언을 했다. 불교 기관들은 전쟁 채권 판매, 군사 훈련, 식민지 '평정' 작업에 적극 협력했다. 자비와 무집착을 가르치는 종교가, 천황 중심의 국가주의와 결합하자 '불교를 위한 전쟁'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다. 불교 역시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위협'으로 규정된 외부를 배제하거나 정복하는 구조를 내장하고 있다. 팔리 경전에서조차 왕의 통치와 벌(罰)이 논의되며, 역사적으로 불교 국가는 전쟁과 정복을 '불법(佛法) 수호'나 '교화'의 이름으로 정당화해 왔다. 자비라는 이상은 강력한 브랜드지만, 현실에서 공동체・민족・권력과 결합할 때 그것은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진정한 불교도'만이 자비의 대상이 되고, '불교를 위협하는 자'는 예외가 된다.

불교를 비판하는 것은 특정 문화나 민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교가 가진 보편적 구조를 지적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는 신성한 서사, 공동체 정체성, 도덕적 우월감, 그리고 '구원/해탈'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통해 인간을 조직한다. 이 구조 자체가 '우리 vs 그들'의 이분법을 생산하고, 위기 상황에서 폭력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불교가 아브라함계 종교만큼 극단적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브랜드가 더 세련되었을 뿐이다.

자비를 설파하면서도 증오를 선동하고, 무살생을 강조하면서도 학살을 묵인하거나 정당화하는 모순. 이것이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라는 시스템의 본질적 취약점이라는 점을, 미얀마와 스리랑카와 일본의 역사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종교는 이상을 제시하지만, 그 이상은 언제나 현실의 권력과 정체성 정치 앞에서 굴복하거나 도구화된다.

3. 힌두교: 우주적 질서라는 이름의 억압

힌두교는 수천 년에 걸쳐 인도 아대륙에서 축적된 다양한 신앙, 철학, 의식, 신화의 복합체다. 베다부터 우파니샤드, 에픽, 푸라나까지, 그리고 수많은 지역 신앙과 철학적 학파까지 포괄하는 이 다양성은 "힌두교는 단일한 교리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방어막을 제공한다. 비판자가 특정 요소를 지적하면, "그건 힌두교의 본질이 아니다", "진정한 힌두교는 더 깊고 철학적이다"라는 반론이 즉시 나온다. 그러나 힌두교가 실제로 사회를 조직하고 인간의 삶을 규정해 온 방식, 즉 그 사회적 구현체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 핵심이 바로 카스트 제도(varna and jati)다. 이는 종교가 어떻게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견고한 사회적 억압 구조를 창조하고 정당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힌두교의 전통적 세계관에 따르면, 사회는 브라만(사제・지식인), 크샤트리아(전사・통치자), 바이샤(상인・농민), 수드라(노동자)라는 네 개의 바르나(varna)로 나뉘며, 이 아래에 카스트 밖의 불가촉천민(Dalit, Scheduled Castes)이 존재한다. 이 구분은 단순한 직업 분업이 아니다. 그것은 카르마(karma)와 환생의 논리로 철저히 종교적으로 정당화된다. 현재의 낮은 신분은 전생에 쌓은 악업(惡業)의 결과이며, 이생에서 주어진 '의무(dharma)'를 순종적으로 수행하면 다음 생에서 더 높은 카스트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천재적일 만큼 효과적이다. 현재의 고통, 빈곤, 차별, 폭력을 '우주적 질서(dharma)'와 '개인적 업보'로 돌림으로써 피해자 스스로 저항 대신 순응을 선택하게 만든다. 불평등을 '신성한 우주 질서'로 포장하고, 구조적 억압을 개인의 도덕적 실패로 재해석한다. 이는 아브라함계 종교가 사후 천국/지옥으로 현세의 고통을 설명하는 방식과 구조적으로 정확히 동일하다. 방향만 다를 뿐, 결국 인간의 현재 삶을 통제하고 복종을

유도하는 도구라는 점에서는 같다.

현대 인도에서도 이 유산은 강력하게 지속된다. 헌법으로 카스트 차별이 금지되고, 긍정적 차별(예약제)이 시행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달리트에 대한 폭력과 사회적 배제는 일상적이다. 인도 국가범죄기록국(NCRB) 자료에 따르면, 매년 수만 건의 달리트 대상 범죄가 보고되며, 실제 발생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달리트 여성에 대한 강간, 집단 폭행, 마을 전체에 대한 사회적 보이콧, 상위 카스트 집단에 의한 린치와 방화가 끊이지 않는다. 달리트가 교육이나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상승하려 하면, 상 caste 공동체의 폭력적 반발이 뒤따르는 경우가 흔하다. "불가촉"이라는 낙인은 여전히 물을 길으러 가는 것, 사원을 출입하는 것, 심지어 그림자를 밟는 것조차 위험으로 만든다.

이것을 "오래된 관습의 잔재"나 "경제적 요인"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편리한 회피다. 카스트 차별의 뿌리는 종교적 신화와 철학 속에 깊이 박혀 있으며, 수천 년 동안 사회 구조와 의식, 결혼, 음식, 공간까지 철저히 침투해 내면화되었다. 법률은 표면을 바꿀 수 있지만, '우주적 질서'로 정당화된 세계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극히 어렵다.

현대에 들어 힌두 민족주의, 이른바 힌두트바(Hindutva)는 또 다른 폭력의 패턴을 만들어냈다. RSS, VHP, Bajrang Dal 등 조직과 BJP 정치 세력이 주도하는 힌두트바는 "힌두 국가(Hindu Rashtra)" 건설을 목표로 하며, 이슬람과 기독교 소수자를 '외부 침략자'나 '국가 내부의 적'으로 규정한다. 소에 대한 숭배를 명분으로 한 '카우 비질란테(cow vigilantism)'는 그 상징적 표현이다. 무슬림이나 달리트가 소를 운송하거나 도축했다는 의심만으로 군중이 결성되어 린치가 자행된다. 2015년 모하마드 아크라크 살해 사건 이후 이런 공격은 급증했으며, 가해자들은 종종 소셜미디어에 폭력 장면을 올리며 '힌두 보호'를 자랑한다.

1947년 인도파키스탄 분할 독립 과정은 종교적 정체성이 만들어내는 폭력의 규모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수백만 명이 종교에 따라 이주하는 과정에서 힌두시크무슬림 간의 대규모 학살이 벌어졌고, 사망자 추정치는 20만에서 200만 명에 이른다. 기차가 피로 물들고, 마을이 불타고, 여성들이 조직적으로 강간당하고 살해되는 참상이 펼쳐졌다. 이 폭력은 단순한 '정치적 혼란'이 아니라, 종교적·민족적 정체성을 절대화한 결과였다.

힌두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덜 폭력적이라는 이미지는, 카스트 제도라는 내부 억압을 '문화'나 '전통'으로 미화하고, 외부에 대한 폭력을 '민족주의'로 재포장한 결과일 뿐이다. 힌두교 역시 '우리(힌두 공동체)'와 '그들(이슬람, 기독교, 또는 낮은 카스트)'을 구분하는 정체성 메커니즘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으며, 이 구분이 위기나 정치적 동원 상황에서 폭력과 억압으로 쉽게 전환된다.

우주적 질서(dharma)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계급화하고, 그 질서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죄악으로 규정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종교가 가장 오래도록 유지해 온 억압의 본질이다. 힌두교는 그 다양성과 철학적 깊이로 인해 비판을 피하기 쉽지만, 사회적 현실 앞에서 그 브랜드는 힘을 잃는다.

자비나 해탈, 우주적 조화라는 이상은 강력한 수사지만, 현실에서 공동체 정체성, 권력, 두려움과 결합할 때 선택적으로 적용되거나 완전히 역전된다. 불교가 그랬던 것처럼, 힌두교 역시 예외가 아니다.

4. 신토: 살아있는 신과 제국의 결합

신토(神道)는 일본 열도의 토착 신앙으로, 자연의 여러 카미(神), 조상 숭배, 그리고 계절과 삶의 리듬에 대한 의식에서 출발했다. 원래는 중앙집권적 교리나 독단적 신학이 없는, 다소 유연하고 지역적인 전통이었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1868년)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정부는 신도를 국가 통합의 도구로 체계화하면서 국가신토(State Shinto)를 만들어냈다. 천황을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의 직계 후손이자 살아있는 신(現人神, 아키츠미카미)으로 위치시키고, 신도 의식을 국가의 공식 종교적 기반으로 삼았다.

이 변화는 단순한 문화 정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종교가 정치 권력과 결합하여 대규모 집단을 동원하고, 희생을 신성한 의무로 승화시키는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다.

천황의 신성은 국가의 모든 행위를 절대화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천황의 명령은 곧 신의 뜻이었고, 국가에 대한 충성은 종교적 숭배로 승화되었다.
코쿠타이(國體)라는 개념(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유기적 국가 공동체)은 모든 일본인이 천황에게 절대적 충성과 목숨 바침을 바쳐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했다. 이 구조 속에서 개인의 죽음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신성한 국가를 위한 최고의 헌납으로 재해석되었다.

이 논리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바로 카미카제(神風) 특공대였다. 1944년 말부터 시작된 이 작전은 조종사들이 폭탄을 실은 비행기로 적함에 돌진하는 자살 공격이었다. '신풍'이라는 이름 자체가, 몽골 침략을 막았던 역사적 신풍을 연상시키며 전쟁을 신의 뜻으로 포장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천황 폐하 만세(天皇陛下萬歲)"를 외치며 죽음을 선택했다. 국가신토는 이 행위를 영웅적 희생이자 '카미'에게로의 귀환으로 미화했다.
자비나 해탈을 강조하는 다른 종교와 달리, 여기서는 국가와 천황에 대한 절대 복종이 최고의 종교적 덕목이 되었다.

전쟁 중 일본 제국군의 행위도 이 신성한 프레임 안에서 정당화되었다. 1937년 12월, 난징(南京) 함락 이후 벌어진 대규모 학살과 약탈, 강간은 그 대표적 사례다. 국제군사재판 기록과 역사적 추정에 따르면, 수십만 명의 중국 민간인과 포로가 살해되었으며, 수만 명의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 일본군 지휘부는 이 행위를 단순한 군사 작전의 부산물이 아니라, 신성한 제국의 확장 과정으로 보았다. 황군(皇軍)은 천황의 군대이고,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므로, 그들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신성한 성격을 띤다는 논리였다. 이 구조는 어떤 잔인한 폭력도 '제국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나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수립'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이것은 종교가 '신성한 서사'를 통해 폭력을 정당화하는 보편적 패턴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신도가 본래 자연과 조화, 정화의 전통이었다고 해도, 국가 권력과 결합한 순간 그것은 강력한 동원 이데올로기로 변모했다.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는 전사자들의 영혼을 위령한다는 명목으로,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을 신으로 모셨다. 살아있는 신(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체계에서 죽은 자들까지도 국가 신앙의 일부가 되었다.

패전 이후 이 구조는 급진적으로 해체되었다. 1946년 1월 1일, 히로히토 천황은 인간 선언(人間宣言)을 통해 자신이 신이 아닌 인간임을 밝혔다. 연합군의 압력 아래 이루어진 이 선언은 국가신토의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천황 중심의 신성한 국가관은 공식적으로 부정되었고, 신토는 다시 민간 종교에 가까워졌다.

신토의 사례는 종교 비판의 핵심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문제는 특정 신앙의 내용(자연 숭배, 조상 제사 등)이 아니라, 종교가 권력과 결합하여 '신성한 공동체'와 '그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절대화하는 구조 자체에 있다. 신토가 메이지 유신 이후 국가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은 평화로운 토착 신앙이 아니라 제국 동원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5. 유교: 교조주의화되어버린 정치철학

유교를 비판하려 들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교리 논쟁이 아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다"라는 방어막이다. 이 방어막은 꽤 효과적이다. 유교에는 인격신(人格神)이 없고, 예배당이 없고, 뚜렷한 사후 세계관이 없다. 공자 자신도 귀신과 죽음에 대한 질문에 "아직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未知生, 焉知死, '미지생, 언지사')"고 유보했다. 그러니 "유교를 종교로 비판하는 것은 카테고리 오류"라는 반론이 손쉽게 나온다.

그러나 이 방어막 자체가 유교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자기보호 장치라는 사실을 먼저 짚어야 한다.

종교의 정의를 인격신의 유무에 한정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사회과학적으로도 낡은 접근이다. 에밀 뒤르켐(Émile Durkheim)은 종교를 이렇게 정의했다.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고, 그 구분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통합하며, 믿음과 실천의 체계를 통해 집단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시스템. 이 정의에 인격신은 없다. 뒤르켐의 기준을 유교에 적용하면 결론은 하나다. 공자 - 맹자 시절은 몰라도 그 이후 신유학(新儒學)은 종교다.

천(天)이라는 초월적 도덕 질서, 성인(聖人)이라는 신성화된 인물, 사서오경(四書五經)이라는 경전, 과거제(科擧制)라는 입문 의례, 관혼상제(冠婚喪祭)라는 생애주기 의례, 그리고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는 이단 처형 기타 등등. 종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구조적 요소가 모두 갖춰져 있다.

오히려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주장 덕분에 유교는 수천 년 동안 종교 비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었다. 종교라는 딱지를 피함으로써 비판을 '철학적 견해 차이'의 영역으로 격하시켰고, 동시에 종교가 가진 공동체 통제력과 도덕적 권위는 온전히 누렸다. 이것이 유교의 가장 영리한 생존 전략이었다.

공자(孔子)의 원전 유교는 그나마 논의의 여지가 있었다. 인(仁)을 중심으로 한 덕목 체계, 군주에 대한 간언(諫言)의 의무, 민본(民本)적 요소들은 적어도 열린 논쟁의 소재가 될 수 있었다. 공자 자신이 말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三人行, 必有我師, '삼인행 필유아사')." 이 문장을 액면 그대로 읽는다면, 공자 시절 유교는 어느 정도의 지적인 겸손을 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겸손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나라의 동중서(董仲舒)가 천인감응론(天人感應論)으로 유교를 국가 이데올로기로 격상시키면서 첫 번째 경직화가 일어났다. 황제의 권위가 천(天)의 뜻을 대리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순간, 유교는 정치 권력의 정당화 도구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그리고 12세기, 주희(朱熹)가 등장했다.

주희가 한 일을 단순화하면 이렇다. 공맹의 유교를 우주론적 형이상학으로 재편했다. 이(理)와 기(氣)의 이원론을 통해 도덕적 질서를 우주의 물리적 법칙과 동일시했다. 군신(君臣), 부자(父子), 부부(夫婦), 장유(長幼), 붕우(朋友)라는 오륜(五倫)은 더 이상 사회적 관습이나 합의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주의 이치(理)가 인간 관계에 구현된 것, 즉 자연법칙과 동급의 진리가 되었다. 누가 감히 자연법칙에 저항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핵심이다. 주희 이전의 유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도덕적이다"는 권고였다. 주희 이후의 성리학은 "이렇게 사는 것이 우주의 이치"라는 선언이 되었다. 반박의 차원 자체가 달라진다. 사람의 의견에는 반론할 수 있지만, 우주의 이치에 반론하는 자는 우주 그 자체에 저항하는 미치광이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 이 성리학을 가장 극단적으로, 가장 원리주의적으로 수용한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다. 성리학의 발원지 송나라, 그리고 그것을 국교로 삼은 명나라조차 성리학 이외의 학문적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 육구연(陸九淵)의 심학(心學), 왕양명(王陽明)의 양명학이 명나라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것이 그 증거다. 그러나 조선은 달랐다.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분석가 한 명을 소환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朴正熙). 군사혁명으로 집권하여 18년간 한국을 통치한 반공(反共) 지도자. 그리고 동시에, 조선 성리학 체제의 폐해를 누구보다 신랄하고 상세하게 기록한 인물. 그의 진단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가 민주주의자나 자유주의 지식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체제를 직접 운영한 자가 바로 이전 권위주의 체제의 해악을 이토록 날카롭게 해부했다는 아이러니는 그의 분석에 독특한 무게를 더한다.

박정희는 그의 저서 『우리 민족의 나갈 길』에서 조선 유교 체제의 본질을 이렇게 규정했다.

> "이성계의 군사 쿠데타는 정권교체에 그쳤을 뿐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에는 다가갈 수 없었다. 나라의 지도원리를 유교에 고정시킨 이성계는 유교 진흥을 정책의 슬로건으로 내세워 국민교육에 활용했고 관직에 나가기 위한 필수과목으로 삼았다. 그렇게 조선의 관직은 유교 지식인 출신이 차지했고, 이들은 지배층을 이루면서 실제 땅을 경작하는 농민을 착취하며 자신은 놀고먹는 지주가 되었다. 양반이라는 사회적 신분은 대대로 물려주고 또 물려받는 특권이었다. 이처럼 유교사상은 신분의 차별을 당연시하고 임금과 신하,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합리화시켜 주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사회에 투영되었다.
>
> (...) 조선왕조는 유교라는 가족적이고도 윤리적인 성격을 띤 사상을 지배원리로 하는, 그 본질상 전체주의라 하겠다."
>
> — 박정희, 『평설 우리 민족의 나갈 길』, 기파랑(2017), pp. 56~57

"그 본질상 전체주의." 권위주의 지도자가 이전 체제를 전체주의로 규정한다. 이 문장의 아이러니를 잠시 음미해 두자.

그런데 이 전체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은 힌두교의 카스트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힌두교가 카르마(karma)와 윤회의 논리로 신분을 우주적으로 정당화했다면, 성리학의 오륜(五倫)은 이(理)와 기(氣)의 형이상학으로 위계질서를 우주의 이치로 정당화했다. 방법은 달랐지만 기능은 동일하다. 태어나면서 결정된 위치에 복종하는 것이 곧 우주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 되고, 저항하는 자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가 된다.

박정희는 이 구조가 만들어낸 실용적 폐해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 "중앙관서의 기술직 종사자들은 양반 이하의 사무원 취급밖에 받지 못했다. 기술직을 업신여기는 사조가 팽배해서 수공업에 종사하는 기술사무원이나 종들은 '~쟁이'라는

천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상공업이나 과학기술을 업신여기는 생각들은 후일 근대화를 가로막는 암(癌)과 같은 역할을 했다. (...) 벼슬이면 다라는 생각에 감투 쓰는 일에만 모두가 집중하는 어두운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근대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지방자치의 성장을 방해하고 '나으리'에게 아부하는 근성을 길러냈다. 나랏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던 백성은 나랏일을 자기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겼고, 그러다 보니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날 토양은 전혀 만들어지지 못했다."

— 박정희, 『평설 우리 민족의 나갈 길』, 기파랑(2017), pp. 57~58

오직 경서(經書)를 암송하고 과거를 통과해 관직에 오르는 것만이 인간다운 삶의 유일한 경로였다. 기술자는 '~쟁이'였고, 상인은 천민이었으며, 농민은 수탈의 대상이었다. 성리학이 우주의 이치로 규정한 위계 안에서 이 배치는 변경 불가능한 자연 질서였다. 과학이 발전할 수 없었다. 산업이 성장할 수 없었다. 근대화의 토대 자체가 유교적 세계관에 의해 사전에 봉쇄되어 있었다.

성리학이 가진 가장 종교적인 메커니즘은 이단 처형이었다. 그 이름이 사문난적이다.

"유교 문명(斯文)을 어지럽히는 도적(亂賊)." 이것이 종교적 파문(破門)과 구조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인가. 딱히 없다. 교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를 공동체에서 축출하고, 그 낙인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이 감히 같은 질문을 꺼내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것. 이것이 사문난적이라는 개념이 수행한 기능이었고, 종교 재판소가 수행한 기능이었다.

박정희는 이 메커니즘의 구체적 작동을 기록했다.

"본디 토론이나 논쟁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조선의 당파싸움에서 시비는 그야말로 문제도 안 되는 남의 흠을 찾아 헐뜯고 공연히 시비를 거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당파싸움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았다. 송시열(宋時烈)과 대립각을 세웠던 남인파 허목(許穆)은 주자학 말고 다른 학문도 진리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사문난적의 가시관을 썼다. 이렇게 사소한 시빗거리에서 시작한 당파싸움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다툼으로 발전해 가곤 했다."

— 박정희, 『평설 우리 민족의 나갈 길』, 기파랑(2017), p. 63

허목이 한 말은 이것이었다. "주자학 말고 다른 학문도 진리가 될 수 있다." 이 한 문장으로 이단이 되었다. 다른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체계. 이것을 학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것은 신학이다. 이단 심문관이 갈릴레오에게 요구한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을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서로에게 요구했다. 우주의 이치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것은 주자가 해석한 대로이며, 그 밖의 가능성을 입에 올리는 자는 처단된다.

사문난적 메커니즘이 지식인 사회에 작동했다면, 당쟁은 그것이 정치 권력과 결합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박정희는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당파 분열의 계보를 이렇게 추적했다.

> "심의겸(沈義謙)과 김효원(金孝元)의 대립이 '동인, 서인'으로 발전, 동인은 다시 '남인, 북인'으로, 북인은 다시 '대북, 소북'으로 대북이 다시 '육북(肉北), 골북(骨北)'으로, 소북은 별도로 '청소북(淸小北), 탁소북(濁小北)'으로 남인은 '청남(淸南), 탁남(濁南)'으로, 서인은 '청남(淸南), 훈남(勳南), 소남(少南), 노남(老南)'으로 분열, '노론(老論), 소론(少論)'의 당파가 일어나고, 소론은 다시 '벽파(僻派), 시파(時派)'로 참으로 어떤 계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
> — 박정희, 『평설 국가와 혁명과 나』, 기파랑(2017), pp. 205~206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사실이다. 이 무한 분열의 계보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가 보인다. 이 싸움은 이념이나 정책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성리학적 예법 해석의 미세한 차이, 복상(服喪) 기간의 몇 개월 차이, 제사 절차의 작은 차이들이 정치적 숙청의 명분이 되었다. 왜? 성리학이 우주의 이치를 독점한다고 주장하는 한, 그 이치의 해석권을 장악하는 것이 곧 권력의 정당성이 되기 때문이다. 교리 해석권을 둘러싼 투쟁. 이것이 종교 전쟁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이 당쟁이 국가 안보 판단을 오염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박정희는 하나의 사례를 기록했다.

> "선조 24년(1591) 3월 조정에서 사신을 일본에 보내 왜란의 기미를 탐색했다. 그런데 다녀온 자들의 보고가 서로 갈렸다. 정사(正使)로 간 동인의 황윤길(黃允吉)은 왕에게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눈빛이 찬란하고 야심만만해 보이니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라고 적의 정세를 똑바로 보고했다. 그러나 부사(副使)로 갔던 서인의 김성일(金誠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이 쥐눈깔 같고 인물이 보잘것없으니 감히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 소견을 들고 나왔다. 그 결과가 임진왜란이었다. 이렇게 당파싸움은 수시로 겨레를 위험한 고비로 몰아넣었다."
>
> — 박정희, 『평설 우리 민족의 나갈 길』, 기파랑(2017), pp. 65~66

당파가 달랐다. 그것이 국가 안보 보고를 갈랐다. 그 결과가 7년 전쟁이었다. 수십만 명이 죽었다. 성리학적 붕당 논리가 현실 판단보다 우선했을 때 벌어진 일이다. 종교적 교리 충성이 현실 인식을 압도하는 현상 — 이것은 이 에세이가 내내 추적해온 패턴의 조선판이다.

박정희는 이 당쟁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다.

> "조선 사회가 후세에 남긴 가장 못된 유산이 사화(士禍)와 당쟁이다. 그것은 관인 지배층 내부에서 벌어진 무자비한 권력투쟁이었다. 이 싸움은 페어플레이가 아니었다. 헐뜯고 시기하고 모함하는, 일종의 테러와 같은 잔인성을 띤 음성적인 당파싸움이었다. 반대 당이나 정치적인 적수에 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었다. 그 결과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고 평화로운 정치세력의 교체를 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후세에 서구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장애와 해독을 끼쳤다."
>
> — 박정희, 『평설 우리 민족의 나갈 길』, 기파랑(2017), p. 63

"일종의 테러와 같은 잔인성을 띤 음성적인 당파싸움." 이것이 우주의 이치를 독점했다고 주장하는 학문이 500년 동안 산출한 정치의 모습이었다.

성리학이 내부적으로 신분 위계와 당쟁을 생산했다면, 대외적으로 생산한 것은 사대주의(事大主義)였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니었다. 성리학적 세계관 자체가 중화(中華)를 문명의 중심으로 규정하고, 그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문명의 등급을 매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을 섬기는 것은 외교적 현실주의가 아니라 우주의 이치에 순응하는 도덕적 행위가 되었다.

박정희는 이 구조를 이렇게 분석했다.

> "애당초 태조가 정치적인 이유로 설정한 사대주의는 중국을 따르는 유교사상을 지식인 사회에 뿌리박게 하고 모든 사회제도나 심지어 생활양식까지도 그대로 본뜨게 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이 자기 판단이나 자기 민족의 문화가 아닌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비추어 결정되었다. 이런 경향은 민족적 자립이나 민족적 주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채 외국에서 들여온 문화나 사상의 기성복만을 입으려는 이른바 '구호물자'식 민주주의 수입으로 이어졌다."
>
> — 박정희, 『평설 우리 민족의 나갈 길』, 기파랑(2017), pp. 29~30

"가치판단의 기준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비추어 결정되었다." 이것은 문화적 열등감이 아니라 성리학적 세계관의 논리적 귀결이다. 성리학이 규정한 문명의 위계 안에서 중화를 모범으로 삼는 것은 우주의 이치를 따르는 일이었다. 자기 민족의 판단과 문화는 그 이치 앞에서 열등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었다. 이 내면화된 복종이 500년 동안 반복되면서 독자적인 철학, 독자적인 과학, 독자적인 문화의 발생 가능성 자체를 차단했다.

당쟁과 신분 억압과 사대주의는 성리학이 사회에 가한 외부적 해악이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한 것이 있었다. 백성의 내면에 체념을 심어놓은 것이다.

박정희는 조선 문학을 통해 이 내면화된 체념을 추적했다.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래인 〈아리랑〉을 보면 소극적인 체념이 고질화된 한 단면을 알 수 있다. 노래 가사를 보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구절이 있다. 자기를 뿌리치고 떠나가는 임을 그리워하면서도 "여보, 날 두고 어디를 가시오" 하고 막아서는 대신 혹시 십 리쯤 가서 요행히 발병이라도 나서 돌아와 주었으면 하는 애처로움이 그를 대신한다. 유럽 사람들 같으면 따라 나서든지 목에 매달려 못 가게 할 터이다. 〈밀양 아리랑〉도 가사가 "정든 임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 해 /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이다. (...) 「처용가」를 보면 "(...) 밤 깊도록 노니다가 / (집에)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 다리가 넷이어라 / 둘은 내 것인데 / 둘은 뉘 것인고 / 본래 내 것이다마는 / 빼앗김을 어찌하리" 장탄식을 늘어놓고 있다. 유럽의 사나이라면 바로 권총을 들어 둘을 다 쏴버렸을 것이다.
>
> 이러한 체념은 대결 의식이 없고 굴복하는 인생 태도이며 운명에 순순히 굴하는 태도라 하겠다. 따라서 운명을 개척하거나 새 길을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으며 불가능한 것을 바꿔 보려는 용기도 없었다."
>
> — 박정희, 『평설 우리 민족의 나갈 길』, 기파랑(2017), pp. 73~75

이 체념은 어디서 왔는가. 성리학이 우주의 이치로 규정한 위계 안에서, 그 위계에 저항하는 것은 우주 자체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저항은 도덕적으로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남는 것은 체념뿐이었다. "될 대로 돼라"는 정서는 나태함의 산물이 아니라 500년간 체계적으로 설계된 복종의 산물이었다.

비판정신의 부재도 같은 뿌리를 가진다.

> "비판은 현실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나온다. 그러나 조선시대와 같이 무지막지한 권력 밑에서는 체념과 도피만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동양정신 속에는 진정한 비판은 없고 물려받는 것과 물려주는 것만을 당연시하는 풍조가 있다. 공자의 말이 그것이다. 공자의 말이면 무조건 옳다며 '공자 왈'로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리는 것이다. 조선사회의 문화 역시 주자학 이외의 자유로운 학문의 연구를 허락지 않았고 다른 학문의 연구를 억압했다. 그러다 보니 백성의 마음속에 뚜렷한 비판의식이 생겨나지 못하고 뒷전에서 불평, 불만만을 늘어놓게 되었다.
>
> 한편 조선시대 사람들은 비교적 시문(詩文)에는 능했으나 논리적인 근거를 통한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지 못했다. 감수성이나 감각에는 민감해서 언어에서도 감각적인 형용사는 발달했지만 논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이성에는 둔하여 중국의 문헌을 그대로 옮겨 놓는 데 그쳤다. 토론이나 의견의 발표는 대개 양반의 위신과 관련되어 매번 독단적이며 절대적인 것이었다. 상대편의 의견을 고려한다든가 논쟁을

통해 이론적으로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격다짐으로 매사를 강제했다. 권세를 등에 업은 허위가 권세 없는 진리를 누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버렸던 것이다."

— 박정희, 『평설 우리 민족의 나갈 길』, 기파랑(2017), pp. 77~78

"공자의 말이면 무조건 옳다며 '공자 왈'로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리는 것." "주자학 이외의 자유로운 학문의 연구를 허락지 않았고." "권세를 등에 업은 허위가 권세 없는 진리를 누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 세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성리학이 어떤 인식론적 체제였는지가 명확해진다. 진리는 검증의 산물이 아니었다. 진리는 권위의 산물이었다. 주자가 말했으므로 진리다. 권세가 뒷받침하므로 진리다. 이것이 학문인가, 신학인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한 뒤, 박정희는 한국사 전체에 대해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결론은 섬뜩할 정도로 솔직하다.

"우리의 반만년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퇴영(退嬰)과 조잡과 침체의 연쇄사였다. 그 어느 시대에 변경을 넘어 타국을 지배하였으며, 그 어느 시기에 해외의 문물을 널리 구해 사회의 개혁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며, 또 그 어떤 시대에 민족국가의 위세를 밖으로 과시하고 산업과 문화로써 독자적인 자주성을 떨친 바가 있었던가. 없었다. 단 한 번도 없었다. 언제나 강대국에 밀리고 치여 외래문화에 맹목적으로 동화되었고, 원시적인 산업의 범위를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으며 (...) 불교에서 유교로 문물제도가 바뀜에 따라 유교가 급격하게 민족의 자주적인 기개를 좀먹었다.

(...) 우리가 진정 민족의 일대 중흥을 기하려면 무엇보다 이 역사를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악(惡)의 창고 같은 우리의 역사는 차라리 불살라 버려야 한다."

— 박정희, 『평설 국가와 혁명과 나』, 기파랑(2017), pp. 204~209

"유교가 급격하게 민족의 자주적인 기개를 좀먹었다." "모든 악의 창고 같은 우리의 역사는 차라리 불살라 버려야 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강력한 권위주의 지도자가 내린 유교 문명에 대한 판결이다.

이 모든 구조적 해악을 지적할 때 언제나 돌아오는 반론이 있다. "그것은 성리학이 타락한 것이지, 유교의 본질이 아니다." 혹은 "주자학은 조선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된 것이지, 주희의 원래 뜻이 아니다."

이 반론은 익숙하다. 미얀마의 학살 앞에서 "그건 진정한 불교가 아니다"고 말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정확히 같다. 힌두교의 카스트 앞에서 "그건 힌두교의 철학적 깊이와 무관한 사회적 왜곡이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어떤 종교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자신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해악 앞에서 "그건 우리의 진짜 가르침이 아니다"는 면피 발언을 준비해 두고 있다.

그러나 일탈이 이토록 손쉽게, 이토록 대규모로, 이토록 오래 — 500년 동안 — 반복된다면, 그 가능성은 이미 그 시스템의 구조 안에 내재해 있었다는 뜻이다. 성리학은 타락한 것이 아니었다. 성리학은 자신의 논리적 귀결을 착실하게 실현했을 뿐이다. 이(理)를 독점하는 자가 권력을 독점한다는 논리가, 500년 동안 그대로 작동한 결과가 조선의 역사다.

19세기 말 조선을 방문한 프랑스인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은 외부인의 눈으로 이 체제의 결과를 이렇게 기술했다. 박정희가 인용한 그의 말이다.

> "외톨이로 떨어져 있게 된 결과 창조의 재능도 국내에 갇히고 훌륭한 사상은 알력의 화근이 되어 싸움과 다툼질의 누룩으로 변해 당파싸움을 일으켜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았다."
>
> — 모리스 쿠랑, 박정희, 『평설 우리 민족의 나갈 길』, 기파랑(2017), p. 67에서 재인용

"훌륭한 사상은 알력의 화근이 되어." 지적 생산물이 진보의 토대가 되는 대신 당파 투쟁의 연료가 되었다는 관찰이다. 이것이 성리학이 우주의 이치를 독점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다. 사상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되고, 논쟁은 진리를 향한 과정이 아니라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무기가 된다.

6. 전세계 각지의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과 제의적(祭儀的) 폭력

아즈텍 제국에서 벌어진 대규모 인신공양은 종교적 폭력의 가장 극단적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태양신 위츠일로포치틀리(Huitzilopochtli)가 매일 피를 먹어야 세상이 유지된다는 신화 아래, 수만 명의 포로와 희생자가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심장을 도려내졌다. 그러나 이 제의적 폭력은 아즈텍이나 메소아메리카 문명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특히 토착 신앙(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그리고 다양한 파간(pagan) 전통) 속에서 인간을 신에게 바치는 행위는 반복적으로 나타난 구조적 패턴이다.

켈트족의 드루이드 사제들은 로마 시대 기록과 고고학 증거에서 인신공양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줄리어스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 기록에서 드루이드들이 거대한 밀짚 인형(wicker man)에 사람들을 가두고 불태워 신에게 바쳤다고 기술했다. 영국 린도우 늪(Lindow Moss)에서 발견된 '린도우 맨'은 목이 졸리고 머리가 맞고 목이 베인 흔적을 가진 고위층 남성으로, 삼중 죽음(threefold death)이라는 켈트 의식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러한 희생은 전쟁, 흉작, 또는 로마 침공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신들의 호의를 구하거나 공동체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연의 정령과 조상을 숭배하는 애니미즘적 세계관이, 인간 생명을 가장 강력한 제물로 승격시켰다.

지중해 세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확인된다. 페니키아인과 그들의 식민지 카르타고에서는 바알 하몬(Baal Hammon)과 타니트(Tanit)에게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토펫(tophet)' 유적지에서는 수천 구의 유아 유골이 항아리에 담겨 발견되었으며, 비문에는 부모가 자녀를 신에게 봉헌했음을 뜻하는 페니키아어/푸니크어로 된 제사의식 용어 'mlk'가 새겨져 있다. 위기 상황(전쟁이나 재앙)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침으로써 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공동체의 생존을 확보하려는 논리였다. 애니미즘과 다신교적 세계관에서 신들은 늘 피와 생명의 대가를 요구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인도 아대륙에서는 칼리(Kali) 여신 숭배와 결합한 타기(Thuggee) 집단이 13세기부터 19세기까지 활동했다. 이들은 여행자를 유인해 실크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그 행위가 칼리 여신에게 인간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라고 믿었다. 타기들은 자신들을 칼리의 자식으로 여기며, 살인을 통해 여신의 힘을 유지하고 공동체(그들 내부 집단)의 번영을 보장한다고 여겼다. 영국 식민지 시대에 대대적으로 진압되기 전까지 수만 명의 희생자가 이 의식적 살인에 목숨을 잃었다. 힌두교의 일부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토착적이며 샤머니즘적 요소가 강한 파간 숭배의 연장선에 있었다.

이 패턴은 아프리카의 전통 종교와 샤머니즘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서아프리카의 요루바(Yoruba)나 다른 부족 사회에서 조상 숭배와 오리샤(Orisha)에게 바치는 희생 의식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확장되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간 표범(Human Leopard)'이나 '악어 사회' 같은 비밀 결사체가 의식적 살인과 신체 부위 절취를 통해 영적 힘(À ṣ ẹ, 아쉐)을 얻으려 했다. 중앙아프리카의 피그미족이나 다른 애니미즘 공동체에서도 질병, 흉작, 또는 지도자 사망 시 인간 희생이 공동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샤먼은 영적 세계와 교감하며, 가장 강력한 제물인 인간의 생명을 통해 신이나 조상의 분노를 진정시키거나 미래의 번영을 보장한다고 믿었다.

폴리네시아와 하와이의 토착 신앙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와이의 루아키니(heiau) 사원에서는 전쟁의 신 쿠(Ku)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쳤다. 전쟁 포로나 마을에서 선택된 희생자가 제단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전투 승리, 풍작, 또는 지도자의 마나(Mana, 영적 권능) 강화와 직결되었다. 타히티나 다른 폴리네시아 섬들에서도 전쟁신 '오로(Oro)'에게 인간 희생이 행해졌고, 희생자의 몸은 때로 의식적으로 처리되어 신의 호의를 구하는 도구가 되었다. 자연의 정령, 조상, 그리고 신들이 살아 숨 쉬는 애니미즘 세계에서, 인간 생명은 가장 가치 있는 통화였다.

토테미즘 역시 이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특정 동물이나 사물을 토템으로 숭배하는 사회에서, 토템 동물을 죽이고 먹는 행위는 때로 신성한 희생 의식으로 승화되었다. 로버트슨 스미스가 지적했듯, 토템은 공동체와 신, 그리고 동물 사이의 혈연적 유대를 상징하며, 그 죽음은 신과의 교감(communion)을 이루는 신성한 순간이었다. 애니미즘적 관점에서 모든 것은 영혼을 지니고 있으므로, 희생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의 재균형을 위한 필수 행위로 정당화되었다.

희생의 논리는 종교 전반에 깊이 내재한다. 신(또는 정령, 조상)에게 무언가를 바침으로써 호의와 보호, 힘을 얻는다는 거래 구조다. 그 대상이 처음에는 동물이나 곡식이었으나, 더 강력한 효과를 위해 인간(특히 어린아이, 포로, 또는 사회적 약자)으로 확대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형태는 바뀌었을 뿐 본질은 유지된다. 시간을 바치는 헌신, 쾌락을 포기하는 금욕, 재산을 바치는 헌금, 또는 극단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바치는 자살 폭탄 테러까지. 모두 '더 큰 선'이나 '신성한 질서'를 위한 희생이라는 스펙트럼 위에 놓여 있다. 자살 폭탄 테러와 주일 헌금 사이의 구조적 거리는 생각보다 가깝다.

페이건(Pagan) 전통, 토착 신앙즘, 샤머니즘은 종종 '조화로운 자연 숭배'나 '영적 지혜'로 미화되지만, 역사적 • 고고학적 증거는 제의적 폭력이 그 세계관의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모든 것이 살아 있고 영혼을 가진 세계에서, 인간 생명은 가장 강력한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신이나 정령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폭력을 신성한 행위로 승화시키는 이 구조는, 아브라함계 종교의 번제나 이슬람의 지하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결국 문제는 특정 신의 이름이나 문화적 맥락이 아니라, 종교가 인간에게 부여하는 '신성한 거래'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라는 프레임 자체에 있다. 토착 종교와 페이건 전통 역시 이 프레임에유롭지 않으며, 오히려 그 원형적 형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7. 종교의 공통 구조: 왜 항상 같은 패턴인가

인류 역사에서 수천 개의 종교가 나타났고, 사라졌으며, 또 다시 변형되어 나타났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토록 문화적 • 지리적 • 시대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종교들이 결국 거의 동일한 구조적 패턴을 반복한다는 사실이다. 마치 서로 복제라도 하듯이.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니다. 종교라는 '형식' 자체가 가진 보편적 구조 때문이며, 그 구조는 인간 심리의 취약점과 권력의 논리를 교묘하게 결합한 결과물이다.

(1). 절대적 진리의 독점 선언

모든 조직화된 종교는 한 가지를 가장 먼저, 가장 강렬하게 주장한다.

"우리가 가진 진리는 절대적이며, 유일하며, 다른 모든 것은 오류거나 불완전하다."

기독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이슬람은 "알라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이다(لَا إِلٰهَ إِلَّا اللّٰه مُحَمَّدٌ رَسُولُ اللّٰه)"라고 선언하며, 많은 불교 종파는 자신의 해석만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라고 단언한다. 힌두교의 일부 전통이나 신흥종교 역시 마찬가지다.

이 선언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강력한 사회적 경계를 만든다. '진리를 가진 우리(내집단)'와 '진리를 거부하거나 모르는 그들(외집단)'로 인류를 명확히 양분한다. 일단 이 경계가 그어지면, 외집단에 대한 무관심, 경멸, 차별, 심지어 폭력까지도 도덕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쌍하거나, 위험하거나,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되는 것이다.

(2). 초월적 권위에 의한 모든 행위의 정당화

종교는 인간의 판단을 초월하는 권위를 내세운다. 신의 계시, 카르마의 법칙, 우주의 도(道), 천명(天命) 등.

이 초월적 권위가 등장하는 순간, 도덕적 논쟁 자체가 무효화된다. "왜 이 전쟁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신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답이 나오면, 더 이상 인간적 이성과 윤리로 따질 수 없게 된다. 학살, 정복, 이단 심판, 심지어 테러까지도 '신성한 의무'나 '우주적 정의'로 둔갑한다.

비판 자체가 신성모독이 되는 구조다. 인간의 이성은 유한하고 타락했으며, 감정은 속기 쉽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초월적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는 '오만'이자 '불경'으로 규정된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오히려 겸손과 지혜로 포장된다.

(3). 내집단 결속과 이탈에 대한 철저한 처벌

종교 공동체는 내부 결속을 극대화하는 메커니즘을 정교하게 갖추고 있다.

- 입회는 비교적 쉽지만, 탈퇴는 매우 어렵다.

- 의심, 회의(懷疑), 비판적 질문을 하는 순간 '영적 위험'이나 '마귀의 유혹'으로 프레임화된다.

- 이탈자는 파문, 출교, 샤닝(shunning), 가족·사회적 단절, 심지어 물리적 위협까지 당한다.

이 메커니즘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한 명의 이탈자가 공동체 전체의 신념 체계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는 이탈자를 '배신자', '타락자', '영혼을 판 자'로 낙인찍으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그를 배제하고 증오하도록

유도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증오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

(4). 세대 간 강제적 전수와 조기 세뇌

종교가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을 재생산하는 방법은 바로 '선택'이 아닌 '탄생'을 통해 귀속시키는 것이다.

아이들은 아직 비판적 사고 능력이 형성되기도 전에, 부모와 공동체로부터 종교적 세계관을 주입받는다. 기도, 의식, 찬송, 경전 암송, 두려움(지옥, 윤회, 저주)과 희망(천국, 구원, 해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세계관은 뇌의 신경 회로 자체에 깊이 새겨진다.

성인이 되어 논리와 증거로 그 믿음을 검토하려 할 때, 이미 감정적·신경학적 기반이 너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의 일부였다"는 착각이 강력하게 작동한다. 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은 자신의 종교를 '문화'나 '정체성'으로 방어하며, 비판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5).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신성화와 권력 독점

거의 모든 주요 종교는 한 명(또는 소수)의 초인적 인물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예수, 무함마드, 붓다, 조로아스터, 공자, 조셉 스미스(Joseph Smith), 문선명(文鮮明), 알라, 각종 구루와 교주들. 그들은 단순한 창시자가 아니라, 신의 대리자, 깨달은 자, 신의 아들, 마지막 예언자, 환생한 존재 등으로 신성화된다.

이 신성화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 그 인물의 말은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어진다.
- 그 인물에 대한 비판은 곧 신성에 대한 모독이 된다.
- 교리 해석권을 독점한 후계자나 성직자 계급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지도자의 신화화가 완성되는 순간, 추종자들은 더 이상 '이 가르침이 맞는가?'를 묻지 않고, '이 가르침을 어떻게 더 순수하게 따를 것인가?'만을 고민하게 된다. 질문이 사라지고 순종만 남는 구조가 완성된다.

8. 세속 이념도 예외가 아니다

종교를 비판하면 가장 흔하게 돌아오는 반론이 있다. "종교가 없어도 인간은 충분히 폭력적이다. 20세기 전체주의가 그 증거 아닌가?"

이 말은 맞다. 그러나 이 반론은 종교 비판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판의 깊이를 더욱 날카롭게 만든다. 왜냐하면 나치즘과 스탈린주의, 그리고 그 밖의 극단적 세속

이념들은 종교를 버렸다고 선언하면서도, 종교의 가장 위험한 구조를 거의 완벽하게 복제했기 때문이다.

(1). 절대적 진리의 세속적 재포장

나치즘은 '인종 과학'과 '아리아인 우월성'이라는 이름으로 절대적 진리를 선언했다. 스탈린주의는 '역사 유물론'과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필연적 종착역을 선포했다. 이 둘 모두 "우리의 진리는 과학이며, 객관적이며,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종교가 '신의 계시'로 진리를 독점했다면, 이들은 '과학'과 '역사의 법칙'이라는 더 세련된 포장으로 동일한 독점을 시도했다.

진리가 절대화되는 순간, 반대 의견은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아니라 '반과학', '반역사', '반인류'가 된다. 유대인은 '인종적 오염', 부농은 '역사의 장애물', 반대파는 '객관적 반동'으로 규정되면서 학살의 도덕적 장벽이 제거되었다.

(2).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신격화

히틀러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민족의 구원자', '역사의 필연', '천년 제국의 건설자'로 신화화되었다. 스탈린은 '인민의 아버지', '천재적인 전략가', '인류의 스승'으로 우상화되었다. 당의 선전은 그들의 초상화를 신처럼 모시게 했고, 그들의 말 한마디는 성스러운 경전이 되었다.

지도자에 대한 비판은 곧 '반민족', '반혁명', '배신'으로 즉각 전환되었다. 종교에서 예수나 무함마드를 건드리는 것이 불경죄이었다면, 여기서는 '총통'이나 '동지 스탈린'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되었다.

(3). 이단 사냥과 숙청의 메커니즘

종교의 파문과 이단 심판은 세속 이념에서 '숙청'과 '강제수용소', '재교육', '자아비판'으로 그대로 재현되었다.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와 SS, 소련의 NKVD와 굴라그, 문화대혁명의 홍위병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이 종교 재판소의 세속적 후계자였다.

한 번 '이단'으로 낙인찍히면, 과거의 공적도, 충성의 증거도 소용없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반역자가 되는 순간, 공동체 전체가 그를 향한 증오와 배제를 경쟁적으로 수행했다. 이 구조는 종교의 '샤닝' 못지않게 더 체계적이고, 더 잔인했으며, 더 효율적이었다.

(4). 세대 간 강제적 세뇌

히틀러 유겐트(Hitlerjugend)와 소련의 피오네르(П и о н е р), 중국의 중국소년선봉대(中国少年先锋队)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종교 교육의 세속 버전이었다. 아이들은 아직 도덕적・비판적 판단력이 성숙하기도 전에, '우리 민족의

우월성', '혁명의 필연성',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주입받았다.

교과서, 노래, 행진, 집단 의식, 청년 단체. 이 모든 것이 종교적 의례를 연상시켰다. 이들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뇌를 이념으로 점령하기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이었다. 종교가 '원죄'와 '지옥'으로 두려움을 심었다면, 이들은 '계급의 원수'와 '반동분자'라는 새로운 공포를 심었다.

(5). 좌익 리버럴리즘과 워키즘 문화의 종교적 구조

극단적 전체주의만 문제가 아니다. 현대의 좌파적 리버럴리즘, 특히 그 극단 형태인 '워키즘' 담론 역시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 절대적 진리: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젠더", "체계적 억압", "백인 특권" 등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도덕적 진리로 군림한다.

- 이단 사냥: 캔슬 컬처, 공적 처형, 직장 해고, 소셜 미디어 린치 — 이는 종교적 파문의 디지털 버전이다.

- 도덕적 우월감: "나는 깨달았다(awake)"는 선언은 '구원받은 자'의 언어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 초월적 권위: '역사적 정의', '진보의 방향', '약자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봉쇄한다.

영미권 리버럴리즘의 핵심 가치(보편적 인권, 평등주의, 피해자 숭배)는 기독교 신학(특히 청교도 전통)의 세속화된 형태라는 점에서 더욱 아이러니하다. 그들은 기독교를 버렸다고 믿지만, 기독교가 가진 구조적 골격(구원 서사, 원죄 개념, 선악 이분법, 이단 심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9. 비판의 균등성

종교 비판은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종교는 비판받고, 어떤 종교는 비판에서 보호받는다. 이 불균등함의 이유를 파고들면, 비판을 회피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종교가 만들어낸 문화적 방어막임을 알 수 있다. 신성모독 금지, 문화적 불가침성이 종교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구조적 비판은 어떤 종교에도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비판의 대상이 특정 신자들이 아니라 종교라는 시스템 자체일 때, 그 비판은 편견이 아니라 일관성이다. 불교가 평화의 이미지를 가져도 미얀마의 학살은 직시해야 한다. 힌두교가 깊은 철학적 전통을 가져도 카스트 억압은 직시해야 한다. 이슬람이 서구 제국주의의 피해자이기도 해도 이슬람 극단주의는 직시해야 한다. 기독교가 근대 문명의 토대이기도 해도 십자군과 식민지배는

직시해야 한다.

어떤 종교도 자신의 역사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10. 종교가 인류에게 한 가장 큰 짓

전쟁과 학살. 이것이 종교가 인류에게 한 가장 큰 해악처럼 보인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해악이 있다.

인간이 자기 삶을 스스로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빼앗은 것.

종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의 의미와 방향을 미리 지정해놓는다.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주어져 있다. 인간이 스스로 이 질문들과 씨름할 여지가 없다. 질문 자체가 불경이 되거나, 질문할 능력이 형성되기 전에 답이 주입된다.

이것이 전쟁보다 더 광범위한 해악이다. 전쟁은 시공간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삶의 주체성을 빼앗기는 것은 종교적 문화권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일이다. 신앙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구조. 다른 방식의 삶을 상상하는 것이 배교가 되는 구조. 이 구조 안에서 평생을 사는 인간이 지구 인구의 절대 다수다.

그리고 그 인간들 대부분은 자신이 무언가를 빼앗겼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태어날 때부터 그 구조 안에 있었으니까.

11. 무(無)로의 귀환

모든 주요 종교는 죽음 이후에도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단언한다.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 이슬람의 낙원과 지옥불, 힌두교와 불교의 윤회와 환생, 불교의 열반, 유교의 조상 숭배와 내세. 형태와 세부 내용은 천차만별이지만, 핵심 메시지는 하나로 수렴된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왜 인류의 거의 모든 종교가 이토록 일관되게 사후 세계를 주장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하다. 인간이 평생 가장 견디기 힘든 진실, 바로 의식의 완전한 소멸, 아무것도 없는 무(無)를 직면하는 것이 극도로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종교는 이 공포를 정면으로 해결해주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효과적인 심리적 장치였다. 죽음 뒤에도 계속 '나'가 존재한다는 보장, 선한 삶에 대한 보상과 악한 삶에 대한 처벌이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제공함으로써, 죽음의 절대성을 희석시킨다. 존재의 소멸이라는 차가운 사실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서사로 바꿔준다.

역설적이게도, 종교인들은 종교가 그리는 지옥조차도 '무(無)'보다는 나은 선택으로 느낀다. 지옥은 고통스럽지만, 적어도 '존재'는 계속된다. 고통을 느끼는 '나'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 자체가, 완전한 소멸보다는 견디기 쉽다는 것이다. 무(無)는 고통 이전의 문제다.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주체'조차 남아 있지 않다.

종교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완전한 소멸과 단절이라는 것을.

종교는 이 사후 공포를 단순히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을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 세상에서 신의 뜻을 거스르면 지옥에 떨어진다."

"업보에 따라 다음 생에서 짐승으로 태어난다."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다."

이런 협박과 약속은 신자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독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종교는, 현세의 도덕과 행동까지도 철저히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이 클수록, 현세에서 종교가 요구하는 순종, 희생, 헌신은 더욱 강력해진다.

궁극적인 무신론은 이 공포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죽으면 끝이다. 의식은 완전히 소멸한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보상도, 처벌도, 재회도, 심판도 없다. 그저 빛이 꺼지듯, 모든 것이 끝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만으로도 불안과 허무, 실존적 공포를 느낀다. 그런데 바로 그 공포의 강렬함 자체가, 이미 종교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뇌에 심어놓은 조건화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 이후에도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주입받으며 자랐다. 그래서 무(無)를 상상하는 것조차 불경하고, 두렵고,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종교는 죽음의 공포를 해결해준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공포를 증폭시키고 영속화시킨다. 무(無)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인정 자체를 '영적 빈곤'이나 '절망'으로 프레임화한다. 진정한 정신적 자유는,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두려움 없이 직시하고도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될지도 모른다.

무(無)로의 귀환. 그것은 종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결론이자, 인간이 마침내 자신의 조건을 직시하는 성숙한 순간이다.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유한한 삶을 보다 솔직하고, 보다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영원한 사후 세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유일한 실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냉정하면서도 가장 해방적인 진실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12. 결론: 대안 없는 비판의 정직함

이 에세이는 종교를 대체할 무언가를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의도적인 선택이다.

대안을 제시하는 순간 그 대안이 또 다른 절대적 진리의 주장이 될 위험이 있다. 세속적 휴머니즘을 대안으로 제시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이념적 종교가 된다. 어떤 집단적 답을 제시해도 그것이 또 다른 종교의 씨앗이 된다. 이 에세이가 내내 추적해온 패턴이 거기서 다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에세이가 확인한 것은 하나다. 종교라는 시스템은 그 형태가 무엇이든, 그 교리가 무엇이든 구조적으로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절대적 진리의 주장, 초월적 권위에 의한 정당화, 내집단 강화와 외집단 배타성, 비판의 봉쇄, 삶의 주체성 박탈.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이 에세이가 할 수 있는 거의 전부다.

그 인식이 각자에게 무엇으로 이어질지는 각자의 몫이다. 어떤 집단적 답도 없다. 있다면 그것이 또 다른 종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빈 캔버스는 결핍이 아니다. 그리고 그 캔버스를 무엇으로 채울지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종교가 인류에게서 오랫동안 빼앗아온 바로 그것이다.

7편에서는 기성종교를 비판하는 이념들(진보주의, 리버럴리즘, 무신론적 좌파)이 어떻게 기성종교의 구조를 반복하는 멍청한 짓을 하는지 추적할 예정이다.

- 참고문헌 -

리처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 — 종교적 신앙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망상이며 종교 자체가 밈으로서 자기복제하는 구조를 가진다는 논지. 불교를 포함한 비 - 아브라함계 종교들에 대한 분석도 포함한다.

크리스토퍼 히친스, 『신은 위대하지 않다(God Is Not Great)』 — 아브라함계를 넘어 불교, 힌두교 등 세계 주요 종교들의 역사적 해악을 추적. "종교는 모든 것을 독살한다"는 명제의 범종교적 적용.

대니얼 데닛, 『주문을 깨다(Breaking the Spell)』 — 종교를 자연현상으로 분석. 왜 어떤 종교도 구조적 폐해에서 자유롭지 않은지를 인지과학적으로 설명한다.

파스칼 보이어,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Religion Explained)』 — 종교적 관념이 인간 인지 구조에 달라붙는 메커니즘을 분석. 특정 종교가 아닌 종교 일반의 인지적

기반을 해부한다.

박정희, 『평설 국가와 혁명과 나』, 기파랑(2017) — 조선 역사의 퇴영성과 당파싸움의 구조적 해악, 유교가 민족의 자주적 기개를 좀먹은 과정에 대한 분석.

박정희, 『평설 우리 민족의 나갈 길』, 기파랑(2017) — 조선 유교 체제의 전체주의적 신분 구조, 사문난적 메커니즘, 사대주의의 내면화, 체념과 비판정신 부재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상세한 분석.

제7편

종교, 정치, 그리고 기생의 구조

종교, 정치, 그리고 기생의 구조

1. 시작하며: 종교관과 정치관의 교차점

이 에세이는 6편에 걸쳐 종교라는 시스템을 해부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종교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폭력과 억압을 만들어낸다면 — 그 종교를 비판하는 이념들은 어떤가. 무신론은 그 비판에서 자유로운가.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관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편은 앞선 분석을 토대로, 종교 비판이 향해야 할 더 정확한 표적을 겨냥한다. 좌파 종교인도, 우파 종교인도, 그리고 진보주의적 무신론자도 — 모두 같은 구조 안에 있다는 것.

2. 종교란 무엇인가: 진화적 적응 기제로서

종교를 신의 계시나 영원한 진리의 체계로 해석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물학적 • 진화적 현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오래된 문제들(죽음, 고통, 자연의 무자비함, 그리고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서 종교는 수십만 년에 걸쳐 다듬어졌다.

선사시대 인류는 번개가 왜 치는지, 왜 아이가 죽는지, 사냥감이 사라지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들은 대신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이라는 원시적 신앙 체계를 발전시켰다. 숲 속의 나무와 강, 죽은 조상의 영혼, 그리고 동물의 정령이 모두

살아 숨 쉬고 의식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다. 이 믿음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극한의 공포와 불안을 줄이고,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며, 생존 확률을 높이는 강력한 심리적 • 사회적 적응 기제였다. 이러한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종교적 경향은 문화적 학습을 넘어 유전자 수준에 부분적으로 각인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 신앙의 본능 ’ 은 바로 그 오랜 진화의 유산이다.

신경신학(Neurotheology)과 진화심리학 연구들은 이 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한다. 전두엽의 특정 영역(특히 내측 전전두피질)과 측두엽(측두엽 간질과 관련된 회로), 그리고 변연계의 편도체 • 해마가 종교적 • 신비적 경험에 깊이 관여한다. fMRI 연구에서 신앙적 몰입이나 기도, 명상 시 이 영역들의 활동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대로, 이 회로의 반응성이 선천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강렬한 종교적 체험이나 ‘ 신의 존재 ’ 에 대한 직관적 확신을 느끼기 어렵다.

극단적인 경우, 측두엽 간질이나 특정 뇌 손상으로 이 회로가 과활성화되면 과잉종교성(Hyperreligiosity)이 나타난다. 한때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강렬한 종교적 계시를 경험하거나, 신과의 직접적 교감을 주장하는 사례들이 임상적으로 보고된다. 이는 종교적 감수성이 결코 ‘ 영적 선택 ’ 이나 도덕적 우월성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하드웨어적 특성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관점에서 종교는 초월적 진리의 반영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산물이다. 두려움을 위안으로 바꾸고, 무질서한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을 협력적 집단으로 묶는 진화적 ‘ 해킹 ’ 이었다. 그러나 이 적응 기제가 대규모 집단에서 제도화되고, 정치 • 경제적 권력과 결합하는 순간, 그 본질은 변질된다. 교리와 성전, 이단 심판과 성전(聖戰)이 등장하고, 앞서 논의된 수많은 폭력과 억압의 역사가 시작된다. 종교는 더 이상 개인의 심리적 지지대가 아니라, 집단을 통제하고 이익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사회적 도구로 기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덧붙여야 한다. 종교적 회로의 민감도가 낮게 태어난 사람들—이른바 ‘ 선천적 비종교인 ’ —에게 종교는 결코 위안이 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종교는 외부에서 강요되는 규범과 금기, 죄책감과 두려움의 체계로만 다가온다. ‘ 신의 은혜 ’ 나 ‘ 영적 각성 ’ 이 아니라, 자유를 억압하고 사고를 통제하는 기구로 느껴진다. 이는 그들의 도덕적 결함이나 영적 무지 때문이 아니다. 단지 신경학적 • 유전적 스펙트럼의 자연스러운 차이일 뿐이다.

종교를 진화적 적응으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더 냉철하고 인간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신성한 것에서 벗어나 인간의 것이 된 종교는, 그만큼 더 솔직하게 비판하고, 더 건강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3. 무신론도 종교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자해적 조롱

“무신론도 종교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무신론자들을 비웃을 때 가장 즐겨 꺼내는 말이다. 이 한마디에는 ‘너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신앙의 노예일 뿐’이라는 조소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 조롱은 의도와 정반대로 작동한다. 그것은 무신론자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근본주의자 자신의 종교적 우월감을 자해하는 부메랑이 된다.

만약 무신론이 종교의 구조를 반복한다면, 현대 무신론은 어떤 종교와 가장 닮았는가? 이슬람의 율법주의도, 불교의 무아(無我) 철학도, 힌두교의 순환적 세계관도 아니다. 현대 서구 무신론(특히 신앙비판적・계몽주의적 무신론)은 구조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가장 깊이 닮아 있다. 정확히 말하면, 계몽주의 이후 세속화・합리화된 기독교, 즉 기독교의 신학적 DNA를 물려받아 신(God)만 빼고 재포장한 버전이다.

먼저 신앙의 구조를 보자. 전통 기독교는 ‘원죄 → 구원자(그리스도) → 구원 →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서사적 구원론을 가진다. 현대 세속 무신론 역시 유사한 서사를 반복한다. ‘무지와 미신(원죄) → 과학과 이성(구원자) → 진보와 해방(구원) → 완전한 인본주의 사회(지상낙원)’이라는 형태로 말이다.

둘 다 강한 전체주의적 보편주의를 지닌다. 기독교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외쳤다면, 현대 무신론은 “모든 사회에 과학적 합리성과 인권”을 전파하려 한다. 둘 다 ‘진리’를 독점하며, 이단을 용납하지 않는 배타성을 보인다. 기독교가 이단재판소를 뒀다면, 일부 급진 무신론자들은 ‘반과학’ ‘반합리’ ‘혐오’라는 이름으로 도덕적・사회적 파문을 내린다.

역사적으로도 연결고리는 명확하다. 서구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심지어 일부 사회주의 사상은 기독교 신학의 직접적 후예들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신학적 명제는 신을 제거한 뒤 “모든 인간은 권리 앞에서 평등하다”는 세속 선언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었다. 진보주의의 선형적 역사관(인류는 계속 좋아진다) 역시 기독교의 구원사적 시간관의 세속화된 형태다. 리처드 도킨스나 샘 해리스 같은 신(新)무신론자들이 제시하는 ‘도덕적 진보’와 ‘인간의 완전성’에 대한 믿음은, 신앙의 열정만큼이나 종교적이다.

따라서 근본주의자가 “무신론도 종교다”라고 외치는 순간, 그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1) 무신론은 종교적 구조를 가진다.

(2) 그 구조는 기독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기독교에서 파생된 것이다.

(3) 그러므로 나의 기독교는 보편적・초월적 진리가 아니라, 특정 문화・역사적 조건 속에서 나온 ‘하나의 이념 체계’에 불과하다.

이것은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기독교 근본주의의 핵심 주장은 “우리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신론을 종교로 규정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종교를 ‘특별한 계시’의 지위에서 끌어내리고, 수많은 이념 중 하나로 평준화시켜 버린다. 마치 “너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나와 동급이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내 신앙은 특별하지 않다”는 결론을 스스로 도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가 사생아를 발견하고 “저 애도 내 피가 섞였으니 가족이다!”라고 외치며, 동시에 “그래서 우리 가문의 순수 혈통은 개소리다”라고 선언하는 자해 행위와 다르지 않다. 조롱하려던 대상의 얼굴에서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는 순간, 침은 결국 자신의 얼굴로 떨어진다.

결국 “무신론도 종교다”라는 말은 근본주의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진술이다. 그것은 무신론을 깎아내리는 데 실패할 뿐 아니라, 기독교 자체를 세속적 이념의 수준으로 낮추는 철학적 자살 행위이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을 가장 열심히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기독교의 ‘신성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체하고 있는 셈이다.

4. 진보주의적 무신론: 신을 제거한 청교도주의

현대 무신론의 절대다수는 진보주의적 무신론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나치게 기독교를 닮아 있다.

기독교와 현대 무신론적 진보주의(리버럴리즘과 사회주의)는 놀랍도록 유사한 구조를 공유한다.

구속과 해방의 서사 구조가 양측 모두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원죄에 빠졌고,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 무신론적 진보주의는 인간이 사회적・역사적 억압 속에 있으며, 계몽과 혁명을 통해 해방된다는 서사를 중심에 둔다.

윤리 체계의 절대성도 공통점이다. 기독교는 신의 계율을 절대적 도덕 기준으로 삼는다. 무신론적 진보주의는 인권, 평등, 정의 같은 보편 윤리를 절대화하며, 마찬가지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도덕적 기준으로 삼는다.

선민 의식도 유사하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한다. 현대 좌익 이데올로기는 계몽된 시민, 깨어 있는 사람들, 해방된 노동자 계층을 의식적으로 더 진보된 인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관도 구조적으로 같다. 기독교는 인류의 역사를 타락에서 구속, 종말에 이르는 직선적 서사로 이해하며 천국과 지옥이라는 심판의 이중 구조가 있다. 무신론적 진보주의는 이성과 과학과 정의를 통해 나아가는 진보의 과정을 상정하며, 완전한 평등과 해방이 실현된 유토피아적 미래를 기대한다. 신은 사라졌지만 — 이에 반하는 자들에게는 캔슬 컬처와 콜아웃 컬처라는 비공식적 지옥이 부과된다. 심판의 기능은 다른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신념의 확산 방식도 유사하다. 기독교는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을 전도하려는 강한 선교적 충동을 가진다. 무신론적 진보주의자들도 교육, 캠페인, 사회운동,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계몽과 의식화를 시도한다.

이단 심판의 메커니즘도 동일하다. 기독교는 배교자에게 지옥을 예고한다. 무신론적 진보주의는 극우, 혐오주의자, 반지성주의자로 낙인찍힌 이들을 직업적 기회, 사회적 평판, 공동체 내 입지에서 철저히 배제하려 든다. 신이 죽은 사회에서도 이단자에 대한 제명과 추방은 작동한다.

5. 야빈의 계보학: 청교도에서 워키즘까지

커티스 야빈(Curtis Yarvin, 필명: 멘시우스 몰드버그(Mencius Moldbug))은 이 구조적 유사성을 단순한 비유 수준을 넘어, 철저하고 급진적인 역사적・분지학적(cladistic) 계보학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리처드 도킨스 같은 현대 무신론자들을 " 청교도 무신론자(Puritan atheist) " 라고 불렀다. 이들의 사상은 17세기 영국 내전기의 극단적 비국교도(Dissenter)들—레벨러, 디거, 퀘이커, 제5왕국주의자 등—의 구조와 본질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야빈은 특히 《도킨스는 어떻게 몰락했는가(How Dawkins Got Pwned)》 시리즈(2007)에서 이 계보를 날카롭게 드러낸다.

> " 나는 도킨스 교수가 단순한 기독교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믿는다. 그는 개신교 무신론자다. 단순한 개신교 무신론자도 아니다. 그는 칼뱅주의 무신론자다. 단순한 칼뱅주의 무신론자도 아니다. 그는 앵글로칼뱅주의 무신론자다. 즉, 청교도 무신론자, 비국교도 무신론자, 비순응주의 무신론자, 복음주의 무신론자 등으로도 불릴 수 있다.(My belief is that Professor Dawkins is not just a Christian atheist. He is a Protestant atheist. And he is not just a Protestant atheist. He is a Calvinist atheist. And he is not just a Calvinist atheist. He is an AngloCalvinist atheist. In other words, he can be also be described as a Puritan atheist, a Dissenter atheist, a Nonconformist atheist, an Evangelical atheist, etc, etc.) "

- How Dawkins Got Pwned, Part 2, October 4, 2007 링크: [https://www.unqualified-reservations.org/2007/10/how-dawkins-got-pwned-part-2/]

그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인다.

“ 이 분지학적 분류는 도킨스의 지적 계보를 약 400년 전 영국 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한다. 무신론 테마를 제외하면 그의 사상 핵심은 랜터(Ranter)[1], 레벨러(Leveller)[2], 디거(Digger)[3], 퀘이커(Quaker)[4], 제5왕국주의자(Fifth Monarchist)[5] 등 크롬웰 시대 극단적 영국 비국교도 전통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솔직히 말해, 그 작자들은 괴짜들이었다. 광적인 광신도들. (This cladistic taxonomy traces Professor Dawkins ’ intellectual ancestry back about 400 years, to the era of the English Civil War. Except of course for the atheism theme, Professor Dawkins ’ kernel is a remarkable match for the Ranter, Leveller, Digger, Quaker, Fifth Monarchist, or any of the more extreme English Dissenter traditions that flourished during the Cromwellian interregnum. Frankly, these dudes were freaks. Maniacal fanatics.) ”

- How Dawkins Got Pwned, Part 2, October 4, 2007

야빈에 따르면, 이 청교도적 충동은 대서양을 건너 신정(神政) 식민지를 세웠고, 미국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을 거치며 힘을 키웠으며, 제1・2차 세계대전과 냉전에서의 승리를 통해 지구적 패권 이데올로기로 완성되었다.

“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정당하고 주류인 사상은 미국 청교도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영국 비국교도들로부터 유래했다. […] 제1차・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에서의 승리는 그 패권을 확정지었다. (All legitimate mainstream thought on Earth today is descended from the American Puritans, and through them the English Dissenters. [...] Its victories in World War I, World War II, and the Cold War confirmed its global hegemony.) ”

- How Dawkins Got Pwned, Part 2, October 4, 2007

'도킨스는 어떻게 몰락했는가 제3부'에서는 이 ‘ 진보 ’ 의 철학적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든다. 도킨스가 자주 말하는 시대정신(Zeitgeist)이 사실상 청교도적 섭리의 세속 버전이라는 것이다.

“ 사실 도킨스 교수의 ‘ 시대정신(Zeitgeist) ’ 는 애덤스(Adams) 가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친숙했을 앵글로칼뱅주의자나 청교도의 ‘ 섭리(Providence) ’ 개념과 구분하기 어렵다. […] 시대정신의 다른 이름은 진보(Progress)다. (In fact,

Professor Dawkins ’ Zeitgeist is so nice that it ’ s indistinguishable from a concept that would have been quite familiar to any member of the Adams family—the old AngloCalvinist or Puritan concept of Providence. [...] Another word for Zeitgeist is Progress.) ”

- How Dawkins Got Pwned, Part 3, October 11, 2007 링크: [https://www.unqualified - reservations.org/2007/10/how - dawkins - got - pwned - part - 3/]

'도킨스는 어떻게 몰락했는가 제4부'에서는 이 모든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으로 결론짓는다.

“ 그러나 내 의견으로는, 보편주의(Universalism)는 칼뱅주의 계열의 현대 지배적 기독교 분파이며, 영국 비국교도 또는 청교도 전통에서 유니테리언주의, 초월주의, 진보주의 운동을 거쳐 진화한 것이다. (In my opinion, however, Universalism is the dominant modern branch of Christianity on the Calvinist line, evolving from the English Dissenter or Puritan tradition through the Unitarian, Transcendentalist, and Progressive movements.) ”

- How Dawkins Got Pwned, Part 4, OCTOBER 18, 2007 링크: [https://www.unqualified - reservations.org/2007/10/how - dawkins - got - pwned - part - 4/]

이 계보학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진보주의를 기독교의 ‘ 반대 ’ 로 보는 모든 논의가 범주 오류임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근본주의자와 워키즘 진보주의자는 서로를 격렬히 적대하지만, 사실 같은 뿌리에서 갈라진 서로 다른 분파일 뿐이다. 한쪽은 신을 유지한 채, 다른 한쪽은 신을 제거한 채로 같은 구원 서사, 같은 보편주의, 같은 이단 심판 메커니즘을 반복한다.

현대의 ‘ 대성당(Cathedral) ’ 은 바로 이 청교도적 충동이 세속화된 형태다. 신은 사라졌지만, 평등, 폭력의 무익함, 사회 정의, 완전한 관리 사회라는 핵심 원칙은 그대로 살아남았다. 워키즘 문화는 17세기 청교도들의 광신이 21세기 언어로 재포장된 최신 버전에 불과하다.

야빈의 통찰은 불편하다. 그것은 좌우 대립이라는 편리한 프레임을 해체하고, 서구 근현대사를 하나의 긴 청교도 혁명의 연속으로 재구성한다. 우리가 ‘ 진보 ’ 라고 부르는 것은 정치적 의견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진화해 온 세속 종교의 현세 버전이다.

이 계보학을 이해하는 순간, “ 무신론도 종교다 ” 라는 근본주의자의 조롱은 완전히 역전된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종교가 이미 오래전에 세속화되어 승리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셈이다.

6. 종교에 좌파가 기생하는 구조

왜 종교계에는 좌파적 사상이 그렇게 쉽게 침투하고, 때로는 지배적으로 군림하는가. 이는 단순한 ‘좌파의 음모’나 개인적 야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종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가진 구조적 취약점이자, 진화적으로 다듬어진 약한 고리다. 종교는 본래부터 좌파적 이념이 기생하기에 최적화된 토양을 제공한다.

먼저 교리적 겹침이 결정적이다. 기독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산상수훈부터 시작해, 사회적 소외자·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적 연대를 강하게 강조한다. 많은 종교 전통에서 발견되는 ‘공정한 분배’, ‘형제애’, ‘약자 보호’라는 테마는, 세속화된 형태로 좌파의 사회정의 담론과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여기서 핵심은 니체가 예리하게 지적한 르상티망(ressentiment, 원한감정)와 노예도덕이다.

기독교는 강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약자의 도덕적 우위를 체계적으로 정당화한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식의 서사는, 약자의 열등감을 도덕적 우월감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심리 기제다. 해방신학(Liberation Theology)은 이 점을 극단적으로 활용한 사례다. 남미의 가톨릭 사제들은 기독교 교리를 마르크스주의와 결합시켜, 예수를 최초의 혁명가로 재해석하고, 계급투쟁을 ‘하나님의 편’으로 프레임화했다. 신의 정의를 빌려 강자에 대한 원한을 조직화하고, 그것을 ‘구원’의 이름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두 번째 취약점은 종교의 집단적·조직적 특성이다. 종교는 개인의 신앙을 넘어 공동체를 전제하며, 강한 충성심과 동일시를 요구한다. 이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결속된 집단을 장악하면, 그 구성원들을 이념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동원할 수 있다. 좌파에게 종교 공동체는 ‘이미 준비된 군대’나 다름없다. 교회·사찰·모스크의 조직망은 좌파 운동이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를 통해 구축해야 할 인프라를 처음부터 제공한다. 충성의 대상만 ‘하나님’에서 ‘역사’나 ‘인민’, ‘정의’로 교체하면 된다.

역사적·문화적 맥락도 이 기생을 촉진한다. 서구 제국주의와 식민지배, 자본주의적 수탈의 역사를 겪은 사회에서 종교는 종종 ‘저항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강자(서구·자본·지배층)에 대한 원한이 종교 교리의 약자 보호 정신과 결합하면, 비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나 민족주의적 좌파와의 융합이 쉽게 일어난다. 국민성 자체가 집단주의적·공동체 지향적일수록,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보다 ‘연대’와 ‘분배’를 강조하는 좌파적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여기에 국가 권력의 전략적 개입까지 더해진다. 좌익 정권은 종교의 대중적 영향력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이용하려 한다. 소련이 러시아정교회를 완전히 탄압하지 않고 ‘국가와 조화로운’ 형태로 관리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신앙 활동 자체는

묵인하되, 교리를 ‘ 평등 ’ 과 ‘ 반제국주의 ’ 방향으로 은근히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종교는 좌익 정권의 폭력과 정책을 ‘ 신의 뜻 ’ 이라는 도덕적 포장으로 정당화하는 도구가 된다. “ 가난한 자를 위한 혁명 ” 이라는 프레임은 권력의 세속적 야심을 성스러운 것으로 탈바꿈시킨다.

결국 종교에 좌파가 기생하는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에 가깝다. 종교가 가진 약자 중심의 도덕 서사, 강한 집단 결속력, 초월적 정당성 부여 능력은 좌파 이념이 가장 탐내는 자원들이다. 좌파는 종교를 비판하면서도, 그 구조를 교묘하게 차용하고 변형한다.

종교가 스스로를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는 한, 이 기생 관계는 계속될 것이다. 신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야심은, 결국 종교를 가장 강력하게 타락시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

7. 기성 종교계의 무능: 돈과 영향력의 문제

종교 내부에 좌파가 침투해 교리를 왜곡하고 정치 운동으로 전환한다면,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할 주체는 누구인가. 당연히 기성 종교계 그 자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기성 종교계는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기는커녕, 오히려 방관하고 회피하며 때로는 은근히 포용하기까지 한다.

답은 간단하면서도 치명적이다. 돈과 영향력 때문이다.

많은 종교에서 좌파 성향의 신도들은 열성적 헌금자이자 활동가다. 그들은 시간과 노동, 그리고 상당한 재정을 아낌없이 바친다. 교회 • 사찰 • 모임의 운영비, 선교 활동, 사회사업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이들로부터 나온다. 성직자와 교단 지도자들이 이런 ‘ 충성스러운 고객 ’ 을 섣불리 적대시하기란 쉽지 않다. 교리를 명백히 왜곡하는 강경 좌파 운동을 벌이는 집단이 있어도, 교단은 쉽게 제명이나 이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 겨우 이단으로 규정하더라도 “ 저들은 진정한 신자가 아니다 ” 라는 식의 꼬리 자르기로 끝낸다. 표면적으로는 거리를 두는 듯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이 초래하는 신학적 • 사회적 오염을 방치한다. 교단 입장에서는 ‘ 극단 세력 ’ 을 잘라내는 순간, 신도 수와 헌금,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두려운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나약함이 아니라, 기성 종교계의 본질적 우선순위가 드러난 결과다. 그들은 교리의 순수성보다 조직의 생존과 규모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영향력 있는 인사, 대형 교회, 국제적 네트워크, 미디어 노출, 사회적 발언권 등 이것들이 바로 현대 종교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지키려는 것들이다. 교리가 훼손되어도 조직이 유지된다면, 그들은 ‘ 전략적 침묵 ’ 을 선택한다.

결과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은 기묘하기 짝이 없다. 종교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종교적 우파가 아닌, 세속적 우파가 대신 막아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기독교 근본주의를

비판하던 세속 보수주의자들이, 정작 교회를 ‘좌경화’로부터 지키는 최전선에 서게 되는 아이러니. 종교계는 자기 집 안의 먼지를 치우지 않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안에 좀 치워주세요”라고 외치는 셈이다.

이 무능은 치명적이다. 종교가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하면, 외부의 비판과 공격은 더욱 정당성을 얻는다. “종교가 좌파에게 장악당했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성 종교계가 그 장악을 막을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돈과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교리를 팔아넘기는 순간, 종교는 이미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 성스러운 기관이 아니라, 생존을 우선시하는 평범한 이익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락을 가장 비참하게 목도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종교를 진심으로 믿는 신도들이다.

8. 우파 종교인도 예외가 아니다

좌파 종교인이 문제라고 해서, 우파 종교인이 자동적으로 대안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양쪽은 같은 종교적 구조 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치닫는 대칭적인 왜곡일 뿐이다.

앞선 분석에서 이미 보았듯이, 기독교 우파(특히 미국 중심의 복음주의, 네오콘, 팔레오콘 진영)도 기독교의 내재적 요소를 정치적으로 극대화한다. 그들은 기독교 교리 속 ‘권위’, ‘위계’, ‘선민의식’,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끌어와 전쟁을 정당화하고, 정치에 적극 개입하며, 자신의 도덕 규범을 사회 전체에 강제하려 한다.

십자군 전쟁과 종교재판이 먼 과거의 유물이라면, 현대판으로는 복음주의가 뒷받침한 중동 개입 전쟁들, 반동성애・반낙태 운동을 통한 문화 강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선택했다”는 식의 국가적 메시아니즘을 들 수 있다. 좌파가 기독교의 평등주의와 약자 보호 정신을 극단으로 밀어붙여 사회주의・해방신학으로 나아간다면, 우파는 기독교의 권위주의적・전투적 요소를 극대화해 정복과 문화적 지배로 나아간다.

결국 둘 다 같은 성경에서 각자 편리한 구절을 골라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신성시하는 행위다. 좌파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우파는 구약의 정복 서사와 계시록의 심판 이미지를 강조한다. 본질적으로 같은 메커니즘, 다른 방향성일 뿐이다.

특히 우파 종교인들이 자주 내뱉는 말(“무신론자는 진정한 우파가 될 수 없다”, “보수주의는 기독교 없이는 불가능하다”)은 심각한 오만이다. 이는 종교적 정체성과 정치적 우파를 독점하려는 시도이며, 역사적・철학적으로도 충분히 반박 가능한 주장이다.

전통, 질서, 공동체, 계층, 책임, 미덕을 중시하되, 초자연적 권위나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 우익 사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로마 공화정의 미덕, 동아시아의 유교(공자 및 맹자 시절

구(舊) 유교)적 보수주의, 그리고 근대 유럽의 세속 보수 사상가들의 철학, 즉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급진적 귀족주의, 오스발트 슈팽글러(Oswald Spengler)의 세속적 문명 비관주의, 데이비드 흄(David Hume)의 회의적 전통주의,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와 가에타노 모스카(Gaetano Mosca)의 엘리트 이론, 베르트랑 드 주브넬(Bertrand de Jouvenel)이 《권력에 대하여(On Power: The Natural History of Its Growth)》에서 세속적 관점에서 근대 국가의 권력 팽창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자유와 전통, 질서 수호에 대한 주장, 에릭 호퍼(Eric Hoffer)의 대중운동 비판, 아인 랜드(Ayn Rand)의 객관주의, 한스 헤르만 호페(Hans - Hermann Hoppe)와 머레이 로스바드(Murray Rothbard)의 아나코 - 자본주의, 리콴유(Lee Kuan Yew)의 실용적 권위주의 등이 그 증거다. 기독교적 프레임 없이도 인간 사회의 불평등, 전통의 가치, 도덕적 규율을 논증할 수 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앞서 야빈의 계보학이 보여주듯 기독교적 우파 보수주의 자체가 진보주의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둘 다 청교도칼뱅주의적 DNA를 공유한다. 한쪽은 평등과 진보를, 다른 한쪽은 위계와 전통을 강조할 뿐, 근본적인 구조(구원 서사, 도덕적 절대주의, 정치에 대한 메시아적 개입 욕망)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 종교인들의 " 종교 독점 "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잃는다. 그들은 자신이 비판하는 좌파 진보주의와 사실상 같은 종교적정치적 유전자를 공유하면서, 단지 다른 알레르기를 발현하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대안은 좌파 종교인도, 우파 종교인도 아닌, 종교를 정치적 도구로 삼지 않고 그 본연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태도다. 아니면 아예 종교적 프레임 자체를 넘어서는, 더 냉철하고 성숙한 보수주의를 세우는 것이다.

종교를 등에 업은 우파가 좌파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더 솔직한 지적 지형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

9. 정치가 종교에 기생하고 종교가 정치에 기생하는 구조

결국 종교와 정치는 단순히 한쪽이 다른 쪽을 이용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다. 둘은 서로에게 기생하는 공생 관계이며, 때로는 서로를 숙주로 삼아 더 강력한 괴물로 진화한다.

종교는 정치적 권력을 필요로 한다. 순수한 설득과 신앙만으로는 교리를 사회 전체에 관철하기 어렵다. 법적 강제력, 교육 시스템, 문화 규범의 통제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 하나님의 나라 ' 나 ' 이상적 공동체 ' 를 현실에 구현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종교는 세속 권력과 결탁하거나, 스스로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했다.

반대로 정치는 종교적 정당성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순수한 권력 논리, 즉 “ 힘이 정의다 ” 라는 냉혹한 진실만으로는 대중의 자발적 복종과 희생을 끌어내기 힘들다. 사람들은 ‘ 이것이 옳다 ’ 는 도덕적 • 초월적 보증을 요구한다. 왕권신수설, 천명사상, 하나님의 선택, 역사적 필연성 — 정치 권력은 언제나 이러한 종교적(또는 준종교적) 서사를 빌려 자신의 지배를 성스러운 것으로 포장한다.

이 상호 기생 구조는 이념과 결합할 때 더욱 강력해진다.

- 좌파와 결합하면 해방신학이 된다. 신을 ‘ 약자의 편 ’ 으로 규정하고, 혁명을 구원의 행위로 재해석한다.

- 우파와 결합하면 기독교 민족주의나 기독교 제국주의가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 다른 민족을 ‘ 개화 ’ 시키거나 정복하는 서사가 만들어진다.

- 이슬람과 결합하면 칼리프 국가나 이슬람주의 정치가 되고,

- 신토와 결합하면 천황 중심의 국가신토가 된다.

형태는 문화마다 다르지만, 정치가 종교를 동원하고 종교가 정치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기본 구조는 동일하다.

가장 아이러니한 지점은 정교분리(政敎分離)의 문제다. 근대에 들어 정교분리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 온 것은 세속적 리버럴리즘이다. 그런데 이 리버럴리즘 자체가 앞서 야빈이 지적한 대로, 기독교(특히 청교도유니테리언 전통)의 세속화된 버전이라는 데에 역설이 있다.

종교를 정치로부터 분리하려는 시도조차 종교적 충동의 산물인 것이다. 리버럴리즘은 기독교의 평등, 보편주의, 구원 서사를 유지한 채 신만 제거했다. 따라서 정교분리를 외치는 목소리 속에는, 여전히 ‘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 ’ 는 준종교적 메시아니즘이 숨어 있다.

이 공생 관계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종교는 정치 없이 무력하고, 정치는 종교 없이 정당성을 잃는다. 좌파가 종교를 이용하든, 우파가 종교를 이용하든, 본질은 같다. 둘 다 권력과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인간의 오래된 욕망이 만들어낸, 서로를 먹고 살리는 기생 구조일 뿐이다.

진정한 독립은 이 공생 관계 자체를 해체하는 데서 시작된다. 종교가 정치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고, 정치가 종교적 정당성에 기대기를 포기할 때, 비로소 자유로운 영역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은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종교와 정치는 여전히, 서로의 목을 끌어안은 채 춤을 추고 있다.

10. 고대 회의주의로의 복귀: 에피쿠로스, 루크레티우스, 데모크리토스

이 에세이 전체를 통해 우리는 종교를 하나의 생물학적 • 진화적 • 사회적 시스템으로 추적해왔다. 그 구조적 문제들(두려움의 이용, 집단 통제, 권력과의 공생, 좌파와 우파 양쪽 모두에 의한 왜곡)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또 다른 집단적 이념, 또 다른 ‘구원 서사’를 제시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종교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 불과하다. 진정한 탈출구는 이념의 교체가 아니라, 이념화 자체에 대한 근본적 거리두기다.

이 지점에서 유용하게 돌아볼 수 있는 지적 계보가 있다. 아브라함계 종교가 지배하기 이전, 사회주의와 리버럴리즘, 그리고 그 모든 세속 종교가 탄생하기 이전의 고대 지중해 사유 전통, 특히 회의주의적 • 원자론적 철학자들이다.

기원전 5세기 아브데라 출신의 데모크리토스는 서구 철학사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사상가 중 하나다. 그는 만물의 근원을 ‘원자(atomos, 쪼갤 수 없는 것)’와 ‘공허(void)’로 설명했다. 우주는 목적도, 신의 설계도 없이, 무작위적이고 영원한 원자들의 운동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자론은 단순한 물리 이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적론과 신학적 세계관에 대한 근본적 부정이었다. 자연현상(번개, 지진, 질병)을 신의 분노나 섭리로 해석하는 모든 미신을 철저히 해체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웃음이었다. 그는 ‘웃는 철학자’로 불렸는데, 인간의 어리석음, 권력자의 위선, 종교적 광신, 죽음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냉소적으로 비웃었다. 세상의 부조리를 엄숙하게 탄식하지 않고, 오히려 웃음으로 초월하는 태도. 이는 종교적 엄숙주의와 이념적 광신주의를 해체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적 무기 중 하나다.

에피쿠로스(기원전 341–270)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계승 • 발전시켰다. 그의 철학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신의 무관심: 신들은 존재하지만, 완전한 행복 속에 살기 때문에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기도, 희생, 종교적 의식은 신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신을 두려워하거나, 신의 벌을 걱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공포다.

- 죽음에 대한 태도: “우리가 있을 때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없다.” 죽음은 감각의 완전한 소멸일 뿐, 고통도 보상도 없다. 사후 심판의 공포는 종교가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환상이다.

- 쾌락주의: 삶의 최고 목적은 쾌락(hedone)이다. 그러나 이는 방종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와 마음의 평정(ataraxia)이다. 단순한 삶, 우정, 지적 탐구, 자연스러운 욕구의 절제가 진정한 쾌락을 가져온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지만, 그것은 세속적이고 평등한 우정 공동체였다. 그들은 노예와 여성을 포함한 열린 모임을 운영했으며, 어떤 교조적 교리도 강요하지 않았다. 종교적 권위와 초월적 도덕을 철저히 거부한, 고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자유로운 철학 공동체였다.

로마 시대의 루크레티우스(기원전 99 – 55)는 에피쿠로스 철학을 위대한 서사시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De Rerum Natura)로 승화시켰다. 이 작품은 고대 철학 텍스트 중 가장 아름답고 급진적인 작품 중 하나다.

그는 원자들의 무작위적 운동(swerve, clinamen)으로 우주의 모든 현상을 설명했다. 신의 섭리는 없으며, 종교는 공포에서 비롯된 환상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유명한 구절에서 그는 종교를 이렇게 비판한다. “ 종교는 그토록 많은 악을 저지를 수 있었다.(Tantum religio potuit suadere malorum) ”

루크레티우스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미신과 공포, 권력자의 조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았다. 그의 시는 과학적 • 철학적 통찰과 문학적 아름다움이 결합된, 고대 회의주의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이 고대 철학자들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 절대적 진리나 초월적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

- 집단적 구원 서사나 구원자를 만들지 않았다.

- 이단을 규정하고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지 않았다.

- 자신의 사상을 타인에게 강제하려 하지 않았다.

- 인간의 삶을 ‘ 이 땅에서 ’ 의미 있게 만들려 했다.

그들은 철학을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와 평정, 그리고 지적 성숙을 위한 개인적 수단으로 삼았다.

물론 우리는 고대 세계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 — 자연에 대한 냉정한 관찰, 공포와 미신으로부터의 해방, 절대주의에 대한 근본적 회의, 그리고 삶의 부조리를 웃음으로 대하는 여유 — 는 오늘날 종교와 정치 이념의 끝없는 공생 관계에 지친 우리에게 강력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한다.

종교도, 그 세속화된 버전인 현대 정치 이념도 아닌, 더 오래되고 더 차가운 사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랜 종교정치 공생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솔직하고, 가장 자유로운 출발점일 수 있다.

11. 결론: 종교도, 그 사생아도 아닌

이 에세이 7편에 걸쳐 추적해온 것을 최종 정리한다.

종교는 진화적 적응 기제로 탄생했다. 그것이 조직화되고 권력과 결합했을 때 전쟁, 학살, 억압, 이단 처벌, 삶의 주체성 박탈이라는 구조적 패턴을 반복했다. 이것은 아브라함계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라는 시스템 전반의 문제다.

그리고 그 종교를 비판하는 이념들(진보주의, 영미권 리버럴리즘, 사회주의)도 같은 구조를 반복한다. 신을 제거한 청교도주의로서. 이들은 종교의 대안이 아니라 종교의 세속화 버전이다.

우파 종교인도 예외가 아니다. 좌파 종교인과 같은 텍스트에서 다른 구절을 뽑아 사용할 뿐이다.

종교와 그 사생아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인 절대적 진리의 주장, 초월적 권위에 의한 정당화, 이단 처벌, 삶의 주체성 박탈. 이 구조를 인식하는 것이 이 에세이 전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그리고 그 구조 밖에서 어떤 집단적 답도 없이, 각자의 판단으로, 지금 이 삶을 사는 것. 2천 년 전 에피쿠로스가 말한 것처럼 신도 없고, 구원도 없고, 심판도 없이 그냥 살다 죽는 것. 이것이 종교가 인류에게서 오랫동안 빼앗아온 가장 단순한 자유다.

8편은 잠시 쉬었다 가는 시간일 것이다. 1편부터 7편까지 무엇을 해부했는지, 그리고 이제 어디로 향하는지를 짚는다. 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겨누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 각주 -

[1] Ranter(랜터): 17세기 영국 내전기 극단적 반종교주의 집단. 모든 외적 종교 의식과 도덕 규범을 부정하고, 내적 영감과 육체적 쾌락을 중시했다. 사회적 관습과 권위를 철저히 거부하는 무정부주의적 경향을 보였다.

[2] Leveller(레벨러): 영국 내전 당시 크롬웰군 내 급진파. 정치적 평등(보통선거권 확대), 종교적 관용, 법 앞의 평등을 주장했다.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 ” 는 급진적 자연권 사상을 설파했다.

[3] Digger(디거): 제라드 윈스탠리(Gerrard Winstanley)가 이끈 농민 급진파. "진정한 평등"을 주장하며 공유 토지(commons)를 공동 경작하려 했다. 초기 공산주의적 실천으로 평가되며, 사유재산 제도를 신학적으로 비판했다.

[4] Quaker(퀘이커): 조지 폭스(George Fox)가 창시한 '친구회'. 내적 빛(Inner Light)을 강조하며, 모든 외적 의식・성직자・전쟁을 거부했다. 평화주의, 평등주의, 사회개혁 운동의 선구적 집단으로 이후 큰 영향을 미쳤다.

[5] Fifth Monarchist(제5왕국주의자): 성경 다니엘서의 예언에 근거해 "그리스도의 제5왕국"이 임박했다고 믿은 밀레니얼리스트 급진파. 크롬웰 정권조차 불충분하다고 보고, 성도들의 직접 통치를 추구했다. 극단적 혁명적 신정주의를 대표한다.

- 참고문헌 -

커티스 야빈(Mencius Moldbug), 『How Dawkins Got Pwned』 — 현대 무신론적 진보주의가 17세기 영국 청교도 비국교도 전통의 세속화된 후손이라는 계보학적 분석. 리버럴리즘의 종교적 기원을 급진적으로 추적한다.

프리드리히 니체, 『도덕의 계보(Zur Genealogie der Moral)』 — 기독교적 도덕이 어떻게 르상티망(원한감정)과 노예도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해부. 그 도덕 구조가 세속화된 이념들 안에서도 반복된다는 분석의 토대를 제공한다.

루크레티우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De Rerum Natura)』 — 우주가 신의 섭리 없이 원자의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죽음은 감각의 소멸일 뿐이라는 논지. 종교적 공포와 사후세계 개념을 해체하는 고대 유물론 철학의 정수.

에피쿠로스,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내는 편지(Epistula ad Menoeceum)』 — 신들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으며,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쾌락(고통의 부재와 마음의 평정)이 삶의 목적이라는 논지. 초월적 권위 없이 삶을 구성하는 가장 오래된 철학적 시도 중 하나.

Pascal Boyer, 《Religion Explained》 (2001) - 종교를 진화심리학・인지과학적으로 분석한 고전. 종교적 믿음이 인간의 인지 장치(역설 탐지기, 과잉 귀인 등)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설명. 종교를 '초월적 진리'가 아닌 '인지적 부산물'로 보는 관점 제공.

Scott Atran, 《In Gods We Trust》 (2002) - 종교를 진화적 적응 기제이자 집단 결속 도구로 분석. 종교적 신념이 왜 강력한 사회적・정치적 동원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왜 폭력과 결합하기 쉬운지를 심층적으로 다룸.

David Hume, 《자연종교에 관한 대화(Dialogues Concerning Natural Religion)》(1779) - 종교적 설계론・기적・섭리를 철저히 비판한 고전. 에피쿠로스루크레티우스 전통을 근대적으로 계승한 회의주의의 정수.

Eric Voegelin, 《Political Religions》 (1938) 또는 《The New Science of Politics》 - 현대 정치 이념(특히 진보주의・공산주의)을 ‘세속 종교(political religion)’로 규정한 정치철학. Moldbug의 ‘Universalism’ 분석과 잘 연결됨.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1932) - 기독교 현실주의 입장에서 좌파・우파 양쪽의 도덕적 오만을 비판. 종교적 이상이 정치에서 어떻게 타락하고 왜곡되는지를 날카롭게 분석.

Robert Jay Lifton, 《Thought Reform and the Psychology of Totalism》 (1961) - 종교적・이념적 광신주의의 심리 메커니즘(사상개조, 이단 심판, 순수성 추구)을 임상적으로 분석. 현대 woke 문화나 극단 종교 운동 이해에 유용.

William James,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1902) - 종교적 경험을 신경학적・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고전. 개인적 종교 경험과 제도화된 종교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

Pyrrho of Elis (피론주의) 관련 저작 또는 Sextus Empiricus, 《피론주의 개요(Outlines of Pyrrhonism)》 - 절대적 진리를 유보하고 판단중지를 주장한 고대 회의주의. 에피쿠로스루크레티우스와 함께 ‘이념화 거부’의 철학적 전통을 보강.

제8편

전환: 해부 대상이 바뀐다

전환: 해부 대상이 바뀐다

1편부터 7편까지 이 에세이는 종교라는 시스템을 해부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이라는 아브라함 계통의 세 종교를 중심으로, 불교, 힌두교, 신토, 유교, 페이건(Pagan)까지. 그 해부의 결론은 하나였다. 종교는 형태가 무엇이든 같은 구조를 반복한다. 절대적 진리의 주장, 초월적 권위에 의한 정당화, 내집단 강화와 외집단 배타성, 이단 처벌, 삶의 주체성 박탈.

그리고 7편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종교를 비판하는 이념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진보주의, 리버럴리즘, 사회주의는 종교의 대안이 아니라 종교의 세속화 버전이다. 신을 제거한 청교도주의의 후손.

9편부터 14편은 이 결론의 연장선이다. 해부 대상이 바뀐다. 종교 자체에서 그 세속화 버전인 진보주의로, 그리고 더 넓은 문명론으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냉정함으로.

다만 여기서 독자에게 미리 밝혀야 할 것이 있다.

9편부터 등장하는 분석 도구들 — 커티스 야빈(멘시우스 몰드버그)의 울트라칼빈주의 테제, 닉 랜드의 Gnon 개념, 울프 티비(Michael Anissimov가 운영했던 지금은 폐쇄된 블로그 More Right (https://archive.md/www.moreright.net)에서 Nyan Sandwich라는 필명을 사용했고, 그 외에 Warg Franklin이라는 필명도 사용했으며 이후 Jonah Bennett(과거 NRx 성향 커뮤니티 Hestia Society에서 Hadley Bennett, Aimless Gromar 등의 필명 사용)과 Palladium Magazine을 공동 창립했다)의 제도 포획 이론, 스티브 세일러(Steve Sailer)의 다윈주의(darwinism) 분석 — 이것들은 소위 신반동주의(Neoreaction, NRx) 혹은 암흑계몽주의(Dark Enlightenment) 계열로 분류되는 사상가들의 작업이다. 서구 지식 지형에서 우익, 때로는 극우로 분류되는 진영이다.

이 사상가들을 분석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 전체를 수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1~7편이 종교를 해부할 때 기독교 신학자의 텍스트를 인용했다고 해서 기독교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듯, 9편 이후가 멘시우스 몰드버그와 닉 랜드를 인용한다고 해서 NRx의 정치적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상가들이 진보주의의 종교적 구조를 분석하는 방식은 (그들이 도달하는 정치적 처방과 별개로) 독립적인 분석 가치를 가진다. 몰드버그와 랜드는 9~11편에서 주로 등장하는 분석 도구이며, 12~14편은 그와 별개의 논점(진화론적 유물론, 전통의 재해석, 문명의 순환)을 다룬다.

이들이 도달하는 대안적 처방들(멘시우스 몰드버그의 신관방주의(Neocameralism)와 패치워크(Patchwork), 랜드의 우익 가속주의(Right Accelerationism), 울프 티비의 위계적 질서론)은 각자의 논리적 귀결로서 존재한다.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지 말지는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 에세이가 그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분석 도구'와 '그 도구가 가리키는 방향'은 별개다. 이 에세이는 전자를 빌릴 뿐이다.

1~7편이 종교라는 시스템을 해부하면서 어떤 이념적 대안을 섣불리 제시하지 않았듯, 9편 이후도 마찬가지다. 진보주의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데 이 도구들을 사용하되 그

도구들 자체도 비판적으로 읽혀야 한다.

해부 대상이 바뀌었을 뿐, 해부의 방식은 같다.

앞으로의 편들이 다룰 것들을 미리 짚어둔다.

9편 — 신 없는 세계에서도 종교를 믿는 자들이 있다. 진보주의적 무신론이 어떻게 기독교의 구조를 반복하는지를 몰드버그의 울트라칼빈주의 테제로 추적한다.

10편 — 좌파도 우파도 찰스 다윈을 두려워한다. 진화론을 자기 입맛대로 왜곡하는 양쪽의 공모를 해부한다.

11편 — Gnon 앞에서 문명은 무엇을 포획했는가. 제도가 어떻게 특정 방향으로만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본다.

12편 — 제도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소모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13편 — 종교라는 유전병의 기원으로 돌아간다. 진화, 유물론, 그리고 전통을 다시 읽는다.

14편 — 문명은 우로보로스처럼 자신을 포식하며 재생한다. 순환의 끝에서 냉혹한 현실주의만이 남는다.

제9편

신 없는 세계에서 종교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

신 없는 세계에서 종교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

1. 9편을 읽기 전에: 도구에 대하여

9편부터 11편까지 이 에세이는 진보주의라는 세속 신학을 해부하는 데 주로 신반동주의(Neoreaction, NRx) 계열 사상가들의 분석 틀을 사용한다. 커티스 야빈(멘시우스 몰드버그), 닉 랜드, 울프 티비(Wolf Tivy), 스티브 세일러 등— 서구 지식 지형에서 우익 혹은 극우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이것은 그들의 결론 전체를 수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들이 진보주의의 종교적 구조를 분석하는 방식은 그들이 도달하는 정치적 처방과 별개로 독립적인 분석 가치를 가진다.

1~7편이 기독교 신학자의 텍스트를 인용했다고 해서 기독교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듯.

이들이 도달하는 대안적 처방들 — 몰드버그의 신관방주의(neocameralism)와 패치워크(patchwork), 랜드의 우익 가속주의(r/acc) — 은 각자의 논리적 귀결로서 존재한다. 이 에세이는 그 처방들을 따르거나 거부하는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분석 도구와 그 도구가 가리키는 방향은 별개다.

2. 들어가며: 무신론의 이상한 실패

무신론은 이긴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서구의 대학, 언론, 문화 산업, 정책 입안 기관은 대부분 명시적으로 종교적이지 않다. 신을 믿는다고 공언하면 일부 지식인 집단에서는 눈살을 찌푸린다.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와 크리스토퍼 히친스(Christopher Hitchens)가 베스트셀러를 쏟아내던 2000년대 초, 많은 사람이 신앙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신은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신학은 남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신학은 다른 옷을 입고 더 강력해진 채로 돌아왔다. 죄(sin)는 특권(privilege)이 되었고, 회개(repentance)는 각성(awakening)이 되었으며, 이단(heresy)은 혐오 발언(hate speech)이 되었다. 교회는 사라졌지만 이단 심문소는 남았다.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멘시우스 몰드버그(Mencius Moldbug)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커티스 야빈(Curtis Yarvin)이 2007년경 "언퀄리파이드 리저베이션스(Unqualified Reservations)"라는 블로그를 통해 제기한 핵심 테제다. 그는 현대 진보주의를 단순히 나쁜 정치 이데올로기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기독교의 변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칼뱅주의(Calvinism)의 극단적 후손, 즉 울트라칼빈주의(Ultracalvinism)였다.

3. 울트라칼뱅주의: 세속화된 청교도주의

몰드버그(Mencius Moldbug)는 2007년에 「울트라칼뱅주의의 간략한 역사(A Short History of Ultracalvinism)」에서, 1942년 3월 16일자 《타임(Time)》지 기사 “아메리칸 말번(American Malvern)”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 기사의 첫 문장이 이미 모든 것을 예고하듯이, “조직화된 미국 개신교의 초개신교적 새 프로그램(Organized U.S. Protestantism’s superprotestant new program)”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 표현은 단순한 수사적 장식이 아니다. 몰드버그는 이를 현대적으로 날카롭게 재해석하며 울트라칼뱅주의(ultracalvinism)라는 개념을 창조한다. 그는 단순히 신학적 계보를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현대 진보주의가 “자신은 종교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바로 그 부정(denial) 자체가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지적한다. 이 부정은

가장 강력한 위장막이다.

> “ 울트라칼뱅주의는 본질적으로 2007년 의미에서의 ‘ 유니테리언주의(Unitarianism) ’ 와 거의 동일하다. [...] 울트라칼뱅주의는 종종 기독교와 정반대인 것처럼 뻔뻔스럽게 자신을 제시하기도 한다. 더 넓게 말해, 그것은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그저 예고에 불과한 우월한 계시로 여겨진다...(Ultracalvinism appears to be pretty much the same thing as ‘ Unitarianism ’ —that is, in the 2007 sense of that word. [...] Often ultracalvinism even has the sheer, unmitigated gall to present itself as the opposite of Christianity. More broadly, it ’ s a superior revelation of which Christianity, along with all other religions, is a mere anticipation...) ”

- , Mencius Moldbug, JUNE 12, 2007 링크: [https://www.unqualified-reservations.org/2007/06/short-history-of-ultracalvinism/]

유니테리언주의(Unitarianism)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사이에서 실질적인 충돌 지점을 하나라도 찾아보라고 몰드버그는 도발한다. 찾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믿음 체계의 두 가지 다른 외피이기 때문이다.

「울트라칼빈주의 가설: 관점 속에서(The Ultracalvinist Hypothesis in Perspective)」에서 몰드버그는 이 믿음 체계의 네 가지 기둥을 명확하고 냉철하게 정리한다.

> “ 내 계산에 따르면, 울트라칼빈주의 신조에는 네 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다. 첫째, 울트라칼빈주의자들은 인류의 보편적 형제애를 믿는다. 이상(Ideal)으로서 이것을 평등(Equality)이라고 부를 수 있다. [...] 둘째, 폭력의 무용함을 믿는다. 이에 대응하는 이상은 당연히 평화(Peace)다. [...] 셋째,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믿는다. 이상은 사회정의(Social Justice) [...] 우리는 이것을 롤스주의(Rawlsianism)라고 부르자. 넷째, 관리되는 사회를 믿는다. 이상은 공동체(Community)이며,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자비로운 전문가들, 즉 공직자(public servants)에 의해 이끌린다. [...] 우리는 이것을 만다린주의(mandarism)라고 부를 수 있다. (By my count, the ultracalvinist creed has four main points: First, ultracalvinists believe in the universal brotherhood of man. As an Ideal this might be called Equality. [...] Second, ultracalvinists believe in the futility of violence. The corresponding ideal is of course Peace. [...] Third, ultracalvinists believe in the fair distribution of goods. The ideal is Social Justice [...] we will [...] call this belief Rawlsianism. Fourth, ultracalvinists believe in the managed society. The ideal is Community, and a community by definition is led by benevolent experts, or public servants. [...]

we can call this belief mandarism.) ”

- , Mencius Moldbug, JUNE 24, 2007 링크: [https://www.unqualified - reservations.org/2007/06/ultracalvinist - hypothesis - in/]

이 네 가지가 1960년대나 2000년대의 발명품인가? 결코 아니다. 몰드버그는 이 신조들이 17세기 영국 청교도주의(Puritanism)와 뉴잉글랜드 유니테리언 전통에서 직접 유래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롤스주의조차 17세기 “ 디거스(Diggers) ” 운동에서 이미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몰드버그의 가장 신랄한 통찰 중 하나는, 리처드 도킨스 같은 현대 무신론자들이 자신들의 “ 세속적 ” 믿음을 어떻게 포장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도킨스가 자신의 세계관을 “ 아인슈타인의 종교(Einsteinian religion) ” 라고 부를 때, 그는 랄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의 초월주의(Transcendentalism)와 유니테리언 목사로서의 지적 혈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 리처드 도킨스는 자신의 믿음을 ‘ 아인슈타인의 종교 ’ 라고 불렀다. 그의 그 신조에 대한 묘사는 에머슨의 신학 학교 연설(Divinity School Address)을 강하게 연상시킨다. 그는 초월주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가? 에머슨이 유니테리언 목사였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Richard Dawkins has referred to his beliefs [...] as ‘ Einsteinian religion ’ . Dawkins ’ description of this creed is poetic and extremely reminiscent of Emerson ’ s Divinity School Address. Has he never heard of Transcendentalism? Is he unaware that Emerson was a Unitarian minister?) ”

- , Mencius Moldbug, JUNE 24, 2007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니다. 그것은 위장된 연속성의 증거다. 신학적 표면 단백질(삼위일체, 구원, 계시 등)을 벗겨내고 “ 이성 ” 과 “ 과학 ” 이라는 새 라벨을 붙이면, 교회와 국가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라는 좁은 항생제는 무기력해진다.

“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좁은 스펙트럼의 항생제에 불과하다. [...] 이 방어를 회피하기 위한 명백한 돌연변이는 교회가 자신이 교회임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럴듯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신학을 버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게임 오버. 당신이 졌다. 그것도 자업자득으로.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s a narrowspectrum antibiotic. [...] the obvious mutation to circumvent this defense is for the church to find some plausible way of denying that it ’ s a church. Dropping theology is a

nobrainer. Game over, you lose, and it serves you right.) ”

- , Mencius Moldbug, JUNE 24, 2007

몰드버그의 분석은 냉혹하다. 현대 진보주의는 기독교의 포스트밀레니얼(postmillennial) 종말론(Eschatology) —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비전 — 을 세속화한 형태일 뿐이다. 그것은 더 이상 “ 하나님 ” 을 말하지 않지만, 평등, 평화, 정의, 전문가 통치라는 이상을 통해 여전히 구원사를 추구한다. 그리고 그 이상에 반대하는 자들은 “ 근본주의자 ” 라는 낙인이 찍힌다.

이것이 몰드버그가 제시하는 울트라칼뱅주의 가설의 본질이다. 그것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서구 근현대사의 연속성을 꿰뚫어보는 역사적 • 문화적 진단이다. 표면적으로는 세속적이고, 과학적이며,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17세기 칼빈주의의 저교회(low church)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그 유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4. 유사 - 무신론자들로 들끓는 우리 행성

몰드버그는 「우리 행성은 유사 - 무신론자(pseudoatheists)들로 가득 차 있다(Our Planet Is Infested with PseudoAtheists)」에서, 이전에 정의한 이데알리즘(Idealism) 개념을 더 날카롭게 파고든다. 그는 이데알리즘을 “ 신비로운 보편자(mysterious universals)에 대한 믿음 ” 으로 규정한다. 이 악의적인 특성(pernicious trait)는 종교적(초자연적) 믿음 체계와 세속적(비초자연적) 믿음 체계 양쪽에서 나타나지만, 현대에는 후자에서 압도적으로 만연하다고 지적한다.

> “ 며칠 전 나는 관념론을 신비로운 보편자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했다. 이 악의적인 특성은 ‘ 종교적 ’ (초자연적) 믿음 체계와 ‘ 세속적 ’ (비초자연적) 믿음 체계 양쪽에 나타나지만, 요즘에는 후자에서 훨씬 더 흔하다고 지적했다. (The other day I defined Idealism as belief in mysterious universals. I noted that while this pernicious trait appears both in “ religious ” (paranormal) and “ secular ” (nonparanormal) belief systems, these days it ’ s much more common in the latter.) ”

- , Mencius Moldbug • MAY 16, 2007 링크: [https://www.unqualified - reservations.org/2007/05/our - planet - is - infested - with - pseudo/]

환경(Environment)을 숭배하는 사람과 위대한 신 판(Pan)을 경배하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그의 비유는 특히 강렬하다.

“ 예를 들어, 환경을 숭배하는 사람과 위대한 신 판을 경배하는 사람을 구별할 방법이 없다. 현실 세계에서 두 사람은 동일하게 행동할 것이다. 사실 판 숭배자와는 대화하기가 더 쉽다. 그가 열대우림을 판에게 신성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면, (나 같은 판 회의론자에게) 대화는 끝난다. 양측은 공통의 기준점이 없다는 것을 즉시 알고, 서로 합의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반면 환경 숭배자가 열대우림의 생물다양성(biodiversity)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녀는 끝없이 얽힌 논쟁의 실타래를 만들어낸다. 정확히 ‘ 생물다양성 ’ 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 지구의 허파 ’ 는 무슨 뜻인가? 지구에게 간(肝)도 있는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성경 없는 관념론은 영원한 대화의 샘물이자, 철학자 계급의 황금 광산이다. (For example, there is no way to distinguish someone who worships the Environment from someone who venerates the Great God Pan. In the real world the two will act identically. Indeed, it ’ s easier to reason with the Panworshipper. When he tells you that he needs to save the rainforest because the rainforest is sacred to Pan, the conversation (to a Panskeptic such as myself) is over. Both sides can see that there is no common point of reference, and the two of you can start working out how to agree to disagree. Whereas when the Environmentworshipper tells you about the biodiversity of the rainforest, she has created an endless hairball of arguments which trail off into nonsense everywhere. What, exactly, is “ biodiversity, ” and why is it important? What does “ lungs of the planet ” mean? Does the planet have a liver, too, and if so where is it? Idealism without holy books is a permanent fountain of conversation, a goldmine for the sophist caste.) ”

- , Mencius Moldbug • MAY 16, 2007

관념론의 진짜 위험은 그것이 합리주의(rationalism)의 한 형태라는 점이다. 합리주의는 자신이 받은 믿음을 순수 이성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성과 과학에 대한 과학주의(scientism)처럼 왜곡된 것이다. 몰드버그는 “ 여기 UR(Unqualified Reservations 블로그)에서는 이성도 믿지만, 믿음들을 그 자체로 작업해서 끌어낸다 ” 고 강조한다.

몰드버그의 입장은 명확하다. 그는 기독교를 믿지 않지만, 서구가 기독교를 이데알리즘으로 대체한 것을 재앙으로 본다. 그리고 그 뿌리가 개신교에 있다는 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 이제 내 세계관은 꽤 분명할 것이다. 나는 서구가 기독교를 이데알리즘으로 대체한 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관념론의 뿌리가 개신교에 있다는 점은 너무도 명확하다

— 민주주의(Democracy)와 평등(Equality) 같은 이상들은 순수하게 예수의 냄새가 난다 — 그래서 관념론은 단순히 비신론적 기독교의 광신적 변종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 어쨌든, 스스로를 비신자라고 설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관념론자이며, 종종 상당히 광신적인 관념론자라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행성은 유사 - 무신론자들로 들끓고 있다. 끔찍한 일이다. (My stance on the world should be pretty clear by now. I think the West ’ s replacement of Christianity with Idealism was a disaster. (In fact, since the roots of Idealism in Protestant Christianity are so clear—ideals such as Democracy and Equality simply reek of pure Jesus—it ’ s arguable that Idealism is simply a fanatical strain of nontheistic Christianity. [...]) In any case, it ’ s clear that most people who describe themselves as nonbelievers are in fact Idealists, often quite fanatical ones. Our planet is infested with pseudoatheists. It ’ s horrible.) ”

- , Mencius Moldbug ・ MAY 16, 2007

관념론의 ‘ 이데오크라시(ideocracy, ‘ 특정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원칙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것) ’ 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대개 고전적 보수주의자들이다. 몰드버그는 래리 오스터(Larry Auster)와 다니엘 라리손(Daniel Larison) 같은 인물들의 명쾌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전략 — 전통적 기독교로의 회귀 — 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 기독교는 (a) 참이거나 (b)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다. (c)는 없다. 내가 (b)를 믿기 때문에, 보편주의적 관념론에서 전통적 기독교로의 회귀는 [...] 내 의견으로는 진리가 허구를 이기는 경우가 아니다. [...] 내 생각에 고전적 보수주의는 관념주의자 지배에 맞선 투쟁에서 전술적 막다른 골목이다. [...] 그래서 나는 볼테르적 각도를 선호한다. 나는 관념주의자든 기독교든 어떤 풍선이든 최선을 다해 터뜨릴 것이다. 나는 기회균등적인 바늘이다. (Christianity is either (a) true or (b) untrue. There is no (c). Since I believe it is (b), a return to traditionalist Christianity from universalist Idealism [...] is not, in my opinion, a case of truth outcompeting fiction. [...]Paleoconservatism, in my opinion, is a tactical dead end in the struggle against Idealist rule. [...] This is why I prefer the Voltaire angle. I will do my damnedest to pop any balloon, Idealist or Christian. I am an equalopportunity pin.) ”

- , Mencius Moldbug ・ MAY 16, 2007

무신론자가 관념론을 버리면 허무주의(nihilism)만 남는가? 몰드버그는 단호히 “ 아니오 ” 라고 답한다. 도덕은 전통이 아니라 인간 생물학의 측면, 즉 감정적 반응이다.

진정한 “ 아무것도 믿지 않기 ” 는 합리주의적 관념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비드 스토브(David Stove)의 신실증주의(neopositivism)에 가까운 태도다.

“ 내게 비관념론은 제대로 적용된 무신론에 불과하다. [...] 하지만 ‘ 아무것도 믿지 않는 ’ 것, 합리주의적 관념론자가 아닌 합리적인 사람이 되려면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현대판 관념론의 가장 불행한 점은 그것이 실제 사고를 거의 완벽하게 대체한다는 것이다. [...] 이 과제를 대신해 관념론은 우리에게 공허한 수사를 준다. (To me nonIdealism is nothing more than atheism, properly applied. [...] But I just think it takes work and attention to really ‘ believe in nothing, ’ to be a reasonable person rather than a rationalist Idealist. [...] To me, what ’ s so unfortunate about our contemporary version of Idealism is that it ’ s an almost perfect replacement for actual thought. [...] In the place of this task, Idealism gives us cant.) ”

- , Mencius Moldbug • MAY 16, 2007

몰드버그의 진단은 냉정하면서도 희망적이다. 그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의 “ 미리 씹어둔 헛소리(premasticated tripe) ” 를 깨닫고 반발하는, 일종의 문화적 오렌지 혁명을 기대한다. 유사 - 무신론자들의 행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그는 관념론의 모든 풍선을 — 좌우를 가리지 않고 — 터뜨리는 볼테르적 역할을 자처한다.

5. 무신론자들이 ‘ 종교 ’ 를 믿어야 하는가

몰드버그는 2007년 4월 에세이 「무신론자들은 왜 종교를 믿는가(Why Do Atheists Believe in Religion?)」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 단계 더 깊이 파고든다. 그는 “ 종교 ” 라는 범주 자체가 과연 유용한 분석 도구인지, 아니면 우리를 심각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독성 밈(toxic meme)인지를 근본적으로 질문한다.

“ 요즘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 종교 ’ 를 믿는다. ‘ 종교를 믿는다 ’ 는 것은 ‘ 종교적 ’ 현상과 ‘ 비종교적 ’ 혹은 ‘ 세속적 ’ 현상 사이에 중요한 범주적 구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Not everyone these days believes in God. But pretty much everyone believes in religion. By ‘ believing in religion, ’ I mean recognizing a significant categorical distinction between ‘ religious ’ phenomena, and those that are ‘ nonreligious ’ or ‘ secular. ’) ”

- , Mencius Moldbug • APRIL 26, 2007 [링크: https://www.unqualified - reservations.org/2007/04/why - do - atheists - believe - in - religion/]

그는 “ 종교 ” 를 명확하게 정의한다.

“ 우리는 ‘ 종교 ’ 를 의인화된 초자연적 존재들의 실재를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We can define ‘ religion ’ as the attribution of existence to anthropomorphic paranormal entities.) ”

- , Mencius Moldbug • APRIL 26, 2007

이 정의는 불교의 일부 종파처럼 모호한 경우를 제외하면 충분히 작동한다. 문제는 이 범주가 현실을 명확히 하는가, 아니면 혼란스럽게 하는가다.

몰드버그의 논증은 날카롭다. 그는 “ 종교 ” 라는 라벨 하나가 정책의 도덕성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사례를 제시한다.

“ 히틀러가 린츠 출신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토르(Thor)의 지상 예언자라고 선언했다고 가정해보자. 나치가 한 모든 일이 토르의 이름으로 행해졌다고 가정하자. 즉, 나치즘이 ‘ 종교 ’ 범주에 속하게 된 것이다. [...] 그러나 이 사소한 변경 하나만으로 나치즘을 토르교로 바꾸면, 연합군의 행위는 노골적인 종교적 불관용이 된다. 우리는 다른 신앙을 존중해야 하지 않은가? 최소한 ‘ 근본주의 나치즘 ’ 에만 적대적 조치를 제한하고, 보다 ‘ 온건한 ’ 버전의 신조를 장려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Suppose Hitler had declared that, rather than being just some guy from Linz, he was Thor ’ s prophet on earth. Suppose that everything the Nazis did was done in the name of Thor. Suppose, in other words, that Nazism was in the category ‘ religion. ’ [...] But if we make this one trivial change, turning Nazism into Thorism and making it a ‘ religion, ’ [...] the acts of the Allies are a blatant act of religious intolerance. Aren ’ t we supposed to respect other faiths? Shouldn ’ t we at least have restricted our unfriendly attentions to ‘ fundamentalist Nazism, ’ and promoted a more ‘ moderate ’ version of the creed?) ”

- , Mencius Moldbug • APRIL 26, 2007

마르크스주의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 “ 뵈겔린이 말한 ‘ 정치적 종교 ’ 중 또 하나, 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초자연적 존재가 없으므로 종교가 아닌 것은 마르크스주의다. 마르크스의 저술이 신성하게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살짝 수정해보자. 공산주의 역사상의 다른 모든 것은 그대로 둔 채. [...] 만약 마르크스주의가 종교였다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 지적 설계(intelligent design) ’ 와 거의 정확히 동등한 위치에 놓였을 것이다. [...] 그러나 과거 미국인들은 오늘날 ‘ 지적 설계 ’ 에 맞서 싸우듯 마르크스주의를 근절하려 했다. 그것이 바로 매카시즘(McCarthyism)이었다. 시민 자유를 믿는 사람들은 정확히 반대편 바리케이드에 서 있었다. (Another one of Voegelin ’ s ‘ political religions, ’

which by our definition are not religions at all (no anthropomorphic paranormal entities) is Marxism. Let ’ s tweak Marxism slightly and assert that the writings of Marx were divinely inspired, leaving everything else in the history of Communism unchanged. [...] If Marxism was a religion, Marxist economics would come pretty close to being the exact equivalent of ‘ intelligent design. ’ [...] But there was a period in which Americans tried to eradicate Marxism the way they fight against ‘ intelligent design ’ today. It was called McCarthyism. And believers in civil liberties were on exactly the opposite side of the barricades.) ”

- , Mencius Moldbug · APRIL 26, 2007

“ 사소한 가상 역사적 변경이 합리적인 정책을 끔찍한 불의로, 혹은 그 반대로 바꾸어버린다면, 당신의 현실 인식은 올바를 수 없다. 당신은 독성 밈에 감염된 것이다. (If trivial changes to hypothetical history convert reasonable policies into monstrous injustices, or vice versa, your perception of reality cannot be correct. You have been infected by a toxic meme.) ”

- , Mencius Moldbug · APRIL 26, 2007

이것이 몰드버그가 지적하는 핵심이다. “ 종교 ” 라는 범주에 집착하는 것은, 반교권주의(anticlericalism) — 즉 도킨스 · 해리스식 “ 종교는 망상 ” 이라는 치료법 — 이 좁은 스펙트럼의 항생제에 불과하다는 증거다.

“ 밈을 기생 생물에 비유한다면, ‘ 종교 ’ 를 믿는 것은 불규칙하게 좁은 스펙트럼 항생제를 먹는 것과 같다. 도킨스 치료법 — 과거 반클레리칼리즘이라 불렸던 것의 최신 버전 — 은 숙주와 오랫동안 (불완전하지만) 합리적으로 공존하는 법을 배운 취약한 세균 군집을 제거한다. 그리고 항종교 치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히 다른 문(phylum)의 세균이 번성할 공간을 열어준다. 오히려 그 성장을 자극할 수도 있다. 지난 두 세기 동안 ‘ 정치적 종교 ’ 들이 ‘ 종교적 종교 ’ 들보다 훨씬, 훨씬 더 많은 사망자를 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도킨스, 해리스, 데넷과 함께 페니실린을 먹고 있다. (If memes are analogous to parasitic organisms, believing in ‘ religion ’ is like taking a narrowspectrum antibiotic on an irregular schedule. The Dawkins treatment — our latest version of what used to be called anticlericalism — wipes out a colony of susceptible bacteria which have spent a long time learning to coexist reasonably, if imperfectly, with the host. And clears the field for an entirely different phylum of bugs which are unaffected by antireligious therapy. Whose growth, in fact, it may even stimulate. In the last two centuries,

‘ political religions ’ have caused far, far more morbidity than ‘ religious religions. ’ But here we are with Dawkins, Harris, and Dennett — still popping the penicillin.) ”

- , Mencius Moldbug • APRIL 26, 2007

몰드버그는 무신론자로서 초자연적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 종교 ” vs “ 세속 ” 이라는 인위적 구분이 현실의 핵심 — 즉 현실 세계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른 행동 — 을 가려버린다고 본다. 진짜 위험한 것은 초자연적 포장지의 유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현실 세계에 대한 독성 믿음이다.

몰드버그는 단순히 “ 종교를 비판하라 ” 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 도구 자체를 해부한다. “ 종교 ” 라는 범주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광신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고, 결국 더 치명적인 새로운 변종들을 키우는 데 일조하게 된다.

그의 진단은 여전히 날카롭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 정치적 종교 ” 들의 새로운 변종들을 목격하며, 여전히 낡은 페니실린 처방전을 고수하고 있지 않은가.

6. Gnon: 판단을 보류한 자리에서 시작하기

몰드버그가 “ 종교 ” 라는 범주 자체를 해체하며, 신학적 교리를 벗겨낸 뒤에도 여전히 자리를 채우는 관념론의 독성을 지적했다면, 닉 랜드(Nick Land)는 그 빈자리를 그논(Gnon)이라는 개념으로 채운다. Gnon은 “ Nature or Nature ’ s God(자연, 혹은 자연의 신) ” 의 역순 두문자어(acronym)다. 이는 단순한 신조가 아니라, 신학적 논쟁을 끝없이 미루면서도 현실이 규칙을 만든다는 출발점에서 사고를 시작하게 하는 전략적 도구다.

“ ‘ 자연 혹은 자연의 신 ’ 은 특별한 탁월함을 지닌 표현으로,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추출된 것이다. 스티브스에게 이것은 일종의 만트라인데, 그것이 신학적 논쟁이 먼저 해결되지 않아도 중요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주로 전략적으로, 신학적 논쟁에 방해받지 않고 자연법(Natural Law)에 대한 합의를 가능하게 한다. 현실이 규칙을 만든다는 데 대한 동의는 종교적 차이가 해결될 때까지 미뤄질 필요가 없다... (‘ Nature or Nature ’ s God ’ is an expression of special excellence, extracted (with subtle modification) from America ’ 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For Steves, it is something of a mantra, because it enables important things to be said in contexts where, otherwise, an interminable argument would first need to be concluded. Primarily, and strategically, it permits a consensual acceptance of Natural Law, unobstructed by theological

controversy. Agreement that Reality Rules need not be delayed until religious difference is resolved...) ”

- , Nick Land, May 30, 2013 링크: [https://web.archive.org/web/20130609065403/http://www.xenosystems.net/the - cult - of - gnon/]

Gnon은 명제가 아니다. 이름이다. 신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현실은 그 자체로 규칙을 부과한다. Gnon은 그 현실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신의 별칭일 수도 있고, 신이 아닌 것의 이름일 수도 있다. 핵심은 판단의 유보(epoche)다. 신학적 • 존재론적 결정을 미루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서 출발한다.

“ Gnon은 믿음의 여하를 떠나 현실 그 자체다. 지금 지연 없이 유보되는 모든 것은 Gnon이다. 아직 결정할 수 없는 것, 현실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결정되지 않는 것은 Gnon이다. 신이 있다면 Gnon은 그를 별칭으로 부르는 것이다. 없다면 Gnon은 그 ‘ 없음 ’ 이 가리키는 것을 지칭한다. Gnon은 거대한 돌연(Vast Abrupt)이자 그 횡단이다. Gnon은 위대한 추진자(Great Propeller)다. (Gnon is no less than reality, whatever else is believed. Whatever is suspended now, without delay, is Gnon. Whatever cannot be decided yet, even as reality happens, is Gnon. If there is a God, Gnon nicknames him. If not, Gnon designates whatever the ‘ not ’ is. Gnon is the Vast Abrupt, and the crossing. Gnon is the Great Propeller.) ”

- , Nick Land, May 30, 2013

「Gnon 신학과 시간(GnonTheology and Time)」에서 랜드는 이 개념을 더 깊이 파고든다. Gnon은 신에 대한 존재론적 판단을 유보한다. 그것은 아직 불가지론(agnosticism)도 아니며, 확정적인 유신론이나 무신론도 아니다.

“ Gnon은 신에 대한 존재론적 판단을 유보한다. 그것은 신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실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Gnon트랜스(Gnontrance)는 불안정한 상태다. 그것은 아직 불가지론적이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유신론적이거나 무신론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믿기 이전에 실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에 주로 관심을 둔다... (Gnon suspends ontological decision about God. It begins from what is real, whether God exists or not. A Gnontrance is unsettled. It is not yet agnostic, any more than it is decidedly theistic or atheistic. It concerns itself primarily with that which has been accepted as real before anything is believed...) ”

- , Nick Land, June 16, 2013 링크: [https://web.archive.org/web/20131204192554/http://www.xenosystems.net/gnon - theology - and - time/]

Gnon 신학은 가설적(hypothetical)이다. “ 신이라는 관념이 우리에게 무엇을 사고하게 하는가? ” 라는 질문을 통해, 신학적 • 시간적 문제를 탐색한다. 여기서 랜드는 시간여행(reverse causation), 예언, 섭리 같은 개념을 끌어들이며, 기독교 자체를 일종의 시간여행 이야기로 재해석하기도 한다.

「시뮬레이션된 Gnon 신학(Simulated Gnon Theology)」에서는 이 방법론을 더욱 밀어붙인다.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그 가정 자체가 곧 불분명해진다. 따라서 Gnon이라는 이름을 통해 모든 후속 가정들을 철회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다.

> “ 여기서 Gnon으로 알려진 자연 혹은 자연의 신은 회의주의에게 궁극적인 대상을 제공한다. 이 이름으로 우리는 유보 속에서 전진할 수 있으며, 사고를 믿음의 어떤 기반으로부터도 해방시킬 수 있다. 일상적 적용에서 Gnon은 현실주의가 교리적 확신을 초월하게 하며, 불확실한 정보 속에서도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Nature or Nature ’ s God, (un)known here as Gnon, provides skepticism with its ultimate object. With this name we can advance in suspension, freeing thought from any ground in belief. In its mundane application, Gnon permits realism to exceed doctrinal conviction, reaching reasonable conclusions amongst uncertain information.) ”
>
> - , Nick Land, July 23, 2013 링크: [https://web.archive.org/web/20170719231558/http://www.xenosystems.net/simulated - gnon - theology/]

이 접근은 몰드버그의 문제의식과 정교하게 맞물린다. 몰드버그가 “ 종교 ” 범주에 집착하면 더 치명적인 정치적 종교들이 번성한다고 경고했다면, 랜드의 Gnon은 신학적 판단 자체를 유보하면서도 현실의 엄격한 규칙(선택압, 지능 폭발, 시간 구조 등)에서 출발한다. 유신론자도, 무신론자도, 불가지론자도 이 출발점에서는 함께 설 수 있다.

Gnon은 편안한 중립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냉혹한 이름이다. Gnon은 약한 것을 도태시키고, 강한 지능을 증폭시키며, 판단을 미루는 자에게조차 결국 대가를 치르게 한다. 몰드버그의 울트라칼뱅주의 비판과 랜드의 Gnon은 서로를 보완한다. 하나는 현대 진보의 숨겨진 종교성을 해부하고, 다른 하나는 그 너머에서 현실의 메커니즘을 직시하게 한다.

이것이 Gnon의 힘이다. 신학적 논쟁을 끝없이 미루면서도, 현실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규칙들을 직시하게 하는 — 판단 유보의 전략적 실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개념적 무기다.

7. 지식인의 아편: 허위 무신론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이 나온다. 무신론이 승리했다는 선언은 거짓이었다. 더 정확히는, 무신론이 신학적 도그마를 해체하는 데는 부분적으로 성공했지만,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맹목적이었다.

몰드버그가 말하는 유사 - 무신론자(pseudoatheist)들은 신을 부정하면서도 이데알리즘이라는 형태로 여전히 종교를 믿는다. 평등(Equality), 진보(Progress), 환경(Environment), 민주주의(Democracy) — 이 이상들은 초자연적 존재자는 아니지만 기능적으로는 신과 동일하게 작동한다. 정의할 수 없고, 반증할 수 없으며, 거부하는 자는 이단으로 처단된다.

도킨스와 히친스의 무신론 운동이 궁극적으로 도달한 곳은 어디인가? 그들의 독자들 상당수는 새로운 신학, 즉 진보주의라는 세속 신학의 가장 열렬한 신자들이 되었다. 종교적 믿음을 공격하는 지적 패기는 있었지만, 그 패기가 향하는 곳은 사실 이미 힘을 잃어가던 전통 기독교였다. 정작 지식인 계층의 주류를 지배하는 세속적 신학은 건드리지 못했다.

이것이 유사 - 무신론의 핵심 역설이다.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신의 자리에 앉은 새로운 신들 앞에 무릎을 꿇는다.

진정한 무신론은 더 어렵다. 그것은 초자연적 신만이 아니라, 세속화된 형태의 신들도 — 진보, 역사, 인민의 의지, 올바른 쪽의 편에 서기 — 거부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거부는 전적인 허무주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몰드버그가 말했듯, 도덕은 전통도 이상도 아니라 인간 생물학의 측면이다. 느끼는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실재한다.

그리고 신학적 판단을 유보한 자리에서, 랜드의 Gnon이 말하는 것이 있다: 현실은 규칙을 만든다. 그 규칙들은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작동한다. 우리의 선호가 아니라 현실의 구조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것이 유사 - 무신론이 아닌, 진짜 무신론(혹은 그냥 무신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다음 편에서는 다윈주의(Darwinism)가 왜 좌파에게도 우파에게도 불편한 진실인지, 그리고 두 진영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왜곡하는지를 살펴본다.

- 참고문헌 -

Mencius Moldbug, "A Short History of Ultracalvinism" (https://www.unqualified - reservations.org/2007/06/short - history - of - ultracalvinism/)

Mencius Moldbug, "The Ultracalvinist Hypothesis in Perspective" (https://www.unqualified - reservations.org/2007/06/ultracalvinist - hypothesis - in/)

Mencius Moldbug, "Our Planet Is Infested with PseudoAtheists" (https://www.unqualified - reservations.org/2007/05/our - planet - is - infested - with - pseudo/)

Mencius Moldbug, "Why Do Atheists Believe in Religion?" (https://www.unqualified - reservations.org/2007/04/why - do - atheists - believe - in - religion/)

Nick Land, "The Cult of Gnon" (https://web.archive.org/web/20130609065403/http://www.xenosystems.net/the - cult - of - gnon/)

Nick Land, "GnonTheology and Time" (https://web.archive.org/web/20131204192554/http://www.xenosystems.net/gnon - theology - and - time/)

Nick Land, "Simulated Gnon Theology" (https://web.archive.org/web/20170719231558/http://www.xenosystems.net/simulated - gnon - theology/)

제10편

찰스 다윈을 두려워하는 자들 — 좌파와 우파의 공모

찰스 다윈을 두려워하는 자들 — 좌파와 우파의 공모

1. 진화론의 이상한 지위

19세기의 대표적인 세 명의 학자 — 칼 마르크스(Karl Marx),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찰스 다윈(Charles Darwin) — 의 운명은 극적으로 엇갈렸다. 마르크스주의는 1억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남긴 후 대학 문학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계와 현실 정치에서 쇠락했다. 프로이트주의는 프로작(Prozac) 같은 현대 정신의학에 밀려났다. 그러나 다윈주의만은 생물학은 물론 사회과학, 심리학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며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스티브 세일러(Steve Sailer)는 1999년 칼럼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다: “ 우파 세력 속 다윈의 적들(A Miracle Happens Here: Darwin ’ s Enemies on the Right)」에서 이 역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 “ 20세기 말, 19세기 세 위대한 수염 난 현자 — 칼 마르크스, 지그문트 프로이트, 찰스 다윈 — 의 명성은 극적으로 갈리고 있다. 1억 구의 시체를 남긴 후, 마르크스주의는

대학 문학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쇠락했다. 프로이트주의도 프로작에 밀려 쇠퇴 중이다. 그러나 다윈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생물학계의 원로 에른스트 마이어(Ernst Mayr)는 ‘ 생물학의 어떤 것도 다윈 진화 없이는 의미가 없다 ’ 고 말했다.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the reputations of the three bushy - bearded 19th Century sages — Karl Marx, Sigmund Freud, and Charles Darwin — are diverging radically. One hundred million corpses later, Marxism is on its last legs everywhere except in university Literature departments. Freudianism is also foundering, with Prozac proving a more effective cure... Darwinism, however, cuts a wider swath than ever. Ernst Mayr, the dean of biologists, states, ‘ Nothing in biology makes sense without Darwinian evolution. ’) ”

- Steve Sailer, “ A Miracle Happens Here: Darwin ’ s Enemies on the Right, ” National Post / Unz Review, November 20, 1999. 링크: [https://www.unz.com/isteve/a - miracle - happens - here - darwins - enemies - on - the - right/]

세일러는 이어서 다윈의 유산이 진정한 적들보다 “ 자칭 친구들 ” 로부터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 그럼에도 다윈은 여전히 엄청나게 비인기 인물이다. 창조론자들은 물론 그를 맹렬히 반대한다. 그러나 Skeptic 매거진의 프랭크 미엘레(Frank Miele)가 지적하듯, 그의 유산은 정직한 적들보다 자칭 ‘ 친구들 ’ 로부터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Yet, Darwin remains vastly unpopular. Creationists of course rabidly oppose him. Yet, as Frank Miele of Skeptic magazine notes, his legacy is in more danger ‘ from its self - declared “ friends ” than from its honest enemies. ’) ”

- Steve Sailer, “ A Miracle Happens Here: Darwin ’ s Enemies on the Right, ” National Post / Unz Review, November 20, 1999.

다윈의 아이디어는 좌우 양쪽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격받고 있다. 우파(특히 종교적 우파)는 진화 자체를 신학적 이유로 거부한다. 반면 좌파는 진화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론이 인간에게 적용되는 방식, 특히 유전적 차이와 불평등의 함의를 강하게 억압한다.

“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적 우파가 동물이 무엇으로부터 진화했는지에 대한 다윈의 이론을 헛되이 공격하는 동안, 좌파와 중도는 인간이 무엇으로 진화했는지에 대한 다윈의 이론을 억압한다. (Ironically, while the religious right engages in futile attacks on Darwin ’ s theory of what animals evolved from, the left and center clamps down upon Darwin ’ s theory of what humans evolved to.) ”

- Steve Sailer, " A Miracle Happens Here: Darwin ' s Enemies on the Right, " National Post / Unz Review, November 20, 1999.

2. 우파의 창조론: 진지하게 대하되,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말 것

스티브 세일러는 창조론자들을 조롱하는 것이 쉽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노아의 홍수가 40일 만에 그랜드 캐니언을 만들었다는 식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지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는 보다 본질적이고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왜 미국인은 캐나다인이나 유럽인보다 진화론을 훨씬 더 강하게 거부하는가?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다: " 우파 세력 속 다윈의 적들(A Miracle Happens Here: Darwin ' s Enemies on the Right)」에서 제시한 답은 다음과 같다.

" 왜 미국인은 캐나다인이나 유럽인보다 여론조사에서 진화론을 종교적 이유로 거부한다고 더 많이 답하는가? 유럽에서 조직된 기독교가 빠르게 쇠퇴하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교회들이 다른 정부 독점 기관들처럼 무능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의 교회 - 국가 분리가 인도 다음으로 가장 경쟁적이고 기업가적인 종교 시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Why are Americans more likely than Canadians or Europeans to tell pollsters they reject evolution on religious grounds? Organized Christianity is ebbing away rapidly in Europe because the state - run churches are just as feckless and inept as other government monopolies. In the U.S., though, the First Amendment ' s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means that America enjoys the most competitive, entrepreneurial religious marketplace this side of India.) "

- Steve Sailer, " A Miracle Happens Here: Darwin ' s Enemies on the Right, " National Post / Unz Review, November 20, 1999.

이것은 단순히 교육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1999년 Gallup 여론조사에서 대학원 이상 교육을 받은 미국인 중에서도 30%가 창세기의 문자적 해석(하나님이 인간을 약 1만 년 전에 현재 형태로 창조했다)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세일러는 중요한 지적을 덧붙인다. 여론조사 응답과 창조론자들의 실제 행동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 다행히도, 여론조사에서 창조론을 지지한다고 답한 47%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 믿음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공룡 장난감을 비난하고 <주라기 공원>을 ' 진화론 선전 ' 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중은 여전히 공룡 장난감을 사고 주라기 공원을 즐긴다. 또한 페니실린 내성 세균에 대항해 새로운

> 항생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도 없다. (Fortunately, it's by no means clear just how seriously that 47% of the public take their supposed Creationist beliefs when they aren't answering opinion polls. While Henry Morris... denounces children's dinosaur toys and the movie 'Jurassic Park' as 'propaganda for evolution,' ... Nor have I heard of anybody refusing to take the new antibiotics that drug companies have had to invent to combat the ever-evolving strains of penicillin-resistant bacteria.)"
>
> - Steve Sailer, "A Miracle Happens Here: Darwin's Enemies on the Right," National Post / Unz Review, November 20, 1999.

다윈이 대중의 지지를 잃는 주된 이유는 그의 일부 지지자들이 다윈을 전능자와의 일대일 대결(mano-a-mano Thunderdome death match) 구도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다윈만"을 믿으라고 강요받지 않는 한 다윈주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지점에서 세일러의 실용주의가 두드러진다. 리처드 도킨스의 전투적 무신론은 전략적으로 역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과학과 종교 사이에는 많은 중간 지점이 존재한다.

> "예를 들어, 1960년대 내 가톨릭 초등학교 수녀님들은 인간이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했다고 가르치면서도, 아담과 이브는 신이 영혼을 부여하기에 충분히 진화한 최초의 존재들이라고 설명했다. 가톨릭 교회는 갈릴레오 사건 이후 과학적 논쟁에서 교회의 위신을 한쪽에 걸지 않는 법을 배웠다. 과학은 반증 가능한 이론으로, 종교는 반증 불가능한 믿음으로 작동할 때 둘은 잘 공존할 수 있다. (For example, the nuns at my Catholic elementary school in the Sixties taught that humans were descended from apes, but that Adam and Eve were the first who had evolved enough for God to give them souls. The Catholic Church has learned from its self-inflicted Galileo disaster not to bet its prestige on one side of a scientific controversy. Science works best with theories that are falsifiable, religion with beliefs that aren't.)"
>
> - Steve Sailer, "A Miracle Happens Here: Darwin's Enemies on the Right," National Post / Unz Review, November 20, 1999.

더 나아가 세일러는 과학자들에게 인식론적 겸손을 주문한다. 도킨스는 토머스 헉슬리(Thomas H. Huxley, "다윈의 불독")가 강조했던 점 — 진정한 회의주의는 무신론이 아니라 불가지론(agnosticism)을 함의한다는 것 — 을 잊은 듯하다.

저명한 진화생물학자들 사이에 만연한 거만한 무신론은 1899년 물리학자들의 그것을 떠올리게 한다. 20세기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라는 " 불편한 놀라움 " 을 안겨준 것처럼, 생물학자들도 미래에 비슷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

에드워드 O. 윌슨(Edward O. Wilson)의 《통섭(Consilience)》에서 제시된 환원주의 프로그램 — '사회학 → 사회생물학 → 생물학 → 화학 → 물리학' — 은 웅장한 야망이다. 그러나 세일러는 이 프로그램이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를 빠뜨렸다고 지적한다.

> " 윌슨은 최종 환원주의 단계를 빠뜨렸다. 즉 물리학을 우주론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궁극적인 과학적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왜 우주는 존재하는가? (2) 왜 자연 법칙들은 자연 선택을 통해 지적 생명이 진화할 수 있게 허용하는가? …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한, 우주론은 오직 신학의 원시적 사변으로만 환원될 수 있다. (Now, Wilson left out the ultimate reductionist step: boiling physics down to cosmology. The ultimate scientific questions are: (1) Why does the universe exist? And (2) Why are the laws of nature such that they allow intelligent life to evolve via natural selection? ... So far as we now know, cosmology can only be reduced to the raw speculations of theology.) "
>
> \- Steve Sailer, " A Miracle Happens Here: Darwin ' s Enemies on the Right, " National Post / Unz Review, November 20, 1999.

3. 좌파의 다윈주의에 대한 검열

우파의 창조론보다 더 교묘하고 더 해로운 다윈주의의 적이 있다.

스티브 세일러(Steve Sailer)는 1999년 칼럼 「다가오는 유전자 전쟁: 좌파 세력 속 다윈의 적들(The Coming War over Genes: Darwin ' s Enemies on the Left)」에서 이 좌파 진영의 왜곡을 날카롭게 해부한다.

이 좌파적 다윈주의 왜곡의 상징적인 인물은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제이 굴드(Stephen Jay Gould)다. 굴드와 그의 추종자들은 다윈을 정치적 올바름의 과학적 후원자로 재해석하려 했다. 그들은 다윈이 실제로 " 사실적 평등(factual equality) " 을 지지했다고 대중에게 인상 지었는데, 정작 그들 스스로 다윈의 글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 " 찰스 다윈은 교양 있는 대중에게 세속의 성인과 같은 존재다. 그들은 다윈주의의 세부 사항을 잘 모를지라도, 우파 근본주의자들이 다윈을 반대한다면 자신들은 다윈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작 그들 스스로 다윈을 직접 읽어본 적은 거의 없지만, 하버드의 스티븐 제이 굴드(《인간 불평등의 오해》 저자)가 다윈이 바로 그런 의미였다고 보증해주었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윈이 굴드만큼 계몽되었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식이다. (Charles Darwin is a secular saint to much of the well - bred, well - read public. While they may not know the details of Darwinism, they do know that if rightwing fundamentalists are against Darwin, then they ’ re for him. ... Not that they ’ ve personally read Darwin, but Harvard ’ s Stephen Jay Gould (author of ‘ The Mismeasure of Man ’) has assured them that that ’ s what Darwin meant. Or, to be precise, that ’ s what Darwin would have meant if only he ’ d been as enlightened as Stephen Jay Gould.) ”

- Steve Sailer, “ The Coming War over Genes: Darwin ’ s Enemies on the Left, ” National Post / Unz Review, December 1, 1999. 링크: [https://www.unz.com/isteve/the - coming - war - over - genes - darwins - enemies - on - the - left/]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왜곡이다. 다윈주의의 핵심은 유전적 불평등이며, 이는 부산물이 아니라 이론의 본질이다.

세일러는 다윈의 대표작 《종의 기원》 전체 제목을 상기시킨다.

“ 다윈의 획기적 저작 전체 제목을 보자: ‘ 자연 선택에 의한, 혹은 생존 투쟁에서 유리한 종족의 보존에 의한 종의 기원. ’ ... ‘ 유리한 종족(Favoured Races) ’ 이라는 표현은 다윈의 핵심 아이디어 그 자체다. 우리가 유전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선택은 작동할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아메바로 남아 있을 것이다. (Consider the full title of Darwin ’ s epochal book: ‘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or the Preservation of Favoured Races in the Struggle for Life. ’ ... ‘ Favoured Races ’ is Darwin ’ s Big Idea. For if we didn ’ t differ genetically, selection could not act upon us. We would still be amoebas.) ”

- Steve Sailer, “ The Coming War over Genes: Darwin ’ s Enemies on the Left, ” National Post / Unz Review, December 1, 1999.

다윈 본인도 《인간의 유래(The Descent of Man)》에서 명확히 밝혔다.

“ 변이성은 선택 작용의 필요한 기반이다. (Variability is the necessary basis for the action of selection.) ” — 다윈(Darwin), 《인간의 유래》

좌파 지식인들이 가장 강하게 회피하고 싶은 함의는 바로 집단(인종) 간 유전적 차이가 실재한다는 것이다. “ 인종은 사회적 구성물에 불과하다 ” 는 현대적 주장에 대해 세일러는 다윈의 관점을 빌려 반박한다.

“ 최근에는 인종의 정확한 수와 이름, 구성원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 인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적 구성물일 뿐이다 ’ 라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다윈은 더 잘 알고 있었다. 인종은 확실히 경계가 모호하지만, 확장된 가족도 그보다 더 모호한데 아무도 가족의 실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사실 인종은 확장된 가족과 ‘ 같은 것 ’ 이 아니라, 그것 그 자체다. 인종이란 어느 정도 근친 교배를 하는 극도로 확장된 가족일 뿐이다. (There is much chatter lately that because we can never all agree on the exact number, names, and members of the various races, therefore ‘ Race does not exist; it ’ s just a social construct. ’ Darwin knew better. Although races are indeed fuzzy, extended families are even fuzzier, yet no one denies their reality. In fact, a race is not just like an extended family, it is an extended family. A race is simply an extremely extended family that inbreeds to some degree.) ”

- Steve Sailer, “ The Coming War over Genes: Darwin ’ s Enemies on the Left, ” National Post / Unz Review, December 1, 1999.

가족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가족의 실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인종도 마찬가지다. 모호한 경계선은 그 범주의 비실재성을 증명하지 못한다.

4. 다윈주의적 보수주의: 맥기니스의 견해

존 O. 맥기니스(John O. McGinnis)는 1997년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에 발표한 에세이 「보수주의의 기원(The Origin of Conservatism)」에서 다윈주의와 정치철학을 본격적으로 연결짓는다. 그의 핵심 테제는 명확하다.

“ 다윈주의적 정치학은 대체로 보수주의적 정치학이다. (A Darwinian politics is largely a conservative politics.) ”

- John O. McGinnis, “ The Origin of Conservatism, ” National Review, December 22, 1997 링크: [https://web.archive.org/web/20001113071703/http://www.nationalreview.com/22dec97/mcginnis122297.html]

맥기니스는 진화생물학이 제시하는 인간 본성의 초상이 보수주의의 기본 전제와 깊이 공명한다고 주장한다. 진화론이 묘사하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가족과 가까운 이들에 대한 이타심도 발휘할 수 있으며, 능력과 특성에서는 불평등하지만 기본적인 욕구와 열망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존재라는 점이다. 이는 좌파의 ‘ 인간은 완전히 가소적(perfectible)이다 ’ 는 신화나, 자유지상주의의 ‘ 완전하게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개인 ’ 이라는 이상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맥기니스가 강조하는 주요 다윈주의적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① 자기 이익과 정치

자연 선택은 각 개체가 자신의 생존과 번식 이익을 타인의 그것보다 우선시하도록 강력하게 적응시켰다. 따라서 대규모 강제적 집단주의, 특히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의 진화적 본성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맥기니스가 인용한 에드워드 O. 윌슨의 날카로운 비판이 이를 잘 요약한다.

> “ 훌륭한 이론이다. 다만 종(種)이 틀렸을 뿐이다. (Wonderful theory. Wrong species.) ”
>
> - John O. McGinnis, “ The Origin of Conservatism, ” National Review, December 22, 1997

② 친족 선택(Kin Selection)

우리는 유전자를 상당 부분 공유하는 친족의 복지에 특별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도록 진화했다. 가족은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라 생물학적·자연적 단위다. 따라서 가족 결속을 강화하는 정책은 추상적 국가 복지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사회 보험이 될 수 있다.

③ 성 차이(Sex Differences)

남성과 여성은 수백만 년 동안 서로 다른 번식 전략 때문에 뚜렷하게 차별화되었다. 여성은 임신·출산·수유라는 높은 생물학적 비용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자녀의 생존과 복지에 남성보다 훨씬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 이것은 문화적 편견이 아니라 자연 선택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이 맥기니스의 입장이다.

④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도전

맥기니스는 특히 중요한 통찰을 하나 더 제시한다. 진화생물학은 좌파뿐 아니라 순수 자유지상주의에도 강력한 도전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자유지상주의가 전제하는 “ 통합되고 완전히 합리적인 자아 ” 라는 관념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은 여러 진화적 모듈로 구성된 취약하고 분열된(fallen and fragmented) 자아이며, 이 모듈들은 서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 특히 성(性)과 관련된 부분이 그렇다.

> “ 성적 자아는 … 자원과 지위를 추구하는 더 분명히 합리적인 획득 자아와 완전히 연속적이지 않다. 이 자아들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진화했으며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 — 따라서 성적 열정에서 자주 관찰되는 경솔함이 생겨난다. (The sexual self... is not fully connected [to the rational self] - - hence the frequently observed imprudence of sexual passion.) ”

- John O. McGinnis, “ The Origin of Conservatism, ” National Review, December 22, 1997

이 관찰은 현대 자유주의적 프로젝트 — 성적 자율성과 욕망의 영역은 최대한 규제로부터 보호하면서, 경제 • 자원 배분 영역은 강하게 규제하는 것 — 에 대한 날카로운 암묵적 비판이 된다. 동시에 “ 모든 개인은 장기적 이익을 위해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 는 자유지상주의의 핵심 가정도 진화론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5. 에릭 메소이의 인식론적 겸손

노르웨이 출신의 IT 전문가로, 2010년대 초반 신반동주의 운동 초기 멤버 중 한 사람이었던 에릭 메소이(Erik Mesoy)는 2014년 「프레드 리드와 다윈(Fred Reed and Darwin)」이라는 에세이에서 진화론에 대해 보다 절제되고 솔직한 철학적 성찰을 보여준다.

그는 진화론 자체는 지지하면서도, “ 진화론 ” 이라는 단어가 미국 정치에서 한 팀(주로 좌파 • 세속주의자)이 다른 팀에 대한 우월성과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응원가(cheer)로 전락한 현상을 강하게 경멸한다. 이 점에서 그는 스티브 세일러와 같은 지점에 서 있다.

메소이의 가장 날카롭고 흥미로운 논점은 진화론과 도덕의 관계다. 그는 다음과 같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 유전적으로 중증 장애인을 고문해 죽이는 취미를 갖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

이에 대해 그는 매우 솔직하게 답한다.

“ 진화는 이것에 대해 많은 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Evolution can't provide much of an argument against this.) ”

- Erik Mesoy, “ Fred Reed and Darwin, ” More Right, August 8, 2014. 보관된 링크: [https://archive.md/ppiVI]

이 말은 표면적으로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메소이는 이것이야말로 정직한 분석이라고 강조한다. 진화론은 사실 기술(descriptive fact)이지, 도덕적 처방(normative prescription)이 아니다. “ 진화 ” 라는 개념은 사후적인(ex post) 설명 — 어떤 형질이 과거에 번식 성공에 유리했는지를 기술하는 것 — 일 뿐이다. 그것을 마치 의도나 목적을 가진 존재처럼 의인화(personification)하거나 실체화(reify)하는 것은 편리한 수사적

표현이지만, 철학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메소이는 유전적 결정론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다. 그는 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한다. C.S. 루이스(C.S. Lewis)가 《기적(Miracles)》에서, 그리고 철학자 알빈 플란팅가(Alvin Plantinga)가 보다 형식적으로 제기한 진화적 인식론(Evolutionary Epistemology)의 난점이다.

만약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신념이 순전히 물리화학적 과정(자연 선택에 의한 적응)의 산물이라면, 그 생각들이 진리(truth)를 향해 있다고 믿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진화는 적합한 믿음(true belief)보다 적합한 행동(adaptive behavior)을 선호한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예: 종교적 믿음이 번식에 유리했다면, 그것이 진리와 무관하게 선택되었을 수 있다.)

신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메소이는 열린 인식론적 자세를 유지한다. 그는 신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지 않는다.

> “ 신이 특정한 경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그 특정한 사례에서 그것을 의심할 좋은 이유가 없다면, 신의 개입을 끌어들이는 것은 일종의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One doesn't [exclude it]. But there's a sort of etiquette which suggests that it's 'impolite'... to invoke the possibility that God was meddling without a good reason to suspect this in the particular case.) ”
>
> - Erik Mesoy, “ Fred Reed and Darwin, ” More Right, August 8, 2014.

이것은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실용주의적 이해를 보여준다. 과학에서는 “ 기적이 일어났다 ” 는 설명을 사용하는 것은, 퇴직 계획을 세우면서 복권 당첨에 기대를 거는 것과 비슷한 행위다. 그러나 이런 방법론적 자연주의(methodological naturalism)가 형이상학적 자연주의(metaphysical naturalism), 즉 “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 는 철학적 입장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메소이는 결국 진화론을 과학적 설명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과도하게 신격화하거나 도덕적 • 정치적 무기로 삼는 것을 경계한다. 그의 글은 전체 시리즈에서 인식론적 겸손의 중요한 균형추 역할을 한다.

6. 다윈이 불편한 이유

이 모든 논의에서 공통점이 하나 드러난다. 다윈이 좌파와 우파 양쪽에서 불편한 이유는, 그의 이론이 각자의 핵심 도그마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좌파에게 인간은 역사적으로 조건 지어진 평등한 존재가 아니다. 유전적 변이는 실재하고, 집단 간 차이도 실재하며, 선택은 차이를 요구한다. 이것은 진보주의의 형이상학적 평등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전통주의 우파에게 인간은 죄로 타락한 존재이지만 올바른 종교적 지도 하에 구원 가능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수백만 년의 진화로 형성된, 분열되고 취약한 자아를 가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영장류다. 아름다운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떤 문명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지,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지상주의자에게 완전히 합리적이고 통합된 개인이라는 가정은 진화론과 맞지 않는다. 성적 충동과 장기적 합리성은 서로 단절된 진화적 모듈들이며, 이것은 국가의 개입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약화시킨다.

맥기니스의 "다윈주의적 보수주의"는 이 불편함을 정직하게 마주하고자 하는 시도다. 그것은 유토피아적 보수주의 — 모든 인간적 선들이 완전히 실현되는 어떤 사회 구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 — 도 거부한다. 진화는 인간사에 어느 정도 비극적인 빛을 비춘다. 서로 다른 적응들은 불가피하게 충돌한다. 서구 문명이 법치주의와 시장의 발전으로 무관한 개인들 사이의 호혜적 이타주의를 완성해갈수록, 가족은 덜 필요해지고 "가족 가치"는 점점 축소된 핵가족을 가리키게 된다. 이것은 손실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윈주의적 보수주의는 가능한 것을 보존하고자 한다. 죽은 것을 부활시키려 하지 않는다. 변화하는 조건에 맞는 개혁을 제공하는 보수주의.

다음 편에서는 울프 티비(Wolf Tivy. 필명은 Nyan Sandwich)의 그논(Gnon) 분류론을 통해, 문명이라는 기획이 실제로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 참고문헌 -

Steve Sailer, “ A Miracle Happens Here: Darwin ’ s Enemies on the Right, ” National Post / Unz Review, November 20, 1999. 링크: [https://www.unz.com/isteve/a-miracle-happens-here-darwins-enemies-on-the-right/]

Steve Sailer, “ The Coming War over Genes: Darwin ’ s Enemies on the Left, ” National Post / Unz Review, December 1, 1999. 링크: [https://www.unz.com/isteve/the-coming-war-over-genes-darwins-enemies-on-the-left/]

John O. McGinnis, “ The Origin of Conservatism, ” National Review, December 22, 1997 보관된 링크: [https://web.archive.org/web/20001113071703/http://www.nationalreview.com/22dec97/mcginnis122297.html]

Erik Mesoy, “ Fred Reed and Darwin, ” More Right, August 8, 2014. 보관된 링크: [https://archive.md/ppiVI]

제11편

Gnon 포획 프로젝트

Gnon 포획 프로젝트

1. 우주의 무관심과의 조우

H.P. 러브크래프트(H.P. Lovecraft)는 「우주적 공포의 문학」에서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강렬한 감정은 공포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심원한 것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라고 썼다. 그러나 그보다 한층 더 깊고, 더 차갑고, 더 근본적인 공포가 존재한다. 그것은 우주가 단순히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혀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공포다. 별들은 우리를 내려다보지 않고, 물리법칙은 우리의 도덕적 바람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시간은 우리의 문명을 위해 멈추지 않는다.

울프 티비(Wolf Tivy. a.k.a. Nyan Sandwich)는 「신을 믿지 마라(Don't Trust God)」에서 러브크래프트의 그 유명한 인용으로 글을 시작한다.

>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 정신이 자신의 모든 내용물을 서로 연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한한 검은 바다의 한가운데에 있는 고요한 무지의 섬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멀리 항해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었다. (The most merciful thing in the world, I think, is the inability of the human mind to correlate all its contents." — H.P. Lovecraft)"
>
> - , May 26, 2013 by Nyan Sandwich 보관된 링크: [https://archive.md/g30Qa]

그는 이어서 고백한다. 자신은 항상 무신론자였다. 그러나 ‘ 무신론자 ’ 라는 말이 반드시 “ 신뢰할 만한 신이 없다 ” 는 뜻은 아니었다. 그는 한때 진화를 자신의 신으로 삼았다. 문명이 무너지더라도, 자연선택이라는 맹목적 과정이 결국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일종의 세속적 섭리에 기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진화는 그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친절하지 않다. '친절'은 단순한 단어 뒤에 있는 매우 복잡한 개념이다. 우주의 무작위적 과정을 통해서는 고철 더미에서 기능하는 747 여객기가 나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는 친절을 얻을 수 없다. 진정한 힘을 가진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친절을 만들어내야 한다. (Evolution isn ’ t nice, because it has no reason to be. “ Nice ” is a very complicated concept behind a deceptively simple word. You can ’ t get Nice by the random processes of the universe any more than you can get a working 747 by random mixing in a junkyard. Something with serious power has to create niceness deliberately.)"

- , May 26, 2013 by Nyan Sandwich

울프 티비는 여기서 단순한 개인적 환멸을 넘어서는 더 근본적인 통찰을 제시한다. 과학적으로 정직한 무신론이란, 우주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친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다. 진화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복제되는 유전자들의 차별적 생존을 반복할 뿐이다. 기술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에너지와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수단일 뿐이다. 민주주의, 인권, 역사적 진보 같은 거대한 세속적 서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바람을 투영한 이야기일 뿐, 우주의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호의적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 우주의 구조 안에는 끔찍한 일을 막아줄 어떤 내재된 친절함도, 보이지 않는 안전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취약한 제도들뿐이다.

"우리는 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매우 두렵게 만든다. (We are beyond the reach of god, and that scares the crap out of me.)"

- , May 26, 2013 by Nyan Sandwich

이 공포는 단순한 존재론적 불안이 아니다. 그것은 정직한 출발점이다. 진보주의자들의 낙관적 역사 서사, 반동주의자들의 "과거의 황금시대로 돌아가자"는 내러티브, 기술 낙관론자들의 특이점(Singularity) 신화 —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세속화된 종말론이고, 만약 우주에 신이 없다면 어느 것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보장하지 않는다.

정직한 무신론은 이 공포를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공포에서 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포를 회피하기 위해 채택한 세속적 신화들 — 진보, 역사의 올바른 편, 기술의 해방 — 이 결국 커티스 야빈이 말했던 유사 - 무신론, 세속화된 신학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닉 랜드의 Gnon 개념이 제안하는 것처럼, 판단을 유보하고 현실에서 시작하는 것. 그 현실은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은 우리가 서 있는 실제 지반이다. 환상 위에 서는 것보다는 낫다.

2. Gnon의 네 기수들

닉 랜드(Nick Land)는 Gnon을 “ Nature or Nature ’ s God ” (자연 혹은 자연의 신)의 약어이자 역순 배열로 만들었다. Gnon은 현실 그 자체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믿음과 상관없이 지금 당장 작동하는 것, 미루거나 부정할 수 없는 것, 인간의 소망과 무관하게 우리를 심판하는 모든 과정의 총체가 바로 Gnon이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Gnon은 그 신의 별명이며, 존재하지 않는다면 Gnon은 그 ‘ 없음 ’ 자체를 가리킨다. 랜드는 Gnon을 통해 세속적 • 종교적 모든 환상을 벗겨내고, 냉혹한 현실 앞에 서도록 요구한다.

울프 티비는 「Gnon을 포획하라(Capturing Gnon)」이라는 글에서 랜드의 이 개념을 이어받아 Gnon의 하위 과정들을 네 기수로 정밀하게 분류한다. 이 분류는 단순한 은유적 장치가 아니다. 각각의 기수는 실재하는 힘으로서, 서로 다른 메커니즘과 방향으로 작동하며, 그 총합이 바로 Gnon이다.

> "아자토스. 죽음. 진화. 우리의 생물학적 본성을 빚어내고,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에 따라 우리의 유전적 운명을 인도하는, 맹목적이고 백치 같은 외계 신.
>
> 대중적 믿음과 달리, 진화의 목적론은 더 “ 진보된 ” 형태로의 진보가 아니다. 그것은 포괄적 유전적 적합성의 몇 퍼센트 향상을 위해 유기체를 무자비하게 비틀고 왜곡하며, 지능과 같은 “ 중요한 ” 특성이 생식력에 더 이상 결정적이지 않게 되는 순간, 그것을 냉혹하게 버려버린다. (Azathoth. Death. Evolution. The blind idiot alien god that shapes our biological nature and guides our genetic destiny according to who lives and who dies. Contrary to popular belief, the telos of evolution is not progress to more “ advanced ” forms; it will ruthlessly twist organisms for a few points of inclusive genetic fitness, and abandon “ important ” features of an organism (eg. our intelligence) as soon as they stop being critical to fertility.)"
>
> - , July 13, 2014 by Nyan Sandwich 보관된 링크: [https://archive.md/aN2L0]

진화는 우리의 생물학적 본성을 형성하고 우리의 유전적 운명을 이끈다. 그런데 대중적 믿음과 달리, 진화의 목적론은 더 "진보된" 형태로의 진보가 아니다. 그것은 유전적 적합성의 몇 퍼센트 향상을 위해 유기체를 가차 없이 비틀고, 적합성에 더 이상 결정적이지 않게 되면 지능 같은 "중요한" 특성도 내다버린다.

피임과 낙태의 등장은 진화적 안목에서 보면 순간의 트릭이다. 자녀를 덜 갖는 경향이 유전적으로 선택된다면, 결국 그 경향은 도태된다. 하지만 그 "결국"은 수천 년 후일 수 있으며, 그 사이에 문명은 다른 이유로 붕괴할 수 있다.

"크툴루. 전염병. 숙주 진화. 밈학. 유행병. 대중적인 형태가 전파 기관을 장악하고 반복 재생산됨으로써 가장 잘 퍼져나가는 경향.

대중적 의견과 달리, " 아이디어 시장 " 은 진리와 선함을 선택하지 않고 전파력을 선택한다. 진리와 선이 선택되는 것은 대중적 아이디어 전파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진리와 선을 선호할 때에만 가능하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현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크툴루는 천천히 헤엄칠 수 있지만, 그는 오직 왼쪽으로만 헤엄친다. " (Cthulhu. Pestilence. Hosted Evolution. Memetics. Epidemics. The tendency for popular forms to be those most able to propagate themselves by capturing transmission institutions and getting repeated. Contrary to popular opinion, the " marketplace of ideas " does not select for truth and good, but virulence. Truth/good selection only happens if the mass idea - propagation systems structurally favor truth and good, which they often do not. The current result being that " Cthulhu may swim slowly, but he only swims left. ")"

- , July 13, 2014 by Nyan Sandwich

대학, 언론, 교육, 연예계라는 문화 재생산 기관을 장악한 체계는 구조적으로 좌파적 방향으로만 표류한다. 커티스 야빈의 울트라칼뱅주의 테제가 정확히 지적하듯, 진보주의가 승리하는 이유는 그것이 더 진실에 가까워서가 아니라, 더 강력한 감염・재생산 메커니즘을 가졌기 때문이다.

"마몬. 기근. 자본주의. 기술경제적 최적화. 생산. 어떤 형태가 기술적 자원 활용 기회를 이용해 성공할 때, 그것이 바로 마몬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이고 재활용이 잘 되는 생물 생태계를 갖게 되었으며, 인간의 자본주의는 위대한 기술 작품들을 창조해냈다. 그러나 마몬은 생산의 최전선에 기여하지 않는 형태들을 — 필요하다면 우리 자신까지도 — 무자비하게 재활용해 버릴 것이다. (Mammon. Famine. Capitalism. Techno - Economical Optimization. Production. When a form succeeds by exploiting a technological resource - use opportunity, that is Mammon at work. Thus we have an efficient and recycling biological ecosystem, and human capitalism has driven the creation of great works of technology. But Mammon will ruthlessly recycle forms not contributing to the cutting edge of production, including us, if it comes to that.)"

- , July 13, 2014 by Nyan Sandwich

"아레스. 전쟁. 정복. 제국. 농업 문명이 승리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 더 나았기 " 때문이 아니라, 영양실조에 이 빠진 100명의 농민이 막대기를 들고서도 가장 건강하고 잘 훈련된 부족 전사 한 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전쟁은 무기를 사용한 계산이며, 그렇게 드러나는 진실은 오직 어느 사회군사집단이 더 강한가 하는 것뿐이다. (Ares. War. Conquest. Empire. Agricultural Civilization won not because it was " better " in our sense, but because 100 malnourished toothless peasants with sticks beats one of even the healthiest and best trained tribal warriors. War is computation with weapons, and the truth thus revealed is simply which sociomilitary group is stronger.)"

- , July 13, 2014 by Nyan Sandwich

아레스는 힘의 순수한 계산이다. 농업 문명이 승리한 것은 도덕적 우월성 때문이 아니었다. 전쟁은 결국 어느 집단이 더 강한지를 드러내는 물리적 • 군사적 계산일 뿐이다. 아레스는 약자를 동정하지 않고, 오직 승자만을 인정한다.

이 네 기수 — 아자토스, 크툴루, 마몬, 아레스 — 는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결국 하나의 거대한 Gnon으로 수렴된다. Gnon은 우리에게 친절하지도, 잔인하지도 않다. 그것은 그저 현실일 뿐이다.

3. 인간의 목적론

울프 티비는 이 그논의 네 기수들과 함께 인간 고유의 목적론(telos)을 제시한다. 인간은 조정 문제(coordination problems)에 시달리지 않고 우월한 힘의 위협도 받지 않을 때, 정글의 법칙의 또 다른 대상이 아니라 정원사로서 행동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을 위한 훌륭한 세계를 건설하고 이끄는 경향이 있다. 좋은 것을 선호하고 나쁜 것을 피하며, 광택 나는 인도, 아름다운 예술, 행복한 가족, 영광스러운 모험이 있는 안전한 문명을 만드는 경향.

그러나 이 텔로스는 자동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Gnon의 네 기수들이 항상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각 Gnon의 구성 요소들은 지금까지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의 생각을 빚어내고, 우리의 부와 지배력을 만들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런 점에서 그것들은 분명 우리에게 유익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상황이 바뀌는 순간, 이들 각각은 언제든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진화는 역기능적으로 변하고, 밈적 환경은 점점 더 극단적인 광기를 부추기며, 생산성은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의 생존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기근으로 돌변하고, 우리가 군사적 힘을 방치하거나 외부의 강자에 압도당할 때 질서는 혼돈과 유혈사태로 뒤바뀐다. 이 모든 과정들은 본질적으로 선도 악도 아니다. 그것들은 철저히 중립적이며, 러브크래프트가 말한 공포의 의미에서 중립적이다. (Each component of Gnon detailed above had and has a strong hand in creating us, our ideas, our wealth, and our dominance, and thus has been good in that respect, but we must remember that each can and will turn on us when circumstances change. Evolution becomes dysgenic, features of the memetic landscape promote ever crazier insanity, productivity turns to famine when we can no longer compete to afford our own existence, and order turns to chaos and bloodshed when we neglect martial strength or are overpowered from outside. These processes are not good or evil overall; they are neutral, in the horrorist Lovecraftian sense of the word.)"

- , July 13, 2014 by Nyan Sandwich

이 과정들은 선하거나 악하지 않다. 러브크래프트적 의미에서 중립적이다.

4. Gnon을 포획하기 위한 기획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울프 티비의 대답은 "포획"이다. 이것이 문명화 프로젝트의 본질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다.

아자토스(진화)에 대해서는 무작위적이고 열생학(dysgenic)적인 자연선택 대신, 신중하고 보수적인 가부장적 제도와 우생학적 방향성을 가진 선택을 통해 인간 유전자를 관리한다.

크툴루(문화적 유전자)에 대해서는 “ 아이디어 시장 ” 의 무정부적 전파 대신, 진실과 장기적 선(善)을 구조적으로 선호하는 문화・교육・정보 체계를 구축한다.

마몬(기술 및 경제)에 대해서는 무제한적 착취와 단기 최적화 대신,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간의 존엄과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통제된 기술 발전을 추구한다.

아레스(전쟁・힘)에 대해서는 무력(武力)에 의한 주권을 가진 강력하고 안정적인 위계적 질서를 세워 내부 혼돈과 외부 침략으로부터 정원을 보호한다.

“ 전 세계를 한 번에 장악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작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정원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Gnon을 야생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고, 인간의 목표에 복무하도록 포획하는 것이다. (This need not be done globally; we may only be able to carve out a small walled garden for ourselves, but make no mistake, even if only locally, the project of civilization is to capture Gnon.) ”

- , July 13, 2014 by Nyan Sandwich

이것이 암흑계몽주의(Dark Enlightenment)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문명화 프로젝트의 본질이다.

다음 편에서는 이 모든 논의가 가장 일상적인 제도 — 결혼과 가족 — 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본다. 진보주의적 침투가 전통적 제도를 어떻게 공동화시키는지를 파헤쳐볼 예정이다.

- 참고 문헌 -

Nyan Sandwich, "Don't Trust God" (https://archive.md/g30Qa)

Nyan Sandwich, "Capturing Gnon" (https://archive.md/aN2L0)

제12편

전통과 제도의 붕괴와 현대 남성이 처한 문제

전통과 제도의 붕괴와 현대 남성이 처한 문제

1. 결혼이라는 전장

결혼은 이제 전장이 되었다. 이것이 과장처럼 들린다면, 통계를 보라. 이혼율은 오랫동안 5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혼의 70% 내외는 여성이 주도적으로 신청한다. 남성은 이혼 후 자녀 양육권, 재산 분할, 양육비 지급, 그리고 평생에 걸친 재정적 • 감정적 후유증에서 구조적으로 극도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성들에게 “ 아무리 결혼이 급해도 표독한 여성과 섣불리 결혼하지 마라 ” 고 솔직히 말하면, 사회적 • 도덕적 비난과 “ 이기적 ” , “ 성숙하지 못한 ” , “ 여성혐오 ” 라는 딱지가 붙는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분위기다.

롤로 토마시(Rollo Tomassi)는 자신의 에세이 「잃어버린 언약의 약탈자들(Raiders of the Lost Covenant)」(2019)에서 이 모순을 날카롭게 해부한다. 그는 자신이 23년째 지속되고 있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형태의 결혼을 젊은 남성들에게 권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밝힌다.

"네, 저는 7월이면 결혼 23주년이 됩니다. 네, 저는 여전히 같은 여자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혼한 적도 없고 이혼을 고려한 적도 없습니다. 제 결혼의 성공은 직접적으로 제 레드필 인식과 그것을 실천한 덕분입니다. [...] 그리고 네, 만약 내일 제가 미혼이 된다 해도 저는 재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저는 현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결혼을 어떤 젊은 남성에게도 좋은 생각이라고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꽤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MGTOW들이 즐겨 말하듯, 오늘날 결혼을 지지하는 것은 어린 양들을 도살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현재로서는 통계적으로 남성이 내릴 수 있는 최악의 결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남성들이 자신은 그 통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Yes, I ’ ll be married for 23 years in July. Yes, I ’ m still happily married to the same woman and have never been divorced, nor have I ever considered divorce. My marriage ’ s success is directly attributable to my Red Pill awareness and putting it into practice. [...] And yes, I would still never remarry were I to find myself single tomorrow – I simply cannot endorse marriage, as it exists today, as a good idea for any young man. Remember, this is coming from a guy with a damn good marriage. As MGTOWs are fond of saying, endorsing marriage today is leading the lambs to slaughter. I agree. It is simply, statistically, the worst decision a man can make in his life at present, yet so many men want to believe they won ’ t be one of those statistics.) ”

- , April 20, 2019 by Rollo Tomassi 링크: [https://therationalmale.com/2019/04/20/raiders - of - the - lost - covenant/]

이어서 토마시는 이렇게 말한다.

“ 근본적으로, 저는 일부일처제 결혼이라는 제도가 서구 문명의 성공을 이끈 주춧돌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좋은 개념입니다. 문제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 들어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는 방식이 남성에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지 중 하나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저는 비혼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전혀 예상치 못했고 - 세상이 다 잘 될 거라 믿었는데 - 어떻게 그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지? - 하이퍼가미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식의 결혼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Fundamentally, I think the institution of monogamous marriage has been one of the bedrocks of success for western civilization. Marriage is a good idea; it ’ s how we execute it in the late 20th and 21st centuries that makes it one of the worst prospects imaginable for men. So, I ’ m technically not anti - marriage; I ’ m anti - never - saw - it - coming - Pollyana - how - could - she - do - this - to - me ? - hypergamy ’ s - doesn ’ t - care marriage.) ”

- , April 20, 2019 by Rollo Tomassi

그는 결혼을 두 가지 유형으로 명확히 구분한다. 언약적 결혼(Covenant Marriage)과 계약적 결혼(Contractual Marriage).

언약적 결혼은 두 개인이 “ 함께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보다 낫다 ” 는 공유된 믿음, 상호 종교적 • 도덕적 헌신,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깊은 헌납에 기반한다. 이는 과거 서구 문명에서 결혼이 기능했던 이상적인 형태에 가깝다. 반면, 오늘날 지배적인 계약적 결혼은 이혼 시에도 재정적 지원(양육비, 재산 분할, 위자료 등)이 지속된다는 “ 보험 ” 을 핵심으로 하는 법적 • 경제적 계약이다.

토마시는 MGTOW(Men Going Their Own Way. '남자는 제 갈길 간다'. 페미니즘에 의해 타락한 여성 중심 사회로부터 남성 분리주의를 옹호하는 반페미니즘 커뮤니티를 의미한다.)들이 즐겨 지적하듯, 이것을 냉정하게 사업 계약으로 본다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어떤 남성도 서명하지 않을 계약이라고 말한다. 계약적 결혼은 본질적으로 결혼 - 이혼 - 부양 구조로, 남성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혼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막대한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 계약적 결혼이란 상호 지원을 기반으로 하며, 결혼 자체가 해소되더라도 이 지원이 계속될 것을 보장하는 형태입니다. MGTOW들은 이것을 불공정한 사업 계약에 비유하는데, 결혼이 아니었다면 제정신인 남성이라면 절대 서명하지 않을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 본질적으로, 계약적 결혼은 오늘날 남성들이 현명하게 주저하는 결혼 - 이혼 - 부양 구조입니다. 달록(Dalrock)은 한때 성 혁명 이후 "우리는 결혼을 통한 자녀 양육 모델에서 벗어나 양육비 지원을 통한 자녀 양육 모델로 이동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나는 계약적 결혼 모델이 기본값이 된 것이 이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The Contractual marriage is one based on mutual support and an insurance that this support will continue even if the marriage itself dissolves. MGTOWs liken this to a bad business contract that, were it not marriage, no right - thinking man would ever agree to sign off on. [...] Essentially, Contractual marriage is the marriage - divorce - support structure that men are wisely hesitant about today. Dalrock once noted that sometime after the Sexual

Revolution ‘ we moved away from the marriage model of child rearing and into the child - support model of child rearing ’ , and I think the Contractual model of marriage becoming the default was an integral part of this.) ”

- , April 20, 2019 by Rollo Tomassi

대부분의 남성들은 결혼할 때 여전히 언약적 결혼의 이상(로맨틱한 사랑, 평생 헌신, 상호 존중)을 꿈꾸지만, 법적 • 사회적 현실은 철저히 계약적 결혼이다. 이 괴리는 블루필 남성(Blue Pill Male. 여성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때로는 연애나 결혼 시장에서 물질적/감정적 이용만 당하고 실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남성)들을 파국으로 이끈다. 도파민과 엔도르핀에 취해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린 순간, 상향혼(hypergamy)은 냉정하게 작동하고, 국가는 여성에게 유리한 보상을 보장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 결혼의 본질적인 함정이다. 과거 일부일처제 결혼이 문명을 지탱했던 강력한 제도였던 이유와, 오늘날 그것이 남성에게 최악의 도박 중 하나가 된 이유를 토마시는 명확하게 구분한다.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하는 현대의 법적 • 문화적 실행 방식이다.

2. 페미니즘에 잠식된 교회

더 흥미롭고, 동시에 더 저평가된 현상이 있다. 페미니즘의 침투가 단순히 세속적인 법률 • 미디어 • 대학 제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이미 교회와 종교 공동체의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있다. 롤로 토마시는 《합리적 남성 - 종교(The Rational Male – Religion)》 집필을 위해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유대 랍비, 그리스 정교회 사제, 복음주의 목사 등)과 광범위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 현상을 직접 추적했다.

토마시는 이 현상을 냉정하게 경제적 선택 압력으로 설명한다. 현대 교회는 더 이상 순수한 영적 공동체가 아니라 사업적 프랜차이즈 모델로 운영된다. 서구 사회에서 교회의 주요 소비자(헌금의 주 공급원)는 여성이다. 따라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여성들의 (페미니즘에 의해 형성된) 감성을 거스르는 설교나 가르침을 피하려고 한다. 헌금이 줄고 교회가 쇠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 "또 한 번, 여성의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감수성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재정적 고려가 또 다른 종교 지도자에게서 전면에 드러납니다. 이것은 제가 네 번째 책을 시작한 이후 인터뷰해온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업 프랜차이즈가 되었으며, 불을 켜두기 위해 십일조 수표가 계속 들어오길 원한다면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서구 세계의 주요 소비자인 여성의 감수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 지도자들이 여성의 눈과 귀가 설교와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말 하나하나를 판단하며 목사가 '여성 편'인지 확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내면화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Once again the fiscal considerations of not offending women ’ s (feminist influenced) sensibilities comes to the fore in another religious leader. This has been a constant theme among the Pastors and church leaders I ’ ve been interviewing since I started the fourth book. Churches are business franchises today and if you want to keep the tithe checks forthcoming in order to keep the lights on pastors and church leaders need to prioritize the sensibilities of the primary consumer in the western world – women. It ’ s gotten to the point now that church leaders have internalized that women ’ s eyes and ears will be judging their words minutely in sermons and public appearances to ensure their Pastor is on ‘ team woman ’ .) ”

- , April 20, 2019 by Rollo Tomassi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편향이 아니라, 제도적 선택 압력(selection pressure)의 결과다. 여성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하고, 감정을 거스르는 교회는 쇠퇴한다. 수십 년이 지나면 살아남은 교회들은 자연스럽게 페미니즘적 기조를 내면화하게 된다.

3. 보수주의적・기독교적 남성혐오

이 관찰은 헤스티아(Hestia)가 2011년에 쓴 「Conservative Misandry」라는 글에서 날카롭게 분석한 현상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그녀는 반남성주의(misandry)가 좌파 페미니즘이라는 하나의 패키지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각종 장신구들로 예쁘게 포장된 “ 보수적 페미니즘(conservative feminism) ” 이 있으며, 이것이 종종 더 교묘하고 더 해롭다고 경고한다.

헤스티아가 열거하는 보수적 반남성주의의 주요 양상들은 다음과 같다.

(1) 남성을 ‘ 지갑 ’ 으로 취급하기

"사회 전반에서 남성은 걸어 다니는 ‘ 지갑 ’ 처럼 취급된다. 남성의 역할은 국가에 돈을 바치는 것—친자 확인을 위한 DNA 증명도 없는 경우가 태반인 양육비, 그리고 결혼이 틀어졌을 때 부과되는 위자료—을 포함하며, 데이트 비용은 여전히 남성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맞벌이 가정에서도 주된 생계부담은 보통 남성에게 지워진다.

보수적 세계관에서는 이 생계 부담이 한층 더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여성은 아이들과 함께 집에 머물 권리가 있다고 배우며, 남편이 이 생활수준을 유지할 만큼의 소득을 제공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거나 죄인이거나 신앙이 타락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디도서 2장 같은 ‘ 여성의 권리 ’ 를 지지하는 성경 구절들이 인용될

때, 아내에게 검소할 것을 당부하거나, 집에서 사업을 하거나, 채소밭을 가꾸어 식재료를 마련하라는 식의 협력적 의무는 언급되지 않는다. 여성의 협조 규칙은 없이 오직 남성에게만 엄격한 요구가 부과되는 것이다. 집에 머무는 것은 단지 여성의 권리일 뿐, 생계 부담을 함께 나누려는 책임은 없는 셈이다.

남성은 이러한 규범과 기대에 대해 불안, 고통, 불만을 표현할 수 없으며, 침묵 속에서 혼자 짐을 지도록 강요된다. 남성의 두려움은 지나치게 경시되어,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더 많은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을지 진지하게 걱정할 경우에도 그 불안은 "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 " 라고 치부되어 묵살된다. 그 불쌍한 남성은 결국 심장마비가 날 정도로 걱정하며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도 잃거나, 혹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경제적 실패—를 실제로 겪게 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Men As Wallets - In every part of society, men are now treated as walking breathing wallets. It is their job to hand over money to state through child support (usually without DNA proof of paternity) and alimony when marriages go wrong. Men are still expected to cover the bill for dating and they typically bear the burden of breadwinner even in two income households.

In the conservative world, the burden of work takes an even more troubling turn as woman are taught they have a right to stay home with their children and if their husband cannot afford to provide the standard of living that makes this necessary, then he is out of God's will, a sinner, or backslidden. When the talk turns to Titus 2 or other other verses used to support this women's right, there is not an admonishment to wives to be frugal, to be industrious and start a home business, a garden for cooking and canning, or so forth, just a strict requirement for men without a rule of cooperation on the part of women. Staying at home is simply her right, with no responsibility to aid the burden of breadwinning.

Men are not allowed to express their anxiety, anguish, or upset about this rule and expectation, but are made to suffer in silence, carrying their burden alone. In fact, men's fear is so poorly tolerated that should a man express genuine concern over not being able to have more children, for fear of feeding them in tumultuous economic times, his worry will be brushed aside and said to be the sin of "not trusting the Lord". The poor man is simply to worry himself to a heart attack, work more hours and miss out on the lives of his children, or risk having his worst fear - - that of being a financial failure - - come true.)"

- , January 27, 2011 by Hestia 보관된 링크: [https://web.archive.org/web/20110212015917/http://www.avoiceformen.com/2011/01/27/conservative-misandry/]

현대 사회 전체에서 남성은 살아 움직이는 지갑으로 취급된다. 보수적 종교 세계에서는 이것이 더 심각해진다. 아내가 집에 있을 권리가 있고, 남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된다. 여성 쪽에서의 책임이나 협력에 대한 요구는 없이.

(2) 남성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기

"우리 문화는 남성을 일회용품처럼 본다. 남성을 위한 보건부서는 아직 설립되지 않았고(비로소 논의가 조금 이루어지는 정도다), 남성에게 주로 영향을 미치는 질병 연구에는 여성 질병에 비해 훨씬 적은 예산이 배정된다. 또한 사회 전체가 남성에게 가장 고되고 위험한 일—석탄 채굴, 벌목, 경찰 업무, 군 복무 등—을 당연히 떠맡으라고 기대한다. 그들이 우리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보수적 페미니즘은 이를 한층 더 강화해, 남성에게 ‘현대적 기사도’의 의무를 지도록 요구한다. 일부 사역 단체들은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 당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위해 총알받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경멸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른 이들은 집안에서 더럽고 고된 일은 반드시 남편이 해야 하며,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면 남편이 확인해야 하고, 어떤 비상사태가 생기면 소화기를 다루거나 허리케인 대비용 판자를 박는 일도 남편 몫이어야 한다고 설교한다.

여성이 스스로 겸손히 배우고 남편 옆에서 함께 일하려 하거나, 상황이 필요할 때 스스로 자신의 영웅이 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많은 경우, ‘남자의 일’이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활동은 페미니스트적이므로 아내가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며, 실제로 해야만 하는 상황(예: 해외 파병된 군인의 아내인 필자처럼)에서도, 혹은 남편이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조차도 금기시된다.

게다가 남성들이 기사도적 의무를 떠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당부조차 없다. 그 대신, 이러한 특별 대우는 마땅히 기대해야 할 권리라는 식으로 가르쳐진다.(Men As Expendable - Our culture sees men as disposable. We have yet to establish an Office of Men's Health (though one is possibly in the works), do not provide the same amount of funding for diseases that primarily effect men as we do for women, and we collectively expect men to perform the most unpleasant and dangerous of jobs, from coal mining and logging to law enforcement and serving

in the military, without so much as an ounce of appreciation for putting their lives on the line for the enjoyment/protection of us all.

Conservative feminism takes this a step farther by expecting men to take on the responsibilities of modern day chivalry. Some ministries have publicly expressed contempt for men at Virginia Tech who did not take bullets for their women classmates when the tragic shooting occurred on the campus. Others preach that it must be husbands who do the dirty and gross jobs around the house, that is must be husbands who check for the bumps in the night, and that should there be an emergency of some sort, it better be the husband who is operating the fire extinguisher or hammering the boards before the hurricane arrives. There is no talk of women humbling themselves and learning to help alongside their husbands, if this is what their husbands would like, or being prepared to be their own heroes should a situation warrant this. On the contrary, in many instances, anything labeled as "mans work" will be considered a feminist activity and thus inappropriate for a wife to do, even if she must (as in the case of the wife of a deployed soldier like myself) or if her husband encourages her to help him with such tasks. There is not even admonishments to be appreciative of men for taking on chivalrous duties, but rather an expectation of such special treatment is taught.)"

- , January 27, 2011 by Hestia

보수적 종교 진영 일부에서는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때 자신의 여학우를 위해 총알을 맞지 않은 남성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남성은 스스로의 목숨을 여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기사도의 정의라면, 그것은 남성의 목숨을 여성보다 덜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3) 아버지를 ‘선택적 존재’로 취급하기

"오늘날 사회가 아버지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는 잘 알려져 있으며,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실은 교회 문턱에서 멈추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는 그 경멸이 대중문화만큼 노골적이진 않지만, 조금 더 은밀하게 감춰져 있을 뿐 여전히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는 종종 어린 자녀가 집에서 어머니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어머니 없이는 자라거나 번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모성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식으로 극찬되며 최고 수준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됨에 대한 찬사—혹은 아버지의 중요성에 대한 단순한 언급조차—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매우 두드러진다.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이

어머니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갓난아기부터 성년에 접어드는 청소년까지, 아이들은 아버지도 똑같이 필요로 한다.

보수 진영이 여성의 군 복무에 반대할 때 흔히 드는 이유는 " 아이들이 엄마를 그리워하고 필요로 한다 " 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파병되어 아이들을 뒤에 남기고 떠나는 현실은 논의에서 빠져 있으며, 고려조차 되지 않는다. 디도서 2장의 ' 여성의 역할 ' 이 논의될 때도 동일하다. 어머니가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의 중요성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지만, 아버지가 두 가지 직업을 병행하거나 주당 40시간 이상 일해 거의 아이들을 보지 못하는 현실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만약 아버지됨이 마땅히 부여되어야 할 높은 지위에 놓여 있었다면, 이러한 ' 아버지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무시 ' 가 반론 한마디 없이 당연한 듯 말해지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Fathers As Optional - We all know in what low regard fathers are held in today, and sadly this reality does not end at the church door. The contempt had for fathers may not be as open as it is in mainstream society, however, it's well and alive despite being a bit more hidden. We often hear talk about how much small children need their mother at home, how they cannot grow and thrive without them. We'll see motherhood elevated to the highest levels, being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and difficult job in the world. While this isn't a bad thing, the lack of high praise for fatherhood, or even mere mention of a father's importance, is striking. Yes children of all ages need their mothers, but they need their fathers just as much, from the bittiest baby to the teenager entering adulthood.

When conservatives bemoan women being in the military, the typical reason named is because the children miss and need their mothers. The reality of fathers deploying and leaving behind children is absent, not thought of at all. This is the same when the Titus 2 mandate is discussed. The importance of having mothers spending quantity time with their children is raised to the level of the highest importance, yet the reality of fathers perhaps working two jobs or more than 40 hours work week, and thus hardly seeing their children at all, does not warrant a mention. If fatherhood was being held in the high position it needs to be, this stunning disregard for daddies wouldn't be uttered without objections and dissent.)"

- , January 27, 2011 by Hestia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다. 아버지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군인 아버지가 부대에 배치되어 아이들을 떠날 때의 아이들에 대한 영향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여성이 군에 복무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아이들이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는 것이 언급되지만, 아버지가 아이들을 그리워하거나 아이들이 아버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4) 남성을 ‘ 변태 ’ 로 취급하기

"좌파 페미니스트들은 “ 모든 이성 간 성관계는 강간이다 ” 라고 주장하지만, 보수적 페미니스트들은 비록 강간이라는 극단적 범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건전한 남성의 성을 존중하는 태도 역시 갖추지 못한다. 보수적 세계관에서는 성과 관련해 해로운 고정관념이 무수히 존재한다. 먼저,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강간범으로 보지는 않더라도 잠재적 간통자로 본다. 아내들에게 성을 조종의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권유하는 책과 조언들이 존재한다. 여성들은 남편을 사랑하거나 가까이 있고 싶어서, 혹은 부부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을 기념하거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성적으로 친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도록 막기 위해 그래야 한다는 조언을 듣는다. 아름다워야 할 표현이 이렇게 순식간에 기만과 조작의 도구로 격하된다.

조금 덜 악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는 남성의 성욕을 경멸하는 태도다. 남성의 성적 욕망은 잘해야 ‘ 그냥 참아주는 것 ’ 정도로 여겨지고, 나쁘게는 여성이 기준이 되어 “ 정상적이지 않다 ” 며 일종의 일탈적 기능 장애처럼 취급된다. 혼성 모임에서도, 여성들끼리만 있을 때도, 남성의 성욕을 조롱하는 잔혹한 농담—남편이 항상 원한다는 말, 남편을 일부러 거절하며 비웃는 이야기, 그리고 건강한 남성의 생식력을 병리화하는 온갖 표현들—이 흔히 오간다.(Men As Perverts - "All heterosexual sex is rape" the leftist feminists proclaim, and while the conservative feminists may take the gross crime of rape off the table, a respect for healthy male sexuality they do not bring. In the conservative world, there are numerous harmful stereotypes floating about when it comes to sex. For starters, all men are not seen to be potential rapists but potential adulterers. There exist books and advice is shared that encourages wives to use sex as a means of manipulation. Women are being advised they need to be intimate with their husbands not because they love them and desire to be close to them, not for the bonding experience, not to celebrate this special gift God has given to married couples but rather to prevent their husbands from straying. What could be a beautiful expression is lowered to the level of deceit and manipulation just like that.

Perhaps not quite as sinister but still problematic is the contempt had for the male sex drive. A man's sexual desire is at best merely tolerated and at worst, looked at as a perverted dysfunction for he is not "normal" like a woman. Cruel jokes are often made by woman, both in mixed company and not, about a man's sex drive, remarks about how husbands always want it, laughter about denying one's husband, and many other words to pathologize healthy male virility.)"

- , January 27, 2011 by Hestia

좌파 페미니즘이 "모든 이성애 성관계는 강간"이라고 주장한다면, 보수적 페미니즘은 강간을 빼고 남성의 성욕을 성도착증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남편이 바람피우지 않도록 섹스를 해주라"는 조언이 넘쳐난다. 이는 섹스를 사랑의 표현, 친밀감에서 비롯된 축하,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대신, 남편을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다. 남성의 성욕은 "그냥 참아야 할 것"이거나 "여성과 달리 정상적이지 않은 욕망"으로 조롱의 대상이 된다.

(5) 남성을 '도덕성 없는 야만적 난봉꾼'으로 취급하기

"빅토리아 시대의 '집안의 천사'라는 관념은 여전히 살아 있으며, 오늘날 교회만큼 이 관념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도 드물다. 기사도와 남성의 전투적 역할이 여성을 특별 대우 속에서 문명화된 세계에 살게 해주는 기반이라는 점은 단 한 번도 숙고하지 않은 채, 여성은 더 문명적이고 더 도덕적이라는 주장이 오늘날 수많은 강단에서 웅변된다. (여성이 이혼의 70%를 먼저 제기하고, 수천만 명의 태아를 살해해 왔다는 사실—그 어느 것도 도덕적이거나 문명적이라고 할 수 없는 행동—은 애써 무시한 채 말이다.)

용기, 정의감, 공정함, 주도성 같은 전통적 남성 특성은 폄하되는 반면, 여성의 양육적 성향, 수동성, 포용적 사랑, 그리고 겸손함은 '도덕적 올바름'의 기준으로 격상된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도덕성 사이에는 중요한 균형이 존재하며, 양쪽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현실은 언급되지 않는다. 교회가 점점 더 여성화될수록 이러한 균형은 더욱 희미해지고, 그 과정에서 남성들은 서서히 교회를 떠나게 된다.(The Victorian "angel in the house" is still alive and well in today's world and nowhere does this appear to be more true than in the churches today. Never pausing for a brief moment to consider that the cherished idea of chivalry and men as soldiers allows women to live in a civilized world with special perks, the declaration of women as the more civilized & moral sex is shouted from many a pulpit today. (And nevermind that it is women who have initiated 70% of divorces and killed millions upon millions of precious babies, neither of which are moral or civilized by any definition...) Typical male traits, such as courageousness, justice,

fairness, and take charge initiation are denigrated so that female nurturing, passivity, openminded love, and modesty can instead be elevated as the correct way to be morality. The reality of an important balance existing between these two types of morality, making both worthy of celebration is never mentioned and becomes all the more downplayed as churches feminize further, pushing men from their pews.)"

- , January 27, 2011 by Hestia

많은 교회 강단에서는 여성을 " 더 도덕적이고 더 문명화된 성별 " 로 찬양한다. 남성의 용기, 정의감, 주도성 같은 특성은 폄하되고, 여성의 양육성, 수동성, 개방적 사랑이 진정한 도덕의 표준으로 격상된다. 기사도를 남성에게만 요구하면서 여성에게는 특별한 특권만을 보장하는 이중잣대가 교회 내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6) 모든 잘못은 남성 탓으로 돌리기

"오늘날 남성은 교회 안팎에서 온갖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내의 의도적 반항과 스스로 선택한 죄까지 남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주장이다. 일부 사람들은 " 남편이 아내를 더 잘 이끌기만 했다면, 그 여성은 죄를 짓지도 않고, 간통하지도 않고, 그런 식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 " 이라는 이단적 가르침을 설파한다. 남성이 올바르게 주도권을 행사했다면 아내는 순종하며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교단과 교회에서는 이것이 더 극단적 형태로 발전한다. 아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이 땅에서 남편에게 돌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영원에 걸친 책임까지 남편이 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어떤 강의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뜻과 지시를 거스르며 내린 결정조차, 남성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남편이 개입하지 않았고, 심지어 반대했던 행동들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이는 터무니없고, 명백히 이단적이다.(Men At Fault - Men are blamed for much in today's day and age, both in and out of the church, but the most disturbing fault I have ever heard placed on men is that of their wife's willful rebellion and self chosen sins. There are people preaching the heresy that if only men led their wives better, these women would never sin, commit adultery, or do anything of this sort. If men were taking charge correctly, their wives would submit to them and never do wrong. In some denominations and churches, this is taken a step further, not merely placing the burden of a wife's sin on a husband here on earth, but for all eternity as well. Lessons are being taught that state a man will

be held accountable to God for the decisions his wife made, including those that went against his wishes and directions. Actions of which the husband had no part. This is outrageous and heretical.)"

- , January 27, 2011 by Hestia

보수적 기독교 진영 내에서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교리 중 하나로서 “ 남편이 아내의 죄까지 책임진다 ” 는 주장을 꼽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교리는 성인 여성을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한다. 아내가 자발적으로 반항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을 파탄 내더라도 그 모든 책임은 결국 “ 남편이 충분히 잘 이끌지 못했기 때문 ” 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이는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왜곡한 결과로, “ 아담처럼 이끌어라 ” 는 말이 권위와 리더십이 아니라 무한 책임과 희생의 강요라는 명령으로 전락한 것이다.

여성을 영원한 어린아이처럼 다루면서, 동시에 남성에게는 신과 같은 완벽한 리더십을 요구한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구다.

(7) 남성을 ‘ 감정 없는 로봇 ’ 으로 취급하기

"남성과 남성성에 관한 터무니없는 관념들이 거리낌 없이 퍼지는 현실 자체가, 우리가 남성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남성의 감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허위 개념들이 확산되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문화는 남성의 감정 표현을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며, 그 틀을 벗어나는 소년 또는 남성에 대해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린다. “ 남자답게 굴어라 ” , “ 남자애는 울지 않는다 ” 같은 말은 유치원 놀이터에서부터 시작된다.

남성은 가장 잔혹한 말도 마음에 담지 않고 견뎌야 한다고 여겨진다. 남성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되 아무런 감사도 받지 못하며, 어깨 위에 놓인 수많은 부담을 덜어줄 정서적 지지도 기대할 수 없다. 모든 남성은 어려운 시기를 아무 도움 없이 헤쳐 나가야 한다고 여겨지고, 특히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이른바 ‘ 터프한 남자들 ’ 에게는 그들이 목격한 끔찍한 장면들을 모두 억눌러 담은 채 “ 강해져서 계속 전진하라 ” 고 요구된다. 남성들은 인생 전반에 걸쳐, 때로는 자살이나 심장마비, 정신적 붕괴에 이를 때까지 강해지라는 압박을 받는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비극이 벌어져도, 우리는 개인인 그 남성보다 그의 가족에게 더 많은 연민을 보낸다. “ 아, 불쌍한 아내와 아이들… 저 비극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 라는 식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남성이 정당한 모욕이나 부당함에 대한 분노조차 여성적 방식으로 표현하기를 요구한다. 그래야 여성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남성이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지시하려 하고, 남성의 경험을 ‘ 소유 ’ 하려 한다. 나아가 남성에게

남성성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규정하려 들고, 남성의 실제 경험을 재해석하려 한다. 남성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삶의 경험, 자신의 남성성을 스스로 소유할 권리를 허용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는 남성이 자기 방식대로 ‘남성다움’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남성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 한다.(Men As Unfeeling Robots - This final idea about men should be perfectly obvious with all the terrible ideas that are allowed to circle around about men and masculinity, for if we cared about men's feelings, these lies would not be allowed to spread. In our culture, we have a very narrow view on male emotional expression and are quick to judge a boy or man who does not fit into this stereotype. "Man up" and "boys don't cry" starts on the tot lot playground.

We expect men to be able to hear the most cruel of words and not take them to heart. Men are expected to put themselves on the line for others with no appreciation and no way to seek emotional support to ease the many burdens placed upon their shoulders. All men are expected to handle trying times without help or support and some men -- especially law enforcement, firemen, soldiers, and others we'd see as "tough guys" -- are expected to hold in all the terrible sights they have seen, man up and keeping going on. Men from all walks of life are told to toughen up all the way to a suicide, heart attack, or breakdown. And even then, we'll collectively feel for his family more than we will for him. "Oh his poor wife and children, I wonder how they are handling this tragedy."

We also expect men to express their anger at real slights in a feminine way, so we women feel most comfortable. Women seek to tell me how to feel. They seek to own the experiences of men. They attempt to tell men how masculinity should be lived and what they experienced. Men are not allowed to own their emotions, life experiences, or masculinity, for this makes women uncomfortable. Our culture attempts to silence them, to appease those who are scared of men being men on their own terms.)"

- , January 27, 2011 by Hestia

남성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로봇처럼 취급된다. 남성은 잔인한 말에도 상처받지 않고, 어떠한 희생도 묵묵히 감내해야 한다는 요구는 어린 시절부터 주입되며 이는 계속 남성에게 기대되는 요구이기도 하다. 특히 경찰, 소방관, 군인 등 ‘강한 남자’들은 트라우마를 혼자

삭여야 하고, 감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조차 약함으로 여겨진다.

결국 남성이 자살하거나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교회와 사회는 “ 그의 불쌍한 아내와 아이들 ” 에게만 동정심을 보일 뿐, 정작 고통받던 남성 본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남성의 감정적 고통은 체계적으로 무시되고 억압된다.

(8) 여성을 ‘ 아이 ’ 처럼 취급하기

"보수적 페미니즘을 논하는 마지막 주제로, ‘ 여성을 아이처럼 대하는 관념 ’ 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좌파적 페미니즘이 그렇듯, 보수적 계열 역시 우리를 유능한 성인 여성으로 성장시키거나 남편에게 진정한 동반자가 되게 하거나,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성숙한 역할을 하도록 돕지 않는다. 대신, 여성을 영원히 미성숙한 상태로 머물게 하려 한다.

남성의 가정적 권위는 종종 왜곡되어, 여성이 가정 내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사용된다. 이는 남편의 의무라는 것이다. 남편은 급여를 책임지고, 자녀 훈육도 담당하며, 집안의 모든 고된 일도 떠맡아야 하고, 아내는 아이들과 집에 머물지만 실제로 ‘ 집안일을 한다 ’ 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부담만 갖는 식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 어떻게 해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지 ” 묻도록 격려하는 문화는 없다. 결혼과 자녀 양육이 번영할 수 있도록 건강한 협력 구조를 만들거나, 함께 인생을 구축해야 할 남편의 짐을 분담하라는 가르침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이 담론은 책임보다 특권에 훨씬 집중되어 있으며, 그 결과 남편은 아내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을 떠안는 불균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Woman As Children - For my final note on conservative feminism, women as children is the topic I must bring up. Just as is the case with leftist feminism, the conservative strain does not seek to help us mature into capable adult women who can be true helpmeets to our husband and mothers to our children. Instead, it seeks to keep us as children forever.

Male headship is often twisted to mean that women do not ne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anything in their family for this falls in the husband's duties. A husband must provide the paycheck, the discipline for children, and all the hardwork around the house while the wife stays home with the children and doesn't truly work at home. Wives are not encouraged to ask their husbands what they need to best help them, to form a healthy type of cooperation in which a marriage and children can thrive, to help bear the load with the men with whom they are supposed to share and build a life with. The talk is most

often exclusively on privilege rather responsibility, leaving husbands with a lopsided bargain which adds far more the his plates of responsibility than to his wife's.)"

- , January 27, 2011 by Hestia

보수적 페미니즘의 또 다른 핵심은 여성을 영원한 아이로 유지하려는 태도다. 좌파 페미니즘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성숙과 책임감을 키우기보다는 “ 남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 는 프레임을 강화한다. 남편은 돈, 가사 노동, 아이 훈육, 영적 리더십 등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지만, 아내에게는 “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충분한 헌신 ” 이라는 메시지만 전달된다. 진정한 동료로서의 협력과 상호 책임은 사라지고, 여성의 일방적인 특권과 남성의 일방적인 책임만 남는다.

4. 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롤로 토마시가 에버렛 파이퍼 박사와의 대화에서 발견한 것도 바로 이 구조다. 교회 지도자들은 “ 성경적 남성 리더십(headship) ” 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그 리더십을 권위 없는 책임으로 완전히 재정의해 버렸다. 남성은 “ 가정의 머리 ” 라는 명예로운 칭호만 받고, 실질적인 결정권과 존중은 박탈당한 채 끝없는 책임과 실패에 대한 비난만 짊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현대 남성을 박대하는 종교계에 대한 모든 비판에 대해 돌아오는 답변은 언제나 똑같다.

"교회 지도자들과 논쟁할 때, 저는 단순히 “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 라는 주장 앞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맥락에서 레드필 사상을 논의할 때 또 다른 장애물입니다. 이 주장은 그들이 실제로 답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항상 내세우는 믿음에 대한 호소입니다. 혹은 오늘날 교회에서 여성 중심적 명령을 건드려 불쾌하게 만들까 두려워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 계약적 결혼 ’ 은 남성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선택입니다. 저는 이번 논의에서 남성들이 왜 이를 피하는지에 대해 최선의 근거를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일부 ‘ 공개석상에서의 목사 ’ 들은 설교단에서 남성들을 압도하고(AMOG) 결혼을 피하는 남성들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충동을 보이지만, 결혼 통계와 이혼이 남성에게 초래하는 인생 파괴적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모두 너무나도 검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결혼률과 이혼률은 무시할 수 없으므로, 남성들은 연역적(deductive) 판단에 따라 현실적인 대응을 선택하여 결혼을 피하거나 MGTOW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신앙심 깊은 기독교인의 사고방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오늘날 계약적 결혼이 남성이 내릴 수 있는 최악의 결정 중 하나일지라도— ‘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다 ’ ” 라는 식입니다.

“ 이혼에서 여성이 얻는 금전적 • 물질적 이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

“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다 ”

그래서 저는 우주의 창조주와 논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뛰라고 말씀하셨다면, 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합리적 반론에도 통하는 절대적 • 도덕적 승리 버튼입니다.(When it comes to debating church leaders I simply cannot win the “ God says so ” clause. This is another obstacle to discussing Red Pill ideas in a religious context. It ’ s an appeal to faith that is always the go - to response to issues I bring up that they have no real answer to. That, or they don ’ t want to answer for fear of offending the Feminine Imperative in the church today.

“ Contractual ” marriage is an all - downside proposition for men today. I tried to make my best case for why men shun it in the discussion. Naturally, there ’ s a common impulse for Publicity Pastors to AMOG from the pulpit and shame men for avoiding marriage, but they can ’ t argue against the marriage stats and the life - destroying fallout of divorce for men. It ’ s all too verifiable. The marriage & divorce rates today are unignorable, so men deductively go with the pragmatic response and avoid marriage or go MGTOW.

All that means nothing to the faithful Christian mindset. “ It doesn ’ t matter if contractual marriage is one of the worst decisions a man can make today – “ God says you should marry. ”

“ What about the incentive of cash & prizes women have in divorce? ”

“ Doesn ’ t matter, God said get married ”

So I can ’ t argue with the divine creator of the universe. God says jump, so you jump. That ’ s the absolutist - moralist win button for any rational argument to the contrary.)"

- , April 20, 2019 by Rollo Tomassi

“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 는 절대주의적 도덕 쟁탈전은 어떤 현실적 증거나 논리도 무력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보수적 종교가 페미니즘에 동화(assimilated)된 결정적

증거다. 표면적으로는 전통과 성경을 외치지만, 내용적으로는 여성 중심적 프레임을 철저히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5. 진보주의와 전통주의의 공통 구조

이 지점에서 커티스 야빈(Curtis Yarvin. a.k.a Mencius Moldbug)의 울트라칼뱅주의(Ultracalvinism) 테제가 강력한 분석 도구로 다시 빛을 발한다.

진보주의 페미니즘과 보수적 종교 페미니즘(혹은 보수적 기독교)은 표면적으로는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자는 가부장제를 근본적인 악으로 규정하고 해체를 외치며, 후자는 " 성경적 남성 리더십 " 과 전통적 성역할을 강조한다. 언어, 상징, 의식, 심지어 신에 대한 태도까지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헤스티아와 롤로 토마시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듯, 실질적 결과와 권력 구조, 특히 남성에게 부과되는 비대칭적 의무에서는 진보주의 페미니즘과 보수적 종교 페미니즘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만들어낸다.

- 둘 다 남성을 지갑으로 취급한다.

- 둘 다 남성의 감정 표현과 취약성을 억압하고 " 남자답게 굴 것 " 을 강요한다.

- 둘 다 아버지의 역할을 주변화하거나 선택적인 존재로 격하한다.

- 둘 다 여성을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가진 책임 있는 성인이 아니라,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존재로 위치시킨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야빈이 지적한 대로, 현대 진보주의(울트라칼뱅주의)는 기독교, 특히 칼뱅주의 - 청교도 전통의 직계 후손이며, 신학적 외피만 벗겨낸 암호 기독교(crypto - Christianity)에 가깝다. 같은 기본 구조가 다른 표면 단백질(surface proteins)을 달고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진보주의)는 평등 • 사회정의 • 해방이라는 세속적 언어로 포장되어 있고, 다른 하나(보수적 종교)는 성경적 역할 • 기사도 • 가족 가치라는 전통적 언어로 포장되어 있다. 하지만 핵심적인 도덕적 • 구조적 DNA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커티스 야빈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울트라칼뱅주의의 핵심 교리는 다음과 같다.

- 모든 인간의 보편적 형제애 / 평등

- 폭력의 무익함

- 자원의 공정한 분배 / 사회정의

- 전문가에 의한 사회 관리

진보주의가 “ 가부장제 타도 ” 를 외칠 때, 보수 기독교는 “ 남편이 더 잘 이끌어야 한다 ” 고 말한다. 언어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둘 다 여성 중심적 프레임을 강화하고, 남성에게는 권위 없는 무한 책임을 부과하는 동일한 비대칭 구조를 생산한다.

이것이 바로 야빈이 말한 “ 같은 바이러스가 다른 숙주에서 다른 증상을 일으키는 ” 현상이다. 울트라칼뱅주의는 세속화된 형태로 좌파를 지배하지만, 그 정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 보수적 ” 외피를 입고 번성하고 있다.

결국 좌우 양측의 페미니즘적 변종들은, 서로를 비난하면서도 남성에게 동일한 희생을 강요하고, 가족과 문명의 안정성을 공동으로 파괴하는 공범 관계에 놓여 있다. 진정한 차이는 이념적 포장이 아니라, 현실에 미치는 구조적 결과에 있다.

6. 맥기니스의 진화론적 렌즈

맥기니스(John O. McGinnis)의 다윈주의적 보수주의는 남녀 및 가족 문제를 순수한 경제적・문화적 관점이 아닌, 진화생물학적・유전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그의 에세이 「The Origin of Conservatism」(1997)에서 그는 진화론이 현대 보수주의의 강력한 지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가 친족 선택(kin selection) 이론이다. 우리는 수백만 년의 자연선택을 통해, 자신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특히 자녀)의 복지에 강한 관심을 갖도록 진화했다. 부모 - 자녀 유대는 특히 강력할 수밖에 없다. 자녀는 부모의 유전적 미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 “ 자녀는 부모의 유전적 미래를 대표하기 때문에, 부모 - 자녀 간의 유대는 특히 긴밀할 가능성을 지닌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들이 수세기 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인 단위이며, 가족 간의 애정은 단순한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심리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 (Because children represent a parent's genetic future, the parent - child bond has the potential to be particularly close. Thus, as conservatives have argued for centuries, the family is a natural unit of society, and family affections are not mere social constructs but are deeply rooted in our behavior and psyche.) ”
>
> - John O. McGinnis, “ The Origin of Conservatism, ” National Review, December 22, 1997 보관된 링크: [https://web.archive.org/web/20001113071703/http://www.nationalreview.com/22dec97/mcginnis122297.html]

이것은 세대 간 투자와 책임의 자연스러운 기반이다. 가족은 문화적 발명물이 아니라, 우리 종의 생물학적 본성에 깊이 새겨진 단위다. 따라서 가족을 강화하는 정책(강한 결혼 제도, 부성 투자 장려 등)은 단순한 도덕적 이상이 아니라, 진화적으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보험 체계다.

그러나 현대 계약 결혼 구조는 이 자연적 유인(incentive)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이혼 시 남성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양육권, 재산 분할, 장기 양육비)에 처하는 법・문화적 현실은, 남성이 결혼과 자녀 양육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동기를 체계적으로 약화시킨다.

레드필(red pill)/매노스피어(manosphere) 진영의 날카로운 논객 달록(Dalrock)이 지적한 대로, 우리는 성혁명 이후 "결혼 중심의 자녀 양육 모델"에서 "양육비 중심의 자녀 양육 모델" 로 이동했다. 결혼은 더 이상 아이를 함께 키우는 평생의 언약이 아니라, 이혼 후 국가가 강제하는 재정적 의무로 전락했다.

이 구조는 단순히 남성에게 불공평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녀에게도 치명적이다. 수십 년간의 심리학, 사회학, 범죄학 연구는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의 '인지 발달 지연, 정서 불안정, 학업 성적 저하, 청소년 비행, 성범죄・폭력 범죄율 증가, 미래 세대의 빈곤 대물림'과 같은 결과를 일관되게 보여준다. 이는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 확인된 경험적 사실이다.

다윈주의적 렌즈에서 보면, 아버지의 부재는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나 "개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집단적 유전자 투자 전략으로서의 가족 제도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다. 인간 남성은 다른 포유류에 비해 자녀 양육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편이지만(긴 유아기 때문), 현대 법제와 문화는 남성의 부성 투자를 처벌로 전환시켜 버렸다.

이 약화는 자연발생적인 현상이 아니다. 20세기 후반의 노폴트 이혼(no-fault divorce), 여성에게 유리한 양육권 판례, 페미니즘 영향 하의 가족법 개정 등 구체적인 법적・문화적 변화의 직접적 결과다. 이런 변화는 남성의 가족에 묶이는 본성을 약화시켜, 사회 전체의 불안정성과 남성의 과도한 공격성을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

결국 현대 결혼 제도는 진화적으로 최적화된 가족 전략을 해체하고, 여성의 상향혼과 국가 개입 중심의 비효율적 대체 구조로 대체한 셈이다. 이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문명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실험이다.

7. 크툴루가 왼쪽으로 헤엄치는 이유

진보주의적 아이디어들이 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사회 전체를 좌측으로 끌고 가는가? 그것이 더 진리에 가깝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들이 현재의 주요 아이디어 전파 제도 — 대학,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비정부기구, 그리고 행정부 관료조직 — 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커티스 야빈은 이 복합체를 대성당(The Cathedral)이라고 명명했다.

크툴루(Cthulhu)는 바로 이 대성당의 은유다. H.P. 러브크래프트의 그 끔찍한 고대 괴물처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항상 왼쪽으로만 헤엄친다.

> “ 크툴루는 천천히 헤엄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오직 좌측으로만 헤엄친다. 그것이 흥미롭지 않은가?(Cthulhu may swim slowly. But he only swims left. Isn ’ t that interesting?) ”

— MENCIUS MOLDBUG ・ JANUARY 8, 2009 링크: [https://www.unqualified - reservations.org/2009/01/gentle - introduction - to - unqualified/]

이 말은 단순한 풍자가 아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문화적 합의(Overton Window)가 장기적으로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관찰이다. 설령 일시적으로 우파적인 정책이나 수사가 나타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좌측으로 복귀하거나 더 극단적인 좌파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 메커니즘은 의식적인 음모가 아니다. 그것은 제도의 선택 압력(selection pressure)이다.

대학, 언론, 할리우드, 비영리 단체 등 아이디어를 생산・유통・강제하는 핵심 기관들은 진보주의적 프레임(평등, 사회정의, 피해자 중심, 다양성, 포용 등)을 내부 규범으로 내면화하고 있다. 이 제도들 안에서 경력을 쌓고, 지위를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좌파 방향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배제된다.

그리고 이 제도들을 통해 전파된 아이디어들은 교회까지 침투한다. 롤로 토마시가 관찰한 대로, 현대 교회 지도자들은 대형 교단을 유지하고 헌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구 사회의 주요 소비자인 여성들의 (페미니즘에 의해 형성된) 감성을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표류한다.

이것은 개인적 악의나 의식적 배신이 아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 압력이다. 여성 신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하고, 여성의 기분을 상하게하는 교회는 헌금이 줄고 신도가 이탈하며 쇠퇴한다. 수십 년, 수 세대가 지나면 살아남은 교회들은 거의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페미니즘에 대한 교회의 동화(assimilation)다.

결국 크툴루가 왼쪽으로만 헤엄치는 이유는 단순하다.

제도들이 특정 방향의 믿음 체계(진보주의적 • 평등주의적 • 여성 중심적)를 선택적으로 번식시키기 때문이다.

그 선택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 즉, 제도 자체의 구조와 인센티브를 재설계하지 않는 한 — 시간은 언제나 크툴루에게 유리하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사회 전체를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끌고 간다.

8. 진단 이후: 무엇이 남는가

보수적 종교와 진보적 세속주의는 표면적으로는 서로를 증오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울트라칼뱅주의 바이러스의 두 변종일 뿐이다. 결국 남성을 지갑이자 소모품이자 죄책감의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동일한 비대칭 구조를 생산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복할 수 없다. 혼돈을 숭배하거나 절망 속에서 체념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다.

남는 것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이해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명화 프로젝트뿐이다. 그논(Gnon)이 움직이는 과정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물어뜯는 이빨을 조직적으로 뽑아내는 작업이다.

몰드버그가 볼테르에게서 영감을 얻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데올로기적 풍선을 터뜨리는 역할을 자처했듯, 이 기획은 명쾌함에서 시작된다.

- 오늘날의 진보주의를 세속적 신학이라고 직설적으로 부르는 것.

- 진화론이 좌파에게는 평등주의 신앙에 위배되어 왜곡과 오남용의 대상이 되고, 우파에게는 성경적 세계관에 불편한 진실로 금기시되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

- 보수주의적 종교 안에 숨어 있는 반(反)남성주의를, 보수주의적 목소리로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

- “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 는 도덕적 승리 버튼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 작업은 어떤 전통 종교의 보호도, 어떤 진보주의적 이상의 위로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닉 랜드(Nick Land)가 말한 그논이 제시하는 근본적인 인식론적 겸손이다.

> “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Gnon은 그를 가리키는 별칭이다. 그렇지 않다면, Gnon은 그 '아님'이 무엇이든 그것을 지칭한다. [...] 그것은 신이나 자연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며, 오직 현실이 지배한다는 것만을 말해준다. (If there is a God, Gnon nicknames him. If not, Gnon designates whatever the ‘ not ’ is. [...] It tells us nothing about God or Nature, but only that Reality Rules.) ”

- May 30, 2013 by Nick Land 보관된 링크: [https://archive.md/kDYYO]

신이 있든 없든, 현실이 규칙을 만든다. 거기서 시작하라. 차갑고, 정직하고, 감상 없이.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다. Gnon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서, 그 어떤 의미 있는 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그 출발점에 서 있다.

다음 편에서는 종교라는 유전병의 기원과 진화, 유물론, 그리고 전통을 다시 파헤쳐볼 예정이다.

- 참고 문헌 -

, April 20, 2019 by Rollo Tomassi 링크: [https://therationalmale.com/2019/04/20/raiders - of - the - lost - covenant/]

, January 27, 2011 by Hestia 보관된 링크: [https://web.archive.org/web/20110212015917/http://www.avoiceformen.com/2011/01/27/conservative - misandry/]

John O. McGinnis, “ The Origin of Conservatism, ” National Review, December 22, 1997 보관된 링크: [https://web.archive.org/web/20001113071703/http://www.nationalreview.com/22dec97/mcginnis122297.html]

MENCIUS MOLDBUG • JANUARY 8, 2009 링크: [https://www.unqualified - reservations.org/2009/01/gentle - introduction - to - unqualified/]

May 30, 2013 by Nick Land 보관된 링크: [https://archive.md/kDYYO]

제13편

종교라는 유전병의 기원: 진화, 유물론, 그리고 전통의 재해석

종교라는 유전병의 기원: 진화, 유물론, 그리고 전통의 재해석

1. 침팬지의 비 춤: 유사종교의 씨앗

2006년 제인 구달 연구소가 공개한 영상이 있다.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의 수컷 침팬지들이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 나뭇가지를 격렬하게 흔들고, 리드미컬하게 발을 구르며, 집단적 흥분 상태에 빠져드는 장면이다. 구달은 이것을 " 비 춤(Rain Dance) " 이라고 명명했다. 이 행동에는 명확한 기능적 목적이 없다. 먹이를 구하는 것도, 포식자를 쫓아내는 것도, 영역을 방어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거대한 자연 현상 앞에서, 아무런 실용적 보상이 없는 집단적 의례적 행동을 수행할 뿐이다.

이것이 종교인가. 아니다. 그러나 종교의 가장 원시적인 씨앗처럼 보인다. 예측 불가능하고 압도적인 자연의 힘을 마주했을 때, 무의미해 보이는 반복적 • 집단적 행동을 통해 긴장과 흥분을 해소하고, 집단의 일체감을 확인하는 패턴. 수백만 년에 걸쳐 인간이 발전시킬 종교적 의례의 원형이 여기서 이미 희미하게 드러난다.

비슷한 씨앗들은 다른 지능 동물들에게도 존재한다. 코끼리는 죽은 동료의 뼈를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찾아가 오랫동안 만지고, 코를 감고,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자기 무리가 아닌 낯선 코끼리의 유골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 애도 ' 나 ' 기억 ' 의 표현으로 해석한다. 까마귀와 까치 같은 지능형 조류는 죽은 동료 주변에 모여들어 특정한 소리를 내고, 행동 패턴을 반복한다. 연구자들이 " 까마귀 장례식 " 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사회적 유대와 죽음에 대한 어떤 집단적 반응으로 보인다.

오랑우탄은 도구를 제작 • 사용하고, 개체마다 뚜렷한 성격과 문제 해결 스타일을 보이며, 때로는 거울을 인지하는 수준의 자기 인식을 드러낸다. 문어는 척추동물과 완전히 독립적인 진화 경로를 거쳐 놀라운 지능을 발달시켰다. 피부로 색과 질감을 순간적으로 바꾸는 위장 능력, 단기 기억을 넘어 장기 학습과 계획적 행동을 보이는 능력, 심지어 탈출과 문제 해결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사례까지 관찰된다.

씨앗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죽음에 대한 반응, 집단적 리추얼, 추상적 패턴 인식, 높은 지능 — 종교가 피어나기 위한 여러 요소들이 비인간 동물들 사이에도 흩어져 있다. 그런데 왜 이 씨앗들은 인간 외의 어떤 종에서도 본격적인 종교로 발화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캐물으려면, 단순히 " 지능이 부족해서 " 라는 안이한 답으로는 부족하다. 문제는 지능의 양이 아니라, 특정 인지 • 사회 • 전달 구조의 동시 충족에 있다. 침팬지의 비 춤은 그 자리에서 끝난다. 다음 세대에게 " 우리 조상이 폭풍 앞에서 이렇게 했고, 그것은 이런 의미였다 " 고 서사로 전달되지 않는다. 코끼리의 애도 행동은 강력하지만, 그것을 체계적인 조상 숭배나 내세관으로 발전시킬 언어적 • 문화적 메커니즘이 없다. 문어의 놀라운 지능은 개인적 • 단기적 문제 해결에 특화되어 있을 뿐, 세대를 넘어 축적되는

집단적 신념 체계를 만들어내기에는 사회 구조 자체가 너무 고독하다.

이 씨앗들이 인간에게서만 종교라는 강력한 바이러스로 증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에 가까운 인지적 • 사회적 조건의 결과였다. 다음에서 그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종교가 생길 유인: 네 가지 조건의 동시 충족

종교가 종교로서 폭발적으로 증식하려면, 단순히 한두 가지 요소가 아니라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그리고 충분한 수준으로 갖춰져야 한다. 이 조건들이 인간에게서만 완벽하게 정렬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적 선택압이 만들어낸, 치밀하고도 불가피한 결과물이었다.

첫째, 언어다. 구체적 경험을 추상적 서사로 전환하고, 그 서사를 공유하며, “ 보이지 않는 것 ” 을 개념화할 수 있는 강력한 언어가 필요하다. 침팬지의 비 춤은 그 자리에서 끝난다. 아무리 강렬한 집단적 환희를 느꼈다 해도, “ 우리 조상이 폭풍 앞에서 이런 의례를 행했고, 그로써 신의 노여움을 달랬으며, 다음 폭풍에도 이 의례를 반복해야 한다 ” 는 서사로 전달되지 못한다. 언어가 없으면 의례는 일회성 사건으로 소멸한다. 반면 인간은 언어를 통해 죽은 자의 이야기를 살아 있는 자들에게 영원히 되살리고, 보이지 않는 초월적 존재와의 ‘ 계약 ’ 을 세대 전체가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종교라는 바이러스의 가장 강력한 복제 • 전파 메커니즘이다.

둘째, 마음 이론(Theory of Mind)의 깊이다. 타자의 마음을 읽는 능력, 죽은 타자의 마음을 상상하는 능력, 그리고 결국 존재하지 않는 초월적 존재의 마음까지 추론하는 능력. 침팬지도 기초적인 마음 이론을 가지고 있다. 동료가 숨기고 있는 먹이를 ‘ 알고 있다 ’ 는 것을 이해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죽은 동료의 ‘ 영혼 ’ 을 상상하거나, 보이지 않는 신이 ‘ 분노하고 있다 ’ 고 추론하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인간의 마음 이론은 다층적이다. 1단계(타자가 나를 보고 있다), 2단계(타자가 내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4~5단계까지 올라가며 “ 신이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또 내가 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안다 ” 는 식의 고차원적 귀인을 가능하게 한다. 이 능력이 없었다면 종교는 결코 탄생할 수 없었다.

셋째, 집단 규모다. 로빈 던바(Robin Dunbar)가 밝힌 바와 같이, 영장류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한계는 뇌 크기, 특히 신피질 크기와 강하게 비례한다. 침팬지는 대략 50마리 정도, 인간은 약 150명(던바 숫자) 수준이다. 그런데 종교는 이 한계를 극복하는 강력한 스케일업 도구였다. 하나의 추상적 믿음, 하나의 신화, 하나의 의례 체계는 수천, 수만, 심지어 수백만 명을 ‘ 상상된 공동체 ’ 로 묶을 수 있게 만들었다. 혈연도, 직접적 호혜성도 필요 없는 낯선 타인들 사이에 ‘ 우리는 같은 신을 믿는다 ’ 는

믿음 하나로 충성심과 협력을 유발하는 것이다. 다른 동물은 그런 규모의 집단을 유지할 뇌 용량 자체가 없었고, 따라서 종교가 발달할 사회적 토대조차 갖추지 못했다.

넷째, 세대 간 전달 체계다. 의례와 서사, 금기와 신화가 정확하게 다음 세대로 복제 • 전수되어야 축적되고 제도화될 수 있다. 독거 생활을 하는 동물에게는 이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회적 동물이라 해도 언어와 안정적인 문화 전달 메커니즘이 없다면, 고작 1~2세대 만에 희미해지기 마련이다. 인간은 언어, 의례, 신화, 금기, 성스러운 물건, 예술, 건축 등 다층적인 전달 시스템을 통해 종교를 ' 영속하는 바이러스 ' 로 만들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춰진 것은 지구 역사상 인간뿐이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갖춰지는 과정 자체가 — 어떤 설계자의 의도가 아니라 — 순수한 진화적 선택압의 산물이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파스칼 보이어(Pascal Boyer)가 체계적으로 분석한 인지적 종교 이론이다. 보이어는 단순히 과잉능동적 행위자 탐지(Hyperactive Agency Detection, HADD)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HADD — 바람 소리에서 포식자의 의도를 읽거나, 우연한 재난에서 ' 의도된 벌 ' 을 읽는 인지적 오류 — 는 분명 중요한 씨앗이다. 틀려도 비용이 적지만, 맞으면 생존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자연선택이 강하게 밀어준 능력이다.

그러나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최소한으로 반직관적인 개념(minimally counterintuitive concepts)과 전략적 정보(strategic information)가 결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 죽은 조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 는 믿음은 직관(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과 반직관(그래도 지켜본다)을 적절히 섞어 기억에 잘 남고 전파되기 쉽다. 또한 신은 "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인간의 마음속 비밀까지 꿰뚫는다 " 는 식의 전략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덕적 감시자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인지적 장치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종교적 사고는 인간의 뇌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 감염력 높은 아이디어 ' 가 되었다.

결국 종교적 사고의 씨앗은 생존에 유리한 인지적 오류와, 그것을 증폭 • 전파하는 문화적 메커니즘의 만남에서 태어났다. 이 만남이 가능했던 것은 인간이라는 종이 진화적 루비콘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였다.

3. 벌과 개미, 그리고 인간의 어정쩡한 위치

벌집을 보면 종교가 왜 생겼는지가 역설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수만 마리의 벌이 하나의 거대한 초유기체(superorganism)처럼 움직인다. 노동벌은 먹이를 채집하고, 유충을 돌보고, 집을 청소하며, 병정벌은 침입자를 공격하고, 여왕벌은 오로지 알을 낳는다. 이 체계에는 설득도, 협상도, 명분도, 교리도, 이단 심문도 필요 없다. 그저 DNA의 명령대로 각 개체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실수나 배신의 여지가 거의 없다.

윌리엄 해밀턴(William D. Hamilton)의 포괄 적합도(inclusive fitness) 이론이 이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일벌은 자신의 번식을 거의 완전히 포기하고 여왕벌(자매)을 위해 일한다. 유전자 관점에서 보면 이는 완벽하게 합리적이다. 일벌과 여왕벌은 높은 확률로 유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여왕벌의 번식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의 유전자를 간접적으로 퍼뜨리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다. DNA가 공동체 행동을 거의 완벽하게 하드코딩(hard - coding)한 것이다. 개미 사회, 흰개미 사회도 마찬가지다. 이들 진사회성(eusocial) 곤충들은 혈연 선택(kin selection)을 극한까지 밀어붙여, 개인의 이기심을 집단의 초월적 조화로 승화시켰다.

인간은 이 구조를 갖지 못했다.

우리에게는 150명 정도의 소규모 무리까지는 혈연 관계와 직접적 호혜성(reciprocal altruism)으로 충분히 강력한 결속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농업혁명 이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도시와 문명이 등장하면서 수천, 수만, 수십만 명 규모의 협력이 필요해졌다. 낯선 타인, 심지어 적대적일 수도 있는 타인들과 대규모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DNA의 명령만으로는 명백히 부족했다. 유전자 공유율이 낮은 타인에게 " 너를 위해 내 자원을 희생하라 " 고 설득할 메커니즘이 필요했다.

그 간극을 메운 것이 바로 종교였다.

종교는 DNA가 미처 하드코딩하지 못한 영역을 문화적 소프트웨어로 채워넣는 강력한 메커니즘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종교를 단순한 ' 임시방편 보철물 ' 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문화적 집단 선택(cultural group selection)과 다수준 선택(multilevel selection)의 관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적응(adaptation)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 사회는 유전적 진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초사회성(ultra - sociality), 즉 혈연을 넘어선 대규모 비혈연 협력을 진화시켰다. 동일한 환경에서 여러 집단이 경쟁할 때, 내부 결속력이 강하고 협력 수준이 높은 집단(종교적 신념으로 무장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을 압도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공동의 신, 공동의 신화, 공동의 금기, 공동의 의례는 집단 내 신뢰를 비약적으로 높이고, 이탈 비용을 극대화하며, 집단 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했다. 벌과 개미가 유전자로 해결한 문제를 인간은 문화적 바이러스, 즉 종교로 해결한 것이다.

결국 인간은 진화적 스펙트럼에서 매우 어정쩡한 위치에 놓였다. 벌이나 개미처럼 DNA로 공동체 행동이 완벽하게 하드코딩되지도 않았고, 문어처럼 극도로 낮은 사회성을 가진 채 거의 독립적으로 사는 종도 아니었다. 우리는 충분히 사회적이면서도, 동시에 충분히 개체적이었다. 그 중간 지대(mezzo - sociality)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종교라는 인공적이고도 강력한 문화적 장치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장치는 원래의 목적 — 대규모 협력의 스케일업 — 을 넘어, 때로는 원래 메우려던 틈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1~7편에서 추적한 피와 학살과 억압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다. 종교는 분명히 적응이었으나, 동시에 강력한 부작용을 동반한 적응이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종의 비극이자, 우리 시대까지 이어지는 근본적 긴장이다.

4. 만약 다른 동물이 종교를 발전시킨다면

이것은 순수한 사고실험이다. 그러나 결코 헛된 공상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 종교의 본질을 가장 날카롭게 드러내는 거울이다.

가정해보자. 침팬지가 언어를 발전시키고, 마음 이론의 깊이가 인간 수준에 도달하며, 집단 규모가 수백에서 수천으로 확대되고, 세대 간 문화 전달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되었다고 말이다. 그러면 그들의 "비 춤(Rain Dance)"은 단순한 집단적 흥분 상태를 넘어, 체계적인 신학으로 발전할 것이다. 폭풍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늘의 분노' 또는 '신의 시험'으로 재해석될 것이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행위는 '신에게 바치는 의례'로 승화될 것이다.

코끼리의 경우, 죽은 동료의 유골을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애도하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내세관과 조상 숭배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죽은 자의 영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 생겨날 것이다. 까마귀의 '장례식' 행동 역시, 죽음에 대한 집단적 반응에서 출발해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한 의식',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신화로 발전할 것이다.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이미 인간 역사가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기 무리의 의례를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다른 무리의 의례는 자동적으로 '이단' 또는 '불경한 것'이 된다. 자기 신을 '절대적 진리'이자 '유일한 신'으로 선언하는 순간, 다른 신을 섬기는 무리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신의 적', '섬멸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된다.

단순한 영역 다툼이나 먹이 경쟁, 짝짓기 경쟁은 직접적으로 마주쳐야만 전쟁으로 번진다. 따라서 규모와 지속성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종교적 명분이 개입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친 적 없는, 심지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무리조차 ‘ 우리 신의 적 ’ 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동원이 가능해지고, 전사의 희생을 ‘ 신성한 순교 ’ 로 미화할 수 있으며, 전쟁을 중단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워진다. 적을 완전히 섬멸하거나 개종시켜야만 ‘ 신의 뜻 ’ 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동물 무리 간의 전쟁 원인이 하나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의 원인이 전쟁의 규모와 잔인성, 지속성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킨다. 종교적 명분을 가진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 신성한 의무 ’ 이자 ‘ 우주적 선악의 대결 ’ 이 되기 때문이다. 승리하면 신의 축복, 패배하면 신의 벌이라는 프레임이 전쟁을 영속화한다.

여기서 페르미 역설(Fermi Paradox)이 떠오른다. 우주가 이토록 넓은데, 왜 우리는 외계 문명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가능한 설명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충분히 지능이 발달하고, 대규모 사회를 형성할 수 있게 된 문명은 거의 필연적으로 ‘ 종교적 ’ 또는 ‘ 이념적 ’ 초월 서사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서사는 집단 간 갈등을 절대화하고, 결국 자기 파괴적 전쟁으로 이어진다. 우주적 스케일에서 보면, 고도로 발달한 문명은 스스로를 불태우는 경향이 강할지도 모른다. 인간 문명이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 오히려 기적에 가까운 예외일 가능성도 있다.

극도로 사회성이 낮은 단독 생활 종(solitary species), 예를 들어 문어와 같은 종이 종교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지 모른다. 그들은 대규모 집단을 형성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 광기와 이념적 학살의 유혹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보호받고 있다. 반대로 인간은 바로 그 ‘ 사회성 ’ 과 ‘ 지능 ’ 때문에, 종교라는 강력하면서도 위험한 문화적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존재가 되었다.

이 사고실험은 결국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종교는 인간이 진화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했던 대가였는가. 아니면 성공을 넘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부작용이었는가.

5. 진화의 매몰비용과 트레이드오프: 루비콘 강을 건넌 인류

우리는 이미 벌이나 개미처럼 DNA만으로 공동체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상태로는 절대 되돌아갈 수 없다. 이것이 가장 냉혹한 진실이다.

그 방향으로 다시 진화하려면 인간의 큰 뇌와 강렬한 개체성, 복잡한 감정과 추상적 사고 능력 자체를 대폭 포기해야 한다. 그런 진화적 경로는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수백만 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 지금의 인간 ’ 이라는 종은 사실상 사라져버릴

것이다.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여기에는 심각한 매몰비용(sunk cost) 문제가 존재한다. 인간의 큰 뇌, 특히 전전두엽 피질의 발달은 종교적 사고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 하드웨어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 뇌는 예술, 과학, 철학, 기술, 장기 계획 능력, 복잡한 사회 제도의 토대이기도 했다. 종교라는 ‘ 부작용 ’ 을 제거하기 위해 뇌 크기를 줄이거나 과잉능동적 행위자 탐지 능력을 약화시키려 한다면, 인류가 이룩한 거의 모든 고차원적 성취도 함께 사라질 위험이 크다. 진화는 모듈식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패키지 딜이다. 원하는 기능만 골라서 제거하거나 다운그레이드할 수 없다. 우리는 종교라는 바이러스를 얻는 대가로 문명 전체를 손에 넣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되돌릴 방법이 없다.

더욱 근본적인 트레이드오프도 존재한다. 과잉능동적 행위자 탐지(HADD) — 존재하지 않는 패턴에서도 의도와 주체성을 과잉으로 읽어내는 인지적 오류 — 는 종교적 사고의 핵심 기반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잘못된 패턴을 과잉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인간 창의성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다.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오류가 거의 없는 패턴 탐지기라면, 과학적 가설도, 예술적 비약도, 철학적 통찰도 나오기 어렵다. 약간의 오류와 미스파이어가 있어야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기존 프레임을 뛰어넘는 생각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종교를 뿌리째 뽑으려는 시도는 동시에 인간의 창의성과 상상력 자체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진화는 극도로 느리다. 반면 문명과 기술, 사회 구조의 변화 속도는 기하급수적이다. 이 속도의 불일치가 인류의 근본적 조건이자, 현대 문명이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의 기원이다. DNA는 여전히 수만 년 전 사바나 환경에 최적화된 채로 남아 있는데, 우리는 불과 수천 년 만에 농업, 도시, 국가, 글로벌 자본주의, 디지털 문명을 만들어냈다. DNA가 따라잡지 못하는 속도로 환경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진화적 부조화가 곳곳에서 폭발하고 있다. 종교 역시 이 부조화의 산물이자, 동시에 그 부조화를 더욱 증폭시키는 피드백 루프이기도 하다.

인류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종교라는 문화적 보철물 없이 150명을 넘어서는 대규모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해본 역사적 경험이 거의 없다. 그 보철물을 갑자기 제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실험 데이터도 충분하지 않다. 20세기 소련의 실험은 하나의 중요한 사례일 뿐이다. 그들은 전통 종교를 철저히 억압했지만, 결국 종교를 없앤 것이 아니라 ‘ 과학적 사회주의 ’ 라는 새로운 종교적 이념 — 절대적 진리, 이단 심판, 순교자 숭배, 미래 낙원 약속 — 으로 대체했을 뿐이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우리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상태에서, 종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냉정한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가. 제거한다면 그 대가는 무엇인가. 아니면 선택적으로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면서 공존할 수밖에 없는가. 진화론적 현실주의는 후자의 방향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러나 그 길 역시 결코 만만치 않다.

6. 종교라는 유전병적 저주

종교는 인간에게 유전병적 저주와 같다. 그것이 우연한 진화적 산물이든, 의도된 설계이든, 결론은 인간에게 잔인하다.

신이 없다면 — 상황은 이미 충분히 비참하다. 종교는 누구의 의도도 없이, 어떤 설계자도 없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낸 감옥이다. 자연선택의 부작용으로 태어난 인지적 바이러스. 우리는 충분히 똑똑해져서 이 바이러스가 초래하는 전쟁, 학살, 억압, 반지성주의, 그리고 수많은 개인적 비극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 존재 조건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다. 그것은 대규모 협력을 가능케 했던 문화적 적응이었고, 동시에 그 적응의 필연적 부작용이었다. HADD, 최소 반직관적 개념, 전략적 정보, 집단적 신성시 — 이 모든 인지적 장치가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의 생존과 번식에 기여해왔다. 이제 우리는 그 장치들이 만들어낸 감옥 안에 살고 있다. 뇌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종종 새로운 형태의 종교(이념, 컬트, 세속적 구원 서사)로 귀결된다. 불운한 진화적 트랩.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 깊이 빠지는 늪. 이것이 무신론적 유물론자가 직면한 가장 냉정한 현실이다.

신이 있다면 — 상황은 더욱 암울해진다.

전지전능하고 자비로운 존재가 인간의 인지 구조를 설계하면서, 의도적으로 " 종교 없이는 대규모 사회를 유지할 수 없는 " 취약점을 심어놓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 종교가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피를 부르고, 끝없는 전쟁과 학살과 억압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두었다면, 이는 단순한 방임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조적 저주에 가깝다. 4편에서 다룬 " 인신공양으로서의 역사 " — 수많은 세대가 신의 이름 아래 제물로 바쳐진 그 끔찍한 기록 — 이 우연이 아니라 설계의 일부였다면, 그 신은 인간에게 담보를 지운 채로 도망갈 수 없는 미로를 만든 장본인이다.

물론 이는 신학적 가정에 대한 철학적 반격일 뿐이다. 하지만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만약 초월적 존재가 존재한다면 그는 적어도 방관자 이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느 쪽을 가정하든, 인간에게 명확하게 유리한 시나리오는 없다. 종교는 우리를 살게 한 동시에 우리를 갉아먹는 기생충이다. 제거하려 하면 숙주도 함께 죽을 위험이 크고, 그대로 두면 서서히 피를 빨아먹는다.

그럼에도 에피쿠로스가 날카롭게 지적했듯, 신들이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 저주 역시 집행자가 없는 저주다. 설계된 감옥이든, 우연히 만들어진 감옥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구조를 인식했다는 사실이다. 완전한 탈출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적어도 맹목적으로 갇혀 있지는 않게 된다.

가느다란 줄 하나. 그것이 이 에세이 시리즈가 끝까지 붙잡고자 했던 유일한 희망이다. 종교를 신성시하지도, 완전히 제거하려 들지도 않고, 냉정하게 진화론적 현실로 바라보는 태도. 그 인식 자체가, 우리가 가진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자 가장 가느다란 탈출구다.

7. 필자의 유물론: 전통과 관습도 물질적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필자는 철저한 무신론자다. 그리고 철저한 유물론자다. 그러나 이 유물론은 변증법적 유물론을 외치며 혁명을 설파하는 사람들, 혹은 “진보”라는 이름 아래 전통을 ‘낡은 관념’으로 단죄하는 현대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유물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결론으로 이어진다.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냉정하고도 보수적인 현실주의로 귀결된다.

인간의 정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뇌의 수조 개 뉴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적 신호의 복잡한 패턴일 뿐이다. 의식, 감정, 도덕적 판단, 심지어 신에 대한 경외심까지도 — 모두 물질적 과정의 산물이다. 환원주의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현재까지 우리가 가진 가장 견고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다. fMRI, 뇌손상 연구, 신경과학의 축적된 증거들은 의식이 비물질적 영혼이나 초월적 실체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을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게 만든다.

인간의 행동양식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DNA라는 물질적 코드가 수십만 년에 걸쳐 새겨온 프로그램의 결과물이다. 생존, 번식, 공포, 욕망, 집단에 대한 충성 — 이 모든 것이 유전자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 물질적 전략들이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 ‘영혼’, ‘성스러운 계시’ 같은 형이상학적 관념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것들은 결국 특정한 뇌 상태, 즉 특정한 전기신호 패턴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가 이 시리즈에서 ‘야훼라는 이름의 바이러스’라고 부른 종교적 믿음 체계는, 비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물질적 뇌에서 복제・전파・변이되는 문화적 유전자, 즉 밈(meme)의 한 형태다. 그것은 유전병처럼 세대를 거쳐 감염되고, 숙주를 조작하며, 때로는 숙주를 파괴하면서도 자신의 복제를 우선시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 쌓아온 전통과 관습, 선입견, 도덕 규범, 사회적 금기들 역시 마찬가지로 물질적이다.

이것들이야말로 가장 방대하고도 구체적인 ‘ 물질적 데이터 ’ 다. 수억 명의 인간들이 생존하고 번식하고 경쟁하며 남긴, 뇌와 행동에 각인된 패턴들의 총합이다. 한 세대의 경험은 다음 세대로 언어, 의례, 이야기, 건축, 법률, 예술, 심지어 몸짓과 억양을 통해 물질적으로 전승된다. 이것은 단순한 ‘ 아이디어 ’ 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뇌의 신경 연결망을 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호르몬 반응 패턴을 바꾸고, 유전자 발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현실이다. 최근 문화유전학(cultural evolution) 연구들이 보여주듯, 전통은 단순한 추상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의 확장된 표현형이다.

유물론을 여기까지 철저하게 밀어붙이면, 역설적이면서도 필연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전통과 관습을 함부로 폐기하거나 경시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물질적 현실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수천 세대에 걸쳐 축적된, 수없이 많은 생존・번식・실패 실험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 낡은 관념 ” 이라며 관념론적으로 지워버리는 행위는, 유물론을 표방하면서도 가장 비유물론적인 태도다. 마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다고 하면서 하드웨어와 수십 년간 쌓인 데이터를 모조리 포맷하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이 데이터는 완벽하지 않다. 노이즈도 많고, 시대착오적 요소도 있으며, 권력에 의해 오염되고 왜곡된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인류가 가진 가장 거대한 빅데이터다. 무작정 폐기하고 ‘ 이성 ’ 이나 ‘ 평등 ’ 같은 추상적 원리로 새로 쓰려는 시도는, 수천 년 동안 실전에서 버그를 잡아가며 살아남은, 수없이 많은 엣지 케이스와 실패 패턴을 거쳐 안정화된 거대한 레거시 시스템 전체를, ‘ 이성 ’ 이라는 이론적 설계 원칙 하나만으로 완전히 새로 소스코드를 재작성한 뒤, 충분한 테스트 없이 바로 운영 환경에 배포하는 행위와 같다. 그 결과가 어떤 참사를 낳을지는 20세기 여러 이념 실험들이 이미 충분히 보여주었다.

필자는 전통을 신성시하지 않는다. 그것을 초월적 권위나 신의 명령으로 정당화하지도 않는다. 다만 냉정하게 말한다. 그것은 물질적이다. 따라서 무시하거나 파괴할 때도 물질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 유물론자라면 마땅히 그 대가를 계산해야 한다.

이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유물론이다. 신도, 영혼도, 진보의 필연적 도래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수천 년의 물질적 축적을 함부로 짓밟지 않는 현실주의. 종교를 바이러스로 보지만, 그 바이러스가 인간이라는 숙주를 여기까지 데려온 핵심 적응 중 하나였다는 사실 또한 부정하지 않는, 철저하면서도 냉철한 관점이다.

이 유물론은 좌우익 종교인 모두에게 불편할 것이다. 좌익에게는 전통을 함부로 부수는 행위가 유물론이 아니라 관념론적 폭력임을 지적하기 때문이고, 우익에게는 전통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 진화적으로 검증된(그러나 여전히 업데이트 가능한) 데이터로 본다는 점에서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불편함 속에, 우리가 종교라는 유전병을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 있다.

8. 변증법적 유물론과 진보주의의 역설: 유물론을 표방하며 유물론을 배반하다

여기서 가장 극명한 역설이 드러난다.

변증법적 유물론자들과 현대 진보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철저한 유물론자라고 자처한다. 그들은 " 의식은 존재의 반영일 뿐 " 이며, " 물질적 조건이 사회와 인간을 결정한다 " 고 외친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하는 행동은 유물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정면으로 배반한다.

그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인간의 뇌와 행동, 호르몬 체계와 신경 연결망에 물질적으로 각인된 패턴들 — 전통, 관습, 도덕적 선입견, 가족 구조, 성 역할, 공동체 규범, 생존 전략 — 을 " 낡은 관념 " , " 구시대의 잔재 " , " 내면화된 억압 " 이라는 이름으로 가볍게 치워버린다. 마치 그것들이 공중에 떠 있는 추상적 아이디어인 양, " 이성(理性) " 과 " 진보 " , " 평등 " 이라는 더 높은 관념으로 덮어쓸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노골적인 관념론이다.

진정한 유물론자라면 수천 세대에 걸쳐 수억 명의 인간이 생존하고 번식하고 실패하며 축적해온 이 거대한 물질적 데이터를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순한 " 생각 " 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뇌 구조를 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유전자 발현 패턴에 영향을 주고, 행동의 비용 - 편익 계산을 형성해온 물질적 현실 그 자체다. 최근 문화유전학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듯, 이러한 문화적 패턴들은 세대를 거치며 선택압을 받아온 결과물이며, 무작정 삭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패치가 아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 진보 " 라는 추상적 이념을 최고의 진리로 삼아, 수천 년 동안 검증된 레거시 시스템을 통째로 리라이팅하려 든다. 이것은 유물론을 표방하는 자들이 가장 비유물론적으로 행동하는 순간이다. 그들이 믿는 " 이성 " 과 " 역사의 필연적 방향 " 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초월적 • 형이상학적 실체가 되어버렸다. 신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 진보 " 라는 새로운 신을 앉힌 것이다.

이 구조는 기독교가 토착 신앙을 정복할 때와 놀라울 정도로 동일하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의 조상 숭배, 자연신 숭배, 토속 의례를 “ 미신 ” 이자 “ 악마 숭배 ” 로 규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파괴한 뒤 성경이라는 새로운 절대 진리로 덮어씌웠다. 수천 년 동안 그 사회의 생존과 결속을 지탱해온 물질적 • 문화적 데이터를 “ 사탄의 속임수 ” 라는 이름으로 무효화한 것이다.

현대 진보주의도 정확히 같은 메커니즘을 반복한다. 그들은 전통적 가족관, 성별 인식, 공동체 내 계층과 역할 분담, 외집단에 대한 경계심, 심지어 생물학적 현실에 기반한 일부 선입견들까지 “ 혐오 ” , “ 차별 ” , “ 내면화된 억압 ” 이라는 새로운 신학적 카테고리로 규정한다. 그리고 “ 포용 ” , “ 다양성 ” , “ 평등 ” 이라는 더 높은 도덕률로 그것들을 대체하려 한다.

둘 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인지적 • 문화적 폭력이다. “ 내가 가진 절대적 진리가 이전의 모든 경험적 데이터를 무효화한다 ” 는 오만함. 축적된 물질적 증거보다 관념적 당위성을 우선시하는 태도. 이전 세대들이 피와 실패와 생존으로 쌓아올린 빅데이터를, 자신이 계시받은 듯한 새로운 이념으로 포맷하는 파괴 행위.

차이점이 있다면, 기독교는 적어도 “ 신 ” 이라는 초월적 권위를 명시적으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반면 현대 진보주의는 자신들이 여전히 유물론자라고,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짓을 한다는 데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적 기만이자 자기모순이다.

철저한 유물론을 밀어붙이면, 오히려 보수적 결론에 가까워진다. 전통을 무조건적으로 숭배하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 낡은 관념 ” 이라는 관념론적 프레임으로 가볍게 폐기하는 행위만큼은, 유물론의 이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뜻이다.

전통은 본질적으로 물질적이다. 그것을 무시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유물론자가 아니다. 관념의 포로가 된다.

9. 전통과 선입견: 진화론적 빅데이터로서의 재해석

전통과 선입견을 이제 다르게 읽어야 한다. 그것들을 단순한 “ 구시대의 편견 ” 이나 “ 비합리적 미신 ” 으로 치부하지 말고, 진화론적 빅데이터로 재해석해야 한다.

인간이 수천 세대에 걸쳐, 수억 명의 생존과 번식, 실패와 성공의 결과를 통해 축적해온 거대한 데이터셋. 그것이 바로 전통과 선입견의 본질이다. 이 데이터는 무작위로 쌓인 것이 아니라, 극도로 혹독한 현실 세계라는 학습 환경에서 반복적인 선택압을 받아온 결과물이다. 한 세대의 경험은 다음 세대로 언어, 이야기, 의례, 금기, 속담, 관습의 형태로 물질적으로 전승되며, 살아남은 패턴은 강화되고, 실패한 패턴은 점차 도태된다.

물론 이 빅데이터는 완벽하지 않다. 100% 정확할 수도 없고, 그래야 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대다수 케이스에서 충분히 잘 작동하는 휴리스틱이라는 점이다.

선입견(prejudice)의 본질적인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다. “ 예외 케이스까지 모두 고려하다가 판단 속도가 늦어져 생존에 불리해지는 것 ” 보다, “ 대체로 맞는 일반화로 빠르게 판단하고, 드문 예외는 트레이드오프(trade - off)로 감수하는 것 ” 이 진화적으로 유리했다.

예를 들어 “ 낯선 집단 출신의 사람은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 ” 는 선입견은, 실제로 그 집단이 적대적이었던 환경에서는 생존율을 높여주었다. 모든 낯선 사람을 일일이 검증하다가 한 번만 실수하면 죽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이런 빠른 패턴 인식은 강력한 적응 전략이었다. 현대인이 보기에는 ‘ 차별 ’ 로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수만 년 동안 인류를 사바나와 빙하기를 거쳐 여기까지 데려온 실전 검증된 알고리즘이다.

문명권마다 선입견과 전통이 약간씩, 때로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이 관점에서 명확해진다. 각 문명은 처한 지리적 • 기후적 • 역사적 조건이 달랐다. 지중해 연안의 무역 중심 사회와 고산지대의 폐쇄적 농경 사회, 혹한의 유목민 사회와 열대 우림의 정주 사회가 최적화해야 할 생존 전략은 당연히 달랐다. 따라서 그들이 축적한 ‘ 빅데이터 ’ — 즉 문화적 선입견 — 도 지역적으로 특화된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발달한 문화들 사이에서도 수렴진화(convergent evolution)가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살인 금지, 혈연에 대한 우선적 보호, 공동체 내부에서의 협력 장려, 부모의 자식 양육 의무, 배신자에 대한 처벌 규범 등은 거의 모든 장기 생존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규범들이 강력한 생존 • 번식 이점을 제공한다는 진화적 증거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선입견일수록, 그만큼 강력하게 검증된 데이터라는 의미다.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이 빅데이터와 현실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mismatch)가 발생했다.

산업혁명, 현대 의학, 피임 기술, 복지국가, 도시화, 글로벌화 등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냈다. 과거에는 후손 번식에 불리했던 유전적 • 행동적 특성(예: 낮은 충동조절 능력, 과도한 위험 선호, 장기적인 계획 능력 부족 등)을 가진 개체들도 이제 쉽게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선택의 압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이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기존 전통과 선입견 중 어떤 것이 여전히 유효하고, 어떤 것이 구시대의 잔재가 되었는지 — 솔직히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규모의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을 진행 중이다. 불과 수십 년, 길어야 2~3세대라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전례 없는 사회적 • 기술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 실험의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현대 진보주의는 마치 실험의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한다. “전통은 모두 억압이다”, “선입견은 모두 혐오다”, “가족・성(性)・국가 개념은 모두 해체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수십 년 단위의 이념적 확신으로 수천 년 단위의 진화론적 빅데이터를 통째로 덮어쓰려 한다.

이것은 데이터 과학적으로 극도로 무모한 짓이다.

진화론적 유물론은 여기서 냉정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정말로 수천 년의 데이터를 폐기할 만큼 강력한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관념적 당위성과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실험을 인류 전체에게 강제하고 있는가?

전통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가진 가장 방대하고, 가장 오래 검증된 데이터베이스다. 그것을 경시하거나 파괴할 때는,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유물론자의 태도다.

10. 커티스 야빈의 전통 분류학: 진화론적 렌즈

커티스 야빈(Curtis Yarvin, a.k.a Mencius Moldbug)은 자신의 에세이 「도킨스는 어떻게 몰락했는가 제2부(How Dawkins Got Pwned, Chapter 2)」에서 전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다. 그는 도킨스의 밈(meme) 개념을 빌려오면서도, 그것을 더 정교하고 가치중립적인 언어로 재정의한다.

그는 먼저 용어를 정리한다.

> “세대를 넘어 전파될 만큼 안정적인 밈플렉스를 전통이라고 부르자. 이 단어는 실제 영어 단어일 뿐 아니라, 가치중립적이라는 미덕도 있다. 어떤 성향을 가졌든 입에 거품을 무는 광신도가 아닌 이상, 세상에 좋은 전통과 나쁜 전통이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Let's call a memeplex stable enough to propagate across generations a tradition. Not only is this an actual word in the actual English language, it also has the virtue of being nonjudgmental. Surely anyone who is not a complete, foaming-at-the-mouth fanatic, of whatever persuasion, can admit that the world contains both good traditions and bad traditions.)”
>
> - , Mencius Moldbug ・ OCTOBER 4, 2007 링크: [https://www.unqualified-reservations.org/2007/10/how-dawkins-got-pwned-part-2/]

이 재정의는 단순한 용어 바꾸기가 아니다. 종교, 관습, 도덕 규범, 정치 이념, 사회적 선입견을 모두 동일한 분석 단위 — ‘전통’이라는 하나의 범주 — 안에 넣는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하다. 종교는 더 이상 특별한 초월적 현상이 아니라, 세대 간에 안정적으로 복제되는 문화적 복합체, 즉 밈플렉스의 한 형태일 뿐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도,

유교도, 현대 진보주의도, 심지어 과학적 합리주의조차도 모두 ‘ 전통 ’ 이라는 렌즈로 비교 •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야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통을 평가하는 실질적인 분류 체계를 제시한다. 그는 두 가지 축 — 미제스주의와 다윈주의 — 을 기준으로 전통이 숙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 전통이 숙주로 하여금 개인적 목표를 해치는 오판을 하게 만든다면, 그 전통은 미제스적 병적 상태를 보이는 것이다. 전통이 숙주로 하여금 자신의 유전자 번식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면, 그 전통은 다윈주의적 병적 상태를 보이는 것이다. 전통을 따르는 것이 개인적으로 유리하거나 중립적이지만(이탈자가 보상받거나 최소한 처벌받지 않는) 집단적으로 해롭다면, 그 전통은 기생적이다. 전통을 따르는 것이 개인적으로 불리하지만 집단적으로 유익하다면, 그 전통은 이타적이다. 개인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유익하다면 공생적이다. 개인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해롭다면 악성이다. (If a tradition causes its hosts to make miscalculations that compromise their personal goals, it exhibits Misesian morbidity. If it causes its hosts to act in ways that compromise their genes' reproductive interests, it exhibits Darwinian morbidity. If subscribing to the tradition is individually advantageous or neutral (defectors are rewarded, or at least unpunished) but collectively harmful, the tradition is parasitic. If subscribing is individually disadvantageous but collectively beneficial, the tradition is altruistic. If it is both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benign, it is symbiotic. If it is both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harmful, it is malignant.) ”
>
> - , Mencius Moldbug • OCTOBER 4, 2007

이 분류는 냉정하면서도 실용적이다. 전통을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숙주(개인)와 집단에 미치는 실제 비용 - 편익으로 평가한다. 미제스적 측면은 개인의 합리적 판단과 목표 달성을, 다윈주의적 측면은 유전자 번식 성공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분류 체계를 종교에 적용하면 매우 흥미로운 동역학이 드러난다.

인류 초기의 원시 종교들은 대체로 이타적(altruistic) 성격이 강했을 가능성이 크다. 개인에게는 상당한 비용(희생, 금욕, 자원 헌납)을 요구하지만, 집단의 내부 결속력과 협력 수준을 극적으로 높여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주었다. 전쟁, 기근, 자연재해가 빈번했던 환경에서 공동의 신화와 의례는 집단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소프트웨어였다.

그러나 종교가 제도화되고, 권력과 결합하면서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성직자 계급과 종교적 지배층에게 종교는 공생적(symbiotic)으로 작동했다. 그들은 종교를 통해 지위, 부,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일반 신도들에게는 점차 기생적(parasitic)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십일조, 면죄부, 순교 강요, 세속적 쾌락의 억압 등은 개인에게는 명백한 비용이었지만, 지배층에게는 이익이었다.

더 나아가 종교 간 경쟁과 전쟁이 반복되면서, 전체 문명 수준에서는 악성(malignant) 국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우리 신만이 진리 ” 라는 믿음은 집단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부 집단에 대한 무한한 적대와 정복 의지를 정당화했다.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파괴적 순환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바로 야빈의 언어로 재구성한, 필자의 에세이 시리즈가 추구하는 핵심 논점이다.

종교는 진화적으로 성공한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을 지닌 문화적 적응이다. 초기에는 집단 생존에 크게 기여했던 이타적 • 공생적 전통이, 권력과 제도와 결합하면서 기생적 • 악성 요소를 축적해온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미제스적/다윈적 병적 상태 — 개인적 • 유전적 비용 — 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야빈의 프레임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구를 준다. 전통을 감정적으로 숭배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진화론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필요하다면 선택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분석적 렌즈를 제공한다. 종교를 포함한 모든 전통은 이 렌즈 앞에서 그 진정한 성격 — 공생인가, 기생인가, 악성인가 — 을 드러내야 한다.

11. 닉 랜드의 논평: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찰스 다윈의 연대

닉 랜드(Nick Land)는 「암흑계몽주의 제3부(The Dark Enlightenment, Part 3)」에서 커티스 야빈의 미제스주의/다윈주의 분류 체계에 대해 날카로운 논평을 덧붙인다. 야빈이 전통을 개인적 합리성과 유전자 번식이라는 두 축으로 평가한 데 대해, 랜드는 이 두 축이 겉으로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근본적으로 ‘ 이기적 ’ 인센티브의 연합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랜드는 이렇게 논평한다.

> “ 행동적 관점에서 보면, 미제스주의 체계와 다윈주의 체계는 각각 재산 축적과 유전자 번식을 지향하는 ‘ 이기적 ’ 인센티브의 집합체다. 다윈주의자들은 ‘ 미제스주의적 ’ 영역을 유전적 자기 이익 동기의 특수 사례로 파악하는 반면, 신칸트주의적 반자연주의에 뿌리를 둔 오스트리아 전통은 이러한 환원주의에 저항하는 성향이 있다. 이 논쟁의 궁극적 함의는 상당하지만, 현재 조건 하에서는 시급성이 낮은 사소한 다툼에 불과한데 — 두 진영 모두 ‘ 혐오 ’, 즉 부적응자를 처벌하는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반동적 관용에서 일치하기 때문이다.(Behaviorally considered, the Misesian and Darwinian systems are clusters of ‘ selfish ’ incentives, oriented respectively to property accumulation and gene propagation. Whilst the Darwinians conceive the ‘ Misesian ’ sphere as a special case of genetically self - interested motivation, the Austrian tradition, rooted in highly rationalized neo - kantian anti - naturalism, is pre - disposed to resist such reductionism. Whilst the ultimate implications of this contest are considerable, under current conditions it is a squabble of minor urgency, since both formations are united in ‘ hate ’ , which is to say, in their reactionary tolerance for incentive structures that punish the maladapted.) ”

- , 19 March, 2012 by Nick Land 보관된 링크: [https://web.archive.org/web/20120723151556/http://www.thatsmags.com/shanghai/article/1920/the - dark - enlightenment - part - 3]

랜드가 말하는 ‘ 혐오(hate) ’ 는 현대 좌파가 즐겨 사용하는 도덕적 낙인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이 부적응자를 처벌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인정하고 용인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은 손실을 보고, 번식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은 후손을 적게 남긴다. 미제스주의(자유지상주의 경제학)는 재산과 계약의 실패를, 다윈주의(진화생물학)는 유전적・행동적 부적응의 대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둘 다 “ 현실이 현실답게 작동하도록 ” 허용한다는 점에서 연대한다.

이 지점에서 현대 진보주의의 근본적 적대성이 드러난다.

진보주의는 바로 이 “ 부적응자를 처벌하는 인센티브 구조 ” 자체를 해체하려 한다. 시장에서 실패한 이들을 복지로 보호하고, 진화적으로 불리한 특성을 사회적으로 수용하며, 자연선택의 압력을 이념적・제도적 힘으로 무력화하려 한다. “ 모두가 승자 ” 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 “ 혐오 발언 ” 규제, 긍정적 차별 등은 모두 자연적・경제적 피드백 루프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는 시도다.

이것이 진보주의가 자유주의자와 다윈주의자 모두에게 근본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이유다.

자유지상주의자(특히 고전적 자유주의・오스트리아학파)에게 진보주의는 재산권과 개인적 책임이라는 미제스주의적 원칙을 파괴한다. 다윈주의자에게는 유전자 번식과 적합도(fitness)에 대한 현실 인식을 거부하는 반자연주의적 환상이다. 랜드가 지적하듯, 미제스와 다윈은 서로를 완전히 환원하지는 않지만, “ 부적응자를 처벌하는 구조 ” 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동맹이다. 진보주의는 이 동맹의 공통 기반을 공격함으로써,

현실의 물질적 선택압 자체를 거부한다.

결국 이것은 진보주의가 유물론을 표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관념론으로 작동한다는 증거다. 그들은 현실의 물질적 구조(시장의 실패, 생물학적 차이, 진화적 비용)보다 “평등”·“포용”·“정의”라는 추상적 이념적 당위를 우선시한다. 수천 년의 진화론적 빅데이터와 실전 검증된 인센티브 구조를,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회공학 실험으로 대체하려는 태도는 — 앞서 말한 대로 —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테스트 코드와 디버깅없이 무작정 리팩토링한 다음, 이를 운영 서버에 배포하는 것과 같다.

랜드와 야빈의 관점은 우리에게 냉정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정말로 자연과 시장이 부적응자를 처벌하는 메커니즘을 영원히 해체할 수 있다고 믿는가? 아니면 그 메커니즘을 약화시킬수록, 결국 더 큰 규모의 붕괴(인구 절벽, 경제 정체, 삶의 의미 상실, 사회적 해체)가 찾아올 것이라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가?

이 논의는 단순한 이념 논쟁을 넘어선다. 그것은 인간 사회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적 인센티브 — 보상과 처벌, 적합과 부적합 — 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고 진보주의가 이 질문을 철저히 거부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과학적·유물론적 입장이 아니라 새로운 세속 종교가 된다.

12. 철저한 유물론이 도달하는 보수적 결론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하면 하나의 날카로운 역설적 결론에 도달한다.

유물론을 가장 철저하고 일관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보수적 결론에 이른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결론과 정반대다. 보통 유물론이라고 하면 종교와 전통을 해체하고, 이성과 진보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새로 쓸 수 있다는 급진적 태도가 따라올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물질적 현실을 끝까지 직시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인간의 뇌와 행동, 호르몬과 신경계에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 각인된 전통과 관습은 단순한 ‘문화’나 ‘관념’이 아니다. 그것들은 진화론적 빅데이터이며, 물질적 현실 그 자체다. 선입견은 대다수 경우에 잘 작동하도록 최적화된 휴리스틱이며, 부적응자를 처벌하는 인센티브 구조(시장의 실패, 사회적 배제, 번식 경쟁에서의 패배)는 집단의 장기적 생존과 적합도를 유지해온 강력한 물질적 메커니즘이다.

이것들을 “낡은 것”, “억압”, “혐오”라는 이름으로 추상적 이념 — 이성, 평등, 포용, 진보 — 으로 무효화하고 덮어쓰려는 시도는, 유물론이 아니라 가장 노골적인 관념론이다. 현실의 물질적 증거보다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적 당위성을 우선시하는 태도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생긴다.

필자가 생각하는 바는 종교적 보수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종교적 보수주의는 전통을 신성한 것으로, 신이 명령한 불가침의 영역으로, 초월적 권위에 의해 정당화된 것으로 본다. 그들에게 전통은 ‘거룩함’의 문제다. 반면 우리가 도달한 입장은 철저히 세속적이고 냉정하다. 전통을 신성시하지 않는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나 ‘조상의 영혼’으로 미화하지도 않는다. 다만 진화적으로 오랜 기간 검증된 데이터라는 이유로, 냉철하게 존중한다. 그것이 수억 명의 생존과 번식 실험을 거쳐 남은, 현재로서는 대체 불가능한 물질적 축적이라는 점에서 인정한다.

결국 필자의 입장은 이렇다.

전통이 현대 사회와 불일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한다. 환경이 급변한 현대 사회에서 일부 관습과 선입견은 더 이상 최적이지 않을 수 있다. 새로운 조건 아래에서 선택적 업데이트와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다만 그 업데이트는 수십 년 단위의 이념적 환상이나 도덕적 과시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 조건 아래서 축적되는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작정 파괴가 아니라, 신중한 리팩토링(refactoring)과 A/B 테스트에 가까운 태도다.

종교도 아니고, 진보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감상적•낭만적 보수주의도 아닌 제3의 길.

진화론적 유물론에서 출발하는 냉정한 현실주의. 인간을 도덕적•이성적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생물학적•행동적 존재로 먼저 놓고 보자는 철저한 현실주의다. 선형적 진보 서사, 인간 본성을 교육과 제도로 교정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적 환상, 진보주의적 도덕과 이념을 통한 근본적 인간 개조 가능성을 냉정하게 거부하며, 다윈주의적 관찰과 역사적 데이터를 출발점으로 삼는 사유의 흐름. 그리고 보편 종교 탄생 이전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전통과 관습을 분석하고 여기서 도출된 진리로 되돌아갈 것을 검토하는 사유의 흐름. 어쩌면 이러한 필자의 견해를 '인류학적 반동주의(Anthropological Reactionism)'라는 이름으로 명명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이 에세이 시리즈 전반에서 암묵적으로 지향해온 입장이다.

여기에는 신도 없다. 진보의 필연적 도래도 없다. 성역도, 절대적 금기도, 도덕적 우월감도 없다. 그러나 수천~수만 년의 데이터는 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방대하고, 가장 오래된, 가장 현실적인 증거다. 아무리 세련된 이념으로 포장해도, 그 데이터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관념론자가 된다.

이 현실주의는 좌우익 종교인 모두에게 불편하다.

하지만 바로 이 불편함이 이 입장의 가치다.

신도 없고, 구원도 없고, 역사의 종착역도 없다. 다만 차가운 데이터와 현실의 선택압만이 있을 뿐이다.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가능한 최선의 항로를 찾는 것. 그것이 종교라는 유전병을 앓고 있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 가장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

다음 편에서는 문명은 우로보로스(Ouroboros)처럼 자신을 포식하며 재생하며 순환의 끝에서 냉혹한 현실주의만이 남는다는 것을 파헤쳐볼 예정이다.

- 참고 문헌 -

, Mencius Moldbug • OCTOBER 4, 2007 링크: [https://www.unqualified-reservations.org/2007/10/how-dawkins-got-pwned-part-2/]

, 19 March, 2012 by Nick Land 보관된 링크: [https://web.archive.org/web/20120723151556/http://www.thatsmags.com/shanghai/article/1920/the-dark-enlightenment-part-3]

제14편

우로보로스: 문명의 수렴진화, 전쟁의 순환, 그리고 냉혹한 현실주의

우로보로스: 문명의 수렴진화, 전쟁의 순환, 그리고 냉혹한 현실주의

1. 종교 비판에서 문명론으로

1편부터 13편까지 이 에세이 시리즈는 종교라는 시스템을 철저히 해부했다. 결론은 단 하나였다. 종교는 인간이 대규모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창조한 인공 보철물이며, 그 보철물이 원래 메우려 했던 틈새보다 더 깊고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를 걷어내고 난 뒤, 무엇이 남는가. 신도 없고, 진보도 없고, 어떤 성역도 허락되지 않는 자리에서 인류 문명을 직시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이 14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 종교 비판에서 출발해 문명론으로 확장한다. 그리고 그 문명론이 도달하는 결론은 — 종교 비판의 결론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불편하고

냉혹하다.

2. 수렴진화: 기술 - 자본이라는 엔진

매우 초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인류 문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으로 서서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이 수렴진화하고 있다. 완전한 단일 극점에 아직 도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서로 다른 문명적 DNA가 충돌하고 융합하며 다극적으로 발산하는 듯한 긴장과 혼돈을 거듭한 끝에, 결국 하나의 중심을 향해 수렴해 가는 과정이다. 동양은 서양의 급진적 혁신, 개인주의적 창의성, 단기적 효율과 시장의 날카로움을 탐닉하고, 서양은 동양의 집단적 통제, 장기적 전략적 인내,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깊은 복종과 조화를 부러워하며,서로를 증오하면서도 닮아가는 기이한 대칭이 지속되고 있다.

이 수렴을 가속시키는 핵심 엔진이자 연료는 다름 아닌 기술 - 자본(techno - capital)이다. 기술과 자본은 이미 분리 불가능한 복합체가 되었다. 기술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가 다시 자본을 증식시키며, 증식된 자본이 더 강력한 기술을 요구하는 자기강화 루프. 이것이 현대 문명의 실질적인 원동력이다.

초기 인류에게 기술 발전은 순수한 생존의 문제였다. 맹수, 기아, 질병, 혹한 앞에서 불을 피우고, 창을 만들고, 작물을 재배하고, 바퀴를 발명하는 행위 자체가 인본주의적 희망과 일치했다. 기술은 인간을 더 자유롭게 하고, 더 오래 살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명이 복잡해지고 국가와 관료제가 거대해지면서 상황은 근본적으로 뒤틀렸다. 이제 기술 발전은 종종 도덕적・정치적 명분에 의해 지연되거나 왜곡된다.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원전 건설을 막고, 형평성을 외치며 혁신의 인센티브를 약화시키고, 다양한 정체성을 보호한다는 구호 아래 사회 전체의 동적 효율을 갉아먹는다. 생산성을 높여 국가의 파이를 키우는 엔지니어와 기업가보다, 파이의 재분배를 관리하며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관료, 정치인, 활동가, 미디어 계층이 더 많은 자원을 빨아들이는 구조가 공고해졌다.

기술 - 자본은 국경과 문명권의 경계를 무자비하게 녹인다. 신자유주의적 글로벌리즘은 그 물질적 기반일 뿐, 진짜 힘은 기술과 자본의 자체 증식 논리에 있다. 네이션(nation) 단위의 순혈주의는 더 이상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정학적 위치와 문화적 관성에 따라 저항의 강도는 다르지만, 결국 기술 - 자본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더 클래시(The Clash)의 「Rock the Casbah」(1982)라는 노래에서는 이 현상을 날카롭게 예감한 것처럼 보인다.

Now the king told the boogie men - 왕이 부기맨(춤추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You have to let that raga drop - “그 라가(인도풍 음악)를 그만둬라”

The oil down the desert way - 사막 쪽의 석유가

Has been shaken to the top" - 위로 흔들려 올라왔다

The Sheikh, he drove his Cadillac - 셰이크는 캐딜락을 몰고

He went a-cruising down the ville - 마을을 유유히 드라이브했다

The Muezzin was a-standing on the radiator grille - 무아진은 자동차 라디에이터 그릴 위에 서 있었다

Sharif don't like it (샤리프는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Rocking the Casbah, rock the Casbah (카스바를 흔드는 것, 카스바를 흔들어라)

사막의 석유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신정 지도자들이 금지하는 서구 문화가 캐딜락과 함께 스며들며, 무아진(이슬람 사원(모스크)의 미나렛(첨탑)에서 하루 5번 무슬림들에게 기도 시간(Adhan)을 알리는 사람)이 라디에이터 그릴 위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 이것은 단순한 풍자가 아니라, 기술-자본이 문명적 순혈을 해체하는 물질적 현실을 상징한다. 셰이크(부족의 원로, 수장, 숭배하는 현인, 이슬람 지식인을 의미하는 아랍어 단어)가 캐딜락을 몰고, 이슬람주의자조차 스마트폰으로 서구 콘텐츠를 소비하는 오늘날, 그 예언은 이미 일상화되었다.

물론 수렴은 매끄럽지 않다. 중국은 서구 기술을 받아들이면서도 당의 통제 아래 디지털 권위주의라는 독자적 변종을 만들어냈고, 서구는 기술 봉건제와 워키즘(Wokeism) 문화가 기이하게 결합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슬람권 역시 석유 자본과 스마트폰, SNS를 통해 외부 문명을 흡수하면서도 샤리아의 일부를 유지하려 애쓴다. 그러나 이러한 하이브리드 시도들조차 장기적으로는 기술-자본의 논리 — 효율, 확장, 연결, 최적화 — 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기술-자본은 문명의 경계를 녹이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긴장과 경쟁을 끊임없이 생산한다.

이것이 초장기적 수렴의 본질이다. 완벽한 일치가 아니라, 충돌과 흡수, 저항과 순응이 뒤엉킨 불편한 동거. 그리고 그 과정의 속도와 규모는 과거 어떤 제국 순환보다 압도적으로 거대해졌다.

3. 순혈주의의 불가능성: 좀비국가로의 퇴행

그렇다면 순혈주의를 진정으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명확하다. 타 문명권과의 극단적인 물리적 • 정신적 • 경제적 • 디지털 고립뿐이다. 단순한 보호무역이나 문화적 배타주의가 아니라, 공항과 항구를 폐쇄하고, 해외 무역을 원천 차단하고, 인터넷을 인트라넷으로 전환하며, 외부인 출입은 물론 자국민의 출국까지 극단적으로 봉쇄하는 수준의 쇄국이어야 한다. 조선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현대 기술 시대에 맞춰 업그레이드한, 실질적인 디지털 • 물리적 철의 장막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고립의 결과는 필연적인 퇴행이다. 내부는 좀비국가의 모습을 띠게 된다. 기술 - 자본의 흐름을 차단한 채 순혈의 순수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공동체 — 그것이 아미쉬 공동체이든, 북한이든, 탈레반 통치 하의 아프가니스탄이든 — 공통적으로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극도로 희생시킨다. 의료, 영양, 교육, 기대수명, 기술적 역량 모든 면에서 외부 세계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순혈주의의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 있다. “ 우리 문명을 지키겠다 ” 는 고귀한 명분으로, 정작 그 문명을 경직시키고 화석화하며 결국 죽이는 길을 택한다는 점이다. 살아있는 문명은 변화와 혼합, 외부 자극에 대한 선택적 흡수를 통해 진화한다. 변화를 거부하고 순수성을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문명은 박물관의 전시물이 되거나, 역사 속으로 소멸할 뿐이다.

순혈주의, 즉 극단적 고립주의를 실현하려면 단순한 국경 강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파괴가 뒤따라야 한다. 모든 국제 공항과 주요 항구를 폐쇄하거나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비행기와 선박 제조 능력을 해체하며, 해외에 나간 기업과 자산을 철수시키고, 사이버 공간에서는 해외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한 채 국가 인트라넷만 허용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으로부터의 완전 단절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치는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현대 산업 사회의 붕괴를 의미한다. 희토류, 반도체 소재, 정밀 기계, 첨단 의약품 등 핵심 요소의 수입이 끊기면, 스마트폰 하나, MRI 기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사회로 후퇴한다.

북한은 이 실험의 살아있는 표본이다. 극단적 고립과 주체사상의 순혈주의가 결합된 결과, 인구의 상당수가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기술 수준은 수십 년 뒤처지며, 엘리트층조차 외부 세계의 정보를 극도로 제한된 채 소비한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역시 중세적 규범 강요로 사회 전체의 역량을 갉아먹고 있다. 아미쉬 공동체는 규모가 작고 자발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지되지만, 국가 규모로 확대하면 치명적이다.

물론 문명권 간 융합의 비율과 강도는 지정학적 위치, 자원 보유량, 인구 규모, 문화적 관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그 누구도 만능의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나마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문명권에 속한 인접 국가들의 대전략 시행착오 역사뿐이다. 그러나 자연 — 즉 냉혹한 지정학적 생존경쟁 — 은 문명 스스로를 해치는 방향의 하이브리드 실험,

혹은 과도한 순혈 실험을 가차 없이 탈락시킨다. 기술 - 자본의 흐름을 완전히 거스르려는 시도는 결국 내부 구성원들의 삶을 좀비처럼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국가 자체의 생존 가능성을 갉아먹는다.

순혈주의는 아름다운 환상일 뿐,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문명을 지키려다 문명을 죽이는, 자기모순적인 퇴행의 길이다.

4. 기생충 계층과 좀비국가: 문명 복잡화의 역설

문명이 발달할수록, 역설적으로 기생이 가능한 공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수렵채집 시대의 소규모 부족 사회에서는 기생이 거의 불가능했다. 매일 직접 사냥하고 채집하지 않으면 다음 날 굶주림이 찾아왔다. 잉여 생산물이 거의 없었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생산에 직접 참여해야 생존이 가능했다. 그러나 농업혁명 이후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고, 국가가 그 잉여를 체계적으로 수탈 • 재분배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관료제가 등장해 재분배의 흐름을 관리하게 되자, 생산 행위 없이도 그 흐름 위에 올라타서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는 구조적 틈새가 생겨난 것이다.

이 기생 공간은 시간이 갈수록 더 정교하고, 더 넓고, 더 안전해진다. 단순한 세금 징수원에서 시작해 전문 관료, 법률가, 학자, 비영리 활동가, 미디어 종사자, 규제 산업 로비스트, 금융 중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한다. 특히 현대 복잡 사회에서는 지대추구(rent - seeking) 행위가 가장 강력한 기생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았다. 규제를 만들어 경쟁자를 막고, 기존 이해관계를 보호하며, 정치적 • 도덕적 명분으로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기술이다.

도덕적 명분은 이 기생의 가장 세련되고 강력한 형태다. " 약자를 보호한다 " , " 평등을 실현한다 " , " 다양성을 존중한다 " , "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 는 등의 고귀한 구호 아래서 실제로는 생산 활동을 방해하고, 자원을 재분배하며, 자신들의 지위와 급여를 공고히 하는 계층이 출현한다. 이것이 바로 커티스 야빈(Curtis Yarvin, Mencius Moldbug)이 《도킨스는 어떻게 몰락했는가 제 2부(How Dawkins Got Pwned, Chapter 2)》(2007)에서 지적한 기생적(parasitic) 전통의 가장 순수한 인간적 구현체다. 개인적으로는 극히 합리적이고 유리한 전략이지만, 집단적으로는 문명의 동역학을 서서히 좀먹는 치명적인 메커니즘이다.

기생충 계층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국가는 본격적인 좀비국가로 전환된다. 생산자가 소비자를 부양하는 자연스러운 구조가 완전히 역전된다. 이제 소수의 생산자와 혁신자들이 거대한 소비자와 기생 계층을 떠받쳐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 기술 - 자본의 혜택 — 스마트폰, 의료, 교통, 에너지 — 은 누리면서도 그 기술과 자본을 유지 • 발전시키는 데

거의 공헌하지 않는 무임승차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관료제는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더 많은 규제를 만들고, 그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 더 많은 관료를 고용하며, 그 관료를 먹여 살리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한다. (파킨슨의 법칙이 극단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이다.)

현대 진보주의 복지국가는 이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복지 지출이 GDP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규제 준수 비용이 기업의 생산성을 갉아먹으며, 대학과 미디어, 비정부기구가 도덕적 우위를 무기로 삼아 실질적인 기득권을 형성한다. 금융화된 경제에서는 실제 가치 창출과 동떨어진 투기·중개·레버리지 행위가 또 다른 형태의 기생을 낳는다.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은 가장 노골적인 사례다. 규제를 만들어야 할 기관이 오히려 규제 대상 산업과 유착해 경쟁을 막고 초과이윤을 보장받는 구조.

이 역설이 문명 복잡화의 핵심이다. 문명이 정교해질수록 관리와 재분배를 위한 시스템이 커지고, 그 시스템 자체가 거대한 기생 기구로 변모한다. 초기에는 문명의 윤활유였던 것이, 어느 순간 문명의 엔진을 갉아먹는 기생충이 된다. 생산자의 피로와 절망이 쌓이고, 혁신의 인센티브가 약화되며, 기술-자본의 가속력마저 둔화된다.

이것이 좀비국가의 본질이다.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는 듯 움직이는 시체. 혈액(자본과 생산력)은 계속 순환하지만,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썩은 기생 조직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5. 카진스키 vs 랜드: 두 극단의 불가능성

이 좀비국가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려면, 결국 두 가지 극단적인 처방만이 남는다.

하나는 시어도어 카진스키(Theodore Kaczynski) 식이다. 《산업사회와 그 미래(Unabomber Manifesto)》에서 그는 기술-자본 체계 자체를 인간 자유와 자율성의 근본적 적으로 규정했다. 그의 해법은 명확하다. 기술-자본의 혜택만 누리면서 공헌은 하지 않는 거대한 무임승차 계층을 굶주리게 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기술 문명의 수준을 극단적으로 다운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전 수준으로, 혹은 그보다 더 원시적인 농경·수공업 사회로 강제 회귀시킨다. 기술-자본이 사라지면 기생충들은 더 이상 복잡한 관료제, 복지 시스템, 규제 산업 위에서 살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기생충과 함께 숙주까지 죽이는 자살적 처방이다. 현대 문명이 부양하고 있는 80억 명에 가까운 인구를, 기술 이전 수준의 농업 생산력만으로 감당할 수는 없다. 기아, 질병, 사회 붕괴를 통해 수십억 명의 대량 사망을 전제로 한 처방이다. 카진스키가 폭탄을 보내 사회를 깨우치려 했던 것처럼, 그의 사상은 문명의 자해를 미화하는 극단적 반기술주의의 결정판이다. 실현된다면 인류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자연은

대부분의 현대인을 받아줄 만큼 관대하지 않다.

다른 하나는 닉 랜드(Nick Land) 식 가속주의(Accelerationism)다. 《암흑계몽주의(The Dark Enlightenment)》과 그의 여러 글에서 랜드는 카진스키와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한다. 기술 - 자본의 힘을 극단적으로 가속시켜라. 자본과 지능의 폭발적 증식을 막지 말고, 오히려 모든 제동장치를 해체하라. 기술 - 자본은 정체된 상태에서만 기생할 수 있는 관료・정치인・도덕적 기업가・워키즘 활동가 같은 계층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가속이 충분히 강력해지면, 비효율적이고 기생적인 모든 구조는 시장과 혁신의 불길 속에서 증발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여기에도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가속은 인간의 의도와 통제를 벗어나 작동한다. 기술 - 자본이라는 자율적 프로세스는 기생충을 태우는 동시에, 인간 문명 자체를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형시킬 가능성이 크다. 초지능 AI, 완전 자율 자본, 생물학적・디지털적 융합, 인간성의 해체 — 랜드가 환영하는 그 ' 미래 ' 는 인류가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 지배하는 세계일 수 있다. 메스를 빨고 랜드가 되는 것은, 결국 인간이라는 숙주를 제물로 바치는 가속의 제의(祭儀)다.

원시의 숲으로 도망쳐 폭탄을 만들거나, 기솔가속주의의 본산지인 상하이(上海) 안으로 뛰어들거나. 아니, 반기술주의의 원시적 퇴행을 외치거나, 가속주의의 초월적 파국을 환영하거나. 둘 다 극약처방이며, 처방을 내리는 의사 자신도 그 과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카진스키는 기술을 죽여 문명을 죽이고, 랜드는 기술을 매우 빠르게 달리게 만들어 문명을 알아볼 수 없는 것으로 바꿔버린다. 둘 다 현재의 좀비국가를 끝장내지만, 그 끝이 인류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한쪽은 대량 학살적 퇴행이고, 다른 한쪽은 포스트휴머니즘적 소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 극단 사이의 좁고 불편한 지대에 서 있어야 한다. 두 극단 모두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을 버텨내야 한다. 좀비국가의 기생충을 조금씩 도려내면서도 기술 - 자본의 가속을 완전히 멈추지 않고, 문명의 완전한 붕괴와 완전한 초월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는 것. 이것은 쾌적한 해결책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세이 시리즈 전체가 지향해온 " 대안 없는 비판의 정직함 " 이다. 위안을 주지 않고, 유토피아를 약속하지 않으며, 다만 냉혹한 구조를 직시하게 하는 태도. 우리는 그 불편한 진실 위에 서서, 가능한 한 파국을 지연시키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실용적 현실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다.

6. 우로보로스: 소국에서 제국으로, 제국에서 소국으로

인류 문명사를 초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거대한 패턴이 끝없이 반복된다. 그것은 파괴와 재생, 분열과 통합, 소국에서 제국으로, 다시 제국에서 소국으로 이어지는 순환이다.

소규모 국가와 부족들이 지정학이라는 끝없는 게임이론 실험장에서 서로를 경계하며 살아간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안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들은 포식 충동을 억누르지 못한다. 약한 자를 집어삼키고, 강한 자와는 일시적 동맹을 맺으며 생존을 도모한다. 혼돈이 깊어질수록 기성 리버럴리즘의 도덕적 제약을 벗어던진 냉혹한 현실주의자들이 득세한다. 그들은 이상보다 생존과 권력을 우선시한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제2의 시황제, 제2의 칭기즈 칸(테무진), 제2의 알렉산드로스 대왕, 제2의 나폴레옹, 제2의 오토 폰 비스마르크 같은 인물이 나타난다. 이들은 소국들을 피와 철로 정복하며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세운다. 로마, 몽골, 마케도니아, 프랑스 제국, 독일 제국,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 형태는 달라도 구조는 동일하다.

제국이 패권을 장악하면 일시적인 평화와 번영이 찾아온다. 그러나 내부에서 분열과 부패, 기생충 계층의 팽창, 엘리트 간의 권력 투쟁이 시작된다. 과도한 확장으로 인한 관리 비용 증가, 주변 세력의 도전, 내부의 퇴폐가 누적되면서 제국은 쇠락한다. 결국 제국은 쪼개지고, 다시 소국들의 난립 시대로 돌아간다. 그리고 새로운 포식의 시대가 열린다. 이 순환은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왔다.

문명은 우로보로스(Uroboros) 그 자체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에서 유래한,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상징. 우로보로스는 영원한 순환, 자기파괴를 통한 재생, 죽음과 탄생의 불가분성을 나타낸다. 뱀은 자신의 몸을 갉아먹으며 살아가고, 먹힌 부분에서 새로운 살이 돋아난다. 문명 역시 마찬가지다. 제국이라는 거대한 몸체를 키우기 위해 소국들을 삼키고, 그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부패하고 분열되어 스스로를 해체한다. 해체된 잔해 위에서 다시 새로운 소국들이 싹트고, 그 소국들은 다시 제국을 향해 포식의 길을 걷는다. 자기포식(self - cannibalism)을 통해 재생하는, 잔인하면서도 생명력 넘치는 존재. 우로보로스의 눈은 차갑고, 그 순환은 무자비하다. 멈추지 않으며, 멈출 수도 없다.

이 순환을 멈출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소국들은 영원히 분산된 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내가 국방력을 강화하면 상대는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고 더 강력한 군비를 확장한다. 내가 뭉치지 않으면 상대가 먼저 뭉쳐 나를 집어삼킬 것이다. 따라서 모든 행위자는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동맹을 맺고, 군비를 증강하고, 기회를 포착해 선제 공격을 고려한다. 그러나 그 합리적 선택들의 총합은 집단적 파국으로 향한다. 이것은 바로 죄수의 딜레마가 문명사적 스케일로 확대된 형태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다 보면, 모두가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는 구조. 역사상 어떤 이상주의적 국제기구도, 어떤 도덕적 선언도 이 구조를

해체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우로보로스 순환은 종교, 이념과 깊이 공생한다.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심가들은 결코 " 나는 권력을 원한다 " 고 솔직히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드시 고귀한 명분을 필요로 한다. 천명(天命)을 받은 황제, 알라의 성전(지하드)을 수행하는 칼리프, 백인의 짐을 지고 문명화 사명을 다하는 제국주의자, 역사의 필연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끄는 전위대(vanguard), 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전파하는 현대 서구 민주주의 국가 — 형태는 시대마다 다르지만 구조는 동일하다.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집단적 신념 체계(종교든 세속 이념이든)가 정복과 학살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해준다.

종교와 제국은 완벽한 공생 관계다. 종교는 제국에 신성한 명분과 대중의 충성심을 제공하고, 제국은 종교에 강제력과 영토, 자원을 제공한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 이슬람 제국들이 칼리프의 이름으로 확장한 것, 유럽 제국주의가 기독교 선교를 앞세운 것, 현대 중국이 ' 중화민족 부흥 ' 이라는 준종교적 서사를 동원하는 것 — 모두 같은 메커니즘이다.

우로보로스는 자신의 꼬리를 물고 돌고 돈다. 문명은 스스로를 먹어치우며 재생한다. 이 순환을 초월하겠다는 모든 시도는 지금까지 실패했다. 오히려 그 시도들 — 종교든, 이념이든 — 이 순환의 연료가 되어왔다.

7.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 무리동물로서의 인간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멈추겠다는 도덕적 외침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쟁을 실질적으로 막지 못했다. 오히려 때로는 그 도덕 자체가 새로운 전쟁의 명분이 되어 더 큰 피를 불렀다.

인간은 다른 동물을 사육하면서도 그 본성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 개미와 벌의 초조직적 협력, 늑대와 사자의 위계 질서, 침팬지의 잔인한 영역 전쟁, 보노보의 성적 평화 유지 전략까지 — 인간은 수많은 무리동물을 관찰하고 길들여왔다. 그러나 그 어떤 종도 인간처럼 복잡한 문명을 만들어낸 적은 없다. 하물며 수십만 년, 아니 수백만 년에 걸쳐 무리동물로서의 적응을 거듭해온 인간이, 스스로가 구축한 문명 속에서 전쟁을 영원히 멈춘다는 것은 얼마나 허황된 꿈인가.

13편에서 이미 다루었듯이, 인간은 진화적 스펙트럼에서 매우 어중간한 위치에 놓여 있다. 벌이나 개미처럼 공동체 행동이 DNA에 완전히 하드코딩되어 있지도 않고, 호랑이나 표범처럼 독립성 종(solitary species)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어중간함이 문제의 핵심이다. 협력과 경쟁, 이기심과 이타심, 충성심과 배신이 불안정하게 공존하는 상태. 이 불안정한 균형이 바로 영역 다툼, 부족 간 충돌, 국가 간 전쟁을 끊임없이 생산한다.

벌은 다른 벌집을 “ 이단 ” 이라는 종교적 명분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한다. 그리고 그 고귀한 명분은, 전쟁을 막아야 할 내적 제동장치를 해체하고 오히려 폭력을 증폭시킨다.

전쟁을 진정으로 “ 멈추는 ” 방법은 이론적으로 단 두 가지뿐이다.

첫째, 무리동물로서의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 심리적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찢어발기고, 전혀 다른 존재로 인위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공격성, 부족주의, 영토 본능, 지위 경쟁 욕구 등을 유전자 편집, 뇌 - 기계 인터페이스, 신경정신약리학(Neuropsychopharmacology), 혹은 기계에 인간의 의식을 업로드하는 작업 등을 통해 제거하거나 새롭게 프로그래밍한다. 평화주의적 프로토콜에 따라 완전히 재코드화(Recoding)된 신인류(新人類)가 되는 길, 즉 극단적 트랜스휴머니즘의 방향이다. 그러나 그렇게 탄생한 존재가 과연 ‘ 인간 ’ 이라고 불릴 수 있을지는 심각한 의문이다. 우리가 아는 인간성은 바로 그 불완전하고 폭력적인 무리동물적 특성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외부에서 인류를 일거에 제거하는 것이다. 대규모 천재지변, 운석 충돌, 혹은 인공적으로 만든 전지구적 재앙. 이것은 해결이 아니라 단순한 제거, 멸종이다. 문제의 근원을 없애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은 결코 아니다.

그 외의 모든 시도 — 국제연합, 핵무기 억지력,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 경제적 상호의존, 글로벌 거버넌스, 인권 선언 등 — 은 전쟁의 빈도와 형태를 바꾸었을 뿐, 전쟁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다. 20세기에는 두 번의 세계대전과 수많은 지역전쟁이 있었고, 21세기 들어서도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해협,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문명은 더 정교해졌지만, 인간 본성의 근본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종교 비판과 깊이 연결되는 지점이다. 종교가 전쟁의 근본 원인이 아니다. 전쟁은 무리동물로서의 인간 본성에 이미 내장되어 있었다. 종교(그리고 그 세속적 후계자들인 이념)는 그 전쟁의 규모와 잔혹함, 조직성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는 강력한 증폭기 역할을 했을 뿐이다. 십자군 전쟁, 이슬람 정복 전쟁, 종교개혁 전쟁, 심지어 세속 이념으로 포장된 세계대전까지 — 종교가 없었다면 전쟁은 여전히 존재했을 것이다. 다만 그 규모와 광기, 지속 기간이 지금보다 작고 덜 체계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인간은 평화를 갈망하면서도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모순된 존재다. 우로보로스 순환의 한 축이 바로 이 전쟁의 메커니즘이다. 제국이 탄생하고 쇠퇴하는 과정에서, 소국이 서로를 삼키는 과정에서, 전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동력으로 작동한다.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다.

8. 메스트르가 목격한 제단: 유물론과 신학의 수렴

조제프 드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는 카톨릭 반동주의 사상가이자, 프랑스 혁명의 피비린내 나는 혼란을 목격한 사람이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화: 섭리의 세속적 통치에 관한 담론(Les Soiré es de Saint - P é tersbourg)》에서 자연과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충격적일 만큼 잔혹한 통찰을 남겼다.

> "살아 있는 자연의 광대한 영역 전체에는 노골적인 폭력, 마치 모든 생물을 공통의 파멸로 몰아가는 어떤 선험적 격정이 지배하고 있다. 무생물의 왕국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폭력적 죽음의 섭리는 생명의 경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
> 그 징후는 이미 식물의 세계에서도 느껴진다. 거대한 카탈파나무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식물들이 죽으며 또 얼마나 많은 식물들이 고의로 죽임을 당하는가. 그러나 일단 동물의 세계에 들어서는 순간, 이 법칙은 가장 끔찍한 형태로 눈앞에 드러난다.
>
> 숨겨져 있으면서도 동시에 만져질 듯 분명한 어떤 폭력의 힘이 각 종(種)마다 다른 동물을 잡아먹도록 예정해 두었다. 그래서 포식성 곤충이 있고, 포식성 파충류가 있으며, 맹금류가 있고, 육식성 어류가 있으며, 포유류 중에도 포식자가 있다. 단 한순간도 어떤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때가 없다.
>
> 이 셀 수 없이 많은 동물 종들 위에 인간이 놓여 있으며, 그의 파괴적인 손길은 살아 있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그는 먹기 위해 죽이고, 입기 위해 죽인다. 치장하기 위해 죽이고, 공격하기 위해 죽이며, 방어하기 위해서도 죽인다. 그는 배우기 위해 죽이고, 즐기기 위해서도 죽인다. 그는 죽이기 위해 죽인다.
>
> 거만하고도 무시무시한 왕인 그는 모든 것을 원하며, 그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어린양의 내장을 찢어 그 창자로 자신의 하프를 울려대게 하고… 늑대로부터는 가장 치명적인 송곳니를 뽑아 자신의 고운 공예품을 다듬는다. 코끼리에게서는 상아를 빼앗아 자기 아이의 장난감을 만든다. 그의 식탁은 시체들로 뒤덮여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죽이는 그를 누가 죽일 것인가? 그 자신이다. 인간은 인간을 도살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살아 있는 피조물들의 폭력적 파괴라는 최초의 법칙이.
>
> 영원히 피에 잠긴 온 땅은 끝없는 희생이 바쳐지는 거대한 제단일 뿐이다. 거기에서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끝도, 한도, 멈춤도 없이 바쳐져야만 한다. 만물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악이 소멸되기까지, 죽음이 죽을 때까지."

- 조제프 드 메스트르,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화: 섭리의 세속적 통치에 관한 담론(Les Soir é es de Saint - P é tersbourg ou Entretiens sur le gouvernement temporel de la Providence)》, 1821.

메스트르는 가톨릭 신학, 특히 섭리와 원죄, 희생과 구원의 전통 속에서 이 처절한 결론에 도달했다. 폭력과 희생, 피와 죽음은 그에게 우주의 근본 질서이자 신의 숨겨진 섭리였다.

이 에세이 시리즈는 정반대의 경로, 즉 진화론적 유물론과 냉혹한 생물학적 현실주의에서 출발해 같은 풍경에 도달한다. 신학과 유물론이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동일한 지옥 같은 광경을 목격하는 이 아이러니는, 생각할수록 섬뜩하다.

메스트르에게 이 잔혹함은 신의 의지이자 섭리의 일부였다. 폭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였다. 필자의 에세이에서 이 잔혹함은 진화의 필연적 산물이다. 무리동물로서 수백만 년 동안 생존경쟁을 거쳐온 인간이, 그리고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명이 필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과다. 설명의 원인은 완전히 다르지만, 현상 자체에 대한 묘사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온 땅은 끝없는 희생이 바쳐지는 거대한 제단이라는 점에서.

“ 인신공양으로서의 역사 ” — 종교의 이름으로, 이념의 이름으로 수억 명이 제물로 바쳐진 역사 — 역시 이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이다. 종교적 전쟁, 성전, 십자군, 이단 심판, 혁명 재판, 대숙청, 현대의 테러와 보복 전쟁까지. 인간은 언제나 서로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이댔다. 명분만 바뀔 뿐, 행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종교가 없더라도 인간은 다른 명분으로 같은 일을 계속해왔다. 국가, 민족, 계급, 인종, 이념, 자원, 심지어 “ 인권 ” 과 “ 민주주의 ” 라는 현대의 신성한 가치조차도 제단 위에 새로운 제물을 요구한다. 메스트르가 본 제단은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는 그 위에 서 있다.

신학자와 유물론자가 마주친 이 공통의 풍경은, 어떤 위로도 주지 않는다. 다만 냉혹한 직시만을 강요할 뿐이다.

9. 문명의 수렴과 인신공양: 단일 극점을 향한 제단

결국 인류 문명의 수렴진화 그 자체가,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끊임없는 인신공양의 제단이다.

문명이 단일 극점을 향해 수렴해 가는 과정은 결코 평화롭거나 필연적으로 아름다운 진보가 아니다. 그것은 길고 지루하며, 피로 물든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수천 년에 걸쳐 국가들은 찢겨나가고 합쳐지며, 제국들은 일어섰다 쓰러졌다. 그 과정에서 수억 명이 죽었고, 수십억 명의 삶이 강제로 재편되었다. 기술 - 자본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혁신의 물결은 이전 세대의 삶을 잔인하게 쓸어갔다. 농민은 공장에, 공장 노동자는 실업자로, 실업자는 새로운 플랫폼 경제의 초단기 근로자(gig worker)로, 그리고 다시 AI와 자동화의 여파로 또 다른 불확실성 속으로 내몰린다.

문명권 간의 융합 역시 마찬가지다.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흡수할 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언어, 신앙, 관습, 세계관이 서서히, 혹은 폭력적으로 소멸한다. 조선의 성리학 질서가 일본 제국주의와 서구 근대성에 밀려났고(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 내부의 모순으로 무너지고), 아즈텍의 신전은 스페인 기독교와 총포 앞에 무너졌으며, 오늘날에도 전통 이슬람 사회는 글로벌 자본과 디지털 문화의 침투 앞에서 서서히 해체되고 있다. 강한 문명은 약한 문명을 삼키고, 그 삼켜진 것의 잔해 위에 새로운 하이브리드가 피어난다. 이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수많은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 체계다.

인간들은 이 거대한 수렴의 제단 위에서 서로를, 그리고 자신들을 바친다. 칼과 총으로 서로를 죽이고, 경제적 파괴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문화적 동화로 영혼을 말살당한다. 명분은 시대마다 화려하게 바뀐다. 고대에는 신의 이름으로, 중세에는 천명과 성전으로, 근대에는 민족과 진보, 계급투쟁으로, 현대에는 기술 - 자본의 필연적 진화, 글로벌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발전,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구조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누군가는 제물이 되고, 누군가는 제사장이 되며, 문명이라는 우로보로스는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갉아먹는다.

이 순환은 지금까지 어떤 이념도, 어떤 도덕도, 어떤 종교도 막아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순환의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되어왔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이슬람은 아랍 제국을, 공산주의는 소련과 중국의 팽창을, 자유주의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질서를 정당화하는 데 동원되었다. 오늘날 워키즘 이념이든, 민족주의든, 기술 낙관주의든,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제단 위에 새로운 제물을 요구한다. 평화를 외치며 전쟁을 준비하고, 인권을 외치며 규제를 통해 생산자를 짓누르고, 진보를 외치며 전통을 파괴한다.

이것은 냉혹한 결론이다. 그러나 정직한 결론이기도 하다.

문명의 수렴은 필연적으로 보이지만, 그 길은 결코 향기로운 꽃밭이 아니라 피와 잔해로 뒤덮인 길이다. 우리는 그 제단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누가 그 위에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제단이 언제까지 작동할 것인지를 직시할 수밖에 없다. 어떤 위대한 서사도, 어떤 도덕적 환상도 이 제단의 작동을 멈추지 못한다. 다만 우리는 그 위에서 조금이라도 덜 바쳐지기 위해, 혹은 바쳐지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냉정한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뿐이다.

10. 냉혹한 현실주의만이 남는다

그렇다면, 종교를 해체하고 문명의 구조를 끝까지 파헤친 뒤에 무엇이 남는가.

낭만주의는 없다. 민족의 영광, 문명의 고귀한 사명, 역사의 필연적 진보, 인류의 밝은 미래 같은 서사들은 모두 우로보로스의 순환을 가속시키고, 제단 위에 더 많은 제물을 바치기 위한 아름다운 거짓말이었을 뿐이다. 허무주의 역시 답이 아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깨달음은 지적 쾌감은 줄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살아가고 결정해야 하는 인간에게는 아무런 행동 지침도 되지 못한다. 무기력한 방관이나 자조적 체념으로 전락할 뿐이다.

남는 것은 오직 냉혹한 현실주의뿐이다.

문명은 수렴한다 —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수렴의 방향과 속도를, 가능한 한 파국적이지 않은 형태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기생충 계층은 필연적으로 생겨난다 — 그렇다면 그들이 문명의 생산 동력을 갉아먹기 전에, 임계점을 어떻게 감지하고 통제할 것인가.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 — 그렇다면 전쟁의 빈도와 규모, 그리고 그로 인한 파괴의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우로보로스 순환은 반복된다 — 그렇다면 그 순환의 주기를 길게 늘이고, 진폭을 줄여 문명이 스스로를 너무 빨리, 너무 처참하게 먹어치우는 일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이 질문들은 유토피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어떤 영원한 평화도, 완전한 정의도, 최종적인 구원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파국을 지연시키고, 희생의 비용을 줄이며, 조금이라도 더 오래,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버티는 것에 관한 실용적이고 냉정한 질문들이다.

이런 현실주의를 실천하려면 도덕적 명분이나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현실의 구조를 직시하는 냉철한 시선이 필요하다. 기술-자본의 자기강화 루프를 이해하고, 안보 딜레마와 죄수의 딜레마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인정하며, 인간이 무리동물이라는 진화적 조건을 받아들이고, 기생적 전통이 어떻게 국가를 좀비로 만드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 땅이 끝없는 희생의 제단이라는 메스트르의 통찰을 유물론적 시각에서 다시 마주해야 한다.

이 에세이 시리즈 전체는 바로 그 직시의 시도였다.

1편부터 13편까지 종교를 철저히 해부하고, 그 세속화된 변종인 진보주의를 해체했으며, 전통을 진화론적 빅데이터로 재해석하고, 문명의 순환을 우로보로스로 읽어냈다. 우리는 어떤 위안도, 어떤 희망적인 대안도, 어떤 도덕적 우월감도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구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했다. 종교가 인공 보철물임을, 그 보철물이 상처를 더 키웠음을, 그리고 그 보철물을 제거한 뒤 드러난 문명의 본질이 얼마나 잔혹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질기고 집요하게 생존해 왔는지를 직시하는 것.

이 시리즈가 끝나는 지금, 독자에게 남겨지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이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 최소한의 정직함은 있다.

온 땅이 제단이라면 — 적어도 우리가 무엇 위에 서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제물로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제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고 서 있어야 한다. 환상에 취하지도, 절망에 빠지지도 않은 채, 차갑게 눈을 뜨고 현실을 마주한 사람만이, 이 제단 위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이 종교라는 이름의 바이러스에 대한, 그리고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좌우익 종교인들에게 보내는 불친절한 공개서한의 마지막 말이다.

<完>

- 참고 문헌 -

조제프 드 메스트르,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화: 섭리의 세속적 통치에 관한 담론(Les Soirées de Saint-Pétersbourg)》 — 폭력과 희생이 우주의 질서에 내재한다는 반동주의 사상가의 저서. 진화론적 유물론과 다른 경로로 같은 풍경에 도달한 텍스트.

Nick Land, "The Dark Enlightenment" 시리즈 — 가속주의적 관점에서 기술-자본이 정치적 기생충 계층을 도태시킨다는 논점의 글.

Theodore Kaczynski, "Industrial Society and Its Future (Unabomber Manifesto)" — 기술-자본의 발전이 인간 자율성을 파괴한다는 반기술주의적 논점이 담긴 저서. 가속주의의 대척점.

저자 후기

좌우익 종교인을 향한 불친절한 공개서한

다 쓰고 나서 남은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명료함이라고 답하겠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확신도, 독자에 대한 기대도, 영향력에 대한 희망도 아니다. 그냥 막연하게 떠돌던 것들이 이제 윤곽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이 에세이 시리즈를 쓰면서 여러 사상가들의 지도를 참조했다. 니체의 망치, 야빈의 성당, 랜드의 Gnon, 메스트르의 제단. 그러나 지도를 빌렸다고 해서 영토까지 빌린 것은 아니다. 이 글이 도달한 풍경은 그 지도들이 가리키는 곳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가속도 없고, 군주제 복귀도 없고, 초인도 없다. 출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출구를 약속하는 모든 서사가 또 다른 입구임을 알기 때문이다.

남는 것은 냉혹한 현실주의뿐이라고 14편에서 썼다.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나 한 가지 덧붙이자면 — 냉혹한 현실주의도 결국 "직시하는 것이 눈 감는 것보다 낫다"는 증명 불가능한 전제 위에 서 있다. 그것이 이 글의 마지막 형이상학이다.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온 땅이 제단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무엇 위에 서 있는지는 알고 서 있어야 한다.

이 글이 생전에 불티나게 읽힐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린디 효과를 믿는다면 그게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냥 사라질 수도 있다. 그것도 Gnon이 결정한다.

불친절한 서한을 끝까지 읽은 독자에게, 위로 대신 이것을 남긴다.

당신이 딛고 선 땅 아래 얼마나 많은 시체가 쌓여 있는지 이제는 알 것이다. 그 시체들이 남긴 유언을 잊지 마라.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되고 가장 현실적인 데이터다.

— **암흑망(暗黑網)**

이 책은 화해를 위해 쓰이지 않았다.

좌우익 모두를 향한
냉소와 비판,
그리고 이 시대의
정치·종교·지성에 대한
불편한 기록.

———

— 암흑망(暗黑網)